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

2021. 02. 26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제 출 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대표 귀하

본 연구물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영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주)문화디자인자리 대표 최혜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연구에 참여한 분들

연구에 참여한 분들

주관기관

(주)문화디자인자리

책임 연구

최혜자 (주)문화디자인자리 대표

공동 연구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우수명	대림대학교 교수
최선영	유구리최실장 대표
최 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연구 보조원

이라선영	(주)문화디자인자리 사업팀장
지희석	(주)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문서현	(주)문화디자인자리 연구원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자문위원

고영직	문학비평가
고주영	PD, 연극/공연기획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장애학의도전 저자
김보람	길공방
김소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인규	예술가
김효나	밝은방 운영자
문해주	예술가
박근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찬석	예술가
손한샘	예술가
안경모	연출가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프로그램 개발 참여 기획자

김인규	예술가
김지영	예술가
서찬석	예술가
이재환	예술가

프로그램 개발 서면 자문위원

고혜실	틈사이로 창작공방 보조강사, 장애 창작자의 가족 구성원
김인경	밝은방 운영자
박누리	노들장애인야학 상근활동가
신원정	예술가
이대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홍혜전	홍댄스컴퍼니 대표

조사 보조자

김인경	밝은방 운영자(프로그램 개발 기록)
김지수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건형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성택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준호	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요약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설계	3
2. 연구과정	10
3.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4
II. 현대사회와 문화의 전환	17
1. 근대의 성찰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	19
2. 오늘날 요구되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임무	27
III.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	37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 이해	39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정립	49
IV.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61
1. 장애인 문화권 기반 정책 환경	63
2. 장애인 문화정책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접근	76
3. 포용적 예술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94
4. 해외 정책현황 및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국내외 사례	100
V.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환경과 현실	123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의 설계	125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분석	130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욕구 분석	151
4. 보호자와 매개자 공통 질문 분석	172
5.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의 시사점	188
VI.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안	195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과 목표	197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과제와 추진방안	204
VII.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방안	221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관점	223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예시	234
참고문헌	251
별책부록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녹취록	1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장 참여관찰 기록	38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지	42
4.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욕구조사지	48
5.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 통계표	54
6.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회의록	186
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서면 자문	207

표 목차

〈표 I -1〉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1
〈표 I -2〉 현장 참여관찰 진행 일정 및 활동 내용	12
〈표 I -3〉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개요	12
〈표 I -4〉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운영 개요	13
〈표 II -1〉 포용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	25
〈표 II -2〉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유	30
〈표 II -3〉 자문회의 개요	31
〈표 III -1〉 발달장애의 의학적 의미	41
〈표 III -2〉 발달장애에 대한 의미의 변화	42
〈표 III -3〉 영유아기 발달장애 시 자주 나타나는 증상	44
〈표 III -4〉 지적장애 진단	45
〈표 III -5〉 자폐성 장애 진단	46
〈표 III -6〉 장애유형별 장애인 현황	47
〈표 III -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참여관찰 개요	50
〈표 III -8〉 현장 참여관찰의 주요 관점	51
〈표 IV -1〉 문화다양성 논의 전개 과정	65
〈표 IV -2〉 장애인 문화권을 보장하는 국내 법률 및 조례	66
〈표 IV -3〉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현황	68
〈표 IV -4〉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연차별 주요 내용	69
〈표 IV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보장	71
〈표 IV -6〉 2020년 기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설치 현황	72
〈표 IV -7〉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프로그램	73
〈표 IV -8〉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프로그램 선정기관(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부분)	74
〈표 IV -9〉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의 경향성	85
〈표 IV -10〉 문화예술교육 추진전략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내용	86
〈표 IV -11〉 장애인 대상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 추진현황	87
〈표 IV -12〉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내용	89
〈표 IV -13〉 2018~2020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결과	89
〈표 IV -14〉 2018~2020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단체	90

〈표Ⅳ-15〉 영국 중앙정부 장애인 자문위원회의 건의내용	101
〈표Ⅳ-16〉 미국의 발달장애인 이사회(CDD)의 목적	102
〈표Ⅳ-17〉 프랑스 ‘문화-장애 국가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03
〈표Ⅳ-18〉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목적	105
〈표Ⅳ-19〉 해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및 제도 요약	107
〈표Ⅴ-1〉 조사 개요	126
〈표Ⅴ-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주요 내용	127
〈표Ⅴ-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욕구조사 내용	128
〈표Ⅴ-4〉 조사 대상 응답 결과	129
〈표Ⅴ-5〉 주요 변수의 신뢰도	130
〈표Ⅴ-6〉 근무기관 소재지	133
〈표Ⅴ-7〉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1순위 포함, 복수응답)	135
〈표Ⅴ-8〉 프로그램 중 발달장애인의 참여 비율	139
〈표Ⅴ-9〉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성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1순위 포함, 복수응답)	149
〈표Ⅴ-10〉 응답자의 거주지역 분포	153
〈표Ⅴ-11〉 응답자의 일상생활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 (복수응답)	155
〈표Ⅴ-12〉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1순위 포함, 복수응답)	157
〈표Ⅴ-13〉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60
〈표Ⅴ-14〉 현재 참여 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활동 장소(복수응답)	161
〈표Ⅴ-15〉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성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1순위 포함, 복수응답)	170
〈표Ⅴ-16〉 응답자별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요인	176
〈표Ⅴ-17〉 보호자 중 현재 참여 여부에 따른 긍정적 요인 비교	177
〈표Ⅴ-18〉 응답자별 문화예술교육 시 어렵거나 불편한 점	178
〈표Ⅴ-19〉 전반적인 참여수준 상관관계	182
〈표Ⅴ-20〉 긍정적 요인 상관관계	183
〈표Ⅴ-21〉 어려움 상관관계	185
〈표Ⅴ-22〉 기대효과 상관관계	186
〈표Ⅴ-2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188
〈표Ⅵ-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관점	197
〈표Ⅵ-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설계	198
〈표Ⅵ-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관련 개발 가능영역	199
〈표Ⅵ-4〉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4대 목표	203
〈표Ⅵ-5〉 정책목표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증진”의 실천과제	205

〈표Ⅵ-6〉 정책목표2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토대구축”의 실천과제	208
〈표Ⅵ-7〉 정책목표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의 실천과제	210
〈표Ⅵ-8〉 정책목표4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여건마련”의 실천과제	212
〈표Ⅵ-9〉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 로드맵	217
〈표Ⅵ-10〉 사업설계 과정 이슈1 - 주체성과 표현에 대한 담론 모색	218
〈표Ⅵ-11〉 사업설계 과정 이슈2 - 개별성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	219
〈표Ⅵ-12〉 사업설계 과정 이슈3 - 매개자의 역할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220
〈표Ⅶ-1〉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운영 개요	223
〈표Ⅶ-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설정의 배경	226
〈표Ⅶ-3〉 장애인의 보이지 않는 영역의 표현 구분	228

그림 목차

(그림Ⅰ-1) 국내 발달장애 분야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5
(그림Ⅰ-2) 연구 배경과 필요성	6
(그림Ⅰ-3) 연구의 방향	7
(그림Ⅰ-4) 연구 추진전략 1	9
(그림Ⅰ-5) 연구 추진전략 2	9
(그림Ⅰ-6) 연구 추진전략 3	10
(그림Ⅰ-7) 연구 프로세스	10
(그림Ⅱ-1) 사회 권력의 기반	21
(그림Ⅱ-2) 국제사회 인권담론 형성과정	24
(그림Ⅲ-1)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장애인 진단 프로세스	43
(그림Ⅲ-2) 발달장애인의 삶을 결정한 과정	45
(그림Ⅳ-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도	70
(그림Ⅳ-2) 소수자 예술정책의 지향 목표	78
(그림Ⅳ-3)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87
(그림Ⅳ-4)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개념 도출을 위한 과정	98
(그림Ⅳ-5)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구도	99
(그림Ⅳ-6)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요소	100
(그림Ⅳ-7) EASE 수업 장면	110
(그림Ⅳ-8) 예술로 시작 프로그램	111

(그림Ⅳ-9) Latch-On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112
(그림Ⅳ-10) Latch-On 프로그램 수업 현장	113
(그림Ⅳ-11) ‘Oyss 프로젝트’ 활동	114
(그림Ⅳ-12) ‘당신의 목적지를 알려 드립니다’ 활동	114
(그림Ⅳ-13) 야마나미 공방의 모습	115
(그림Ⅳ-14) 코나스 공방 모습과 아트라박스 스쿨	117
(그림Ⅳ-15) ‘춤추는 예술가’ 활동	118
(그림Ⅳ-16) ‘말하는 몸으로 연극하기’ 활동	120
(그림Ⅳ-17) ‘도시놀이본부’ 활동	121
(그림Ⅴ-1)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현황	130
(그림Ⅴ-2) 응답자의 학력 현황	131
(그림Ⅴ-3) 응답자의 현조직, 총 근무경력 현황	131
(그림Ⅴ-4) 응답자 직위	132
(그림Ⅴ-5) 응답자의 근무기관 유형	132
(그림Ⅴ-6) 발달장애인의 기관 이용 현황 (재적기준)	133
(그림Ⅴ-7)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	134
(그림Ⅴ-8)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 2순위 비교	134
(그림Ⅴ-9)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에 대한 정도	136
(그림Ⅴ-10) 문화예술 영역의 사업 분류 및 활동 여부	136
(그림Ⅴ-11) 앞으로 사업에서 문화예술을 별도로 할 의향	137
(그림Ⅴ-12) 문화예술 사업분류 시 판단 기준	137
(그림Ⅴ-13)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 현황	138
(그림Ⅴ-14)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발달장애인 참여 현황	138
(그림Ⅴ-15) 문화예술 관련 발표 활동 현황	140
(그림Ⅴ-16) 매개자의 발표 활동 계획 및 운영 시 현실적 고려 요소	140
(그림Ⅴ-17) 문화예술교육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41
(그림Ⅴ-1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평균	141
(그림Ⅴ-19)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142
(그림Ⅴ-20)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평균	143
(그림Ⅴ-21)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이나 가족들의 어려운 점	144
(그림Ⅴ-22)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이나 가족들의 어려운 점 평균	144
(그림Ⅴ-23)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145
(그림Ⅴ-24)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평균	145

(그림Ⅴ-25) 응답자와 보호자의 관계성에 대한 기대효과	146
(그림Ⅴ-26) 응답자와 보호자의 관계성에 대한 기대효과 평균	146
(그림Ⅴ-27)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 수준	147
(그림Ⅴ-28)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어려움	147
(그림Ⅴ-29)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성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148
(그림Ⅴ-30)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추진 방향성 1, 2순위 비교	149
(그림Ⅴ-31)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	150
(그림Ⅴ-32) 응답자와 장애인과의 관계	151
(그림Ⅴ-33)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현황	151
(그림Ⅴ-34) 응답자의 장애 수준 현황	152
(그림Ⅴ-35) 응답자의 장애 유형 현황	152
(그림Ⅴ-36) 응답자의 학력 및 재학 교육기관 현황	154
(그림Ⅴ-37) 응답자의 가족 구성 현황	154
(그림Ⅴ-38) 응답자 가구 월 평균 수입 현황	154
(그림Ⅴ-39)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155
(그림Ⅴ-40)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	156
(그림Ⅴ-41)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 2순위 비교	157
(그림Ⅴ-42)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에 대한 정도	158
(그림Ⅴ-43)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 현황	159
(그림Ⅴ-44)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발달장애인 참여 현황	159
(그림Ⅴ-45) 문화예술 관련 발표 활동 현황	162
(그림Ⅴ-46) 문화예술교육의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62
(그림Ⅴ-47) 문화예술교육의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평균	163
(그림Ⅴ-48) 문화예술교육 중 가장 흥미 있는 활동	163
(그림Ⅴ-49) 흥미 있는 활동으로 선택한 이유	164
(그림Ⅴ-50)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165
(그림Ⅴ-51)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평균	165
(그림Ⅴ-52)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에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166
(그림Ⅴ-53)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에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평균	167
(그림Ⅴ-54)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167
(그림Ⅴ-55)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평균	168
(그림Ⅴ-56) 응답자와 매개자의 관계성에 대한 기대효과	168
(그림Ⅴ-57) 응답자와 매개자의 관계성에 대한 기대효과 평균	169

(그림 V-58)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 수준	169
(그림 V-59)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성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170
(그림 V-60)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	171
(그림 V-61)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문제 1순위	172
(그림 V-62) 응답자 통합 어려운 문제 정도의 평균 비교	173
(그림 V-63) 응답자별 어려운 문제의 정도 평균	173
(그림 V-64) 응답자별 문화예술교육 관람경험 비교	174
(그림 V-65) 응답자별 문화예술교육 발표활동 비교	175
(그림 V-66) 응답자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만족도 평균	176
(그림 V-67) 응답자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179
(그림 V-68) 응답자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	180
(그림 V-69) 응답자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181
(그림 VI-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비전 및 미션의 설정	201
(그림 VI-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운영원리	202
(그림 VI-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비전체계	204
(그림 VI-4)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	216
(그림 VII-1)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	224
(그림 VII-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만들어낼 사회 영역	227
(그림 VII-3) '그린다'는 행위에 대한 비(非)장애인 중심의 해석과 발달장애인의 의도/욕구	230

연구요약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연구요약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개인의 행복에 대한 자각
- 개인의 행복에 대한 근원적 이해와 장애에 대한 새로운 자각
- 우리사회의 변화와 문화적 전환기 새로운 가치로서의 삶의 방식 재구성

■ 연구의 필요성

- 발달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에 기초한 활동 지원 필요성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의 필요성
- 발달장애인의 표현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2. 연구의 설계

■ 연구 목표

-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파악 및 문화정책의 방향성 모색
-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정책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 도출
-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과제 제언

■ 연구 방향

- 발달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에 입각한 관점 탐색

-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현장 프로그램 진단의 고도화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방안 구축

■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 8. 19. ~ 2021. 2. 26.
- 공간적 범위 : 전국
- 내용적 범위
 - ① 기존 연구 및 문헌 조사·분석
 - ② 국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분석
 - ③ 해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례조사
 - ④ 중장기 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

■ 연구방법

- 문헌자료 조사·분석
- 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 실태조사
- 전문가 자문
- 프로그램 개발
- 현장 의견수렴

■ 연구 추진전략

- 협력 - 연계를 통한 체계화 전략
- 정책 - 현장을 통해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 발달장애인을 “대상”이 아닌 “존재”로서 읽는 전략

3.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연구의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정책 모델 구축
-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활동 촉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비(非)발달장애인 중심의 감수성 지평 확장

■ 연구의 활용방안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정책적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담론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자료로 활용

II. 현대사회와 문화의 전환

1. 근대의 성찰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환사유의 시작 지점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본 연구에서 문제의식의 시작점은 “장애”라는 것이 비(非)정상의 범주로 구별되고 마침내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지점임.
- 계몽주의가 제기하여 근대 법률의 기초가 된 “천부인권”의 외부에서, 다시 말해 공동체가 약속한 모든 권리에서 제외된 “존재”라는 기준과 논리는 계몽주의적 권력주체의 권력의지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근대적 질서의 정착과 문화주체로서의 대중의 등장

- “정상성”을 획득한 지배권력의 성격과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법과 제도로 작동하는 “비(非)정상성”은 자연스럽게 법률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비(非)정상성”을 감시, 처벌, 감금, 통제할 때 “정상성”이 작동하게 됨.
- 의학에서 작동하는 “비(非)정상성”은 의료 행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복지적 측면에서 작동하는 “비(非)정상성”은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데, 대개 돌봄, 서비스, 재활을 통해 유사 “정상성”을 획득하거나 “정상성”을 관리하게 됨.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추구하는 “정상성”과 “비(非)정상성”의 경계가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으며, 그것이 결코 절대 진리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임.
- 근대권력은 대중을 통치하기에 적합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는 “질서”를 공고히 하였지만, 1960년대 이후 근대적 질서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함.

■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문화다양성의 제기

- “비(非)정상”의 문제는 곧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와 닮아 있으며, “배제”는 수많은 소수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각임.
- 기존의 빈곤이나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배제 개념은 사회에서 한 인간의 사회 통합을 결정짓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시스템으로부터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차단되는 것을 의미함.
-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권 차원의 문제 제기는 사회 내 존재하는 수많은 소수자의 존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됨.
- 문화권에 기반한 사회문화정책의 수립에 있어, 배제되었던 주체의 시선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새로운 언어체계와 인식체계가 탐구되고 있음.

■ 자본주의적 질서와 새로운 경제질서의 재편

- 정치경제적 관점의 변화 역시 주목할 부분임. 1945년 이후 국제사회는 경제발전, 안보와 평화 그리고 인권의 의제를 중심축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개별 국가에 영향을 끼쳤음.
- 이는 국제적 질서 속에서 개별 국가적으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복지를 통해 완성되어갔음.
-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와 함께 세계경제의 위기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 재편되어 전 세계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유경제를 신봉하게 됨. 이는 국내적으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라는 이론으로 정책화되어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됨.
- 세계화와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를 통해 세계화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낙수효과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임.

■ 포용경제에 대한 자각

- 포용성장을 기반으로 한 포용경제이론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단인 국제금융자본의 패권주의와 일국 내 양극화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함. 이러한 흐름은 경제체계는 물론, 도시설계와 운영, 교육, 복지정책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포용국가를 선언함.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웠고, 2018년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사회 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함.

- 사회적으로 배제된 존재에서 포용의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임.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이자 개별적 존재로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스스로의 문화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음.

2. 오늘날 요구되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임무

■ 사회적 맥락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의미

-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이 가진 사회적 역할이며, 예술이 인간의 삶의 문제로 환원되어 창조하는 인문적 가치임. 예술이 비록 인간의 삶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인간의 삶과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은 지극히 인간 행위의 영역임.
-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시대적 맥락이나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중요성은 미래사회에 대한 이슈와 관련이 있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근대적으로 세분화된 학문 체계와 지식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고, 삶에 기반한 통합적 교육활동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장되는데, 일상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사회 혁신의 매개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가 강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하게 그 의미와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는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과 관련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근대 이후 역할과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현대사회에 들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유

구분	내용
외적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근대적 틀로부터 해체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 -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기존 방식의 한계
내적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틀을 새롭게 구성하고 탐구하는 예술활동 - 새로운 상징과 이미지, 언어를 구축하는 예술 특성에 기초한 활동

■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이슈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탐구와 관찰을 통해 자기결정권이 드러나는 방식에 대한 사유와 탐색에 기초하고자 함.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문화 예술교육은 판단과 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비(非)언어 적인 방식 등 서로 다른 소통방식을 지닌 주체들이 공통의 감각과 역량을 개발할 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자 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부모의 기대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본 연 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와의 소통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소통만큼이나 중요하 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주체 간의 협력과 이해에 기초한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함.
-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두어야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예술이 가진 독자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독자성과 개별성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과정에 서도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관점에 충실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지지하는 보호자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표현감수성, 상호주관성을 증진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획자와 강사(예술가)의 태도와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 에서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매개자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매개자의 역 할, 자세, 태도 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장문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 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방안 마련의 맥락을 기초적인 토대구축에 집중하면 서, 보편적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 가운데 장 문원이 선도적 실험의 필요성에 따라 위치하고자 함.

III.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 이해

■ 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의

- 장애인의 법적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함.
- 이때 장애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

고 있음. 장애인 유형 중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분되는 발달장애인 에 대한 규정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의거하고 있음.

- 여기서 ‘발달’은 성장에 따른 기능적 발전 과정을 말하는데 대개 일정하고 예측 가능 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 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뒤쳐져 있는 경우에 해당됨(서울대학 교 홈페이지 의학정보).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의 변화

- 발달장애는 여타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장애에 비해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표현방식에서 보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음.
- 발달장애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아동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신과적 장애들의 집합으 로 여러 영역에 심각한 장애를 동반한다고 보고 있음(서울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18쪽).
- 발달장애는 초기의 정의로부터 지속적으로 재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형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발달장애의 진단 및 특성

- 발달장애는 대개 영유아기 혹은 학령기에 발견되는데, 지능, 언어, 사회성, 운동, 감각 등의 발달 지연 혹은 불균형을 보이며, 상동행동과 같은 행동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는 진단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발달장애는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진단으로, 발달장애를 진단 하는 과정은 전문가에 의한 면담 및 관찰, 심리평가, 신체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실시한 소견을 종합하여 진행되고 있음.
- 대부분의 장애가 ‘사회적’ 관점에서 정의되지만, 특히 발달장애는 환경이나 주변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차이 정도의 변화가 큼.
- 대체로 발달장애를 진단하는 내용은 어떠한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를 걸러내 는 언어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발달장애 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작동함.
- 현대아산병원 홈페이지 질환 백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의 영역인 지적장애는 지적인 기능이 평균 이하인 상태로서, 지능 발달의 장애로 인하여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

을 받고, 적응 행동의 장애로 관습의 습득과 학습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의미함.

- 반면, 자폐성 장애는 아동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언어성 및 비(非)언어성 의사소통의 장애, 상동적인 행동,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라고 함.
- 각각의 문제 행동이 광범위한 수준에 걸친, 복잡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도 부름. 이 때문에 같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유아라도 보이는 모습은 각기 다를 수 있음.

■ 장애유형별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현황

-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체 등록장애인은 2,618,918명이며, 이중 지체장애의 비중이 46.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청각장애로서 14.4%에 해당함.
-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친 발달장애인은 241,614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9.2%에 해당함.
- 장애유형으로 보면, 지적장애가 212,936명이며, 자폐성 장애가 28,678명으로 나타나 지적장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정립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에 대한 관점

- 발달장애인을 문화예술교육에서 무엇을 ‘참여’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요구됨.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수업에 ‘참여’한다는 이미지, 수업의 설정된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 등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요청함.
- 이러한 요청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목적으로 상정하는 것을 구현할 이미지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교육의 성과로서 간주할 산출물은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에 대한 관점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성과가 전문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 즉 ‘엘리트교육’의 성격을 띠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요구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어떤 움직임이나 감각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식별될 수 없는 반응을 하는 것이 일련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것은, 전문 예술가 양성을 위한 엘리트교육도 좀 더 ‘예술성’에 주목하는 방식

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임. 여기서 예술성은 위계적이고 장르적인 기능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각적 자유로움 및 존재방식과 연관됨. 이를 통해 ① 인류 유산으로서의 ‘예술 언어’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유형, ②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창작자의 삶과 일상, 상호작용의 방식을 포용하는 유형, ③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 혹은 보다 중증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개별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에 관한 관점

- 발달장애인의 당사자성이 얼마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들의 주체성은 온전한 것으로 이해되기 어려움. 그러나 현대의 주체성에 대한 관점은 개인의 주체성이 고립된 개별적 자아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함.
-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의 주체성은 이들과 관계 맺는 누군가와 함께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서로-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환경’에 대한 관점

- 결국 예술이라는 행위와 목적에 대해 열린 관점을 가지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때, 보호자가 취업 및 생존전략을 넘어서서 이 시간들을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새롭게 의미화할 수 있어야 함.
- 즉, 당사자가 어떠한 감각적 요소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해도 되는 곳, 그것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환경을 인식하도록 해야 함.
- 환경으로서의 공간이 자신을 맥락화 하는 ‘장소성’으로 체화되는 문제는 발달장애인에게 특별히 중요할 수 있음. 이러한 장소성이 형성될 때, 점차 개별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가능해지고 소통 가능한 순간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임.

IV.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1. 장애인 문화권 기반 정책 환경

■ 장애인정책에서 “인간다움”에 대한 제기

-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많은 문제를 제기 받고 있음. 이는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도 장애인의 실질적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의미함.
-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장애인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종합법적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음.

■ 문화예술 경험에서의 배제와 비주류화 되는 장애인 예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확장

- 장애인들도 비(非)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문화권과 교육권이 보장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 속 장애인은 문화예술 경험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등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데 불평등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표현이 비주류화 되어 옴.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역시 비(非)장애인의 표현을 익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장애인의 정체성과 표현방식의 차이를 간과한 접근이라는 문제의식이 확산됨.

■ 포용시대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추진전략 모색

-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국가운영방향에 “포용”이 등장하고 사회적 배제가 사회의 건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해를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됨.
- 포용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참여나 배려를 넘어, 본연의 권리와 마땅히 누려야 할 사회 환경을 바꾸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발견이 요구되고 있음.

■ 장애인의 예술창작과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확산

- 국가정책에서 복지정책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며, 문화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2015년 장문원 설립과 함께 체계적인 장애인 문화정책의 전문화 및 전담화를 기대하고 있음.
- 2018년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역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을 사회, 지역,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과 프로

그램 구성의 방안이 보다 더 시대적 요구와 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룸.

■ 장애인 문화권의 법적 근거와 내용

- 국제적으로 문화권에 대한 보장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이를 구체화하였음.
- 국내적 여건 역시 빠르게 변화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적 근거가 세분화되고 있으며, 문화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국가 법령체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장애인정책에서 본 장애인 문화권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법률로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음(법3조 기본이념).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에 의거 5년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비(非)장애인과 격차를 최소화하는 성과목표를 제시함.
-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의 전략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관객과 장애예술인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함.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복지법」과 함께 「발달장애인법」에 의거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추진사업으로는 ‘개인별지원계획’, ‘권리구제지원’, ‘공공후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등 총 4가지로 나뉨.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며, 보호자와 발달장애인 자녀의 여가·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장애인정책에서 문화권은 주로 문화향수의 기회나 물리적 접근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즐기는 권리인 “기회” 수준의 향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주체적 욕구에 대한 해석, 비(非)발달장애인과 다른 표현에 기반한 문화적 권리의 확장은 온전히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남겨짐.

2. 장애인 문화정책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접근

■ 문화정책에서 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문화기본법」과 「문화다양성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 2014년 「문화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문화권”이라 정의하고, 같은 해 제정된 「문화다양성법」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가진 다원주의적 속성을 명시함.

■ 「문화비전2030」과 「새예술정책2018~2022」에 나타난 장애인에 대한 시선

- 장기 문화정책의 방향을 밝히는 「문화비전2030」의 네 번째 의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에서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정책 범위 설정을 통해 장애 역시 핵심적 범주임을 밝히고 있음.
- 장애인의 문화표현 및 체험 기회 확대 역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임. 또한,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다양한 예술지원 대상으로 젠더, 지역, 인종, 종교와 함께 장애인의 문화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음(「문화비전2030」, 2018, 27쪽).
- 이러한 흐름 속에 농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수어의 진흥이 중요시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의 언어적 문화정체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나아가 장애인의 언어적 예술 활동에 다양성을 기대하고 있음(「문화비전2030」, 2018, 28쪽).
- 「새예술정책(2018~2022)」은 「문화비전2030」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예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새예술정책의 4대 목표 중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를 세 번째 목표로 상정하고, 8대 전략과제 중 6번째 전략과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 관련 정책과제를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실행과제로는 ① 소수자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② 소수자 예술공간 조성 및 교류, ③ 소수자 예술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으로 제시함.
- 소수자 예술을 ‘창의성/다양성’의 문화적 원천으로 인식하고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등 사회 포용(social inclusion)적인 다양성 예술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함(「새예술정책(2018~2022)」, 2018, 222쪽).

■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2020년 현재 문체부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예술정책관 산하 예술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과 등 타 여러 부처와 협력을 해야 하는 영역임.
- 2015년 설립된 장문원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전담기구이자 정책기구로서 장애인

예술의 지평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 활동 참여와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임.

■ 장애인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 흐름

- 장애인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문화복지정책이 수립되면서 시작되었음. 즉, 장애인 문화정책은 사회복지와 다른 영역에서 삶의 질 문제를 제기하면서 확보된 “문화복지”의 영역에서 출발한 것임.
- 그러나 2000년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활성화, 2010년대 문화다양성 개념의 확대는 문화복지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화권”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음.
- 여기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장애인 문화정책 영역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① 접근성 확대, ②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기회 마련이라는 두 개의 영역임.
- 그러나 2018년 연구를 기점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층 나아가 포용적 예술, 장애인 창작예술의 정체성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고, 이는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여는 것임.
-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표현을 구성하는 문화예술교육, 비(非)장애인과 의 소통방식 탐구로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영역이 그것이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음.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흐름

-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2004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으로부터 시작되어,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정,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해 본격적 정책이 추진됨.
- 2018년 다섯 번째로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은 세부 추진전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문화 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2004년부터 지원해 왔는데, 장애인복지관 등에 예술강사 파견하는 방식임.
- 2020년 기준 국악, 무용, 미술, 영화, 연극 등으로 이뤄진 문화예술교육 6개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279개소, 369개 반을 대상으로 175명의 예술강사 파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문원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 추진 경과

- 장문원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향유 활동부터 장애 예술가의 창작활동, 해외 교류까지 12개 분야 장애인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중 일반 공모 부문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 혹은 비(非)장애인 예술단체에 2020년 기준 최대 4천만 원에 달하는 프로그램 운영·연구·개발 지원을 하고 있음.

〈표〉 2018~2020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결과

구분	공모 신청 건수	공모 선정 건수	선정 금액(원)
2018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분	127건	24건	572,000,000
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분	102건	27건	600,000,000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분	124건	27건	600,000,000

출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내부자료

3. 포용적 예술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 장애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 “포용적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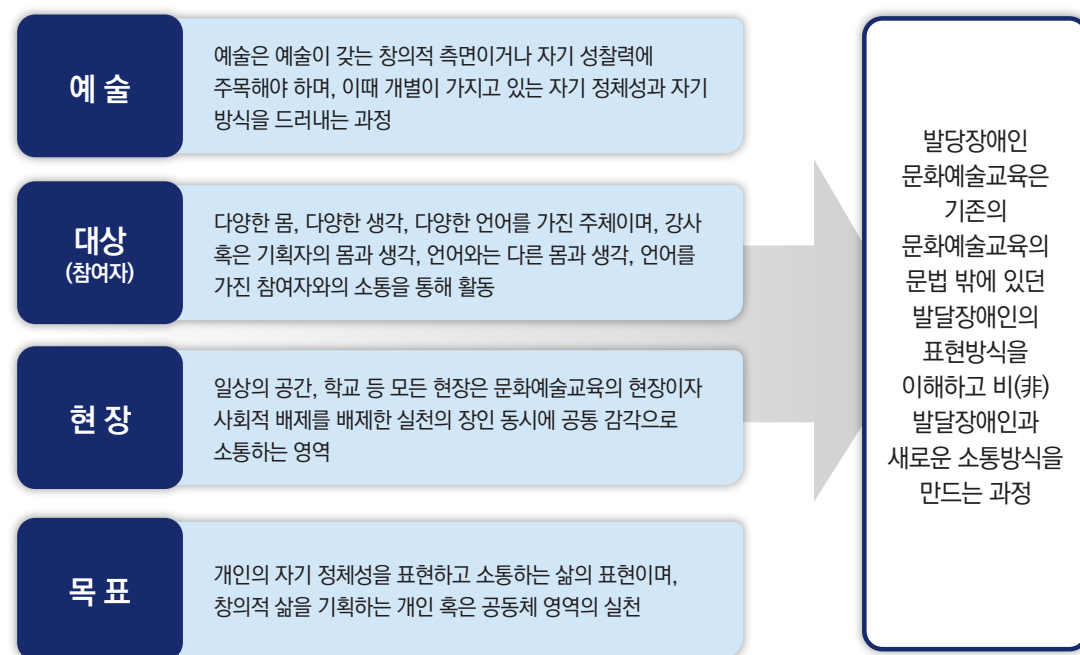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예술에 대한 우리사회의 ‘흔한’ 시선 즉, “인간 승리의 서사”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불편하지만 상업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시선이라는 점을 인식함.
- 그러나 이는 장애인의 주체성과 자기 정체성이 비(非)발달장애인에 의해 기획되거나 편입된 시선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

■ 장애 예술운동(disability arts movement)과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 장애인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발화하기 시작한 것은 장애인 인권 운동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장애 예술운동(disability arts movement)은 ‘장애인 예술이 개인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갖는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힘으로서의 잠재력’을 사회적으로 드러낸 행위임.
- 이는 곧, 장애인 예술가를 단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service-users)’이라는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예술적 역량과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 서구사회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표현방식의 영역을 미국에서는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 프랑스에서는 “아르 브뤼(art brut, raw art)”, 영국에서는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해 왔음.
- 포용적 예술은 주류 예술방식과 다른 하위문화 영역에서의 표현과 유사하면서도, 주로 장애, 성소수자, 젠더, 이주민 등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부각되어 옴. 그러나 주로 포용적 예술은 장애인 관련 예술 및 정책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사회적 포용의 관점으로 장애인 예술에 접근함으로써 장애 예술을 기존의 비(非)장애 예술에 준하는 예술이 아니라, 장애 자체에 대한 고유함과 특성을 또 다른 문화영역으로 인정하는 문화다양성 원리와 결합하였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탐색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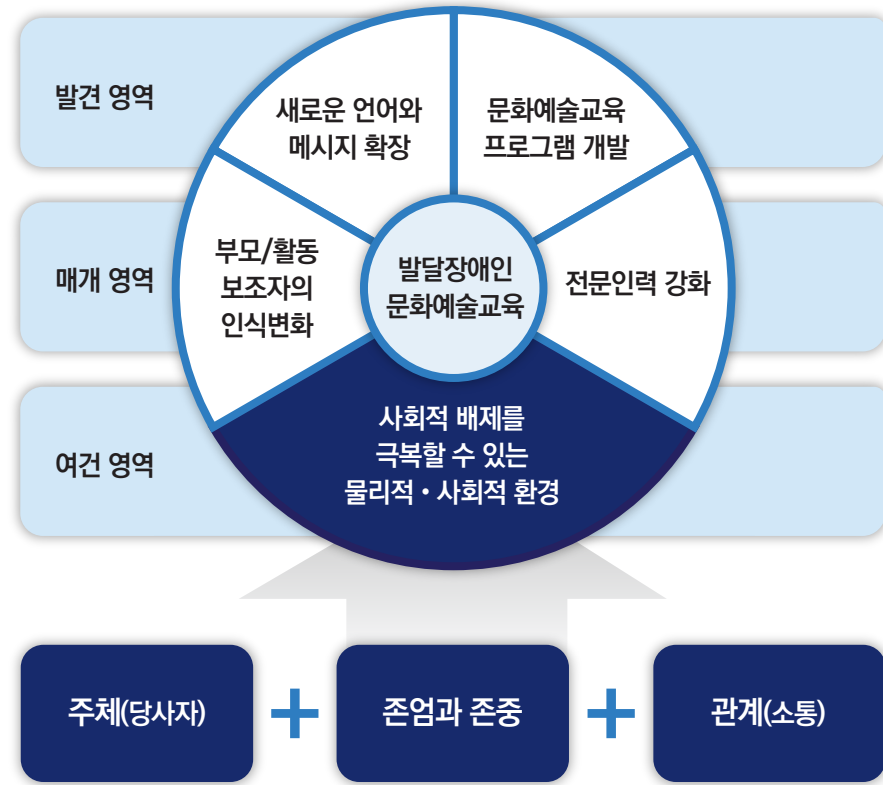
(그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개념 도출을 위한 과정

출처 : 류승완 외, 「2019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연계 ‘작은연구’-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목표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19쪽, 재구성 및 추가

- 포용적 예술을 통해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대응이며,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에 대한 귀환으로 이해될 수 있음.
- 포용적 예술로부터 착안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탑재되어야 하는 “포용”은 대상에 대한 포용이기보다는 사회 구성원과 사회 전반의 가치체계와 관련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술과 대상(참여자), 현장, 목표의 층위에서 포용적 관점을 적용하는 일이 요구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구조



(그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구조

출처 : 류승완 외, 「2019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연계 '작은연구'-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목표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18쪽, 재구성 및 추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는 새로운 관점이 탑재된 형식과 내용의 재구조화가 요구됨.
- 이는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하는 여건 마련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전제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내적 구성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구조를 기초로 한 프로그램의 내적 구성은 사실상 문화예술교육의 내적 구성과 다르지 않으나,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은 정체성에 기반한 창의력, 관계 중심의 통합 활동,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자기 치유와 자기 효능력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V.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환경과 현실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의 설계

■ 조사 개요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실태조사와 당사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실시

<표> 조사 개요

구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욕구조사
대상	-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문화예술 단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300명	- 발달장애인 보호자/ 설문이 가능한 발달장애인 250명
기간	2020.11.17.(목)~ 11.29(일)/ 총 13일	2020.11.20.(목)~ 11.29(일)/ 총 10일
설문 구성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기관 기입식 설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설문 방법	-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배포 - 설문응답기관에 기념품 증정	-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배포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추적 배포 - 설문응답자에 기념품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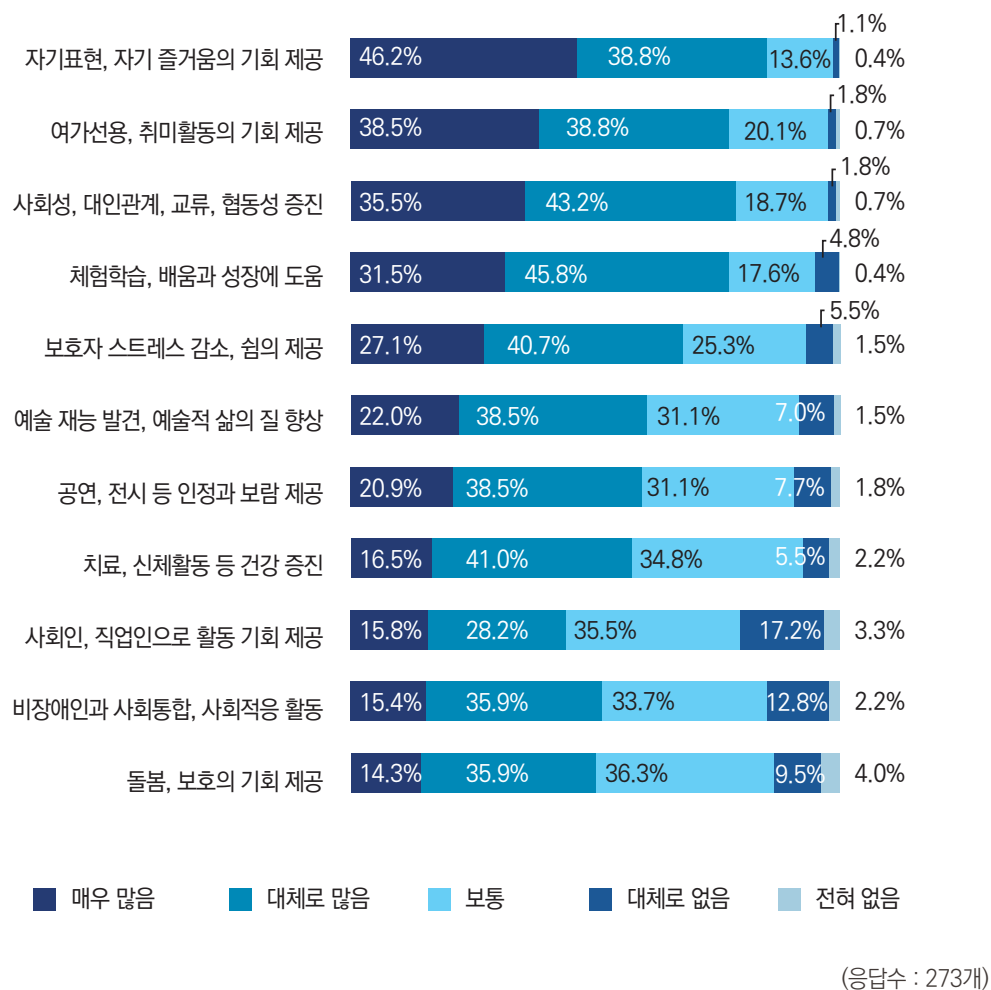
■ 조사내용

<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문항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욕구조사	문항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활동 정도	18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1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	45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4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13
일반사항	13	일반사항	11
88개 문항		76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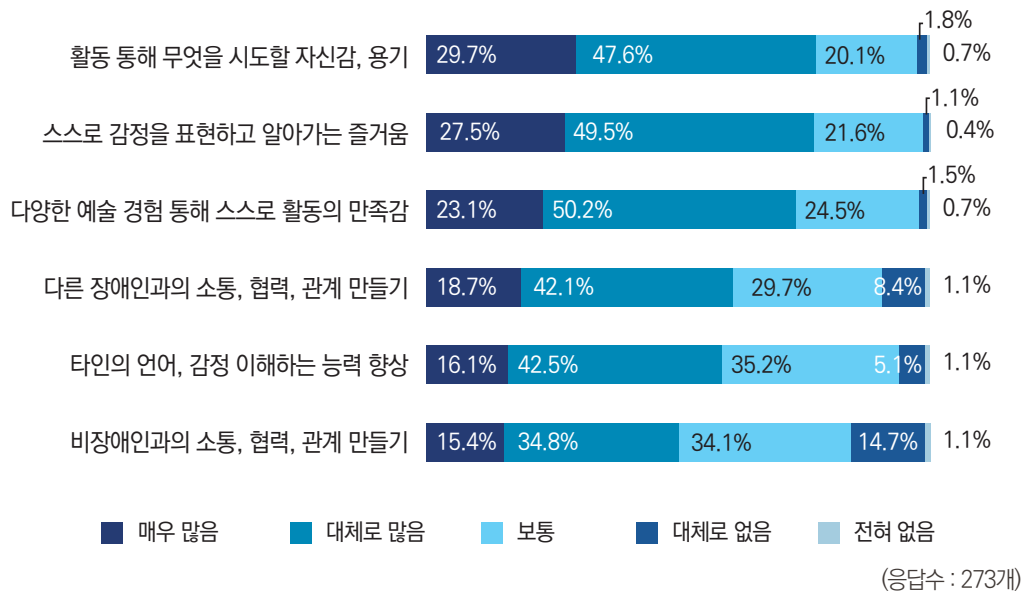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분석

■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이 46.2%,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이 38.5%,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성 증진’이 35.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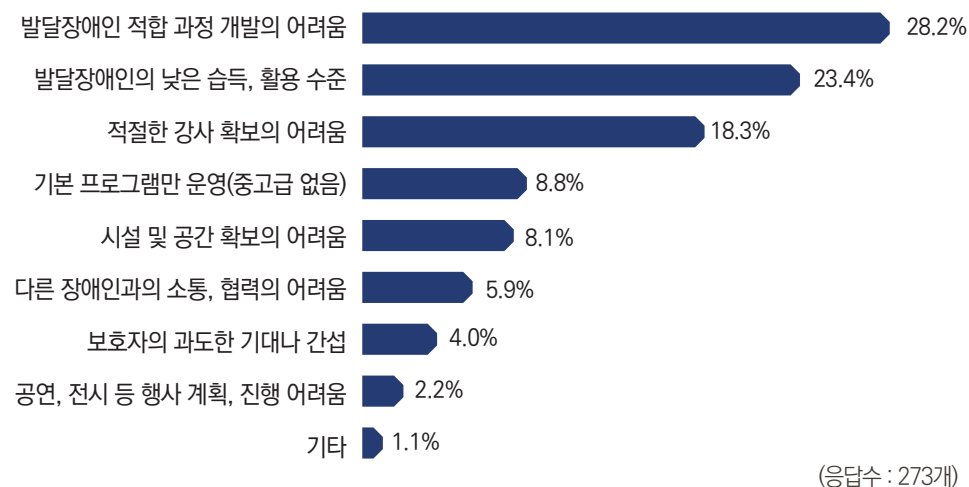
(그림)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는 ‘활동 통해 무엇을 시도할 자신감, 용기’ 29.7%,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알아가는 즐거움’ 27.5%, ‘다양한 예술경험 통해 스스로 활동의 만족감’ 23.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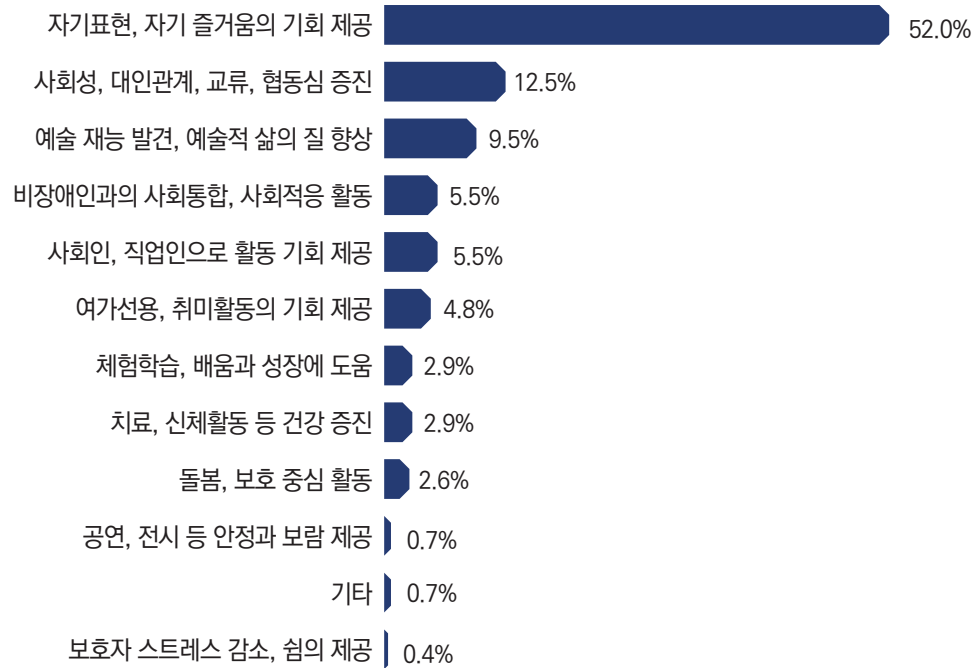
(그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어려움은 ‘발달장애인 적합 과정 개발의 어려움’ 28.2%, ‘발달, 장애인의 낮은 습득, 활용수준’ 23.4%, ‘적절한 강사 확보 어려움’ 18.3% 으로 나타남.



(그림)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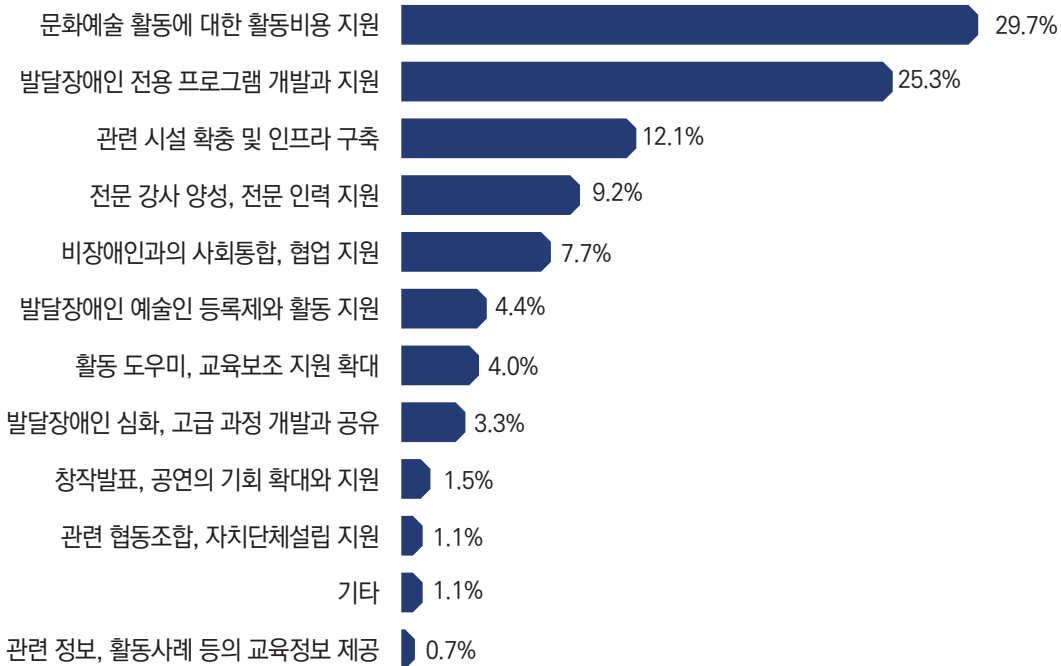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으로,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제공’ 52.0%,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성 증진’ 12.5%, ‘예술재능 발견과 예술적 삶의 질 향상’ 9.5%로 나타남.



(응답수 : 273개)

(그림)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활동비용 지원’ 29.7%, ‘발달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25.3%, ‘관련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12.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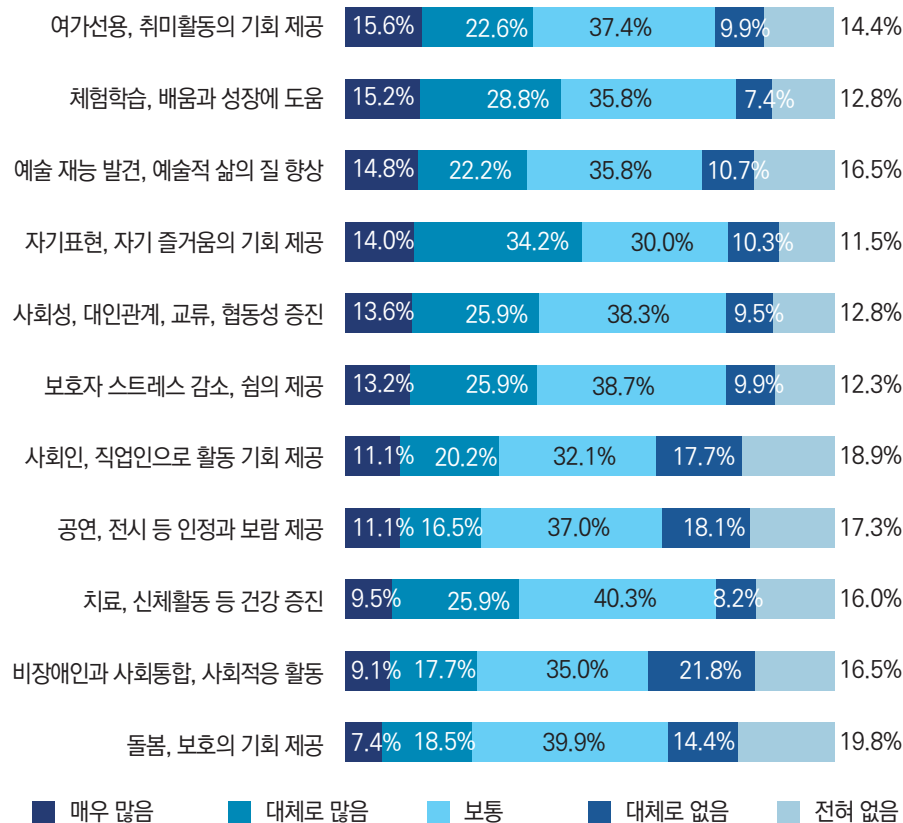


(응답수 : 273개)

(그림)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욕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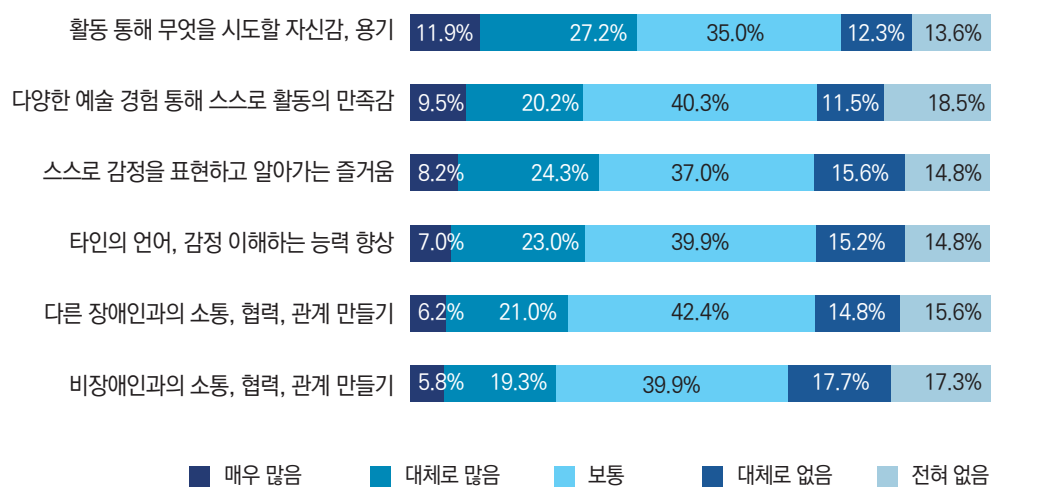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 15.6%,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 15.2%, ‘예술 재능 발견, 예술적 삶의 질 향상’ 14.8%로 나타남.



(응답수 : 24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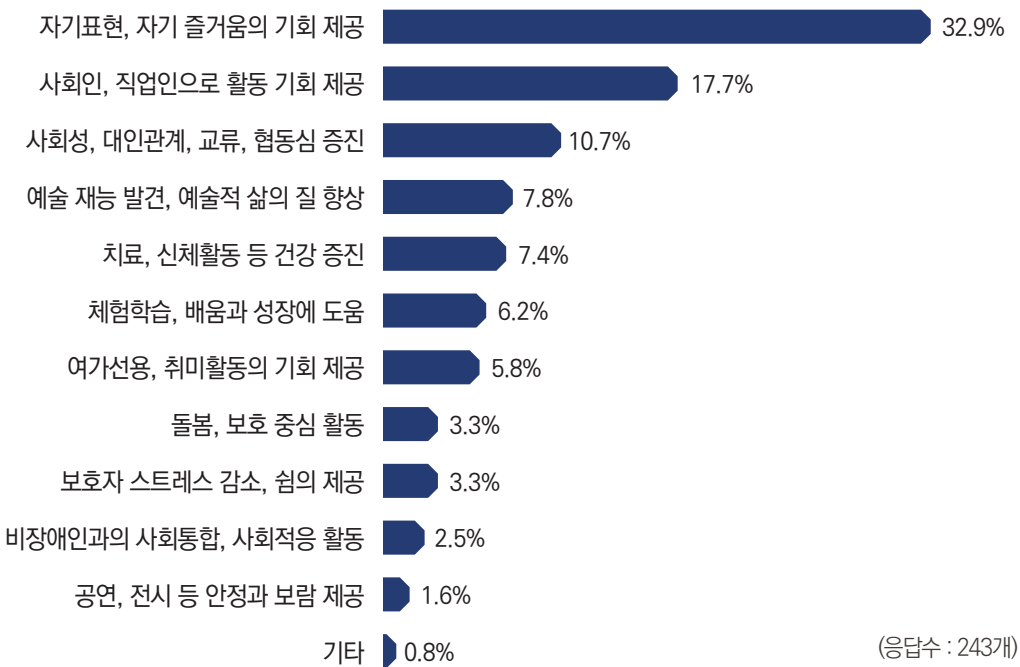
(그림)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는 ‘활동 통해 무엇을 시도할 자신감, 용기’ 11.9%, ‘다양한 예술 경험 통해 스스로 활동의 만족감’ 9.5%,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알아가는 즐거움’ 8.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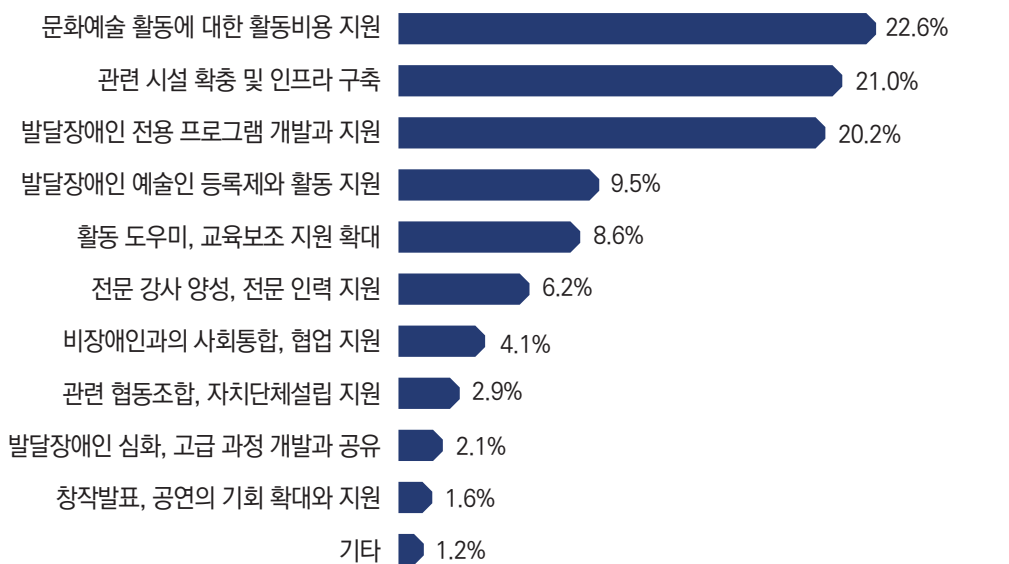
(그림)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응답수 : 243개)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활동방향으로 ‘자기표현, 자기즐거움의 기회제공’32.9%,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17.7%,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심증진’10.7% 순으로 나타남.



(그림)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활동비용 지원’ 22.6%, ‘관련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21.0%, ‘발달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20.2%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 (응답수 : 243개)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의 시사점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현실

-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이 가진 중요성에 대한 매개자 실무자, 보호자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함. 발달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보호자와 매개자의 응답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에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문화적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접근성의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장소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단체의 비중이 높으나, 장애인 관련 협동조합, 예술전문학원, 비(非)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공간이 등장함.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참여의지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장애 수준에 맞는 강사와 활동 프로그램 내용 구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운 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이나 레벨업이 안 된다는 문제, 프로그램의 수나 기획의 부족, 장애특성 맞춤형 교육이나 활동의 부족, 경제적 어

려움, 활동공간의 부족과 시설 부족, 전시나 공연 등 표현 기회의 부족 등의 문제들이 나타남. 특히, 이들 어려운 점의 점수는 긍정적인 요인의 점수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대효과 및 정책방향

- 우선, 발달장애인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매개자나 보호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매개자가 보호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매개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성을 전 영역에서 평균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본 반면, 보호자는 ‘돌봄, 보호의 기회 제공’,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 ‘비(非)장애인과 사회통합, 사회적응 활동’, ‘공연, 전시 등 인정과 보람 제공’에서는 평균 이하라고 응답함. 따라서 보호자와의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 기대에 부응하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둘째,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역시, 전반적으로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매개자와 보호자 간의 차이를 드러냄. 매개자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높은 반면, 보호자의 경우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임.
- 이는 발달장애에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차이에 기인하며, 보호자의 기대가 가진 주관적 과대 혹은 과소 기대로 인한 것으로, 보호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보호자와 매개자 간의 소통과 협력 없이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으로 ‘자기표현이나 즐거움 기회 제공’이 매개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남. 두 번째 방향으로 보호자의 경우 ‘사회인이나 직업인으로서의 기회제공’을, 매개자의 경우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심 증진’에 응답함.
- 이는 매개자와 보호자간의 이해의 일치와 불일치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문화권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함.

VI.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안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과 목표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과 미션 및 원리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은 발달장애인의 시선과 표현을 사회적 등장의 의미로 명명하여 “발달장애인 시선이 등장하는 포용적 사회”로 설정할 수 있음.
- 또한, 발달장애인의 시선과 표현의 등장으로 초기 활동에서는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의 소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험하며, 확산하는 미션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발달을 넘어 소통으로 마주보는 세계”로 집약될 수 있음.
- 표현-탐색, 등장-발견된 활동이 소통-이해를 통해 상호 간 신뢰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음.
- 자기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탐색”은 문화권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임.
-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 사이의 “표현”과 “탐색”은 비(非)발달장애인 관점에서 “발견”이기도 하고,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는 “등장”에 해당함.
- 발달장애인의 언어와 몸짓은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되며, 그러한 과정은 “소통”과 “이해”가 되어야 하며, 이는 다시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도 “소통”과 “이해”에 해당하는 활동임.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미션체계 및 사업과제

- 이러한 인식하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기회증진, 토대 구축, 역량강화, 여건마련이라는 4대 정책목표로 사업을 배치함.



(그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비전미션체계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제와 추진방안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제

실천과제 1. 시설 및 기관 발달장애인 매개 예술가 파견사업 확대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교육과정으로 설계된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개별성을 기초로 표현과 소통을 통해 매개자로서의 예술가가 사회와의 연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지원.
사업 내용	-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활동이 아닌, 소수의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을 만듦.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예술강사 파견과 같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파견사업과 유사하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구성
기대 효과	-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확장 - 개별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감정에 기초하여 활동 촉진

실천과제 2. 유아/학령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성인 이전 단계에서 자기표현과 관계 경험의 기회를 확대
사업 내용	- 특수학교 혹은 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교사/ 보호자가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 일반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교사/ 보호자가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기대 효과	- 유아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제도 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확보

실천과제 3.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 문화예술교육 지원확대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다양한 환경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맥락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활동의 다양성 확보 -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닌 발달장애인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탐구와 실천을 모색하고 지원
사업 내용	- 민간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실천을 통해 개별 발달장애인에 맞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대 효과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실험 확산하여 전문성 강화 - 개인과 현장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발달장애인 문화적 권리 보장

실천과제 4. 유아/학령기 대상 발달/비(非)발달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이 각자의 개별성을 드러내고, 서로 협력을 통해 공동의 활동을 수행 -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및 협력의 관계원리를 익힘으로써 학령기 건강한 또래문화형성에 기여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일반 유아시설이나 학교에서 일정 기간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 수업 종료 후 교사의 후속 활동을 지원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하여 일반 교과나 학급 관리에 반영할 수 있게 지원 -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폭력, 왕따가 없는 건강한 또래문화를 위한 부모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기대 효과	- 종합적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유아/학령기 참여자의 건강한 사회적 소통 문화 확산에 기여 - 제도 내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건강한 시선에 대한 환경 마련

실천과제 5.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예술교육 지원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이 일상의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수행 - 프로그램의 한시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관계가 안전한 관계망으로 전환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수행
사업 내용	- 문화의집 혹은 생활문화센터 및 민간 문화공간 등 일상의 문화공간에서 발달/비(非)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으로 일상 기반 주민활동과의 결합을 통해 일상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운영
기대 효과	- 일상 속에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여 사회적 관계의 매개 역할 수행 -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찾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

실천과제 6.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확보와 담론확장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 구축과 현장 실천에 대한 비평의 활성화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건강한 논의 틀을 형성하여 문화예술계 및 시민적 논의과정으로서 공론장 운영
사업 내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현장 모니터링과 비평 활성화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논의와 정보의 공유 활성화 - 사업의 성과공유 및 이슈 제기를 통한 시민공론장 운영
기대 효과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 이슈 공론화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실천과제 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역량 제고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촉진할 정보와 가치 공유
사업 내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보호자 등 관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각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기관의 참여 촉진 -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설로 관점과 철학의 확산
기대 효과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보호자 등 관계자의 역할 증대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산과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 및 활동의 촉진

실천과제 8.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조성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확대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 효과적인 추진체계와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초기 단계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연구 및 교육, 운영관리의 효과적인 추진
사업 내용	- 장문원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센터는 프로그램 개발, 교육, 아카이브, 공유, 사업 관리, 네트워킹 기능 등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적 운영 도모
기대 효과	- 「새예술정책2018-2022」의 기초를 확산하는 전략으로서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적 성과 구축 -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실행기구로서의 역할 제고

실천과제 9.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 발달장애인 아뜰리에 지정 운영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하고 문화예술적 접근의 효과적인 추진 체계 구축
사업 내용	-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 아뜰리에를 조성하여 다양한 실험과 지역적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 - 공간 조성비와 운영비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이자 허브로서의 역할 증대 - 지역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아뜰리에를 별도의 공간에 조성 혹은 지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추진 - 재난시대에 맞는 시간을 갖춤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고립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구분	내용
기대 효과	- 「새예술정책2018-2022」의 기초를 확산하는 전략으로서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적 성과 구축 -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지역 거점이자 활동의 허브로서의 역할 제고

실천과제 10. 발달장애인 문화권에 관한 법률적 구체 내용 마련

구분	내용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 구축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하고 문화예술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사업 내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장 활성화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 효과	- 「문화비전2030」이나 「새예술정책(2018-2022)」의 기초를 확산하는 전략으로서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적 성과 구축 -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포용적 사회로의 진전 도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의 로드맵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는 3년을 기준으로 구성하며,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범사업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로드맵				
사업목표	실천과제	연차		
		1	2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증진	1. 시설 및 기관 발달장애인 매개 예술가 파견사업 확대	○	◎	●
	2. 유아/학령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	◎
	3.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 문화예술교육 지원확대	●	●	●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토대구축	4. 유아/ 학령기 대상 발달/비(非)발달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	◎
	5.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예술교육 지원	○	◎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6.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확보와 담론확장	●	●	●
	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여건마련	8.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조성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확대	○	◎	●
	9. 전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 발달장애인 아뜰리에 지정 운영	○	◎	●
	10. 발달장애인 문화권에 관한 법률적 구체 내용 마련	◎	●	●

○ 시범사업 혹은 낮은 중요도 / ◎ 전개사업 혹은 중간 중요도 / ● 집중사업 혹은 높은 중요도

Ⅶ.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방안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관점

■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관점

- 사회와의 관계와 고유한 인간의 권리 간의 균형 필요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은 사회적 존재로서 발달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주로 어떤 기대와 요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동시에 한 인간의 권리로서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문화예술적 경험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함.

〈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설정의 배경

구분	사회와의 관계성 측면	인간의 권리 측면
논의점	발달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주로 어떤 기대와 요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인간으로서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문화예술적 경험이 권리로서 필요한가?
문화 예술 교육 기획 맥락	- 사회적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 하거나 즐기는 활동 - 사회적 기술 및 사회성을 훈련으로 인해 줄어든 자유로운 개별 활동의 확대 및 활성화 - 수동적 학습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자로 참여	- 개인의 욕구와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 - 기능이나 쓸모를 목적화 하지 않는 문화예술적 활동 및 향유 기회 마련 - 공동체의 구성원 중 일부로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적 활동의 참여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만들어낼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획 필요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서 기존의 훈련, 학습,

치료 목적의 프로그램 사이에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 주제 표현에 대한 확장된 담론 모색 : 발달장애인의 주체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주체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비(非)장애인 중심적 사고로 주체성을 해석하는 것의 한계가 존재함. 문화예술활동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과 관련하여 가시적이지 않은 영역 등에 대한 확장된 관점 및 담론이 필요함.

〈표〉 장애인의 보이지 않는 영역의 표현 구분		
(1) 표현으로 들어가는 상태	(2) 표현되고 있는 상태	(3) 표현된 상태
누군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결과물을 하기까지 내면적, 정서적으로 동시/관심/의미/안정감을 찾고 있는 순간	누군가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게 무언가를 하는 행위 또는 과정	누군가에 의해 겉으로 드러난 결과 또는 결과물

출처 : 최선영 외, 『기대하지 않고 표현으로 만나기』, 창작그룹 비기자, 2018, 13쪽.

- 개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조성 : 다양한 개별성을 갖는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기본 인권에 기초한 문화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면 개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것은 사회에서 장애를 규정하고 차별해왔던 관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환경임.
- 매개자의 현장언어 및 역할구조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시 매개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현장의 다양한 논의과정에서 그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고 있음. 매개자에 의해 이미 축적된 현장언어를 바탕으로 풍성한 문화예술교육을 상상,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관점

- 비(非)장애인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목표 비교

구분	내용
차별성	- 비(非)장애인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계적 구성, 스토리텔링 방식의 기획, 장르적 통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반면, 발달장애인은 단계적 활동이나 스토리텔링 방식의 내용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예술을 기존의 장르나 분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유사성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비(非)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예술적 활동, 표현활동, 문화향유 등을 직접 경험하는 것 자체에 의미나 목적을 둘 수 있음
한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비(非)발달장애인 중심의 관점에서는 다소 단순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적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울 수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중심의 개별화된 표현행위 자체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

-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과의 목표 비교

구분	내용
차별성	-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안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장르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 및 향유하는 참여자, 프로그램 이용자로 위치되어 있음. - 반면, 비(非)장애인 중심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문화예술 활동들이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안에 내용적으로 배치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음.
유사성	-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인간적 삶의 권리가 주요한 목표로 전제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점이 있음.
한계	-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의 맥락에서는 충분히 하지 못했던 활동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단순한 대체 개념일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이 협소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실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 요소를 중심으로 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기획

- 내용적 측면

내용의 구성 요소	설명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개별성”	개별성은 발달장애인의 속도, 성향, 특성, 관심사, 욕구 등이 최대한 반영하는 중요한 언어적 장치로서, 발달장애인의 개별성 자체가 프로그램의 중심축이 되거나 내용이 될 수 있음.

내용의 구성 요소	설명
일상적 생활, 행동 특성과의 연계	발달장애인의 일상적 행동이나 반복행위 등을 문제행동, 장애증상 등으로 분류, 판단하지 않는 문화적 시각을 확보
해체된 표현요소	매개자는 발달장애인이 어떤 예술 장르에 흥미를 보이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필 수도 있으나 어떤 ‘감각’에 관심을 갖는지를 관찰
비언어적, 직관적 요소	대화나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직관적 요소에 관심을 갖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언어적인 활동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배치

- 방법적 측면

내용의 구성 요소	설명
방법에 대한 접근방식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시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개념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기할 필요
놀이	놀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과정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한 공간에서 시도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개별성을 놀이 요소이자 참여역할로 구성할 수 있음
관계 형성	서로 친하거나 경계하거나 돕거나 충돌하는 등의 관계성을 반영한 진행방식도 적극 검토
유연성	쉽게 예측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정해진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다양성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
속도	참여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참여 속도가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개별적 속도를 적극 존중하는 방법론도 모색될 필요
반복과 패턴, 모방과 재조합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장애 증상이 아닌 표현의 일부이자 방법으로 적극 초대하는 방법이 가능함.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기존의 이미지, 소리 등을 모방 및 재조합하는 등의 활동이 여기에 속함.
가상의 설정	허구적 요소가 있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발달장애인이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보는 활동을 시도할 수 있음.

내용의 구성 요소	설명
기록과 관찰	프로그램 안에서 발달장애인의 행동과 자기표현을 세밀하게 관찰, 기록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이와 같은 활동의 구체적 의미가 포착될 수 있음.

- 환경적 측면

내용의 구성 요소	설명
운영규모	발달장애인은 개별성이 중요하므로 1:1 방식이나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 운영 모델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적은 참여자 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요구됨.
공간	공간은 발달장애인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이 공간을 인식하거나 감각하는 요소를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음
재료, 도구	비장애인의 예술적 표현도구가 발달장애인에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표현이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자기표현의 도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야 함.

I. 연구개요

1. 연구의 설계
2. 연구과정
3.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연구개요

I

1.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배경

■ 개인의 행복에 대한 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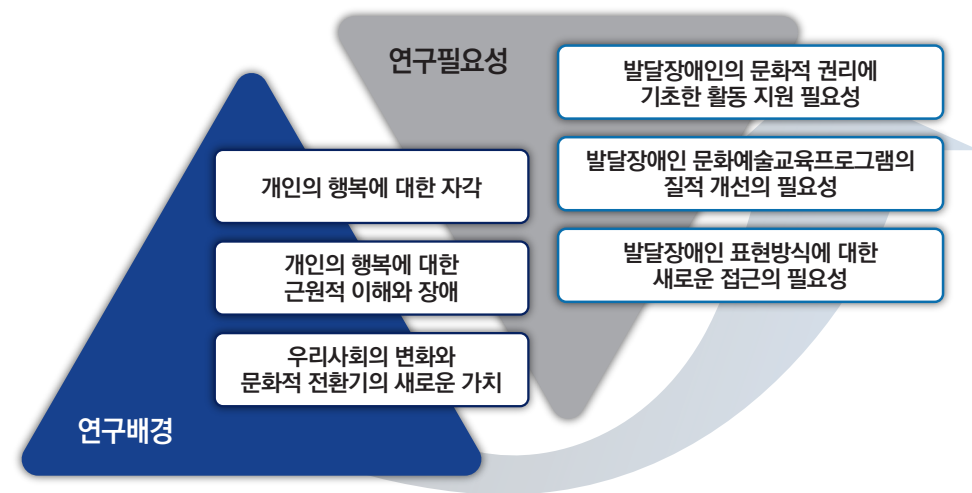
- 현대사회는 이전의 사회와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에 “개인”이 있음. 근대사회에서 “인간”은 천부인권의 서사 속에 존재하는 인간으로, 역사 혹은 경제적 존재로서 막중한 과업을 짊어졌음.
- 무엇보다도 지배 권력과 이념이 규정한 일정한 프레임(이데올로기) 속에 “인간”의 위치가 정해졌으며, 이는 이윤추구, 침략, 전쟁이라는 구체적 상황 속에 인간과 인간성의 위기를 초래하였음.
- 근대적 질서에 대한 성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으로 가시화되었고, 이는 지난 7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음.

■ 개인의 행복에 대한 근원적 이해와 장애

- 개인의 행복은 개인만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행복할 권리가 있는 개인에 대한 발견과 그러한 개인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함.
- 유엔에서는 1960년대 “개인”의 마땅한 권리로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으로 확인됨.
- 즉,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관련 없이 표현의 다양성, 삶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

■ 발달장애인의 표현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2019년 기준,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2,618,918명 중 9.2%에 해당되는 241,614명으로(2019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이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임.
- 다른 장애분야와 달리 발달장애인은 스스로의 방식으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으며, 오늘날 이러한 표현방식은 하나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서구사회에서는 이러한 다른 방식의 표현을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 또는 “아르 브뤼(art brut, raw art)”라고 칭하고, 주류 아카데미나 제도화된 회화적 전통, 관습과 무관한 하나의 장르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1-2)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최근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성과 평등을 강조하는 협업 형식의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로서 수용하고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방안과 운영 방향의 수립이 요구됨.

3) 연구 목표

■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파악 및 문화정책의 방향성 모색

-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파악을 통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관점 도출

■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정책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 도출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정성, 정량적 실태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안 근거 자료 마련

■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과제 제언

- 발달장애인이 가진 표현의 다양성에 기초한 새로운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방향과 프로그램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반 정책과제 제언

4) 연구 방향

■ 발달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에 입각한 관점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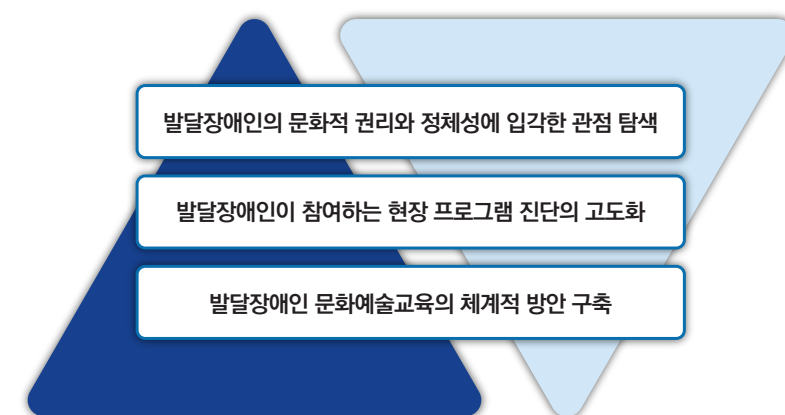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에 입각한 새로운 관점의 구성을 통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 제시

■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현장 프로그램 진단의 고도화

- 전국의 발달장애인이 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진단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점, 접근 방식, 활동 구현 방법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업적, 정책적 진단을 통해 정책적 보편성 확보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방안 구축

- 거대담론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 주체로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정책 방향 수립과 함께, 시범운영 프로그램(안) 구성



(그림 1-3) 연구의 방향

5)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2020. 8. 19. ~ 2021. 2. 26.
- **공간적 범위** 전국
- **내용적 범위**

영역	세부내용
기존 연구 및 문헌 조사·분석	- 국내·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국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분석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현황조사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해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례조사	- 해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관, 프로그램 사례조사 - 국가별 정책 시사점, 우수사례 도출 및 분석
중장기 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비전 및 목표 수립 - 추진전략,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과제별 이행방안, 추진체계 등 제시 - 장애 유형, 정도, 연령 등 발달장애에 따라 현장적용 시범운영 프로그램(안) 제시

6)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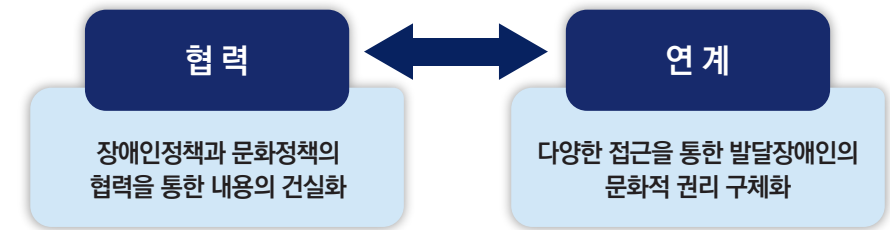
영역	세부내용
문헌자료 조사·분석	- 교육·의학·예술분야의 발달장애인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 연구, 범위 설정, 특성화 방안, 정책 현황에 대한 문헌 조사 및 분석
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조사	- 정책 제도 조사, 프로그램 조사 대상선정 및 조사 설계 -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장애 유형, 생애주기, 예술 장르 등 적절한 분류에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정량조사 및 그룹별 심층 인터뷰 등의 정성분석을 적절히 활용
전문가 자문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사전 자문을 통해 연구 고도화 - 실태 및 수요조사 분석 결과로 발굴된 추진전략, 이행과제 등에 대한 타당성 의견수렴

영역	세부내용
전문가 자문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략 도입 필요과제 발굴 관련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개발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전략 및 기획안 체계화
현장 의견수렴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에 대한 포럼개최 -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포럼을 통해 대중적 공유 및 의견수렴

7) 연구 추진전략

■ **협력 - 연계를 통한 체계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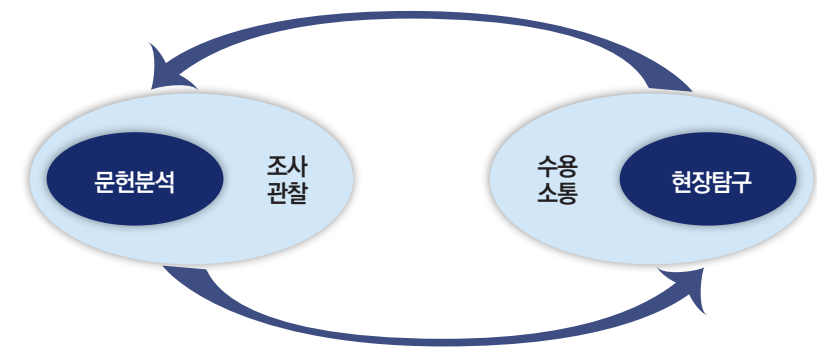
- 발달장애 영역과 문화정책 영역의 협력적 연계를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내용 구체화



(그림 1-4) 연구 추진전략 1

■ **정책 - 현장을 통해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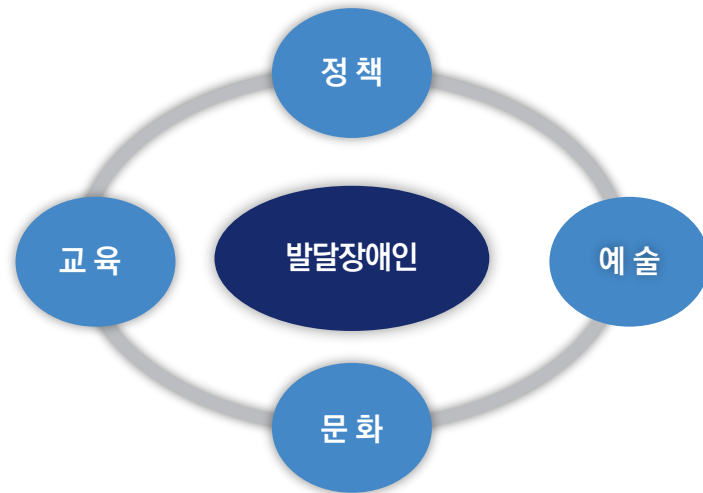
- 문헌 및 사례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정책적 접근을 분석하고, 발달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현장 탐구를 병행



(그림 1-5) 연구 추진전략 2

■ 발달장애인을 “대상”이 아닌 “존재”로서 읽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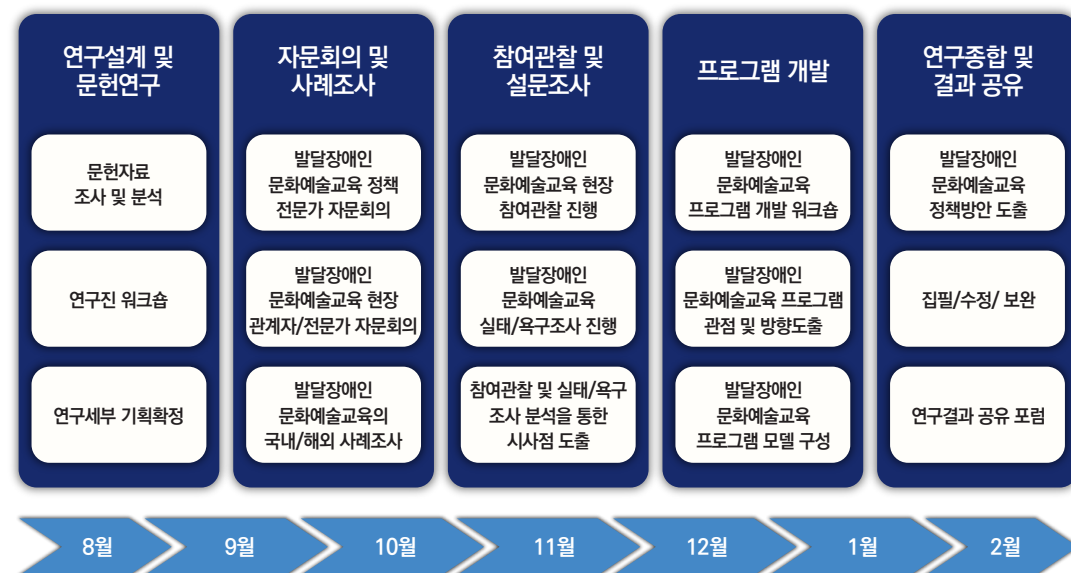
- 장애인 정책의 변화 기조와 문화정책의 전환은 모든 정책 대상을 존재로 인정하고 스스로의 주체적 삶과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자 노력



(그림 1 -6) 연구 추진전략 3

2. 연구과정

1) 연구 프로세스



(그림 1 -7) 연구 프로세스

*COVID-19 상황에 따라, 자문회의, 공유포럼 등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2) 연구 과정

■ 문헌자료 조사·분석

- 교육·의학·예술분야의 발달장애인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 연구, 범위 설정, 특성화 방안, 정책 현황에 대한 문헌 조사 및 분석
- 국내 발달장애인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문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로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여건 진단
- 2018년 장문원에서 진행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점과 방향을 진단하고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국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진단 및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표 1 -1〉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주요 내용

회차	일정	주요 내용	자문위원
1	2020.9.12. (토) 14:00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정책 등 전반 환경 진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정책방향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장애학의도전 저자) 김소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근화(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혜경(한국장애인개발원)
2	2020.9.19. (토) 10:00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장의 실험들	고영직(문학비평가) 고주영(PD, 연극/공연기획) 문해주(예술가) 서찬석(예술가) 안경모(연출가)
3	2020.9.19. (토) 13:00		김인규(예술가) 김보람(길공방) 김효나(밝은방 운영자) 손한샘(예술가)

*COVID-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장 참여관찰 진행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참여하여,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의 환경적 특성 및 활동 양상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수립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표 1-2〉 현장 참여관찰 진행 일정 및 활동 내용

회차	일정	주요 내용	자문위원
1	2020.10.30. (금) 14:00 ~16:00	피터팬 클럽	- 수업내용 : 바이올린 - COVID-19로 인해 합주는 안하고, 1:1교 육만 진행하고 있으며, 6명의 학생과 1명 의 강사, 보호자가 수업에 참여
2	2020.11.2. (월) 12:50 ~15:50	로아트	- 성인 중심으로, 6-7명의 작가가 수업과 작업을 병행하는 시스템
3	2020.11.5. (목) 10:15 ~11:50	수리 장애인 복지관	- 수업내용 : 난타반 외 - 20명 내외 총 7개 반이 운영되는 교육 시 스템이 잘 갖춰진 환경

■ 국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실시

- 국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관점, 접근 방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정립
- 조사는 교육현장 실태조사와 발달장애인 비(非)장애인 및 활동보조자(이하, 보호자로 통칭)의 욕구조사로 구분하여 진행

〈표 1-3〉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개요

구분	실태조사	욕구조사1	욕구조사2
목적	국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와 욕구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정립		
제목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욕구조사	
대상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문화예술단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300명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설문이 가능한 발달장 애인 250명	발달장애인 당사자 50명
기간	2020.11.19.(목) ~ 11.27.(금) / 총 9일간		진행하지 못함
설문 구성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 용하여 기관 기입식 설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 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발달장애인용 설문 지로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 별도 작성

구분	실태조사	욕구조사1	욕구조사2
설문 방법	-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배포 - 설문응답기관에 기념 품 증정	-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지원센 터 배포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활동가 추적 배 포 - 설문응답자에 기념품 증정	- 그림을 통해 발달장애 인과의 의사소통을 진 행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전문가와 진행
설문 분석 방법	- SPSS 통계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분석 - 응답 충실성 및 Z점 수 상 이상 값으로 확 인되는 응답은 제외	- SPSS 통계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분석 - 응답 충실성 및 Z점 수 상이상 값으로 확 인되는 응답은 제외	

■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운영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범운영 프로그램(안)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워크숍 운영

〈표 1-4〉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경험이 있는 예술가 및 활동가의 참여로 장르적 특징을 넘어 감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적용 가능한 시범운영 프로그램 마련		
참여 예술가	김인규, 김지영, 서찬석, 이재환		
운영 일정	1회	2020. 11. 26. (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Kick-off meeting
	2회	2020. 12. 5. (토)	프로그램 진행 현장에 대한 특성과 고려 요소
	3회	2020. 12. 24. (목)	프로그램의 가치와 의미, 사회적 역할
	4회	2021. 1. 5. (화)	세부 프로그램(안) 논의

3.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 연구의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정책 모델 구축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기능 중심의 단순 문화예술활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미흡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도와 함께 체계적인 여건 마련의 근거를 마련할 것임.

■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활동 촉진

-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중첩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이상 행동으로 취급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색다른 감각체계와 표현방식을 가진 발달장애인의 활동 참여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방식을 매개자와 소통하는 과정으로 이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확장의 기회를 확대할 것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비(非)발달장애인 중심의 감수성 지평 확장

- 비(非)발달장애인 중심의 사회문화적 단일성을 새롭게 성찰하며, 우리사회의 다양성 감각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 마련함.
- 장애예술의 표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사회 예술의 지형이 확장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보다 높아질 것임.

2) 연구의 활용방안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정책적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기회가 적은 우리사회에서 장문원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험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탐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담론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론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포럼 및 토론회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협력을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 및 부처와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자료로 활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예술가, 예술강사, 복지관의 실무자,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 다양한 매개자 교육 및 워크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II . 현대사회와 문화의 전환

1. 근대의 성찰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
2. 오늘날 요구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임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현대사회와 문화의 전환 II

1. 근대의 성찰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

1) 근대적 질서와 정상성의 문제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전환사유의 시작 지점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본 연구에서 문제의식의 시작점은 “장애”라는 것이 비(非)정상의 범주로 구별되고 마침내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지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 미셸 푸코(M. Foucault)는 『광기의 역사』에서 일상과 함께 공존하던 부랑자, 빈민, 걸인, 범죄자가 수용되기 시작한 17세기, 정신병원이 탄생한 18세기를 거치면서 소위 “광기”는 수용의 대상일 뿐 아니라 질병으로 취급되었다고 설명함.
- 그리고 이는 그 배제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때때로 육체적 억압이 완화되었더라도 제도적인 배제의 영역 속에 절대적 침묵을 강요받게 되었다고 설명함.
- 문제는 이러한 질병과 배제의 제도 속에, 때로는 폭력적으로 때로는 인도적인 선의로 내몰아진 소위 “광기”나 그와 유사한 취급을 받은 “비(非)정상”의 기준은 사상적 권력을 장악한 계몽주의적 이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임.
- 계몽주의가 제기하여 근대 법률의 기초가 된 “천부인권”의 외부에서, 다시 말해 공동체가 약속한 모든 권리에서 제외된 “존재”라는 기준과 논리는 계몽주의적 권력주체의 권력의지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이미 탈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더구나 2020년 이 연구에서 근대권력이 행사한 권력의지를 되짚는 것은 이러한 문화의 잔재가 우리사회의 각종 차별구조를 해체하거나 개선하는 데 여전히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임.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정책과 실천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복지적 태

도, 특수교육적 태도나 비(非)장애인 중심적 예술태도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실천은 자리매김하기 어렵다는 점(주윤정, 2018, 1쪽)을 상기할 때, 여전히 본질로부터 문제 점을 탐색하는 노력은 유효함.

■ 근대적 질서의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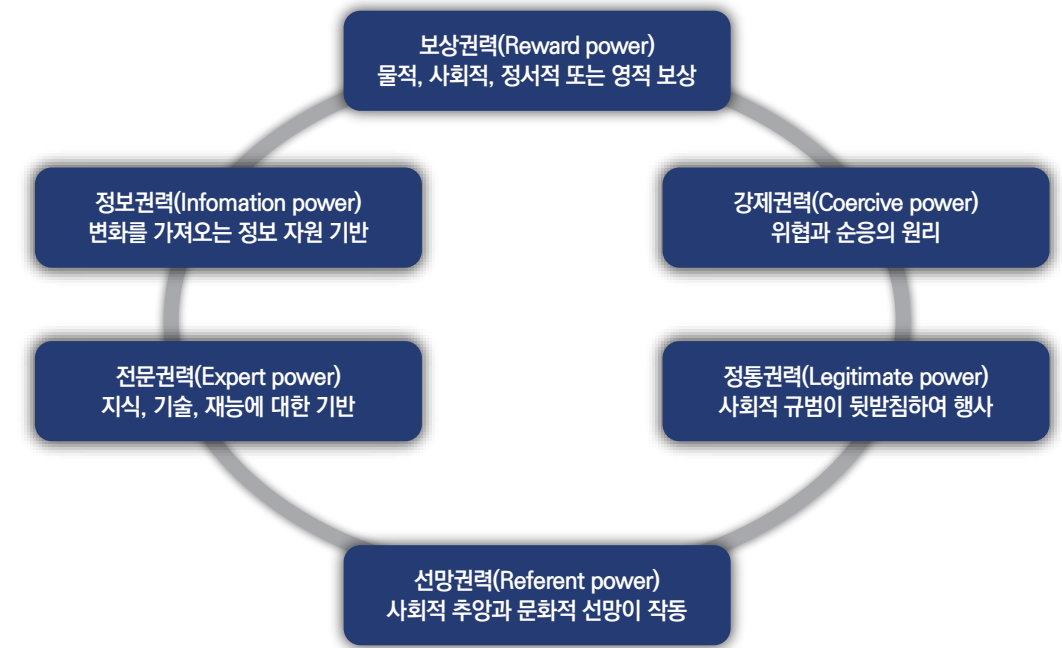
- 사전적 의미에서 권력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의미함. 또한 인류사회는 역사적 단계마다 지배 권력에 의해 경제, 사회, 정치가 장악되고, 이를 유지하는 문화가 구축되어옴.
- 이때의 지배문화란 통치자 중심, 유산자 중심의 문화이며, 이것이 사회의 정상으로 가동되어 사회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심급으로 작용하며, 사회나 국가의 “정상성”을 구축하고, 그 반대편은 철저히 “배제”하여 왔음(박치완, 2012, 349쪽).
- “정상성”이 구축된다는 것은 사회의 질서체계가 구축된다는 의미로 문화 즉,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예술 및 문학 형식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 문화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침.
- 때문에 지배문화에 의해 “광기” 혹은 “질병”으로 구별지어진 영역 혹은 존재는 “비(非)정상”의 영역으로 추방되거나 감추어진 채 “배제”될 수밖에 없음.

■ “정상성”의 원리

- “정상성”을 획득한 지배권력의 성격과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프렌치(J. French)와 레이븐(B. Raven)이 제시한 유형 모두 권력 기초가 강할수록 권력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모든 유형의 힘에 대해 범위의 크기는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망권력이 가장 넓은 범위를 갖는다고 설명하여, 문화적인 작동을 중요하게 봄.
- 장애인을 “비(非)정상성”의 범주로 구별하는 지배권력의 의지와 문화가 작동되는 방식은 푸코가 통찰한 170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음.
- 법과 제도로 작동하는 “비(非)정상성”은 자연스럽게 법률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비(非)정상성”을 감시, 처벌, 감금, 통제할 때 “정상성”이 작동하게 됨.
- 의학에서 작동하는 “비(非)정상성”은 의료 행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치료나 간호, 격리 등을 통해 “정상성”이 작동하는 질서를 훼손하지 않게 함.
- 또한, 복지적 측면에서 작동하는 “비(非)정상성”은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데, 사회 복지방법론의 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대개 돌봄, 서비스, 재활을 통해 유

사 “정상성”을 획득하거나 “정상성”을 관리하게 됨.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추구하는 “정상성”과 “비(非)정상성”의 경계가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으며, 그것이 결코 절대 진리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임.
- 이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기술발전의 정도 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때 사회 문화적 인식이나 가치의 작동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여 왔음.



(그림 II-1) 사회 권력의 기반

출처: 프렌치 & 레이븐, 「The Bases of Social Power」, 1959, 236~268쪽
*정보권력은 1960년 수정본에서 추가된 내용임.

2) 현대사회와 주체의 등장

■ 근대의 위기와 대중의 탄생

- 근대 계몽주의는 자본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1, 2차 세계대전은 계몽주의의 확장과 동시에 몰락을 앞당김.
- 전후 흩어진 근대질서로의 재편을 위한 시도는 자본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마침내 대량 소비시대라는 환경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됨.
- 근대권력은 대중을 통치하기에 적합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는 “질서”를 공고히 하는 대신, 소비주체로 재구성하고, 자본주의적 욕망을 극대화하기에 이름.

-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인 “대중”의 탄생은 대중을 통치의 대상에서 소비의 주체, 복지의 대상으로 그 위상을 변화시키기에 이룸.
-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사회복지의 경계에서 때로는 포섭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제되어 왔으며, 우리사회도 서구의 전개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문화주체로서의 대중

- 근대적 질서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서, 유럽의 68 혁명, 미국의 반전 운동은 대중의 욕망을 드러내는 역사적 계기가 됨.
- 1960-70년대 유럽과 북미대륙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회적 저항은 대개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청년, 학생, 이민자, 노동자, 흑인, 여성 등이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었음.
- 이러한 흐름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가장 획기적인 민권과 인권의 신장을 가져 왔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새로운 전기를 만들게 됨.
-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정치적 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정상성”에 대한 해체와 “비(非)정상”에 대한 철학, 의학, 과학적 문제제기는 활발하게 전개됨.

■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 “비(非)정상”의 문제는 곧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와 닿아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탐색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
- 근대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계급의 문제 즉, 빈곤의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 허용된 프레임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배제”의 관점은 수많은 소수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각임.
- 불평등의 문제가 오로지 빈곤의 문제로만 해석되는 것은 경제 중심적인 단일한 시각에 기초한 것이며, 이 시각에는 수많은 배제가 이미 작동하고 있음.
- 다시 말해서 장애인차별, 여성차별, 아동학대, 가정폭력, 인종차별, 종교갈등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의 실제적 문제는 배제되어 있으며, 부차적으로 취급된다는 점임.
- 문화의 차이 혹은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등장한 질문이 바로 “왜 그리고 어떻게 배제하는가?”라는 문제임.
-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 사용은 197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시작하였고, 1990년대 들어 유럽연합(European Union) 각국에서 본격 도입되었음(박신의 외, 2020, 13쪽).
- 이러한 전환은 기존의 빈곤이나 불평등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배제 개념으로 빈곤의 문제를 경제적 개념에서 더 나아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됨.

- 빈곤은 물질적 자원, 특히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수입 부족과 관련되지만, 사회적 배제는 사회에서 한 인간의 사회 통합을 결정짓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시스템으로부터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차단되는 동적 과정을 가리키는 종합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음(박신의 외, 2020, 13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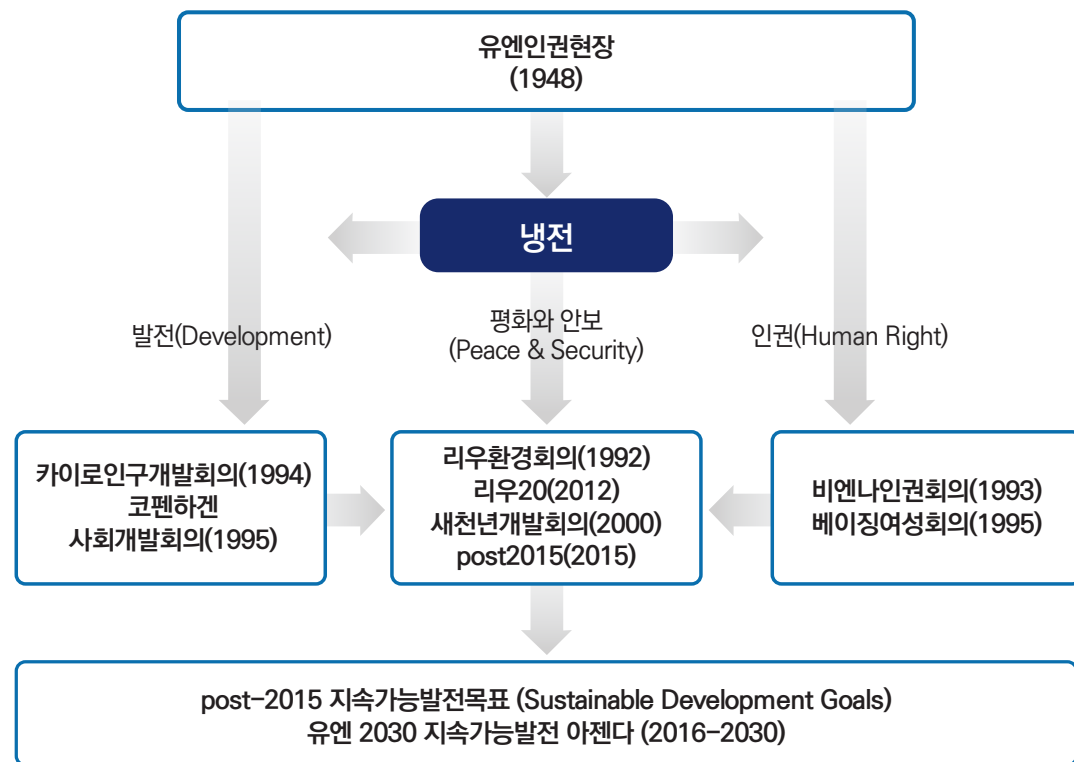
■ 문화권에 기반한 문화다양성의 제기

-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권차원의 문제제기는 사회 내 존재하는 수많은 소수자의 존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됨.
- 1980-90년대는 기존 질서에 의해 배제된 수많은 소수성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으며, 이것이 하나의 가치로 정립된 것이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임.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에서는 사회와 각 사회 구성원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화는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서,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선언 전문).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다른 시선에 의해 배제되거나 대상화될 수 없음.
- 또한,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으로, 장애인의 문화가 그 자체로서 존중되는 것은 사회윤리에 해당되는 것임(선언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 아울러, 이러한 문화다양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권(文化權)”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빠질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실천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선언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써의 문화권).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은 각국의 법률체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각국의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에 국제적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
- 또한, 문화권에 기반한 사회문화정책의 수립에 있어, 배제되었던 주체의 시선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새로운 언어체계와 인식체계가 탐구되고 있음.

3) 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질서의 재구성

■ 자본주의적 질서의 재편

- 위에서 기술한 내용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적 관점의 변화 역시 주목할 부분임. 1945년 이후 국제사회는 경제발전, 안보와 평화 그리고 인권의 의제를 중심축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개별 국가에 영향을 끼쳤음.



(그림 II-2) 국제사회 인권담론 형성과정

출처 : 「국제 여성정책 트렌드 : UN을 중심으로 본 글로벌 정책 담론」,
한국여성단체연합 글로벌젠더정책 브리프, 2018.7.3.

- 이는 국제적 질서 속에서 개별 국가적으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복지를 통해 완성되어갔음.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이러한 국민복지의 완성과 국제적 인권 의제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대 문화주체의 등장 등 위에서 기술한 체계적인 문화의 변화 한쪽에서는 자본주의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남.

■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경제적 재편

- 1970년대 오일쇼크와 함께 세계경제의 위기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 재편되어 전 세계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유경제를 신봉하게 됨.
- 이는 국내적으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¹⁾라는 이론으로 정책화되어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됨.
- 세계화와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효율적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예산의 축소, 작은 정부, 노동의 유연성 확보 등의 정책을 확장하고 결국 사회 불평등 심화를 가져옴(문정호, 2018, 22쪽).
-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를 통해 세계화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낙수효과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임.

4) 포용경제이론과 포용적 관점의 확산

■ 포용경제에 대한 자각

- 포용성장을 기반으로 한 포용경제이론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단인 국제금융자본의 패권주의와 일국 내 양극화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함.
- 이는 과거의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고 소외의 심화라는 양상으로 진행되어 도리어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삶의 질 개선과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함.

〈표 II-1〉 포용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

국제기구	문제의식	내용
세계은행	2009년부터 탐구를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논의 활성화	2015년에는 사회적·경제적·공간적 측면을 아우른 포괄적인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적 포용 측면에서 생활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에의 균등한 접근성 향상을 핵심 정책의제로 제시

1)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임.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함.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음.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음.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용어사전).

국제기구	문제의식	내용
OECD	2012년부터 제기하기 시작하여 빈곤감소, 불평등 해소, 참여확대, 지속가능성 추구 등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시	OECD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데, 역량 강화란 스스로를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인식하고 이를 추구하는 과정, 즉 개인 또는 공동체가 각자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
UN-헤비타트	2015년 공간적 포용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	포용도시 논의의 밑바탕에는 현대도시 저변에 깔려있는 불균등과 불평등의 해소가 급선무라는 인식 존재 특히 소외계층에게 공평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권리, 즉 사회정의와 보편성 회복에 방점
다보스포럼	2017년 다보스포럼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저해요소로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주목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으로 기존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모델의 실패 언급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담론 속에 기술을 통한 배제의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제안

출처 : 김수진, 「해의 포용도시 정책 동향과 사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8 / 문정호, 「포용도시 등장배경과 의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7 / 김상민,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적 접근으로서의 포용도시 : World Bank와 OECD의 사례」 재구성

■ 배제를 배제하는 포용사회의 실험

- 이러한 흐름은 경제체제는 물론, 도시설계와 운영, 교육, 복지정책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포용국가를 선언함.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웠고, 2018년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사회 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함.
-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한 정부는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함.
- 이러한 계획 중에는 2018년에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 더 나아가 포용에 대한 의제는 매우 초보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문화적 인식의 향상과 정치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혜자 혹은 정책 공급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로 제기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 배제된 존재에서 포용의 대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임.
-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이자 개별적 존재로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스스로의 문화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음.

2. 오늘날 요구되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임무

1) 인간의 삶에 조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맥락²⁾

■ 사회적 맥락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이 가진 사회적 역할이며, 예술이 인간의 삶의 문제로 환원되어 창조하는 인문적 가치임.
- 문화예술교육은 복잡한 맥락을 가진 개념으로,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환경과 내용이 변화할 때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해 옴.
- 예술은 신성하거나 이상적인 정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음. 예술의 탄생이 삶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에서 시작되어 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함.
- 종교 의식으로 자리 잡은 예술이 높은 가치를 표현하든(흔히 ‘이데아(idea)’라고 하는), 신의 세계를 표현하든, 삶의 내용과 가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삶과 일정한 거리가 있었음.
- 근대사회에 이르러 예술은 근대 이성을 표현하고, 근대적 가치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높은 미적 수준의 가치를 담는 고매한 인간 활동의 영역으로 존재함.

■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 예술이 비록 인간의 삶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인간의 삶과 삶의 방식에

2) 최혜자, 「경기형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연구」, 경기문화재단, 2019, 13~17쪽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은 지극히 인간 행위의 영역임.

- 예술이 인간의 감정과 인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발상으로부터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I. Kant), 프리드리히 쉴러(F. Schiller)임.
- 프리드리히 쉴러는 예술이 인간의 미적 감성을 촉진함으로써 내적 조화를 얻을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혼란스러운 1700년대 말, 시민에 대한 ‘미적 교육’을 통해 보다 행복하고 이성적인 사회 질서를 찾아갈 수 있다는 시각임.

■ 문화예술교육의 재소환

- 문화예술교육의 의미가 새롭게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중반의 일임. 아동에 대한 보통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알렉산더 니일(A. Neil), 루돌프 슈타이너(R. Steiner), 존 듀이(J. Dewey) 등 진보적인 교육학자³⁾를 중심으로 아동기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함.
- 이때의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유로운 사유, 노작활동, 영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예술이 가진 ‘매개성’을 주요하게 읽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대와 차이를 보임.
- 이러한 흐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 예술교육운동으로 확장되는데, 허버트 리드(H. Read)는 근대의 분절된 학문 체계와 지식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고, 인성 교육을 위해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을 주장함.⁴⁾
- 이윽고, 문화예술교육은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많은 나라에서 문화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1997년 영국은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목적으로 예술교육을 정책화하기에 이르렀고,⁵⁾같은 해 미국도 21세기 미국의 위상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⁶⁾
- 이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추진된 과정과 유사한 과정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흐름임.

-
- 3) 이 흐름은 서머 힐을 설립한 알렉산더 니일, 발도르프학교를 설립한 루돌프 슈타이너, 시카고 실험학교를 설립한 존 듀이 등에 의해 제기되었음.
 - 4) 통합적, 창조적, 개성적으로 미적 감수성을 고양하는 허버트 리드의 예술교육론은 심미 교육(aesthetics education)으로, 개인과 외부 간의 통합과 조화를 통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인간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쉴러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
 - 5) 영국의 예술교육은 신노동당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정책으로 자리하였는데, 미래사회 창의 산업을 이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문화기관 간의 창의적 협력(creative partnership)을 강조하였음. 이 정책은 보수당 정부 집권이후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부활함.
 - 6) 미국의 대통령 산하 예술·인문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Humanities)는 21세기 미국의 국가적 위상을 지속하기 위해서 예술과 인문분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는 미국의 국가예술기금(NEA)의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최근 미국은 전국의 빈곤층 초·중등학교에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프로그램 ‘턴어라운드 아트(Turnaround Arts)’를 실행하고 있음.

■ 현대사회와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시대적 맥락이나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중요성은 미래사회에 대한 이슈와 관련이 있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근대적으로 세분화된 학문 체계와 지식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고, 삶에 기반한 통합적 교육활동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장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마을학교, 혁신학교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평등한 권리와 사회통합의 방법으로써 활용되는데, 이는 1980년대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을 확대한 프랑스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임.⁷⁾
- 문화예술교육은 빈곤과 소외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써 치유의 개념을 결합하여 활용되고, 대부분 세계적인 예술단이나 오케스트라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에 해당됨.⁸⁾
- 더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은 주체 성장과 사회 혁신의 영역으로 확장되는데,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é Antonio Abreu)의 엘시스테마(El Sistema)가 이에 해당됨.⁹⁾
- 한편, 최근 문화예술교육은 기술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리더러시 혹은 창의적 인재 육성과 관련된 영역으로 활용되는데,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은 IT기술과 미디어와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음.¹⁰⁾
-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하게 그 의미와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는 예술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과 관련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확장 and 실천

- 문화예술교육은 이렇듯, 근대 이후 역할과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현대사회에 들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외부 환경적인 이유는 ① 현대사회가 기존의 근대적 틀로부터 해체되고 있는 전환기라는 점, ②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과 맞닿아 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내적 이유로는 ① 예술은 속성 상 새롭게 구성

-
- 7) 프랑스는 1983년 처음으로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을 확장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예술교육과 달리 예술가가 직접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임. 이는 어릴 때부터 예술을 접함으로써 문화자본의 평등에서 사회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는 프랑스사회의 인식에 기초함.
 - 8) 서구사회 유명 오케스트라, 예술단들이 주로 빈곤계층의 아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베를린 필 하모니의 프로그램 ‘리듬 이즈 잇(Rhythm Is It)’은 영화화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함. 일본에서는 한신 대지진 이후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확산됨.
 - 9)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는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창립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센터, 음악 워크숍의 연합으로서 25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악기를 배우고 있음. 이는 하나의 운동으로 베네수엘라의 빈곤과 부패로부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활동임.
 - 10) 영국은 신노동당 정부 시절부터 창의 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술과 접목한 창의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의 확장을 기하고 있음.

하고 탐구하는 실천 영역의 활동¹¹⁾이라는 점, ② 예술이 기존 문화방식을 대체하는 상징과 이미지, 언어를 구축하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 활동이라는 점임.

- 자본주의적 경쟁구조로 인한 양극화, 기술발달로 인한 노동구조의 변화 등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구의 기후 위기는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때문에 오늘날의 문화예술교육은 변화하고 있는 인간의 삶에 조응하여, ‘배제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이에게 부여된 의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탐구가 요구되고 있음.

〈표 II-2〉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유

구분	내용
외적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근대적 틀로부터 해체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 -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기존 방식의 한계
내적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틀을 새롭게 구성하고 탐구하는 예술활동 - 새로운 상징과 이미지, 언어를 구축하는 예술 특성에 기초한 활동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의제와 프로그램 개발의 주요 이슈

■ 본 연구에서 전제되는 이슈

- 본 연구에 앞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이슈 도출은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작점임.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초기 자문회의를 통해,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슈를 진단함.

〈표 II-3〉 자문회의 개요

구분	내용		
목적	- 국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진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운영	1회	2020.9.12. (토) 14:00~16:00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장애학의 도전』 저자) 김소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근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11)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고대사회에서는 예술과 과학이 분리되지 않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의미함.

구분	내용		
운영	2회	2020.9.19. (토) 10:00~12:00	고영직 (문학비평가) 고주영 (PD, 연극/공연기획) 문해주 (예술가) 서찬석 (예술가) 안경모 (연출가)
	3회	2020.9.19. (토) 13:00~15:00	김인규 (예술가) 김보람 (길공방) 김호나 (밝은방 운영자) 손한샘 (예술가)
주요 내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등 전반 환경 진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 모색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현장의 실험이 갖는 의미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이슈

① 본 연구가 주목해야 하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을 전문 예술가로 진출하게 하는 직업교육 혹은 전문교육과 차이가 있음.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방안과 프로그램을 탐구하는 것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 기초한 보편 권리’를 기본으로 하여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주체인 발달장애인의 자기 욕구와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읽기 어렵다는 점에 있음. 발달장애인의 생존과 행복을 기대하는 다양한 욕망과 의지가 작동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탐구와 관찰을 통해 자기결정권이 드러나는 방식에 대한 사유와 탐색에 기초하고자 함.”

②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장애인의 인권이 과거에 비해 점차 조명되었더라도 질적인 차원에 있어 법적·정치적 측면에서 인격체로 존중받아왔는지는 또 다른 문제임.
-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질병이나 장애 또는 고령에 의해 무능한 상

태라고 간주된 사람의 결정을 후견인이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음(김도현, 2019, 246~247쪽).

- 이 사실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후견제도를 둠으로써 발달장애인을 자율적인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래서 현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여러 주체들이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의견과 판단을 소통하고 조율해가며 실현할 수밖에 없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음.
- 물론 장애인 특히,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혹은 주체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매우 난해한 문제이며, 비(非)발달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주체성과 동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천적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이처럼 논란이 있는 자기결정권을 연립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핵심요소는 ‘판단’과 ‘소통’이며, 판단과 소통능력을 표준적인 이성과 비(非)발달장애인 중심의 언어 표현에 국한, 획일화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음(김도현, 2019, 346~363쪽).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판단과 소통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비(非)언어적인 방식 등 서로 다른 소통방식을 지닌 주체들이 공통의 감각과 역량을 개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자 함.”

③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부모의 기대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중 발달장애인이 약 80% 정도이며, 이중 약 10~20%는 자신을 예술가라고 생각함(박근화, 전문가 자문회의).
- 실제 발달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중 문화예술활동에 가장 적극적이며, 발달장애인 부모 중에는 자신의 자녀가 전문 예술가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에 기초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본연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함.
-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본인의 의사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의 목소리가 발달장애인을 대리하여 표현되고 있는 현실임.
- 또한, 부모 혹은 협력자와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이 맞을 때 문화예술교육의 과정을 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와의 소통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소통만큼이나 중요하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주체 간의 협력과 이해에 기초한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함.”

④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두어야 할 것인가?

- 본 연구가 보편 문화예술교육에 집중한다고 해서,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음. 이는 문화예술교육에 일관성 있게 제기되는 주체,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장애인 예술이 서구와 같이 하나의 표현으로 인식되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예술가가 “역경을 딛고” 성취한 인간승리의 서사로 소비되는 경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러한 서사가 대중의 관심을 이끄는 요인이라는 점 역시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술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상징과 이미지, 언어를 생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음.
- 이는 서구사회에서 “아웃사이드 아트(outsider art)” 또는 “아르 브뤼트(art brut, raw art)” 혹은 “포용예술(inclusive arts)”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예술이 가진 독자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독자성과 개별성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과정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전문예술과 생활문화 혹은 생활예술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혹은 비(非)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자칫 대상을 훈육하고,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보편의 원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본연의 “예술”을 이탈한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또한, 이는 기존의 “예술”을 목표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지양되어야 할 지점이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경계해야 할 내용임.
- 모든 문화예술교육이 그러해야 하듯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역시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닌, 경험 그 자체의 과정에 집중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관점에 충실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지지하는 보호자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표현감수성,
상호주관성을 증진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함.”

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획자와 강사(예술가)의 태도와 역할

- 문화예술교육을 함께하는 기획자나 강사(예술가)를 단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사람 혹은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으로 규정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자나 강사(예술가)는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것보다 편견 없는 시선, 동등한 사람으로서 대할 수 있는 태도와 철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발달장애인과 함께 활동을 하는 강사(예술가)는 진정한 의미의 ‘매개자’이며, 단지 활동의 매개자일 뿐 아니라, 상호 교감하고 보호자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과 함께, 세상과 매개하는 일종의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매개자는 발달장애인과의 공감, 관찰 등을 통해 개별의 욕망을 이해하고 표현을 도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주체성이 매개자를 통해 발현되기도 하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함. 다만 주체성을 대리하는 개념으로 치환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 발달장애인보다 매개자 혹은 강사의 인원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에 주목해야 하고, 이들의 특성과 교감의 과정을 위하여 조율되어야 하며, 되도록 1:1 매칭이 필요함.
- 이러한 의미에서 매개자는 비단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예술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자를 포함하며, 넓은 의미에서 가족, 보호자, 활동지원사, 보조인력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매개자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매개자의 역할, 자세, 태도 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함.”

⑦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장문원의 역할

- 발달장애인을 특수한 대상으로 보고 정책적 방향을 세우기보다 문화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와 목적, 사회적 태도 등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교육자가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인가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문화예술을 잘 경험하게 할 것인지로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 실제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거나 자립생활의 조건을 갖춘 경우는 경제적 환경과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적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도 고려해야 할 지점임.
- 한편, 장애인 관련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부처 간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에서 부처 간 협력방안은 모색되어야 하는 부분임.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맥락과
정책과제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구축에 집중하면서,
보편적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 가운데 장문원이 선도적 실험의 필요성에 따라
위치하고자 함.”

III .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

-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 이해
-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정립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

III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 이해

1)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법적 정의

■ 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의

- 장애인의 법적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이때 장애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고 있음.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1. 지체장애인 (肢體障礙人)	2. 뇌병변장애인 (腦病變障礙人)	3. 시각장애인 (視覺障礙人)
4. 청각장애인 (聽覺障礙人)	5. 언어장애인 (言語障礙人)	6. 지적장애인 (知的障礙人)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礙人)	8. 정신장애인 (精神障礙人)	9. 신장장애인 (腎臟障礙人)
10. 심장장애인 (心臟障礙人)	11. 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礙人)	12. 간장애인 (肝障礙人)
13. 안면장애인 (顔面障礙人)	14. 장루·요루장애인 (腸瘻・尿瘻障礙人)	15. 뇌전증장애인 (腦電症障礙人)

■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 정의

- 장애인 유형 중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구분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발달장애인법」에 의거하고 있음.
- 여기서 ‘발달’은 성장에 따른 기능적 발전 과정을 말하는데 대개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 가.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나.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따라서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뒤쳐져 있는 경우에 해당됨(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의학정보).

2) 발달장애인 정의의 지속적 변화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의 변화

- 발달장애는 여타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장애에 비해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표현방식에서 보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음.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장애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표현·자기결정 등의 자립 역량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1~3급)이면서 중복장애의 비율도 높음. 중증 지적장애는 구어가 어렵고 운동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감각손상, 뇌성마비, 간질 혹은 정서장애와 같은 중복장애를 보이고, 학업과 사물·현상에 대한 이해능력이 제한됨(백은희, 2009).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언어 및 의사소통에서의 손상,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형태 등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음(Strock, 2004).

출처 : 윤민석,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13, 9쪽 재인용

- 발달장애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아동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신과적 장애들의 집합으로 여러 영역에 심각한 장애를 동반한다고 보고 있음(서울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18쪽).

〈표Ⅲ-1〉 발달장애의 의학적 의미

구분	내용
좁은 의미	국제질병분류 10판(ICD-10)에서 분류한 “심리발달의 특정장애들(Specific Disorder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에 속하는 장애를 말함. 구체적으로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s), 학습장애(learning disorders), 운동장애(motor disorders),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¹²⁾ 를 가리킴.

12) 자폐증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도 과거에는 ① 자폐 장애 (autistic disorder(autism)), ② 아스퍼거 장애 (asperger’s disorder), ③ 아동기 붕괴성 장애 (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④ 레트 장애 (rett’s disorder), ⑤ 달리 특정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not otherwise specified)의 5가지 유사하지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장애를 따로 기술하였으나 가장 최근의 미국정신과학회의 진단기준인 DSM-5에서는 다양한 임상적인 양상을 한가지 질병의 심각도에 따른 스펙트럼 상의 표현으로 보고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라는 단일 명칭으로 바꾸었음. (출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치료 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19쪽)

구분	내용
넓은 의미	미국정신의학회 진단기준인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은 “영아기·소아기·사춘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라는 카테고리 묶어서 발달장애와 발달장애라고 하기 어려운 장애를 모두 나열하였으나 2013년에 발표한 DSM-5에서는 “신경발달장애(Neurodevelopmental Disorders)”라는 카테고리를 만들. 여기에 속하는 장애로,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의사소통장애(communication disorders), 자폐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order), 운동장애(motor disorders), 기타신경발달장애(other neurodevelopmental disorder)를 포함함.

출처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치료 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18쪽 재구성

■ 발달장애에 대한 규정의 지속적인 변화

- 발달장애는 초기의 정의로부터 지속적으로 재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표 III-2〉 발달장애에 대한 의미의 변화

시기	학자	내용
1943년	레오 카너 (L. Kanner) ¹³⁾	발달장애의 특징 : ① 언어습득장애, 대화의 어려움, 반항어, 상동증, 동일성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 ② 남아가 대부분, ③ 대두증(macrocephaly), ④ 모든 아동이 선천적으로 사람과 감정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장애
1944년	한스 아스퍼거 (H. Asperger) ¹⁴⁾	카너가 기술한 아동과 유사한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에 대해 보고하면서 ‘자폐적 정신병리(autistic psychopathy)’라고 명명하였으며, 언어기능의 장애가 없었다는 점에서 카너의 기술과 차이를 보임.
1964년	버나드 림랜드 (B. Rimland) ¹⁵⁾	자폐증의 원인은 잘못된 양육 등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뇌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생물학적 원인이라는 것이 현재의 정설이 됨.
1967년	마이클 러터 (M. Rutter) 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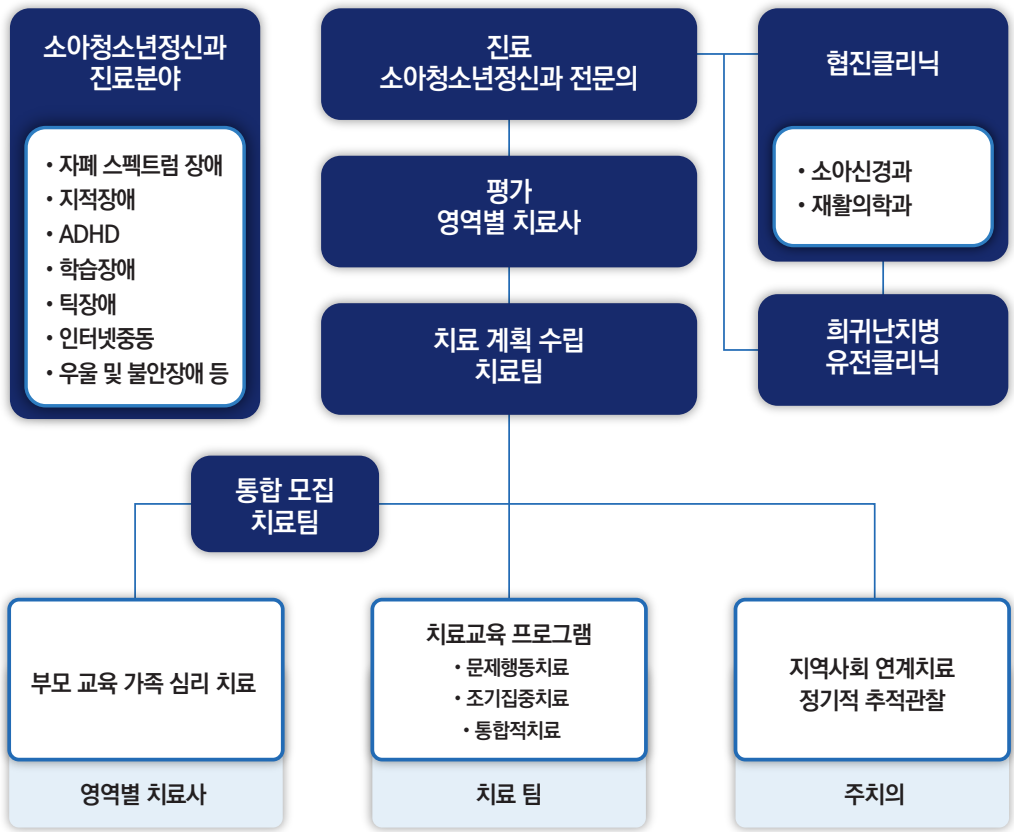
출처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치료 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19쪽 재구성

13) L. Kanner (1894 ~ 1981)는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이며 자폐증 연구의 대가
14) H. Asperger (1906 ~ 1980)는 오스트리아 출신 의사로 자폐증 연구의 선구자
15) B. Rimland (1928 ~ 2006)는 발달장애 분야의 미국 연구 심리학자
16) M. Llewellyn Rutter (1933~)는 영국의 정신병리학 교수이자 심리학자

3) 발달장애 진단과 특성

■ 발달장애의 진단

- 발달장애는 대개 영유아기 혹은 학령기에 발견되는데, 지능, 언어, 사회성, 운동, 감각 등의 발달 지연 혹은 불균형을 보이며, 상동행동과 같은 행동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진단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발달장애는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진단으로, 개별의 환자들은 모두 서로 다른 증상과 특징을 보이며, 개개인에 따라 증상이 다른 것처럼 원인 또한 복합적이고 다양함.
- 따라서 발달장애를 진단하는 과정은 전문가에 의한 면담 및 관찰, 심리평가, 신체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등을 실시한 소견을 종합하여 진행되고 있음.



(그림 III-1)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장애인 진단 프로세스

출처 : 서울특별시 어린이 병원 홈페이지, 발달센터, 발달장애의 진단, 재구성

■ 발달장애와 관련된 특성

- 대부분의 장애가 ‘사회적’ 관점에서 정의되지만, 특히 발달장애는 환경이나 주변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차이 정도의 변화가 큼.
- 그러나 발달장애의 행동적 특성을 한두 가지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일정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
-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양육길라잡이- 발달장애 양육지식정보』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을 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을 설명하고 있음.

〈표 III-3〉 영유아기 발달장애 시 자주 나타나는 증상

- 시각, 청각, 촉각, 운동감각 등의 이상
- 지시 따르기가 잘 되지 않음.
- 눈-손 협응 등의 운동 협응이 잘 되지 않음.
- 또래에 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역(언어, 사회성, 학습)에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발달이 지체됨.
- 또래에 비해 말을 하는데 지체를 보이거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사회적인 규범이나 예절 등을 이해하기 어려워 함.
-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어려워 함.
- 쉽게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함.
- 쉽게 싫증을 내거나 피로감을 느낌.

출처 : 『양육길라잡이- 발달장애 양육지식정보』, 국립특수교육원, 15쪽

- 대체로 발달장애를 진단하는 내용은 어떠한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를 걸러내는 언어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발달장애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작동함.

100년 이상 동안 마이크(Mike)와 같은 사람들에게 미국사회가 한 일들

- 진단을 내리고
- 학교교육에서 배제하고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의 부모에게 말하고
- 그가 배울 수도 가족의 기쁨이 될 수도 없다고 말하고
- 그리고 그가 대형시설에 살아야 한다고 말함.



부모들은 왜 그랬을까?



-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 주로 의사들이 그랬음.
- 의사는 권위가 있고
-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그림 III-2) 발달장애인의 삶을 결정한 과정

출처 : 제임스 콘로이¹⁷⁾, 「미국의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거주」, 2015 장애인정책 국제포럼, 15쪽, 17쪽 재구성

■ 지적장애 진단과 특성

- 현대아산병원 홈페이지 질환백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의 영역인 지적장애는 지적인 기능이 평균 이하인 상태로서, 지능 발달의 장애로 인하여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 적응 행동의 장애로 관습의 습득과 학습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의미함.
- 위의 설명에 의하면, 과거에는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08년 지적장애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으며, 지능 발육 지연의 정도에 따라 경도(지능지수 50~69), 중등도(지능지수 35~49), 고도(지능지수 20~34), 최고도(지능지수 20미만)로 구분하고 있음.

〈표 III-4〉 지적장애 진단

지적장애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 ① 임상적 평가와 표준화된 개인 지능 검사에 의해 추론, 문제 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교의 학습, 경험을 통한 학습과 같은 지적 기능의 결함을 확인

17) 제임스 콘로이(James W. Conroy)는 미국에서 1970년에 생리심리학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시설 설립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발달장애인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되었음. 이때 “Pennhurst 주립학교 및 병원”의 열악한 시설환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엄청난 자원을 투자한 결과는 미미했고, 미국 연방 법원에서 “Pennhurst” 시설은 본질적으로 위험이라고 판결함. 여전히 탈시설화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제임스 콘로이는 “Pennhurst” 시설 종단연구를 시작하였음. 이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돌아간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매우 개선되는 결과를 보게 되면서, 장애인 탈시설화에 관한 연구, 강연을 이어가고 있음.

- ② 개인적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감에 관한 발달적 표준과 사회문화적 표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적응 기능에서의 결함이 확인됨.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적응 결함에 의해 가정, 학교, 일터, 공동체와 같은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 사회적 참여, 독립적인 생활과 같은 일상적 활동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이 제한됨.
- ③ 발달적 시기에 지적 결함과 적응 결함이 시작됨.

출처 : 현대아산병원 홈페이지, 건강정보, 질환백과

■ 자폐성 장애 진단과 특성

- 현대아산병원 홈페이지 질환백과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는 아동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언어성 및 비(非)언어성 의사소통의 장애, 상동적인 행동, 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라고 함.
- 위의 설명에 따르면, 대개는 3세 이전에 다른 또래들과 발달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18개월경에 언어 발달이 늦어서 발견되기도 하고, 지능이나 자조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부 아이들은 학령기가 되어서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기도 함.
- 각각의 문제 행동이 광범위한 수준에 걸친, 복잡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도 부름. 이 때문에 같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유아라도 보이는 모습은 각기 다를 수 있음.

〈표 III-5〉자폐성 장애 진단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DSM-V 진단 기준

- 다음 3개 모두를 보이는 사회적 대화,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
 - ① 사회적 정서적 상호성의 결핍 : 비(非)정상적인 사회적 접근시도, 정상적으로 오고 가는 대화 실패, 흥미/정서/감정의 공유가 적음,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의 총체적 부족
 - ② 비(非)언어적 대화 기술의 결핍 : 언어적, 비(非)언어적 대화기술의 통합이 잘 안 됨. 눈맞춤, 비(非)언어적 의사소통 결핍, 얼굴 표정과 제스처가 없음.
 - ③ 관계를 맺고 유지함에 결핍 :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에 어울리는 행동을 못함, 상상놀이 공유가 어려움, 친구 맺기 어려움, 사람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음.
- 다음 4개 중 2개 이상 만족하는, 행동, 관심, 활동의 제한된 반복 패턴
 - ① 상동적인 또는 반복되는 말, 움직임, 물체 사용
 - ② 틀에 박힌 일, 의식에 집착하고 변화를 극도로 거부함.
(예. 같은 길, 같은 음식을 고집, 반복적으로 질문, 작은 변화에도 극도로 스트레스)

- ③ 비(非)정상적인 흥미
(예. 비일상적인 물체에 강하게 집착, 흥미가 매우 국한되어 있음.)
 - ④ 감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 과하거나 적음,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감각 자극에 흥미
(예. 통증/열/차가운 것에 대한 무관심, 특정 소리나 촉감에 대해 비(非)정상적 반응, 물체의 냄새 맡는 것이나 만지는 것을 지나치게 함. 물체를 뱅뱅 돌림.)
3. 어릴 때 상기 증상들이 있어야 함.
 4. 일상 기능에 제한을 주어야 함.

출처 : 현대아산병원 홈페이지, 정신의학과, 정신건강이야기

4) 발달장애인의 현황

■ 장애유형별 장애인 현황

-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체 등록장애인은 2,618,918명이며, 이중 지체장애의 비중이 46.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청각장애로서 14.4%에 해당함.
-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친 발달장애인은 241,614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9.2%에 해당함.

■ 발달장애인 현황

- 등록된 발달장애인 241,614명 중에서 성별로는 남성 발달장애인(152,566명)이 여성 발달장애인(89,048명)보다 6만 3천여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전체 장애인의 경우 60대, 70대 이상, 50대 순으로 많으나, 발달장애인은 20대, 10대, 30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분포에 차이를 보임.
- 장애유형으로 보면, 지적장애가 212,936명이며, 자폐성 장애가 28,678명으로 나타나 지적장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6〉장애유형별 장애인 현황

장애 유형	연령 성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총계
지체 장애	계	848	3,392	12,718	42,638	119,073	258,770	323,644	462,052	1,223,135
	남	478	1,959	8,219	32,998	94,606	190,816	200,108	179,062	708,246
	여	370	1,433	4,499	9,640	24,467	67,954	123,536	282,990	514,889

장애 유형	연령 성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총계
뇌병변 장애	계	5,701	6,340	7,037	8,968	16,273	36,843	60,880	110,146	252,188
	남	3,211	3,651	4,312	5,894	11,101	25,220	39,414	51,814	144,617
	여	2,490	2,689	2,725	3,074	5,172	11,623	21,466	58,332	107,571
시각 장애	계	728	2,251	6,173	13,258	27,197	45,123	56,291	102,034	253,055
	남	407	1,318	4,213	9,533	19,310	30,844	35,330	49,306	150,261
	여	321	933	1,960	3,725	7,887	14,279	20,961	52,728	102,794
청각 장애	계	1,881	2,820	4,904	6,668	13,030	32,210	60,535	255,046	377,094
	남	1,012	1,520	2,719	3,715	7,416	18,477	36,281	127,934	199,074
	여	869	1,300	2,185	2,953	5,614	13,733	24,254	127,112	178,020
언어 장애	계	3,217	769	499	1,044	2,242	3,752	4,628	5,334	21,485
	남	2,268	509	354	780	1,618	2,708	3,369	3,757	15,363
	여	949	260	145	264	624	1,044	1,259	1,577	6,122
지적 장애	계	11,349	33,356	50,369	37,819	32,869	27,108	14,543	5,523	212,936
	남	7,540	21,040	31,911	23,090	18,672	15,079	8,169	2,831	128,332
	여	3,809	12,316	18,458	14,729	14,197	12,029	6,374	2,692	84,604
자폐 장애	계	6,962	9,526	9,440	2,455	248	39	7	1	28,678
	남	5,662	8,005	8,218	2,109	205	30	4	1	24,234
	여	1,300	1,521	1,222	346	43	9	3	0	4,444
정신 장애	계	0	75	2,600	9,258	24,831	37,187	22,102	6,927	102,980
	남	0	37	1,534	5,150	13,648	19,464	10,149	2,676	52,658
	여	0	38	1,066	4,108	11,183	17,723	11,953	4,251	50,322
신장 장애	계	47	219	1,278	4,636	12,822	23,686	25,559	24,161	92,408
	남	28	134	746	2,681	7,741	14,563	15,379	13,071	54,343
	여	19	85	532	1,955	5,081	9,123	10,180	11,090	38,065
심장 장애	계	100	278	411	315	361	739	1,236	1,826	5,266
	남	63	174	248	176	222	478	853	1,154	3,368
	여	37	104	163	139	139	261	383	672	1,898

장애 유형	연령 성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총계
호흡기 장애	계	14	44	77	162	508	1,676	3,939	5,102	11,522
	남	8	30	43	92	280	1,051	2,836	4,202	8,542
	여	6	14	34	70	228	625	1,103	900	2,980
간장애	계	171	298	237	367	1214	4,263	5,056	1,548	13,154
	남	65	138	110	185	817	3,270	3,729	995	9,309
	여	106	160	127	182	397	993	1,327	553	3,845
안면 장애	계	6	54	120	311	547	677	546	412	2,673
	남	2	26	74	196	351	405	302	203	1,559
	여	4	28	46	115	196	272	244	209	1,114
장루 · 요루 장애	계	30	62	92	224	582	1,894	3,798	8,608	15,290
	남	13	40	60	136	353	1,230	2,490	5,123	9,445
	여	17	22	32	88	229	664	1,308	3,485	5,845
뇌전증	계	66	164	451	932	1,673	2,159	1,285	324	7,054
	남	41	93	290	536	903	1,155	670	167	3,855
	여	25	71	161	369	770	1,004	615	157	3,172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승인통계, 장애인현황, 2019년 기준, 재구성(2020.12.30.)

2.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정립

1)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관점 형성의 필요성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관찰할 필요성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및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 자료로서 이 영역에 대한 국내의 체계적인 정책연구가 별도로 선행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장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적 프레임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 이외에 소

리, 형태, 움직임 등 감각에 주목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개별성을 형성해갈 수 있는 다원적 주체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할 수 있음.

- 이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전문적인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창작자를 위한 교육 현장과 일상 속 각 개인의 관심과 욕구, 욕망을 바라보고 드러내는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체 및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언어화’ 필요성

- 다양한 욕구와 욕망에 의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당사자 외에 보호자, 그리고 매개자 모두를 통칭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때의 주체성은 여러 관련 주체를 동시에 호명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음.
- 이러한 주체들에 의해 현재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이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각각의 장소에서 충돌과 갈등, 화해와 분리, 기다림 속에 새로운 의미들이 펼쳐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의미화하고 언어화할 수 있는 관심과 지원은 빈약한 실정임.
- 그러므로 잘 매듭지어진 경험뿐만 아니라, 시행착오에 의한 힘에 부침, 아쉬움 등으로 기억되는 경험들이 줄 수 있는 통찰들 또한 기록함으로써, 가시화되지 않은 영역을 읽어내어 공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언어화할 필요가 있음.
- 이 언어화 작업의 필요성은 현실과 실천에 기반 실효성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을 넘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을 의미화하고 ‘지지하는 언어’를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명시하는 것이기도 함.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참여관찰에서 형성되는 관점

■ 참여관찰 개요

- 본 연구에서 시행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현장참여관찰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III-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참여관찰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행해지는 공간의 환경적 특성 및 활동 양상 파악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수립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구분	내용			
운영	1회	2020.10.30. (금) 14:00 ~16:00	피터팬 클럽	- 수업내용 : 바이올린 - COVID-19로 인해 합주는 일시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1:1교육만 진행하고 있음.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명의 학생과 1명의 강사, 보호자가 수업에 참여 - 한명에게 30분씩 레슨 시간이 돌아가고, 자기 순서가 아닌 경우 같은 공간에 있거나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귀가할 수 있음.
	2회	2020.11.2. (월) 12:50 ~15:50	로아트	- 성인 중심으로, 6-7명의 작가가 자신들의 공동 스튜디오에서 수업과 작업을 병행하는 시스템 - 기획자 및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각자의 개별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몇 년간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스튜디오를 익숙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임.
	3회	2020.11.5. (목) 10:15 ~11:50	수리 장애인 복지관	- 수업내용 : 난타 외 - 복지관의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외에 여가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운영됨. - 20명 내외 총 7개 반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중증과 경증 장애인이 한 공간에 있되 활동을 같이 하거나 나누어서 하기도 함. - 강사 외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치되어 운영이 원활한 편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진 환경임.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참여관찰은 교육 목적이나 구현되는 양상 등에서 급격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현장에 대한 탐색을 통해 관찰의 주요 관점을 정립함.

〈표 III-8〉 현장 참여관찰의 주요 관점

- 1) 참여자의 활동에 드러난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적’ 특성, 참여자와 강사 및 다른 참여자들과의 ‘관계적’ 특성, 참여자의 보호자가 현장에 가지는 시선에서 드러나는 ‘지원적’ 특성 등을 탐색
- 2)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지향점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예술이라는 활동이 가질 수 있는 의미의 스펙트럼을 예술성 중심으로 탐색

* 하위관점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에 기대하는 표현성, 탁월성이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예술성과 다른가? 혹은 같은가?
- 이로부터 발달장애인이 예술인이 되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지 않은 활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3) COVID-19로 많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후 활동 방향에서 참조할 만한 복합적인 수업 방식의 난점 및 장점 등을 파악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에 대한 관점

- 처음 참여관찰에 가기 전, 계획할 때 발달장애인을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자’로 설정하고 참여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점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무엇을 ‘참여’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됨.
-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했던 수리장애인복지관의 난타 수업이 그러했는데,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서너 명에게 돌아가며 호명해서 복채를 쥐어주고, 복을 치게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동안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거나, 흥 없이 박수를 치는 것 같거나, 끊임없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나오는 양상들이 있음.
- 그러나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루 종일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회복지사의 말을 들으니 일반적으로 참여한다는 말로 떠올리는 이미지를 넘어, 어떤 시공간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상상하게 됨.
- 관심 없는 듯한 눈동자와 더딘 몸짓 중인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순간들, 아니면 그 시간 전부가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떠한 감각으로 다가가는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
- 이것은 바이올린을 배우는 현장(피터팬 클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음. 비교적 잘 따라하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참여자들에게 악보를 보여주고 소리에 집중하는 시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이들을 클래식이라는 인류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일원으로 보고 초대하는 것으로 느껴짐.
- 심지어 무언가 특별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창작자들(로아트)마저도 어쩌면 일상처럼 보이는 시간들, 본격적인 표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호작용들을 주고받음.
-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쌓여 이들이 어떠한 ‘공간’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도 되는 공간, 누군가 작업하고 퍼포먼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

- 이러한 생각의 전개는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수업에 ‘참여’한다는 이미지, 수업의 설정된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 등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요청함.
- 이러한 요청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목적으로 상정하는 것을 구현할 이미지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교육의 성과로서 간주할 산출물은 무엇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에 대한 관점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고민은 곧바로 이 교육이 전문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 즉 ‘엘리트교육’의 성격을 띠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짐. 또한, 한편에서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바라보고 일상을 의미 있게 해석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보편문화예술교육’의 성격을 띠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
- 실제로 로아트의 경우 창작자를 위한 교육 및 워크샵의 성격을 띠고 있고, 피터팬클럽의 경우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 계속 연주를 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함께 합주를 하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시간을 가지는 것 등 비교적 넓은 범위의 욕구들이 걸쳐있음. 반면, 수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그야말로 관심에 따라 잠시 여가를 즐기기 위한 욕구들이 지배적임.
- 그러나 이러한 욕구나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음. 다시 말해서, 소리나 움직임, 눈으로 응시하기, 몸짓해보기, 박자를 느끼고 표현하기 등 감각에 주목하는 활동들로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공통점을 가짐.
- 이러한 공통점이 의미하는 바는 엘리트교육이든 보편문화예술교육이든 정형화되지 않은 어떤 움직임이나 감각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식별될 수 없는 반응을 하는 것이 일련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임.
- 그리고 이것이 문화예술의 자유로움이 가지는 핵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데, 가시적이고 장르적인 산출물을 넘어 소리, 형태, 몸짓 등 감각요소들로 세상과 만나는 것에서 예술의 의미를 찾고 있음.
-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전문 예술가 양성을 위한 엘리트교육도 좀 더 ‘예술성’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임. 여기서 예술성은 위계적이고 장르적인 기능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각적 자유로움 및 존재방식과 연관됨.
- 이를 통해 해당 참여관찰을 ① 인류 유산으로서의 ‘예술 언어’¹⁸⁾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18) 여기서 ‘예술 언어’는 지각적 요소, 이를테면 소리나 리듬, 선, 면, 색, 움직임 등 특정한 형식이 의미를 전달하려는 ‘언어’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함. “인류 유산”으로서의 예술 언어란 우리가 흔히 클래식 등으로 부르는 문화적 산물 등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물이 각 개인에게 살아있는 방식으로, 즉 언어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함. 이렇게 볼 때, 바이올린 교본을 익히는 것은 훈련의 도구로 여겨지는 정전(canon)이지만, 피터팬 클럽 바이올린 수업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스스로의 예술언어로 읽도록 ‘동등하게’ 초대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음. 예술 언어의 독특한 점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명시화되고 명제화된 문자 언어가 아닌 지각적 요소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들

록 초대하는 유형, ②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창작자의 삶과 일상, 상호작용의 방식을 포용하는 유형, ③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 혹은 보다 중증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관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개별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에 관한 관점

- 발달장애인의 당사자성이 얼마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들의 주체성은 온전한 것으로 이해되기 어려움.
- 그러나 현대의 주체성에 대한 관점은 개인의 주체성이 고립된 개별적 자아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해함.
- 이러한 이해를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이들의 주체성은 이들과 관계 맺는 누군가와 함께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서로-주체성’¹⁹⁾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에서 ‘서로-’에 해당하는 누군가는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매개자가 되기도 하며, 옆에 있는 동료가 되기도 함.
- 그리하여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서로-주체’가 될 때는 이들의 선택과 소통을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하게 되고, 문화예술 매개자가 ‘서로-주체’가 될 때는 이들의 표현을 이끌어내는 데 촉진제가 되며, 동료가 ‘서로-주체’가 될 때는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자신의 개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의존체가 되기도 함.
-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획자는 이들 간의 전략적 행위나 사회적 활동을 돕는 ‘서로-주체’가 될 수도 있음.
- 그러나 ‘서로-주체’를 넘어 발달장애인의 욕구가 아닌 보호자의 욕구를 앞세울 때, 그러한 시선은 매개자와 ‘서로-주체’가 되어 발달장애인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기 어려워짐.

또한 악보를 눈으로 읽고 바이올린으로 해당 음을 소리 내고 특정한 박자를 지키면서 그간 인류문화로 내려오던 유산을 접하고 또 이를 향유하는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임. 바이올린을 켜는 엄격한 자세나 매너보다 소리, 음, 박자에 주목하고 이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선생님의 참여 방식은 인류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라는 의미임.

19) ‘서로-주체’는 2020년 9월 19일, 본 연구의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신 김인규 선생님의 발언에서 차용한 것임. 우리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그들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과연 그들의 주체성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그들을 자율적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그러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의 질문을 파고 들어가면, 중국에 주체성의 의미를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난제에 봉착하게 됨. 우리의 주체성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고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맥락 및 관계 속에서 현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볼 때 발달장애인의 주체성은 그들의 지향과 표현을 이끄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나 조력자, 강사를 포함한 매개자와 더불어 형성되며, 고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됨. 여기서 부모나 조력자, 강사는 대리인이나 수혜자를 전제하는 제공자를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영향을 주고받으며 스스로의 주체성 또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음.

- 그 반대에서 보호자의 욕구가 없는, 그리하여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환경’에 대한 관점

- 결국 예술이라는 행위와 목적에 대해 열린 관점을 가지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때, 보호자가 취업 및 생존전략을 넘어서서 이 공간을 인간의 존재방식으로 새롭게 의미화할 수 있어야 함.
- 즉, 당사자가 어떠한 감각적 요소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해도 되는 곳, 그것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환경을 인식하도록 해야 함.
-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수보다는 비교적 소수로 운영되는 환경이 용이할 것이라고 보임.
- 환경으로서의 공간이 자신을 맥락화하는 ‘장소성’²⁰⁾으로 체화되는 문제는 발달장애인에게 특별히 중요할 수 있음.
- 그들에게 익숙한 곳에 처음 보는 사람이 와도, 이를테면 참여관찰자인 연구자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보로로 영상을 보여주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생태공원에 갈 것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려줌.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에 큰 경계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함.
- 그것은 그들이 ‘아무 데나’가 아닌 바이올린을 배우러 가는 곳, 작업을 하러 가는 곳에 온 누군가였기 때문에 더 편안히 여겼다는 생각이 듦. 그 ‘장소’는 반복적인 활동과 시간을 거쳐 그들에게 자신의 무언가를 보여도 되는 곳, 그것을 기다리는 곳으로 인식됨.
- 이러한 장소성이 형성될 때, 점차 개별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가능해지고 소통 가능한 순간이 가시화된다면, 지난한 시간들을 소모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식과 지속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보임.
- 그러나 그 장소가 발달장애인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무조건적인 허용적 공간으로 인식되지는 않아야 함.
- 이들의 경우 상당수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보호자가 해주는 수동성에 익숙해진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몸의 반경 및 움직임의 반경은 표현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됨.

20) 현대인에게 ‘장소성’은 자신의 몸이 처한 역사와 경험들이 체화되는 맥락으로서, 장소가 이해되는 문제는 발달장애인의 경험들을 통해 볼 때 더 극적으로 드러남.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은 어떠한 시공간에 자신이 놓임으로써 무언가를 ‘표현해야 한다.’는 목적성에 강하게 동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차츰 어떤 공간을 ‘무언가 표현하는 곳’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각자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관심과 이해의 속도가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기본적으로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거기에 있을 때 스스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기대 받고 있는지, 무엇을 하도록 타인들이 요청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지 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맥락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 반복되는 행동이나 일상적 일과와 같이 몸에 반복적으로 체화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며 이것은 ‘장소성’을 이해하는 요소들을 새롭게 생각할 필요를 제기함.

“장애인 자녀를 낳고 키워온 부모의 삶이 모두 슬프고 고되게 해석될 필요는 없으나, 사회와 가정 안에서 타인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장애인의 부모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 이전에 장애인의 보호자로서 호명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렇게 10년, 20년 시간이 쌓이고, 생활이 이어지고, 감정도 생기고 난 이후의 부모에게 이제 자녀의 '예술하기'에 대한 동시대적 관점을 익히고 열린 태도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태도다. 부모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장애인의 부모'이기만 한 채로 비슷하게 살아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더 넉넉하게 살았고, 누군가는 더 정신없이 살았고, 누군가는 오로지 버티면서 살았다. 그건 그 자체만으로 공감 받아야 하고 그 삶 안에서 생성된 경험과 관점과 지식의 차이도 존중되어야 한다.”

출처: 최선영, 2020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특성화지원사업
〈발달장애 보호자를 위한 문화예술워크숍 '갈치살롱' 연구모임 회고록〉 중에서

- 여기서 보호자, 매개자가 예술에 대한 이해, 혹은 새로운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적 계기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음. 이들을 위한 교육이나 학습의 기회, 공론의 장을 통해 사적 아픔이나 어려움을 공적 언어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시선이 성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는 보호자의 개별성 또한 인정될 필요가 있음. 이들의 개별성 및 고유한 맥락이 인정될 때 당사자와의 관계 또한 건강해질 수 있음.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정립을 위한 조건

■ ‘발달장애’와 ‘문화예술’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필요성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단지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수한 대상에게 제공되는 문화예술 ‘교육’의 의미를 넘어, 발달장애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고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는 ‘문화예술’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짐.
- 즉, 문화예술교육이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발달장애의 ‘특수성’이 왜 사회의 ‘일반적’ 관점에 조응하지 못해왔는지를 거꾸로 탐색하고 해석하여, 그간 식별되지 않았던 표현 방식과 소통 방식을 가시화하고 문화다양성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발달장애인이 세계와 만나고 표현하며 소통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포용할 수 있을지 탐색하려는 태도 자체가 문화예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상기하게 하고 확장하게 하는 계기로서 작동할 수 있음.

■ ‘발달장애’와 ‘예술’의 교차점, ‘잉여’적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근대 자본주의의 산업구조 속에서 ‘장애’ 개념에 귀속된 무능, 혹은 불능(disability)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생산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관점에서 불리한 처지(handicap)로 이해될 수 있음.
- 즉, 우리사회에서 장애를 규정하는 관점 자체가 효율성에 근거한 합리성 및 자본 우위의 관점을 배태하고 있으며, 이는 근대 우생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비용의 부담을 없애고 장애인이 사회에 무익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 ‘잉여’의 존재로 여기는 것을 부추겨왔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현대사회에서 ‘예술’이라는 인간 활동이 가지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수단-목적’ 관계로 기능하고 수렴되는 기능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데 있음. 즉, 예술과 관련된 작업 자체는 특정한 목적에 봉사하는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무용함 자체’가 예술의 중요한 존재방식을 결정함. 그러나 가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무언가를 ‘의미’하고자 하는 언어적 존재방식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과 행위의 의미를 사유하는 방식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인간다움의 회복과 관련을 맺음.
- 이처럼 무용한 것, 그러나 ‘일반적’이라고 믿는 삶의 양태와 관습적으로 굳어진 기능적 ‘획일성’에 질문을 던지는 ‘예술’의 존재방식은 생산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불리한 ‘장애’ 영역에서의 ‘잉여적’ 존재 방식을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함.
- 이는 조르조 아감벤(G. Agamben)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 즉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식별되지 않는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예외상태’가 필요로 되는 문제를 상기시킴.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잉여’를 전제로 하여 존재할 수 있고, 현대사회의 법질서는 그것의 바깥 영역이 존재함으로써 존속됨.
- 여기서 잉여나 잔여의 문제는 노동과 관계된 인식 체계 내에서 해석되기보다 인간다운 존재방식과 서로를 식별하는 문제, 즉 정치적 존재방식과 더 관계될지 모름. 이를 테면 랑시에르(J. Rancière)의 ‘몫이 없는 자’와 같이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셈하여지지 않는 것들을 지칭할 수 있음.
- 아감벤에 따르면 서양 ‘정치’의 본질은 ‘생명’을 ‘정치’로부터 배제해왔다는 데 있음.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오스(bios, 정치적 실존)와 조에(zoe, 생명)를 구별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몫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의 몫을 가진 인간으로 셈해지지 않음.
- 역사적으로도 주권이론은 대부분 일차적으로 국가 시민으로서의 특성에 관심을 두었을 뿐, 생명체로서의 존재에는 거의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감벤의 시각은 주권과 생명의 경계에서 드나드는 ‘장애’를 사유하는 데 시사점을 줌.
- 아감벤은 주권의 본래적 행위에서 법의 대상 또는 ‘주체로서의 인간(국가 시민)’과 ‘생명체, 곧 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인간 사이에 경계 짓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

함. 이 경계를 축으로 한쪽에서는 인간의 삶이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점점 더 증대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인간의 권리가 점점 박탈되는 경향이 강화됨. 이처럼 서로 상반된 경향이 점점을 이루는 지점에 벌거벗은 생명이 있음.

- 그러나 사회에서 끊임없이 배제하고자 하는 존재에 의해 유지되고, 포함할 수는 없지만 귀속되거나, 귀속될 수는 없지만 포함하는 역설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사실은, 존재하지만 식별되지 않는 ‘호모 사케르’, 즉 ‘잔여’와 ‘잉여’의 필요성을 제기함.
- 어떠한 부류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대척점에 있는 무리들이 ‘잉여’로 작용해야 하며, 잉여는 배제하고 싶은 대상이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주류의 현존(現存)마저 가능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잉여’는 사회의 존속을 위해 본질적으로 사라질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의 존재방식이 그 자체로 주목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개인의 존재 방식의 동일성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됨.
- ‘장애’와 ‘예술’은 그러한 의미에서 생산성, 합리성, 효율성으로 귀결되는 삶의 방식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존재방식을 예시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개념적 모순성에 대한 인정의 필요성

- ‘잉여’로부터 우리의 존재방식을 보게끔 하는 계기가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에 틈과 균열을 뚫으로써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 ‘표준성’과 ‘체계성’을 중시하는 정책적 프레임 안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의 해체적 성격이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근원적인 모순성이 자리함.
- 이러한 모순성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성과를 무엇으로 상정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욕망과 기대를 충돌시킴.
-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혹은 보호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당사자 자립을 위한 광범위한 직업교육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이들의 지속가능한 생존 수단을 탐색하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인정하더라도, 전문적인 작가로 진출하거나 생계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또한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 주체들에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유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음.
- 다만, 이것이 계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술’과 ‘교육’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에 대한 해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예컨대 문화예술 교육의 성취는 가시적인 작업물을 산출하는 것, 교육의 성과는 어느 정도 선형적인 단계로 발달해나가는 것, 장르 중심의 예술적 기예에 익숙해지거나 뛰 어남을 보이는 것, 수업의 시공간이 하나의 교육적 목적과 제재를 위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사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발달장애의 행동양식 및 인지적 단계를 고려한 특수성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반이 지향해야 할 지점과도 맞닿아 있음.

■ ‘예술’과 ‘장애 예술’ 사이의 ‘경계’ 설정에 대한 전략적 기획의 필요성

-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정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깊이 사유할수록, 문화예술교육 정책 일반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점과 맞닿아 있다는 결론에 다다름. 또한, 이는 발달장애인의 예술이 과연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예술 행위와 구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짐.
- 이 질문은 오늘날의 예술이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며, 예술을 장르 중심의 전시나 연주, 발표회의 이미지와 관련시키는 것을 넘어, 세계를 만나는 일상적이지 않은 감각과 지각의 방식을 언어화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의 예술이 특별히 구별되어야 할 당위성은 소멸된다는 결론에 이름.
- 실제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수업이나 작업을 해온 매개자들 중 상당수는 발달장애인의 예술과 일반적인 예술의 ‘경계 없음’에 대해 동의함.
- 이 ‘경계 없음’은 발달장애인의 표현성에 주목함으로써 열리는 ‘예술’의 의미에 관한 통찰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함께 작업할 때 시간을 두고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발달장애인과 ‘관계 맺음’ 또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기도 함.
- 한편 매개자들 중 상당수는 발달장애인에게 특수한 교육적 방식이 요청되지는 않으나, 사람을 알아가고 관계 맺는 일상적인 방식에서 이전과는 다른 시간과 속도가 요청된다는 것에 관한 것, 즉 발달장애인 각자의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함. 이는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간의 ‘경계 없음’과 ‘경계 설정’ 사이의 모호함을 드러냄.
- 여기서 정책적 기획은 이 모호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발달장애 예술의 ‘구분’에 유연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즉, 속도를 달리하는 교육적 접근을 위해서는 물론이며, 중국에는 개인이 예술의 의미를 해체적으로 이해하여 ‘장애 예술’과 일반적인 ‘예술’ 사이의 구분을 없애는 데 동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을 없애는 까닭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기 위한 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 예술의 프레임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음.²¹⁾ 이것은 잉여가

21) 여기서 ‘장애 예술의 프레임’은 기능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용어임. 본 연구에서 탐색한 장애 예술과 관련된 실천은 ‘장애’라는 용어를 건어내게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발달장애인의 작업을 통해 보다 인간의 삶에 근거한 예술적인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존의 우리의 상식에 균열을 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이해는 일반 예술과 장애 예술의 경계를 나눌 필요가 있는가, 혹은 근거가 있는가의 질문에 회의적인 답변을 제시함. 그러나 ‘발달장애인 창작자의 예술’과 ‘일반 창작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예술’이라

있을 때 비로소 동일성의 배타성을 자각하게 되는 전략과 닮아있음.

- 매개자들도 처음부터 '장애 예술'과 '예술' 간의 경계에 회의를 품게 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의 관계맺음 속에서 알게 된 것, 비로소 그들과의 관계에서 함께 표현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 참여할 때에야 느끼게 된 것이므로 처음 몰입하기 위한 모종의 창(window)으로서 '장애 예술'의 영역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저는 장애라는 게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예술 매개에 대한 맥락을 하나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다 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매개라는 것이 일련의 보호, 안전망, 기승전결 교육, 조력자, 플랫폼 등의 다양한 것으로 인지될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장애예술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악이든 미술이든 하는 게 예술인지 말이에요. 매개자들은 그런 것들을 읽어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장치로서 예술을 영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장애예술과 예술을 구분하는가, 저는 구분하지 않아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예술매개 프로그램이지 장애라는 말이 앞에 붙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해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일 때 여성들이 하는 미술을 여성미술이라고 한 적이 있죠. 특정지역서 아시아, 아프리카 미술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요. 근데 전시장에서는 하나의 예술로 귀결되는 것뿐이지, 예술을 전체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용적으로 다를 뿐이지. 장애의 특수성은 장애 뒤에 숨어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너무 커서 도덕적 지점과 안전망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많은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출처 : 2020 충북문화재단 장애예술 매개 온라인 포럼
"매개자의 자기질문 : 어디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나" 녹취록 중에서

-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장애 예술'과 '예술'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탐색하는 길을 마련하는 수단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구분은 사회적 체계 하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치로서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장애 예술'이라는 이름이 정치적, 상업적 전략으로 오용되어 소비되고 소모되는 방식의 "휴먼 드라마"에 그쳐, 예술성에 대한 탐색이 아닌 다른 관심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는 것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통찰에 이르렀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작업하는 데 깊이 천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발달장애인과 오랜 기간 함께 지내면서 발달장애에 관해 탐색하고, 연구하고, 씨름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볼 때, 장애 예술과 관련된 정책적 용어나 이 실천을 지칭하는 영역을 '장애'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장애 예술은 일반적인 예술과 다른가? 혹은 같은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전략적인 역할을 위한 것일 수 있음. 이러한 질문은 곧 발달장애인의 표현과 관련된 것들을 어떠한 연유에서 예술로 지각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예술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직관들도 잠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함.

IV.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1. 장애인 문화권 기반 정책 환경
2. 장애인 문화정책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접근
3. 포용적 예술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4. 해외 정책현황 및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IV

1. 장애인 문화권 기반 정책 환경

1) 장애인 정책에서 문화권의 제기

■ 장애인정책에서 “인간다움”에 대한 제기

-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은 많은 문제를 제기 받고 있음. 이는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도 장애인의 실질적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의미함.
-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장애인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종합법적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음.
-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의 급부 의무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중심에서 인권과 사회적 기회 및 평등한 환경, 문화권 보장 등의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문화예술 경험에서의 배제와 비주류화 되는 장애인 예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확장

- 장애인들도 비(非)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문화권과 교육권이 보장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 속 장애인은 문화예술 경험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등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데 불평등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표현이 비주류화 되어 옴. 장애인이 비(非)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흉내 내는 것이 장애 극복의 서사로 소비되기도 함.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역시 비(非)장애인의 표현을 익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이는 장애인의 정체성과 표현 방식의 차이를 간과한 접근이라는 문제의식이 확산됨.

■ 포용시대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추진전략 모색

-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국가운영방향에 “포용”이 등장하고 사회적 배제가 사회의 건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를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됨.
- 이에 장애인정책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법제도 개선은 물론, 다양한 접근방식이 모색되고 있음.
- 실제 포용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참여나 배려를 넘어, 본연의 권리와 마땅히 누려야 할 사회 환경을 바꾸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발견이 요구되고 있음.

■ 장애인의 예술창작과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확산

- 국가정책에서 복지정책의 질적 개선, 복지사각 해소 방향과 함께 이를 구체화할 정책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장애인 예술지원 사업은 2015년 장문원 설립과 함께 체계적인 전문화 및 전담화를 기대하고 있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술정책과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장문원과 협력 하에 ①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④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음.

■ 최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2018년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역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을 사회, 지역,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과 프로그램 구성의 방안이 보다 더 시대적 요구와 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룸.

2) 장애인 문화권의 법적 근거와 내용

(1) 문화적 주체로서 인식과 국제적 환경

- 국제적으로 문화권에 대한 보장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이를 구체화하였음.

〈표Ⅳ-1〉 문화다양성 논의 전개 과정

연도	내용	비고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제3차 국제연합총회
1966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1회 국제연합총회
1992년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선언	유엔인권위원회 뉴욕총회
1995년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세계문화발전위원회보고서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제31차 유네스코 총회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출처 : 한승준,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 경 개선사업 결과자료집-문화다양성 포럼'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의 현주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36쪽
김효정,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0쪽
「2014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30~31쪽 내용을 재구성

(2) 국내적 여건

■ 헌법

- 제11조 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함.

■ 문화기본법

- 제2조에서 법의 기본이념으로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함.
- 제4조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규정함.

■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

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제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나이·성별·장애·사회적 신분·경제적 여건·신체적 조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규정함.

■ 문화다양성법

- 제3조 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

■ 예술인복지법

- 제4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성별·연령·인종·장애·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제3조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표Ⅳ-2〉 장애인 문화권을 보장하는 국내 법률 및 조례

구분	법률	조문
헌법	헌법	전문, 제9조, 제11조 제1항, 제31조
문화 관련 법령	문화기본법	제2조, 제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제24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구분	법률	조문
문화 관련 법령	예술인복지법	제4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의 3
복지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28조
	발달장애인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2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장애인인권헌장	제1조, 제7조

출처 : 박근화, 한정임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10쪽 재구성
추가내용은 국가법령센터

■ 장애인복지법

-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는 전제 하에, 제4조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와 “장애인은 국가·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함.

-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또한, 제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발달장애인법

- 제3조 1항에서는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 또한,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기초로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와 환경 등 도움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7절(문화·예술) 제16조 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함.

■ 한국장애인인권현장

- 제1조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장애인은 문화·예술·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

(3)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 국가 법령체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표Ⅳ-3〉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현황				
구분	광역 조례 제정	기초 지자체	제정	제정된 지자체
서울	○	25	4	강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양천구
부산	○	16	1	영도구
대구	○	8	2	달서구/ 수성구
인천	○	10	2	서구/ 중구
광주	○	5	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	5	3	대덕구/ 동구/ 유성구
울산	○	5	1	중구
세종	○	-	-	-
경기	○	31	9	가평군/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산시/ 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강원	○	18	1	속초시
충북	○	11	-	-
충남	○	15	1	아산시
전북	○	14	3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전남	○	22	4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경북	○	23	1	상주시
경남	○	18	1	거창군
제주	○	-	-	-
계	17	226	38	

*2020년 12월 31일 기준

3) 장애인정책에서 본 장애인 문화권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연차별 주요 내용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 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음(법3조 기본이념).
- 이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4조(장애인의 권리)

-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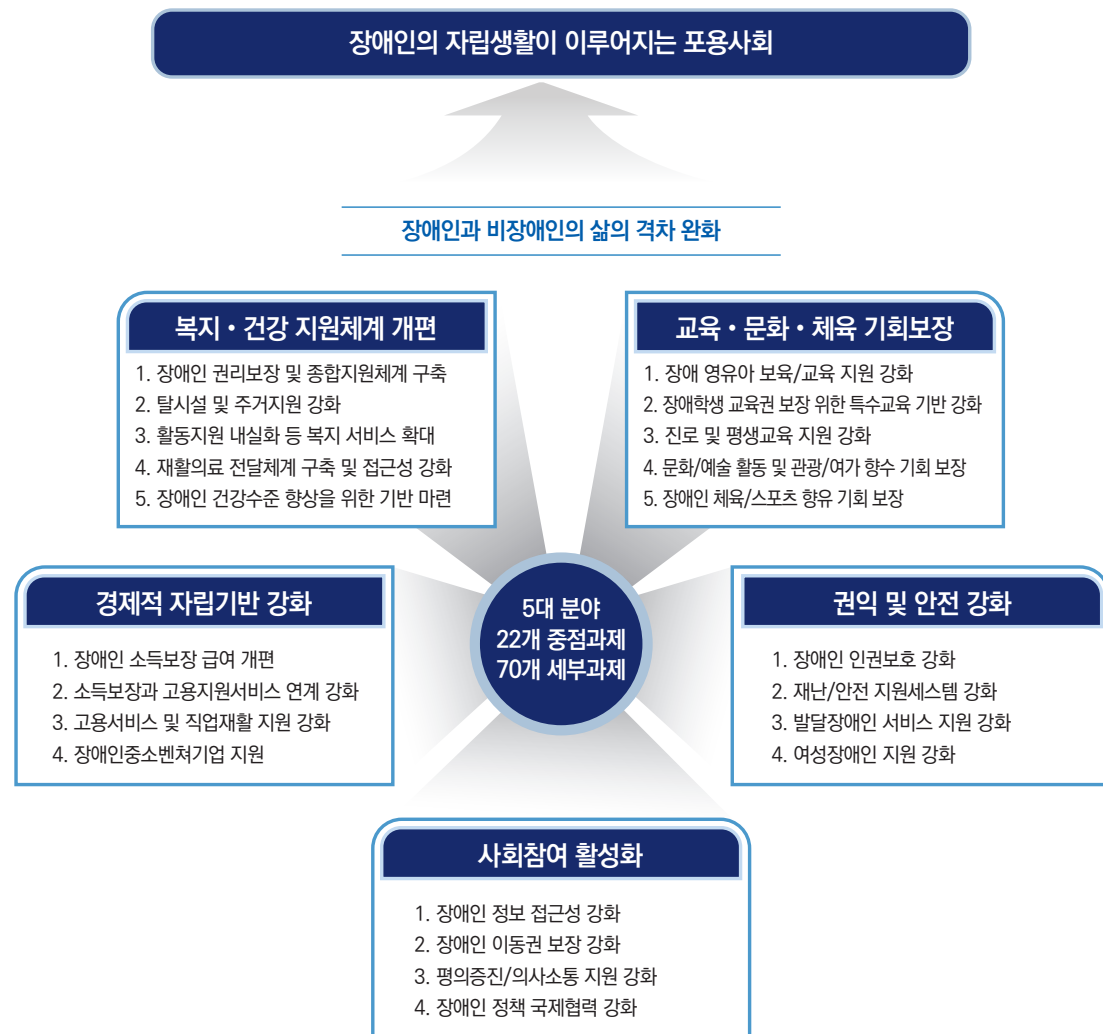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에 의거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 계획은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 장애인의 삶 전반 을 다루는 종합적 계획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계획임.
- 2018년을 기본년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 인구의 특성 변화 및 욕구 다양화를 반영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와 장애인정책의 지향점 등을 고려하여 수 립되었는데, 이전의 종합계획에 비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음(김성희, 2017, 3~6쪽).

〈표Ⅳ-4〉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연차별 주요 내용		
구분	추진 목표	주요 과제
1차 (1998-2003)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고용지원
2차 (2003-2007)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 적 사회실현	장애수당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문화바우처 도입
3차 (2008-2012)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실현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도입
4차 (2013-2017)	장애인과 비(非)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실현	장애등급제 개편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 체계 시범사업

구분	추진 목표	주요 과제
5차 (2018~2022)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과 비(非)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교육 · 문화·체육 기회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권익 및 안 전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

출처 : 박근화, 한정임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9, 14쪽, 재인용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비전



(그림Ⅳ-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도

출처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관계부처 합동, 2018, 15쪽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하는 5대 분야, 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추진함.
-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비(非)장애인과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성과목표를 제시함.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의 전략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을 계획함.
- 이는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관객과 장애예술인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으로부터 시작된 것²²⁾으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의 사회적 가시화 등에서 이전보다 진전된 내용임.

〈표Ⅳ-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보장

구분	주요 내용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장애인 등의 문화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현실화 - 발달장애인(만9세~24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학교 지원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관객 및 장애예술인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마련 추진 - 지역의 기존 문화시설·유흥공간 리모델링한 문화센터 등에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 시설 권고
장애인 영화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관 폐쇄 상영시스템 시범 운영 및 확대 추진 - 상영관의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 확대

출처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관계부처 합동, 2018, 32~33쪽, 재구성

2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관계부처 합동, 2018, 32쪽.

■ 「발달장애인법」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복지법」과 함께 「발달장애인법」에 의거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 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애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4조에 의거하여 각급 시책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의 내용이 중요하게 취급되어 있지 않음.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문화예술교육지원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3년 개관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음.

〈표Ⅳ-6〉 2020년 기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 설치 현황

구분	총 예산 (백만원)	국비지원 (백만원)	센터 수 (대소)	비고
중앙	973	973	1	100% 국비지원
지역 (광역시)	11,236	5,618	17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계	12,209	6,591	18	

* 총예산은 국비, 지방비 포함이며, 지역(광역시)센터 개소당 지원액은 상이할 수 있음.
출처 : 「2020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안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2020, 6쪽.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수행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17개소 중 16개 센터가 광역시·도로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운영되며,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직영 운영 중임(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홈페이지, 2020.10. 기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추진사업으로는 ‘개인별지원계획’, ‘권리구제지원’, ‘공공후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등 총 4가지로 나뉨. 이중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관련 종사자 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서, 주로 생애주기별 교육, 직업체험, 진로설계, 성·인권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음.

〈표Ⅳ-7〉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프로그램

사업구분		참가대상	특징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발달장애인 보호자	- 자녀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 수행 기관별 특화된 여가·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 발달장애인 진학, 직업체험 형식 체 험 프로그램 - 대학, 직업훈련센터 체험 등
	멘토형 프로그램	본인,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강연, 특강, 진로체험 박람회 등 진 로탐색 및 설계 - 직장인 특강 통한 직업 이해, 멘토링 등
성·인권 교육지원		본인, 보호자, 가족 (형제, 자매 등)	- 성인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특성 여건에 따른 상담형, 강의형, 토론 형, 사례연구형의 성인권교육

출처 : 「2020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안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2020, 330~341쪽, 재구성.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추진사업 현황 상 문화예술교육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부분에서는 보호자와 발달장애인 자녀의 여가·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
- 2020년도에 지역별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33개 기관을 통해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혹은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표Ⅳ-8〉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프로그램 선정기관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부분)

구분	센터명	선정	선정 기관명
1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4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드유아 사회적협동조합/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장애인복지관
3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대구 서부지부
4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	위드유아 사회적협동조합
5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통합교육지원센터
6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밀알복지관/ 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
7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	(사)울산여성의전화
8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9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군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10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언어병리학 전공/ 두루바른 사회적협동조합법인
11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1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12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천안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13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전주시지회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전국장애인부모연대군산지회
14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다온아동청소년발달센터
15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원스텝아동발달지원센터 구미지점/ 사회적협동조합 포항발달재활교육협회
16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진해장애인복지관/ 거제시장장애인복지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17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사)제주특별자치도 위드피플/ 제주아이 특별한아이

출처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홈페이지, 각 지역센터공지 게시판, 재구성.(2020.07.08.)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 대한 범 부처 지원활동

- 2014년 「발달장애인법」의 제정과 2018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이후, 정부는 범부처 TF²³⁾를 구성하고 2019년 〈발달장애인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함.
- 이는 자조모임 등 민간 자원을 보충적·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고 촘촘한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으로, 정부 공급형의 문제점이나 접근성의 문제를 개선하고 스스로 사회적 역할을 구축하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임.
- 또한, 사회편입이 아닌, 당사자 스스로의 시각에서 사회적 역할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전향성이 보이거나, 발달장애인과 함께 사는 비(非)발달장애인들의 시선의 변화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S다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공적 영역으로 호명하고, 적극적인 주체로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 영역과의 연계지점이 있음.

■ 발달장애인정책에서 문화권의 의미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정책에서 문화권은 주로 문화향수의 기회나 물리적 접근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즐기는 권리인 “기회” 수준의 향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은 여가, 취미, 직업교육 등 평생교육 기획의 확장 영역에서 취급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관점과 다소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도 사회정착을 위한 직업, 진로 사업이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수준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주체적 욕구에 대한 해석, 비(非)발달장애인과 다른 표현에 기반한 문화적 권리의 확장은 온전히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남겨짐.

23) 2018년 발표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으로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합동 TF가 구성(18.11.21)되어 2019년에 발달장애인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함.

2. 장애인 문화정책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접근

1) 문화정책에서 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 문화정책의 흐름과 장애에 대한 시선의 변화

- 현대의 모든 문화정책은 개인의 문화적 권리에 주목하고 있음. 이는 20세기 중반 제기된 “인권”의 개념과 2000년대 등장한 문화다양성 이슈에서 제기된 “문화권”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음.
-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세계인권선언」은 문화적 권리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예술과 학문적 진보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문화다양성선언」은 ‘스스로 선택한 문화생활과 문화적 실천을 누릴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도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문화기본법」과 「문화다양성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

■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정책의 중요성

- 2014년 「문화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문화권”이라 정의하고, 같은 해 제정된 「문화다양성법」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가진 다원주의적 속성을 명시함.
- 따라서 국민의 문화적 권리가 법으로 보장됨에 따라, 문화는 우리 사회 전반의 영역과 연계되어 있고 전 사회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
- 또한, 「문화기본법」은 “문화”를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 국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켰으며, 국민의 “문화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함.
-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문화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역시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 개발이 요구됨.

■ 문화예술정책과 장애인 문화권의 대두

- 2018년 정부는 「문화비전2030」을 통해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 특히, 「문화비전2030」에서는 ‘사람은 삶의 행복을 위해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

으며, 국가는 개인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주요 배경으로 설정함(「문화비전2030」, 2018, 15쪽).

- 이러한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문화비전2030」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 구축과 교육기회 제공을 중요시하고 있음. 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기능은 물론,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문화비전2030」, 2018, 19~20쪽).
- 「문화비전2030」의 네 번째 의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에서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정책 범위 설정을 통해 장애 역시 핵심적 범주임을 밝히고 있음.
- 장애인의 문화표현 및 체험 기회 확대 역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임. 또한,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다양한 예술지원 대상으로 젠더, 지역, 인종, 종교와 함께 장애인의 문화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음(「문화비전2030」, 2018, 27쪽).
- 이러한 흐름 속에 농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수어의 진흥이 중요시 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의 언어적 문화정체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나아가 장애인의 언어적 예술 활동에 다양성을 기대하고 있음(「문화비전」, 2018, 28쪽).
- 이러한 문화정책의 방향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문화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사회 속에서 새로운 공공성(common)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 「새예술정책(2018~2022)」에서 제기한 소수자²⁴⁾(장애인 포함) 정책 목표 및 과제

- 「새예술정책(2018~2022)」은 「문화비전2030」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예술이 가진 창의적 감수성에 의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음.
- 「새예술정책(2018~2022)」은 4대 목표 중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를 세 번째 목표로 상정하고, 8대 전략과제 중 6번째 전략과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자 관련 정책 과제를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실행과제로는 ① 소수자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② 소수자 예술공간 조성 및 교류, ③ 소수자 예술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으로 제시함.
- 이는, 모든 국민이 실질적 예술 향유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화예술교육과 예술 향유의 결합성을 높이고, 자발적 예술 향유와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할 것을 명시한 것임.
- 또한, 개인의 예술참여가 사회의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수자 예술의 보호와 활성화 지원에 정책의 비중을 두고자 하였음(「새예술정책(2018~2022)」, 2018, 52쪽).
- 예술을 통한 소수자의 사회참여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문화 정체성의 ‘다양성 구현’에

24) 소수자 범주는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새예술정책(2018~2022)」, 2018, 220쪽).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자와 함께하는 예술의 향유와 창조를 포괄하는 개념을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사회적 확산을 추진하는 새로운 예술정책이 요구됨(「새예술정책(2018~2022)」, 2018, 220쪽).



(그림Ⅳ-2) 소수자 예술정책의 지향 목표

출처 : 「새예술정책(2018~2022)」, 새예술정책수립TF 문화체육관광부, 2018, 221쪽, 이미지 재구성

- 따라서 소수자 예술을 ‘창의성/다양성’의 문화적 원천으로 인식하고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등 사회 포용(social inclusion)적인 다양성 예술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함(「새예술정책(2018~2022)」, 2018, 222쪽).

■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실행 주체

- 2020년 현재 문체부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예술정책관 산하 예술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과 등 타 여러 부처와 협력을 해야 하는 영역임.²⁵⁾
- 문체부가 총괄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2007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함께 누리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기회 확대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의 문화기본권 신장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함.
- 예산은 2013년 42억 원, 2014년 113억 원, 2015년 221억 원, 2016년 213억 원, 2017년 7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함(2014~16년은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의 건립으로 예산이 급격히 증가).

25) 체육분야에서는 장애인체육과가 별도의 부서를 이루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장문원의 설립 및 역할 정립

- 2015년 설립된 장문원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전담기구이자 정책기구로서 장애인의 예술의 지평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 활동 참여와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임.
- 장문원은 2017년부터 기존의 “함께 누리 지원 사업”을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장애인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 흐름

- 장애인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문화복지정책이 수립되면서 시작되었음. 즉, 장애인 문화정책은 사회복지와 다른 영역에서 삶의 질 문제를 제기하면서 확보된 “문화복지”의 영역에서 출발한 것임.
- 그러나 2000년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활성화, 2010년대 문화다양성 개념의 확대는 문화복지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화권”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음.
- 따라서 현재의 장애인 문화정책에 관한 논의는 ① 기본적인 실태조사의 적절한 방법과 체계에 대한 연구 영역, ② 장애인 예술에 대한 탐구와 창작 활성화 영역, ③ 장애인에 대한 시설 접근성 및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에 대한 영역, ④ 장애인의 자기표현에 대한 탐구와 활성화 연구 영역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요구되는 한편, 영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으면 조사할 실태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여기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장애인 문화정책 영역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① 접근성 확대, ②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 기회 마련이라는 두 개의 영역임.
- 그러나 2018년 연구를 기점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층 나아가 포용적 예술, 장애인 창작예술의 정체성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고, 이는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여는 것임.
-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표현을 구성하는 문화예술교육, 비(非)장애인과 소통방식 탐구로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영역이 그것이며,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음.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연구 결과와 주요 내용

구 분	연도	제목/책임연구/ 연구기관/발행기관	연구목적	연구 의의
정 책 연 구	200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중 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백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 장애인문화예술교육 현 황 파악 및 장애인 문화 예술교육 지원정책 개발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장 애인 문화역량 강화를 위 한 향유자 중심의 프로그 램과 중단기 발전방안 제 시	-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정 의와 개념정리 및 현황분 석을 통한 장애인문화예 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의 정책방향 제시
	2007	「장애인 문화복지증진 기 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부	-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 본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 인 문화복지와 관련된 조 사 및 기본 정책 마련과 실행하기 위한 시기별 방 안을 검토	-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 해 창작공간 제공, 멘토 링운영, 장애예술인 등록 제도 시행, 문화예술진흥 기금조성, 창작활동 보장 을 위한 제도정비와 장애 예술인센터건립 등 제시
	2007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를 위한 장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현황 문 제점 도출	-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으로 문화예술진흥 법 개정, 재정확보, 접근 권 보장 및 공간 확보, 사 회참여 통로 마련 제안 - 미시적 관점에서 지원정 책으로 장애인 문예지 발 간, 동인 활동 등 제시
	2011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중 장기 계획 연구」 주윤정/ 한국사회사학회/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의 구조와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비전과 추 진 전략, 장애인 문화예 술 중장기계획 제시	-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문화예 술향유, 문화예술창작, 문화예술고용, 장애인 문 화예술정책 전달체계 구 축 제시 - 장애인과 비(非)장애인 예술영역과의 네트워킹 필요를 강조

구 분	연도	제목/책임연구/ 연구기관/발행기관	연구목적	연구 의의
정 책 연 구	2013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방귀희/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 생 문화예술교육의 실태 파악을 통해 학교 교육과 정에서의 장애학생 문화 예술 지원방향 마련	- 특수교육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현황과 의미, 해 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례분석 및 특수학교 문 화예술교육 실태 조사를 통한 특수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개선점 및 지원방 안 제시
	2014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 방안 연구」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애인 예술 활동을 장르 별로 나누어 장애유형 단 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모델 안을 제시하여 장애 인 예술 중장기 정책 방 향 정립의 기초 내용 마 련	- 장애인 문화권, 장애인 예술 및 장애 예술인의 개념 정립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정 책 현황과 문제점 및 원 인분석을 통해 장애인 예 술활동 기본 지원방안 및 장애인 예술 맞춤형 단계 별 지원 방안 제시
	201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 동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을 통해 지원정책 방안 제시 및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중장기 정책 방향의 기초내용 마련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현황 및 문화예술교 육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을 통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특수교육 현장에 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 화 방안 제시
	2018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조 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초조사」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장애인 예술가의 권리확 보, 차별금지에 따른 예 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창작권·향유권 신장을 위한 전용예술공간의 필 요성 제기 - 장애인예술전용극장 건 립 방향설정 및 추진 과 제 도출	- 장애인예술전용극장의 건립 방향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5 대 이슈 도출 및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도출함.

구분	년도	제목/책임연구/ 연구기관/발행기관	연구목적	연구 의의
	2018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 권재윤, 이소미, 오윤선/ 한국여성체육학회	-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국내외 지원현황 파악을 통해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개선방안 제시	-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개선방안을 통한 정책 제언 - 장애아동청소년 인구에 따른 정책 방향성 재검토,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프로그램개발 필요성 제시,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교과개설 및 정책수립 필요성 제시, 문화예술교육 시설 확충 및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필요성 제기
	2019	「2019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지원 및 FA 역량 개발방안 연구」 최선영/ 짓거리연구소/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내 장애인의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생활예술매개자(FA)의 역량 개발 모델 제안	- 생활예술 개념 확장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방안 제시 - 현장 중심의 단계적 개선 방안 제언
	2020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전반의 의미와 실태 분석, 정책과 사업 분석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제시
실태조사	2007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백령/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국내 장애문화예술인(문학인과 미술인 중심) 창작활동 현황과 의식 파악 - 한국장애인문인협회와 한국장애인미술협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문화예술 활동지원 방안과 장애문화예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제언 - 이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제시

구분	년도	제목/책임연구/ 연구기관/발행기관	연구목적	연구 의의
실태조사	2010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현황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방안 마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방안 제시 - 법제도 정비, 재정활동, 창작활동의 접근권 보장, 대관 할당제 및 공간 마련 등 제시
	2011	「2011 전국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욕구조사」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장애인복지관, 실무자, 장애인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활동 프로그램 실태와 욕구 조사 - 결과 분석을 통한 장애인복지관 신규 문화예술교육활동 사업개발 및 프로그램 방향 도출	-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2012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김홍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 실태, 활동여건, 문화예술전반과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 파악	- 장·단기 장애예술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2018	「201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장애 예술 및 장애 예술인 활동의 현황 분석 및 개념과 범주 등을 정의하기 위한 기초연구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현황 및 범주, 장애 예술 연구에 따른 장애인 예술인 개념 및 정의,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및 지표구성 방향 등 제시함.
	2018	「2018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박근화, 한정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애 예술인 및 장애인 예술활동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 장애인 예술활동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마련	- 장애 예술인 개념 도출 및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설문항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예술활동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구분	년도	제목/책임연구/연구기관/발행기관	연구목적	연구 의의
프로그램 개발	2008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애니씨어터 프로그램 개발」 오세곤/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 교육연구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발달장애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애니메이션 감상 및 제작과 연극의 기초를 융합시킨 애니씨어터 프 로그램 개발	- 발달장애 청소년과 융합 형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융 합형 예술교육을 통한 사 회적 행동양식 발달을 도 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 발 및 교안 제시
	2018	「2018 장애예술인 창작 활 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주윤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 내외의 주요한 사례연구 - 이를 통한 장애예술인 창 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장애예술인 창작 의 현황을 분석과 장애예 술연구의 동향을 살펴보 며, 장애인 특성에 맞는 창작 활성화를 위한 원칙 과 가치를 제시함. - 이에 따른 구체 프로그램 (안) 제시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책 흐름

- 「문화비전2030」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와 다양화라는 두 가지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이어지는 시행계획, 지역계획으로 문화 예술교육의 본원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화·다양화를 이뤄 개인의 문화적 권리 실현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문화비전2030」, 2018, 116쪽).
- 또한, 「새예술정책(2018~2022)」은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초 연구를 통해 장애 유형별로 문화예술교육자의 맞춤형 대처와 수업 준비, 문화예술교육자들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확대 등을 강조함(「새예술정책(2018~2022)」, 2018, 230쪽).
- 「문화비전2030」과 「새예술정책(2018~2022)」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장애인 문화 예술교육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서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박근화, 2018, 287쪽)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시사점을 던짐.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포용적 예술’은 문화 다양성 구도에서 장애 예술을 사회적 맥락에 위치시키고, 장애 예술인과 비(非)장애 예술인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과정과 관계를 형성할 필요를 제시함(박신의, 2018, 91쪽).

- 이러한 관점은 현대예술의 실험과 언어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전환되는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장애와 비(非)장애의 통합적 교육을 통해 새로운 과정과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음.
-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와 같이, 비(非)발달장애인의 시선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자기정체성과 결정권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이며, 그동안 현장에서 실험된 기획과 활동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흐름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흐름

-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정책은 2004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으로부터 시작되어,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해 본격적 정책이 추진됨.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그 기본원칙으로 모든 국민을 향한 문화적 권리를 명기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위해 균등하고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중·단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사업의 체계화와 효과성 증대를 꾀하고 있음.

〈표Ⅳ-9〉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의 경향성

연도	구분	경향성
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 개인과 사회 관계 속에 문화예술교육 위치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과 기반 구축에 초점
2007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 장기 전략(2007-2011)	- 1기에 이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질적 발전 모색

연도	구분	경향성
2010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향	- 문화예술교육 위치가 개인에 맞추어지는 경향 - 학교 중심 문화예술교육정책 모색
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 문화융성 비전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2018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 계획(2018~2022)	-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위상 정립 - 지역과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재구성

출처 : 최혜자,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2018, 11~12쪽, 재구성 및 재인용.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과 장애인

- 2018년 다섯 번째로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은 이전과 달리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중요시하고, 문화예술교육이 지역과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의 세부 추진전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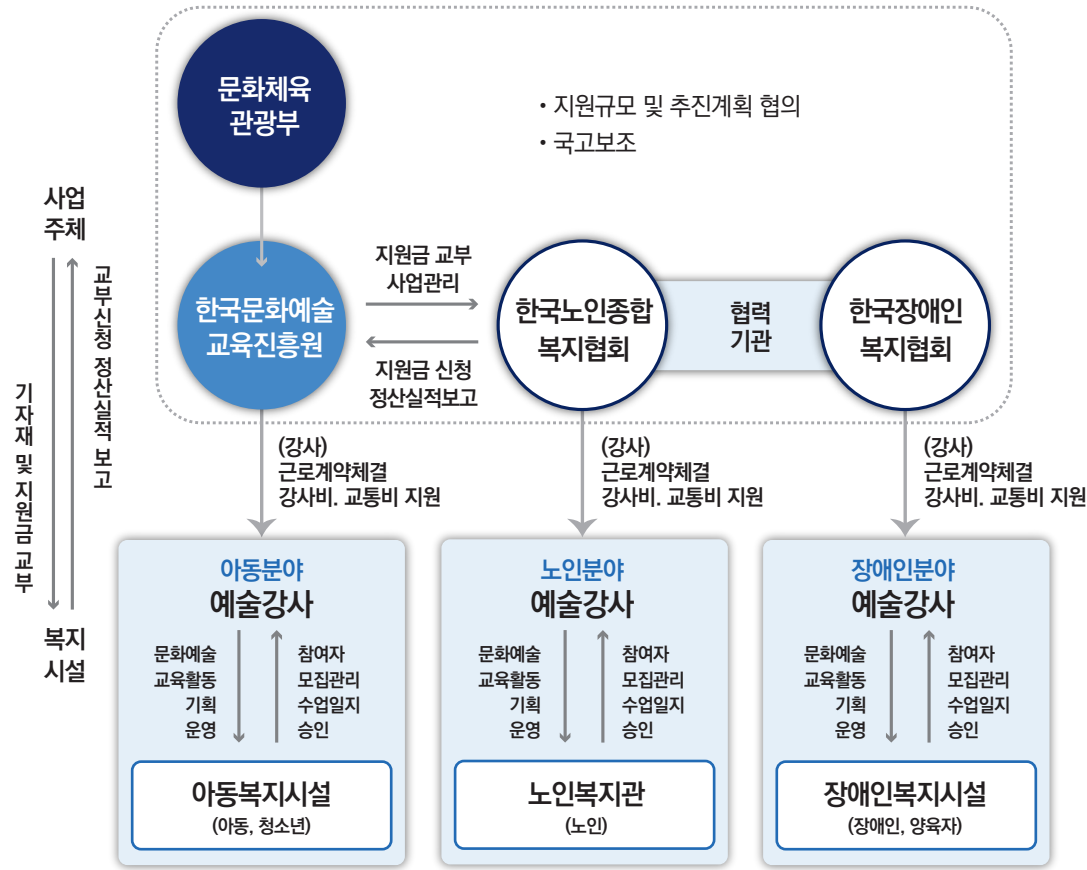
〈표Ⅳ-10〉 문화예술교육 추진전략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내용

구분	내 용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속 지원	소외 아동·청소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문화체험분야 확대와 문화예술교육으로의 접근성 증대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위기 청소년, 소년원, 군부대, 교정시설,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 지원 및 향유 기회 제공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심리적 상처의 회복과 사회복귀가 필요한 국민을 위하여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개선

출처 :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8, 22~24쪽, 재구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추진 경과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문화 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데, 2004년 아동복지시설, 2006년부터는 장애인복지관 예술강사 파견으로 지속된 사업임.



(그림Ⅳ-3)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소개, (2020.10.31.)

- 이러한 구조를 발전시켜 201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으로 나뉘어져 있음.
- 장애인 영역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분야 예술강사 파견 및 사업 운영을 진행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국악, 무용, 미술, 영화, 연극 등으로 이뤄진 문화예술교육 6개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279개소, 369개 반을 대상으로 175명의 예술강사 파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Ⅳ-11〉 장애인 대상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 추진현황

연도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대상	기획사업	예산 (백만)
2011	2개 분야, 58개소, 65반	무용/음악	장애인 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470

연도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대상	기획사업	예산 (백만)
2012	4개 분야, 75개소, 100반	무용/음악 미술/영화(시범)	장애인 복지관	장애아동부모간담회, 장애아동부모대상 육구 및 만족도 조사	600
2013	4개 분야, 96개소, 137반	무용/음악 미술/영화		방학·주말 프로그램, 활동가파견사업	1,100
2014	6개 분야, 124개소, 263반	무용/음악/ 미술/영화/ 국악/연극(신설)		방학·주말 프로그램, 활 동가파견사업, 직접연구, 공모사업	2,390
2015	6개 분야, 182개소 332반	국악/무용 /미술/연극 /영화/음악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시설 보호 작업장	방학·주말 프로그램, 활 동가파견사업	3,100
2016	6개 분야, 249개소, 400반			방학·주말 프로그램, 문화예술축제	3,500
2017	6개 분야, 238개소 413반			방학·주말 프로그램, 문화예술축제, 신규분야 공모사업, 문화예술참여워크숍 등	3,600
2018	6개 분야, 209개소, 410반			신규분야 공모사업,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육구조사 등	3,460
2019	6개 분야, 210개소, 410반			신규분야 공모사업, 문화예술축제 (제3회 예울림페스티벌)	3,450
2020	6개 분야, 279개소, 369반			신규분야 공모사업, 10주년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발간	3,140

출처 : 「2020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안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20, 6쪽, 재구성

장문원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 추진 경과

- 장문원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향유 활동부
터 장애 예술가의 창작활동, 해외 교류까지 12개 분야 장애인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중 일반 공모 부문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 혹은 비(非)장애
인 예술단체에 2020년 기준 최대 4천만 원에 달하는 프로그램 운영·연구·개발 지원
을 하고 있음.

〈표Ⅳ-12〉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사업 목적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 예 술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인 예술가 육성
사업 내용	- 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 장애인 예술가, 강사 육성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예술단체 / 비(非)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분야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교육·실습)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유형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시청각 장애인 교안 개발 등) -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교육 사업

출처 :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0, 14쪽, 재구성

- 2018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분 선정 단
체는 11건이었음. 이후 2019, 2020년도에는 각 27개의 단체가 선정되어 6억 원의
지원 금액으로 운영되었음.

〈표Ⅳ-13〉 2018~2020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결과			
구분	공모 신청 건수	공모 선정 건수	선정 금액(원)
2018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분	127건	24건	572,000,000
2019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분	102건	27건	600,000,000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분	124건	27건	600,000,000

출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내부자료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선정된 문화예술교육 사업에서 발달장애인을 특정하
여 진행한 프로그램은 2018년 9개(공모 선정 건수 중 37.5%), 2019년에는 11개(공
모 선정 건수 중 40.7%), 2020년에는 17개(공모 선정 건수 중 63.0%)의 프로그램
으로 나타남.

〈표Ⅳ-14〉 2018~2020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선정 단체

구분	단체명	신청사업명
2018년 선정 단체	(사)희망이룸	발달장애 예술가 육성을 위한 뮤지컬 교육
	아트엘(Art EL)	듣다 (가제)
	안티카	안티카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한국파릇하우스	뇌병변. 지체청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프로젝트 -세상의 모든 꽃은 흔들리며 춤춘다-
	(사)트러스트무용단	3D-Play (Dreaming, Dance, Design)
	상록수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작품활동 을 위한 미술교육 및 전시회
	(사)한국임상연극 심리치료협회	지적장애 정도에 따른(경도, 중증도, 중도, 최중도) 연극 교육 프로그램
	장애인극단 그레도	2018년 광주 장애인 연극아카데미
	좋은이웃	장애프로음악인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젝트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마음새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한지예술작가 발굴프로젝트 [가 즈아~! 황금 빛 나의한지]
	장애인국악교육원	장애인 사물놀이 교육 (우리도 할수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함께하는 공작(공감과 창작) 아카데미 (부제: 문예창작 강좌 및 공감콘서트 개최)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 몸의 표현과 움직임을 통한 창작 워크샵
	시흥챔버오케스트라	2018 춤추는 드림교실
	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발달장애인 음악교육을 위한 아트위캔 음악아카데미
	예술연구소 놀이하는마음	장애청소년을 위한 생활예술백서 - 마을에서 살아남기
	우니따 합창단	Hear the story, Heal my Family 청각 장애어린이와 비(非)장애 어린이가 함께 만드는 가족 뮤지컬
	극단 라하프	This is our story (우리들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사)장애인문화예술 진흥개발원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가능성 그대호 '우리는 한다'
	장애인문화나눔 누리터	(교육사업) “내 삶에 단 한번...!!”
	이마고 미술치료연구소	'다름'예술에 접속하다: AAP제주

구분	단체명	신청사업명
2018년 선정 단체	비기자	성인 장애인의 자기표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 보재 연구 개발
	케이힐 댄스 프로젝트	지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움직임무용교육 프로그램 "춤 추는 휠체어"
	아트기버사회적협동	중등교육을 마친 성인 발달장애인 전환프로그램
2019년 선정 단체	아트엘(Art EL)	듣다 -새로운 소리 (가제)
	장애인극단 그레도	2019 광주 장애인 연극 아카데미
	장애인문화나눔 누리터	“나를 드러다 보고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교육”
	프로듀서그룹 도트	포용적 접근의 장애 예술 창작 개발과 관객 개발 리서치 및 워크숍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한국파릇하우스	뇌병변·지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움직임 예술교육 프 로젝트2 -꽃은, 아직도 흔들린다!-
	춤패닉무용단	헤림애(愛)고(go) - 우리들만의 ‘Story dancing’
	(사)피치마켓	발달장애인 수필작가 아카데미
	아주 특별한 예술마을	아주 특별한 예술아카데미 〈우리의 특별한 그림책 만들기〉
	도시매개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밖으로, 스스로, 표현하기(가제)" 개발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회	점.선.면 세상을 잇다
	시스플래닛	열린행성그라운드
	이마고 미술치료연구소	〈다름〉예술에 접속하다:AAP제주
	(사)한국임상연극 심리치료협회	자폐증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연극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장애인문화예술극회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문화예술판	부산 BF아카데미 / 영상 배리어프리 교육 및 연구
	꿈꾸는 베프	부산 BF아카데미 / 영상 배리어프리 교육 및 연구
	문화컨텐츠나라	소리여행 -장애인 팟캐스트-
	(사)서울나눔뮤직그룹	복합유형 장애인 전문예술가 교육프로그램 '작은 신의 아 이들'
	고신음악치료학회	시각장애인의 음악점자 암보를 위한 음성지원 전략 연구
	사회적협동조합 좋은이웃컴퍼니	프로장애음악인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젝트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구분	단체명	신청사업명
2019년 선정 단체	장애인어울림 띠애타합창단	소리 어울림 맞추기
	조이풀예술단	아름다운 예술학교
	(사)전북전문문화예술진흥회	참사랑과 동행
	국악콘텐츠연구소 노리पुर리	국악으로 풀어보는 몸과 맘
	놀이패신바람	2019 장애학생문화예술역량강화 '국악동요와 사물놀이 한바탕'
	마음새	발달장애인의 전문 한지 예술작가 발굴프로젝트 [나는 한지 예술가입니다]
	장애인국악교육원	사물놀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사)에이블아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020년 선정 단체	(사)우리들의 눈	시각장애 미술수업 모델 연구개발
	고신음악치료학회	음악-색 연합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색채학습 프로그램 개발
	극단함께사는세상	"조각보" 연극 아카데미
	다도스튜디오	성인 발달장애인 특성화 예술 프로그램 연구·개발 〈PlayGround: 특별한 어른들의 놀이터〉
	더날개	더날개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한국파릇하우스	움직임예술의 사각지대인 뇌병변과 지체장애인들을 위 한 '교정과 힐링 춤 박스' 키트 제작
	미술공감채움	군산의 반딧불이예술가
	배희관 밴드	B Wave Lab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악교실
	(사)장애인문화예술 진흥개발원	청소년 몸짓여행 "마음그리기"
	(사)필로스 하모니	희망의 날갯짓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로아트	대야미스튜디오 시각예술 워크숍 2020 초점과 반영 Focus and Reflect
	(사)희망이룸	'창원시장장애인오케스트라' 발달장애 예술가 역량강화 지 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좋은이웃컴퍼니	프로장애음악인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젝트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아동청소년 연극집단 무동	경도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 개 발연구

구분	단체명	신청사업명
2020년 선정 단체	아트 컴퍼니 노닐다	무대 위 나를 그리다
	아트애틀링 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과 비(非)장애인 통합 예술 아카데미
	아트엘 (Art EL)	듣다3 (가제)
	애크미문화예술연구소	금손s프로젝트
	어울림합창단	2020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지원-어울림합창단
	예술연구소 놀이하는마음	아트나비 도전 아카데미
	오아시스 (Our Art Space)	낙타와 오아시스
	이마고 미술치료연구소	〈다름〉예술로 소통하다: ACP제주
	장애인문화나눔노리터	두드림 장애인 음악교육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예술가 1인극 제작 양성 교육 '나의 작은 극장에 초 대합니다'
	프로듀서그룹 도트	무용 음성해설(Dance Audio Description) 및 음성 해 설가 개발 프로젝트
	피터팬클럽	발달장애인의 잠재력 개발과 역량강화 - 피터팬과 서울 튜티양상블의 “Again 해피투게더”

출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의 이슈

- 어느 장애나 그러하지만,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
회적 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가 가진 특성에 비해,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어떠한 질의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주체적 활동과 자기결정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환경과 여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
-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표현방식과 사회적 소통방식을 이해하는 사회적 여건 마련과 인
식 변화를 기본으로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중요
한 과제임.
-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와 활동 경험이 매우 미비한 상태로서, 연구나 정책
사업이 보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실태와 욕구조사는 물론, 발달장애인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방안, 그리고 프로그램 방안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그런 의미에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심층적 탐색에 앞서 선행적으로 “장애 예술”과 “장애인 예술”에 대한 정리가 요구됨.

3. 포용적 예술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1) 장애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 “포용적 예술”

■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점정립의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예술에 대한 우리사회의 ‘흔한’ 시선 즉, “인간 승리의 서사”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불편하지만 상업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시선이라는 점을 인식함.
- 그러나 이는 장애인의 주체성과 자기 정체성이 비(非)발달장애인에 의해 기획되거나 편집된 시선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
- 장애인 예술에 대한 관점과 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은 주체로서의 ‘장애인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체성은 비(非)장애인의 시선에 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장애인 예술 혹은, 장애예술에 대한 관점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봄.
- 아울러, 우리나라의 장애인 예술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하는 예술’ 혹은 ‘비(非)장애인의 시선에 포획되는 예술’이 아닌 장애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장애 예술운동(disability arts movement)

- 장애인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발화하기 시작한 것은 장애인 인권 운동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영국에서 장애인 예술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치료적 맥락이 아닌 예술적 방식으로 자리 잡음.
- 장애 예술운동(disability arts movement)은 ‘장애인 예술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갖는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힘으로서의 잠재력’을 사회적으로 드러낸 행위임(박신의, 2018년, 92쪽, 재인용, Barnes and Mercer, 2001, 529쪽).
- 이는 곧, 장애인 예술가를 단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service-users)’이라는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예술적 역량과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 장애 예술운동 내에서는 ‘장애인 예술가(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술 활동을 하는,

disabled people doing art)’와 ‘장애 예술가(disability artists)’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박신의, 2018년, 92쪽, 재인용, Barnes and Mercer, 2001).

- 이는 단순히 장애인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점에 감탄하거나 비(非)장애인 예술가들처럼 작품이 좋다거나 하는 점이기보다는, 장애에 대한 표현에서 비(非)장애인이 갖는 인식의 한계와 왜곡에 대한 사회정치적 담론에 저항하고 이에 따른 태도를 갖는 예술적 형식이라는 점에서임.
- 바로 이것이 장애를 가진 예술가(artist with a disability) 내에서 장애 예술가(disability artist)를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임.
- 실제, 비(非)장애 문화권 안에 존재하는 비(非)장애인들은 기존의 질서와 양식에 의해 다른 혹은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는데 실제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

■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 서구사회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표현방식의 영역을 미국에서는 “아웃사이드 아트(outsider art)”, 프랑스에서는 “아르 브뤼(art brut, raw art)”, 영국에서는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해 왔음.
- 포용적 예술은 주류 예술방식과 다른 하위문화 영역에서의 표현과 유사하면서도, 주로 장애, 성소수자, 젠더, 이주민 등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부각되어 옴. 그러나 주로 포용적 예술은 장애인 관련 예술 및 정책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포용적 예술은 2006년 신노동당(New Labour)이 교육을 위한 ‘창의적 파트너십 정책(Creative Partnerships Policy)’ 제안을 계기로 사용되었음.
- 창의적 파트너십은 문화 활동에서의 경제적 중요성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의제에 기반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영국의 학교예술교육에서는 사회적 포용을 옹호하고 모두를 위한 문화 향유를 강조하게 됨(박신의, 2018년, 65쪽, 재인용, Hall and Thomson, 2007, 13쪽).
- 결과적으로 사회적 포용의 관점으로 장애인 예술에 접근함으로써 장애 예술을 기존의 비(非)장애 예술에 준하는 예술이 아니라, 장애 자체에 대한 고유함과 특성을 또 다른 문화 영역으로 인정하는 문화다양성 원리와 결합하였음.
- 이에,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중심이 되어 2014년부터 이론 연구 및 예술적 수월성을 갖는 예술가 및 단체를 발굴하고 있음.

■ 장애인 접근성과 장애 예술 활성화를 위한 개량적 지표 전략

- 장애인 문화 향유에 있어 접근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의

- 미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역시 이에 준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포용적 예술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영국예술위원회는 장애 영역과 함께 젠더, 인종, 성소수 영역에 대한 지원과 실제적 개선지표를 구체화함 (Equality, Diversity and the Creative Case, 2014-2019, ACE). 이는 기존의 제도 속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체적 실천지수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임.
- 영국은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을 공포하였고, 영국예술위원회는 다양성 실천이 영국 예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아래 ‘모두를 위한 위대한 문화예술(Great arts and culture for everyone)’을 기관의 미션으로 설정한 바 있음.
- ‘창의성은 다양한 삶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 속에서 다양성과 평등을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장애 예술을 다양한 삶의 맥락으로 재배치한 것임.
- 다시 말해서, 장애 예술은 비(非)장애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고유한 언어이자 다른 삶이며, 이제까지 비(非)장애 중심의 미학과 다른 새로운 미학으로 장애 예술의 정체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임.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탐색 방향

■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모색

- 포용적 예술을 통해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발달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포용적 관점은 좁은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 기획의 확대 등과 연관되어 있음.
-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대응이며,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에 대한 귀환으로 이해될 수 있음. 이는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문화권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임.
- 동시에 경제적 약자, 장애인과 성소수자, 이민자, 탈북자,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 증오와 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배제에 주목하면서, 삶을 위한 문화적 실천이자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편 윤리이기도 함.
-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예술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성찰이 전제되지 않고 “포용적”이라는 용어가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우려가 있기 때문임.²⁶⁾

26) 영국사회에서 포용적 예술이 하나의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자리하기까지 30-40년의 과정이 있었으며,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 예술의 성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용하면서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포용’의 기능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목표는 자유롭게 창의적인 개인의 잠재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수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있음.
- 포용적 예술로부터 착안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탑재되어야 하는 “포용”은 대상에 대한 포용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과 사회 전반의 가치체계와 관련이 있음.
- 다시 말해서, 사회적 배제와 증오가 확대되고 있는 오늘의 삶에서 빈곤, 차별, 혐오를 문화다양성의 관점으로 포용하고 누구나 스스로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말함.
-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개개인의 내적 치유와 회복이라는 개인 심급의 과제와 함께 사회문제를 사회적 포용을 통해 해결하는 과제와 맞닿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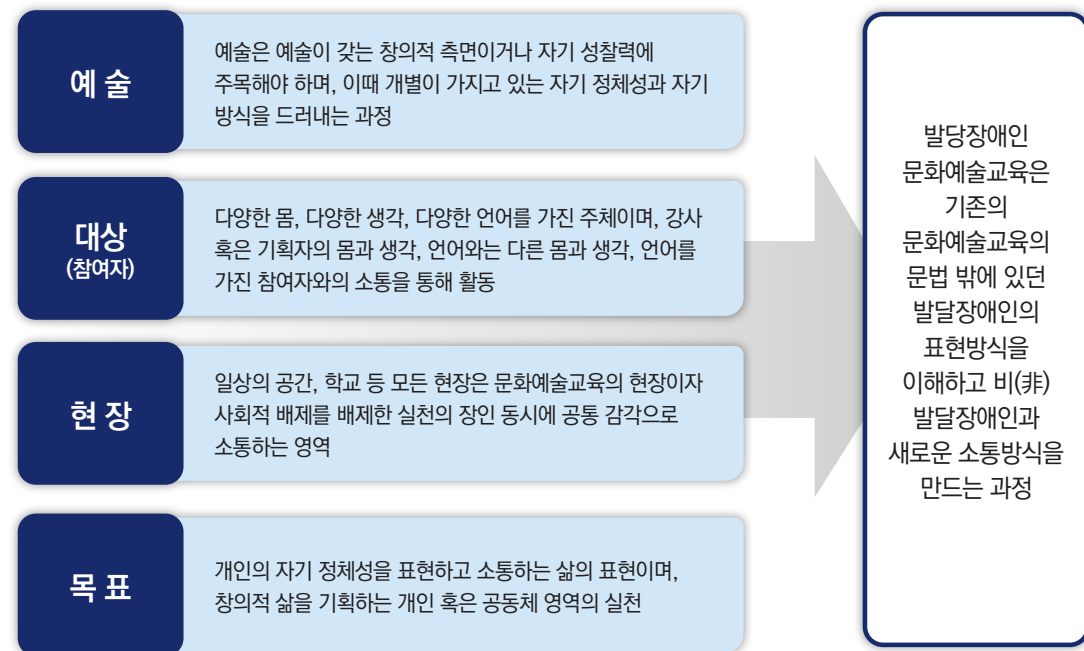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도출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술과 대상(참여자), 현장, 목표의 층위에서 포용적 관점을 적용하는 일이 요구됨.
- 포용적 예술에서 설명하였듯이, 예술 개념에서 예술은 규정된 장르 예술을 의미한다면, 자연스럽게 교육 행위와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포용적 예술이 가진 의미와 멀어지게 됨.
- 여기에서 예술의 의미는 예술의 고유한 판단력에 해당되는 미적(aesthetic) 성질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근대 이후 ‘미적인 것(the aesthetic)’의 의미는 개념이나 도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느낌과 감정으로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됨. 즉 미적인 판단의 핵심은 ‘자기를 느끼는 것’임. 그러므로 예술과 관련된 성찰, 혹은 반성(reflection)은 명시적이고 명료화된 언어가 아닌 자기가 감각한 것을 다시 느끼는 것으로 특징화됨.
-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각과 느낌이 무엇인지 다시 느낄 때 개별성이 형성될 수 있는 단초가 됨. 언어적인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명료화하지는 않더라도 스스로의 감각이나 감정을 대상화하는 계기는 암묵적인 정체성 형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될

이는 사회적 논의와 예술적 담론화 과정을 밝아온 결과임. 그러나 그러한 논의 과정이 없는 우리사회에서 “포용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포용의 주어가 정상인 혹은 기득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특히, 영국사회는 포용의 의미가 경제적 약자, 이민자, 장애인과 성소수자,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광범위하게 이해되는 토대가 구축되어 포용이 누가 누구를 포용하는 것이 아닌 “서로 포용”의 의미를 가진 “포용사회”로 확대되어 있음. 이러한 토대 없이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을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으로 명명할 경우, 마치 발달장애인 특수교육 혹은 발달장애인 특화교육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음. 물론, 전략적으로 명명함으로써 비(非)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정형성을 드러내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러한 전략사용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초기 상태라고 판단함.

수 있음.

- 여기서 예술의 범위는 '모든 예술은 삶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원칙 속에서 각 주체가 시간과 공간을 이전과 다르게 감각하는 일상의 수준으로 확대될 것임.
-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서 참여자는 기존의 문화활동에서 배제되거나, 표현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갑자기 뜻밖의 행동을 하는 참여자일 수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이들은 새롭게 해석되는데, 새로운 인식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참여자는 다양한 몸, 다양한 생각, 다양한 언어를 가진 주체임. 또한, 프로그램의 강사 혹은 기획자가 가진 몸과 생각, 언어와 다른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은 우리가 사는 사회임. 포용적 예술이 비(非)장애인의 획일적 표현에 대한 새로운 표현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최소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발달장애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 함.
- 일상의 공간, 학교 등 모든 현장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결국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지향이지만)의 현장이자 사회적 배제를 배제하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함.
-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최종 심급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가진 본질적 목표로 수렴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삶의 표현이며, 창의적 삶을 기획하는 개인 혹은 공동체 영역의 실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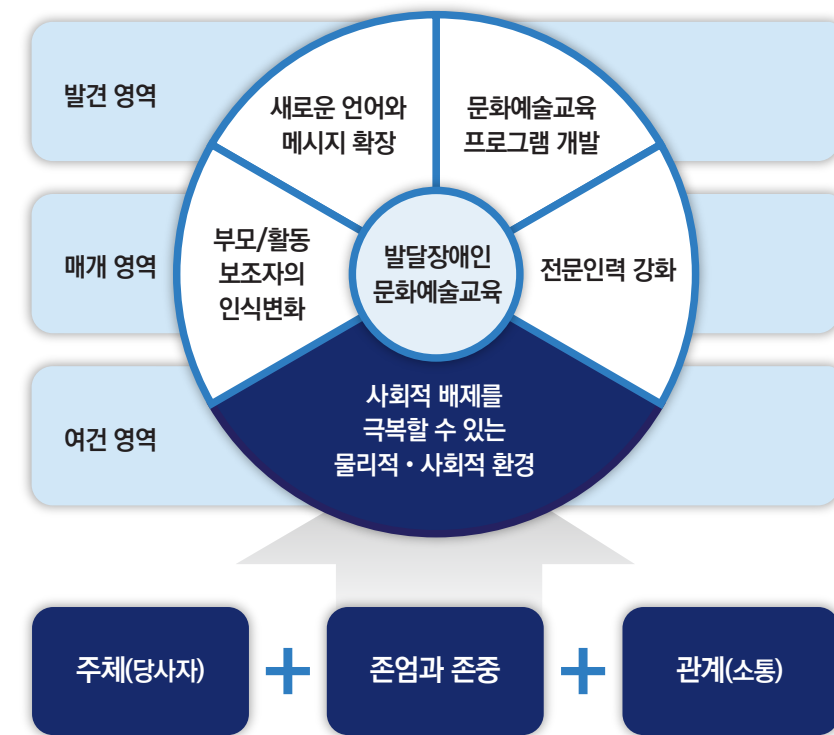


(그림Ⅳ-4)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개념 도출을 위한 과정

출처 : 류승완 외, 「2019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연계 '작은연구'-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목표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19쪽, 재구성 및 추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구조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는 새로운 관점이 탑재된 형식과 내용의 재구조화가 요구됨.
- 즉, 포용적 관점을 견지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의 개발, 이를 실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전문 인력(매개자)의 확보, 보호자의 인식의 변화, 사회적 공감 확대를 위한 새로운 언어와 메시지 확장 등으로 집약할 수 있음.
- 이는 접근성과 기회를 확대하는 여건 마련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전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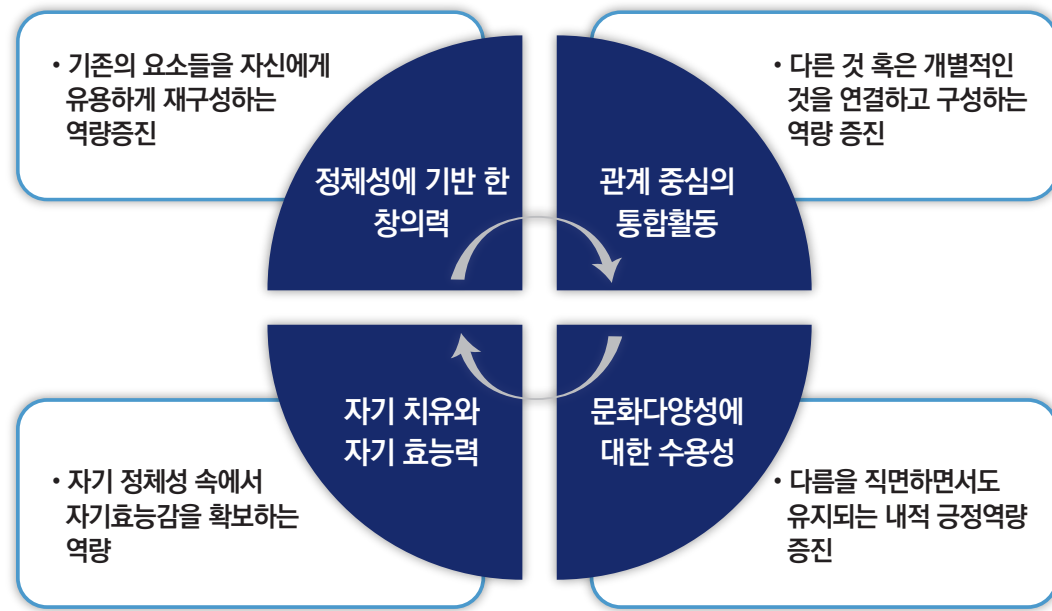


(그림Ⅳ-5)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구조

출처 : 류승완 외, 「2019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연계 '작은연구'-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목표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18쪽, 재구성 및 추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내적 구성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구조를 기초로 한 프로그램의 내적 구성은 사실상 문화예술교육의 내적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다만,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내적 구성은 정체성에 기반한 창의력, 관계 중심의 통합 활동,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자기 치유와 자기 효능력 등으로 정리 될 수 있음.



(그림Ⅳ-6)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요소

4. 해외 정책현황 및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국내외 사례

1) 해외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정책 및 제도

(1) 영국

■ 법 체계

- 영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DDA, 1995 제정, 2005 개정)」에 의해 장애인 관련 정책의 기본 틀을 적용받으며, 이후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06)」²⁷⁾ 개정 이후 장애인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공공기관²⁸⁾은 장애인 평등(Disability Equality)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장애인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 및 관련 세부 계획 수립과 성과보고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27) 이 법은 1970년 동일임금법, 1975년 성차별금지법, 1976년 인종관계법,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종교 및 신념, 성적 지향,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규제하는 3개의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임.

28)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술위원회 같은 비정부 공공기관, 병원, 대학 등을 포함함.

■ 정책 현황

- 「유엔 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과 비(非)장애인은 동등한 수준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천명하며 국제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영국은 2009년에 이 조약을 승인함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과 공공서비스 접근 향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관련 교육 제공 등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야 함.
- 중앙정부의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장애인 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를 설치하여, 문화, 예술, 체육, 미디어에 장애인의 전면적인 참여를 위해 부처 내 장애인평등정책 개발을 진행함.

〈표Ⅳ-15〉 영국 중앙정부 장애인 자문위원회의 건의내용

- 문화부문 고용 직원과 장애인 직원에 대한 교육
- 문화부문 기관 및 업체의 의사결정 시부터 실제 장애인 정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 공공 문화기관 이사회에 장애인 이사를 늘림.
-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 및 분석 필요

출처 : 「해외동향분석-장애인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445쪽

- 또한, 영국의 대표 비정부 공공기관인 영국예술위원회는 「평등법」에 따라, <평등과 다양성 계획(Equality and Diversity Plan)>을 3년마다 발표하고, 장애를 포함한 여성, 성소수, 인종 영역의 지원사업과 현장의 변화를 점검하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의제에 장애인 예술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음.

(2) 미국

■ 법 체계

- 미국은 1973년 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과 1975년 제정된 「장애아 동교육법(Education of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을 기본 바탕으로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차별요소 제거를 국가적 목표로 제시함.
-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 DD Act, 1970)」에 따라 2000년부터 모든 주에 발달장애국(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 ADD)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책 현황

- 미국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모두를 위한 사회(Society for All)’를 기본 이념으로 시민권(civil rights)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함.
- 미국은 국립문화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국립 예술과 장애 센터(National Arts and Disability Center), 장애인예술재단(Very Special Arts, 이하 VSA)을 중심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국립문화예술기금은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 예술과 장애센터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상담하는 기관으로 예술관련 취업 자료와 예술교육 및 펀딩, 장애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비영리기관인 VSA는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장애인예술재단으로서,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장애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에 의한 주별 발달장애인국은 지역사회 내 장애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위한 ‘발달장애인 이사회(Councils on Developmental Disability : CDD)’와 같은 시스템을 두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이사회(CDD)’의 목적은 소비자-가족 중심, 가족-소비자 중심의 협력, 자기결정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개별화된 지원, 포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의 마련 등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옹호와 역량 개발 그리고 시스템 변화를 실행하는 것임.

〈표Ⅳ-16〉 미국의 발달장애인 이사회(CDD)의 목적

- 소비자-가족 중심, 가족-소비자 중심의 협력
- 자기결정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과 개별화된 지원
- 포괄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마련

출처 : 「해외동향분석-장애인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445쪽

(3) 프랑스

■ 법 체계

- 프랑스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원칙 정립을 위해 「장애인의 기회와 권리 균등 보장, 참여와 시민권을 위한 법률(Loi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2005)」을 제정함.

- 이 법에 따라 교육, 건축물, 고용, 교통수단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이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의 결과에 대한 보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의 참여권과 인접성을 보장하며, 독립 장애인의 집(Maison de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ees : M.D.P.H.) 창설과 공무원 장애인 고용지원기금(Fonds pour l’insertion des personnes handicapees dans la fonction publique : FIPHFP)을 제도화하고 2006년부터 적용하고 있음.

■ 정책 현황

- 프랑스는 문화가 최대 다수에게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문화 민주화’ 원칙을 중요시함. 따라서 장애인의 필요 및 욕구를 고려해 정보 및 통신뿐 아니라 문화 및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한 최고의 접근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주요 사명으로 간주함.
- 또한, 프랑스의 장애인 문화정책은 문화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문화와 사회, 교육 및 경제, 의료 분야 등을 포괄하여 부처 간 협력과 장애인 관련 협회 및 단체, 문화예술기관들이 협력하고 있음.
- 프랑스의 대표적 장애인 문화정책의 사례로는 ‘문화-장애 국가위원회(Commision nationale Culture-Handicap)’인데, 이는 2001년 2월 7일 법령으로 설립되었으며, 문화통신부와 가족아동장애인 관련 부처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음.

〈표Ⅳ-17〉 프랑스 ‘문화-장애 국가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구분	내용
기능	문화관련 부처와 장애인, 장애인 관련 주요 협회, 장애인 당사자, 문화예술단체 등 대화 및 상담, 정보 공유 창구
역할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기준, 특히 필요한 기구 및 시설, 예술 행위, 문화 분야의 교육 및 전문직업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돕는 정보 제공

출처 : 「해외동향분석-장애인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456쪽

- 아울러, 프랑스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위한 ‘접근에 대한 실제 가이드(Culture et handicap : guide pratique de l’accessibilité)’를 발간하고 있는데,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문화기구 장애인 안내 현장, 장애의 분류와 정의 및 특징, 협력기관 등을 수록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4) 독일

■ 법 체계

- 독일은 연방법인 「동등대우법(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 AGG, 2002)」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음.
- 2002년에 발효된 「장애인평등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 BGG, 2002)은 장애인의 평등 조건을 규정한 법으로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불이익 단절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독일은 「특수장애인법(Schwerbehindertenrecht)」을 통해 특수장애로 발생되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비용을 위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다양한 법²⁹⁾을 통해서도 장애인 평등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책 현황

- 독일 연방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기관이며 노동복지부 산하기관인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Das Amt des Beauftragten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는 장애인과 비(非)장애인의 평등한 조건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인 삶을 충족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법제도 정비, 문화와 복지와 관련된 정책 수행 등의 역할을 함.
-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두를 위한 문화의집’이자 ‘장애인을 배려한 국립 문화하우스’를 표방하는 베를린 클라이스트하우스(Das Kleisthaus Berlin)에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음.
- 클라이스트하우스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다양성을 이루는 곳으로 장애인과 비(非)장애인 모두를 위한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음.

(5) 호주

■ 법 체계

- 호주는 1992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됨.

29) 「시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 BGB)」, 「민사 소송법(Zivilprozessordnung : ZPO)」, 「형사 소송법(Strafprozessordnung : StPO)」, 「규제 관리법(Ordnungswidrigkeitengesetz : OWiG)」, 「사법 제도(Gerichtsverfassungsgesetz : GVG)」, 「등기법(Beurkundungsgesetz : BeurkG)」, 「철도법(Allgemeines Eisenbahngesetz : AEG)」, 「항공법(Luftverkehrsgesetz : LuftVG)」, 「저작권법(45a Urheberrechtsgesetz, Behinderte Menschen : UrhG)」(출처 : 「해외동향분석-장애인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462쪽)

- 이 법은 호주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차별적 행위를 제거하고,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Ⅳ-18〉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목적

- 일, 숙박, 교육, 상품, 시설, 서비스, 법률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제거
- 장애인은 법 앞에서 평등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
- 장애인은 다른 지역사회와 동일한 기본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지역 사회 내에서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장려

출처 :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문 재구성, 호주 연방 입법 등록부 홈페이지(<https://www.legislation.gov.au/Home>)

■ 정책 현황

- 호주예술위원회는 장애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 개입 프레임워크(Cultural Engagement Framework, 2007)〉의 2008-2010년, 2011-2013년 두 번에 걸쳐 〈예술과 장애 실천계획(Arts and Disability Action Plan)〉을 포함시키고, 2014-2016년 〈장애인실천계획(Disability Action Plan)〉에서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과 프로젝트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하였음.
- 또한, 호주의 주정부 기관 중에 ‘아츠 액세스 빅토리아(Arts Access Victoria : AAV)’는 1974년에 설립되었는데,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예술인과 단체, 예술기관을 위한 실행계획과 예술적 실천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음.

(6) 캐나다

■ 법 체계

- 캐나다는 1982년에 개정된 「캐나다 헌법(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 없이 법에 의한 보호와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해 법률의 제정과 정책을 개발을 해야 한다고 명시함.³⁰⁾
- 헌법제정 이전에 제정된 1977년 「캐나다 인권법(the Canadian Human Rights Act)」에서는 모든 차별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

30)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c.ca/eng/index.html>

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정책 현황

- 캐나다의 복지정책은 주마다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2005년에 설립된 BC주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CLBC(Community Living British Columbia Port Moody Office)는 개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및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의사결정여부 등을 평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CLBC 개별 펀딩 제도³¹⁾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7) 일본

■ 법 체계

- 일본은 2007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CRPD)」 체결 이전에는 2004년에 「장애인기본법」(1970년 제정)의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기본이념으로 명시함.
- 2011년의 동법 개정을 하면서 ‘누구도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하여 차별하는 것, 기타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장벽의 제거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게을리 함으로써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되지 않도록 그 실시에 대해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규정됨(서원선, 2018년, 32쪽).
- 이러한 가운데, 2013년에는 「장애인차별해소법」이 제정되었으며, 특히 일본은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적장애인복지법, 1960」과 「발달장애인 지원법, 2004」이 존재함.
- 「발달장애인 지원법」에서는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 발달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등으로 이어지는 개념도 포함되어 장애의 조기진단·의료·교육·치료·상담제도 등에 대한 발달장애인 지원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목표로 함.
- 또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도 일본의 장애인 예술지원을 위한 내용을 확인할

31) CLBC 개별 펀딩 제도는 장애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당사자와 가족들은 CLBC로부터 개별 펀딩을 지원받아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있음. 또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개인 생활 자원뿐만 아니라, 음식비, 주거비, 교통비, 기술 지원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이 개별펀딩을 통해서 어디서, 누구와 살지, 누구를 고용할지 등 모든 것을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음.

수 있는데, ‘국가는 고령자·장애인 등이 실시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충실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박신의, 2018년, 30쪽).

■ 정책 현황

- 일본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파악하여 인재양성과 발표의 장을 위한 자금 조성을 지원하며, 민간은 실제 창작 활동과 표현활동의 장, 작품의 상품화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심신의 기능에 주목하는 의학적 모델에 근거하고 있었으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중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도록 하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³²⁾
- 이를 추진하는 ‘장애인 제도 개혁 본부’는 일본의 법률이나 제도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의 재검토를 주 내용으로 함.
- 일본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민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에는 예술로서의 장애인 예술, 보급개발·감상기획의 확충, 복지 현장에서의 예술활동 지원 등을 정책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국제장애인교류센터(Big-I)는 「UNESCAP(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장애인의 10년 (1983~1992-비아고 선언)」을 기념하며 2001년 후생노동성(당시 후생성)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실현을 도모하는 상징적 시설로 설치되었음. 여기에서는 장애인 스스로의 국제교류 활동이나 예술·문화 활동의 장으로,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정비하여, 각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표Ⅳ-19〉 해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및 제도 요약

구분	법 체계	정책 현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법(1995)」이 2005년 개정되어 장애인 관련 정책의 기본 틀 적용 - 「평등법(2006)」이 2010년 개정되면서 장애인 관련 정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미디어체육부 : 장애인 자문위원회 설치, 장애인의 전면적 참여를 위해 부처 내 장애인평등정책 개발 진행

32) 「해외동향분석-장애인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475쪽

구분	법 체계	정책 현황
영국	- 모든 공공기관은 장애인 평등을 위한 <장애인평등계획> 및 관련 세부계획 수립과 성과보고의 의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	- 영국예술위원회 : <평등과 다양성 계획>을 통해 장애를 포함한 여성, 성소수, 인종 영역의 지원사업과 현장의 변화 점검 및 장애인예술단체의 의견 적극 수렴 강조
미국	- 「미국장애인법(1990)」에서 장애인의 권리 강조, 차별요소 제거를 국가적 목표로 제시 -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에 따라 모든 주에 ‘발달장애국’ 설치 운영(2000년)	- 국립문화예술기금 :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등 진행 - 국립 예술과 장애센터 : 예술관련 취업 자료, 예술교육 및 펀딩, 장애인 네트워킹 등 지원 - 장애예술재단 : 장애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주별 발달장애국 : ‘발달장애인 이사회’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변화 위해 노력
프랑스	- 「장애인의 기회와 균리 균등 보장, 참여와 시민권을 위한 법률」을 통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이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 장애의 결과에 대한 보상의 권리를 보장, 독립장애인의 집 창설,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 지원 기금 제도화	- 문화-장애 국가위원회 : 문화통신부와 가족아동장애인 관련 부처에 의해 공식 설치 - 접근에 대한 실제 가이드 : 문화예술계 종사하는 전문가를 위해 문화기구 장애인 안내 현장, 장애의 분류와 정의 및 특징, 협력기관 등을 제공
독일	- 「동등대우법(2002)」 : 장애인의 문화권, 평등권 보장 - 「장애인평등법」 : 장애인의 평등 조건을 규정한 법 - 「특수장애인법」 : 특수장애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사항 및 장애인 평등 권리에 대한 규정 명시	- 연방정부 장애인 복지위원회 : 장애인과 비(非)장애인의 평등한 조건의 생활 환경 조성, 법제도 정비, 문화와 복지와 관련된 정책 수행 등 - 동위원회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인 삶을 충족시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베를린 클라이스트 하우스 운영
호주	-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움직임 시작 - 동법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차별적 행위 제거, 동일한 권리 보장, 지역사회 내에서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장려	- 장애예술위원회 : <예술과 장애 실천 계획>을 포함, 장애 예술인의 창작과 프로젝트 기금 별도 마련 등 2017년까지 지속 - 아츠 액세스 빅토리아 : 1974년 설립,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예술인과 단체, 예술기관을 위한 실행 계획과 예술적 실천방법 등 제공


구분	법 체계	정책 현황
캐나다	- 「캐나다 헌법」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에 의한 차별 없이 법에 의한 보호와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 - 「캐나다인권법(1977)」에서는 모든 차별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 및 실행 시설 설치 명시	- CLBC : 2005년에 설립된 BC주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써 개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및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의사결정여부 등을 평가해서 다양한 지원하고, CLBC 개별 펀딩 제도를 주요 업무로 함.
일본	- 2007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체결 이전에는 2004년에 「장애인기본법(1970)」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기본이념으로 명시 - 장애인 정책 및 지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은 「장애인차별해소법(2013)」, 「지적장애인복지법(1960)」, 「발달장애인지원법(2004)」, 「문화예술진흥기본법」 등이 있음.	- 일본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중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도록 하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 - 국제장애인교류센터 : 2001년 후생노동성(당시 후생성)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실현을 도모하는 상징적 시설로 설치,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정비하여, 각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2)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사례

■ 미국 : EASE(everyday arts for special education)

- 도시예술파트너십(UAP, Urban Arts Partnership)은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장애아동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예술통합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소외된 공립학교 학생들의 지적, 사회적, 예술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
- 뉴욕시와 로스엔젤레스시의 100개 이상 공립학교에서 매년 15,000명의 학생과 교사 500명에게 예술통합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
- EASE는 5년간 미국 정부의 장기 연구 보조금을 통해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은 동화책, 소설 등 원작의 내용을 학생(장애 및 비(非)장애 아동/청소년)개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참여형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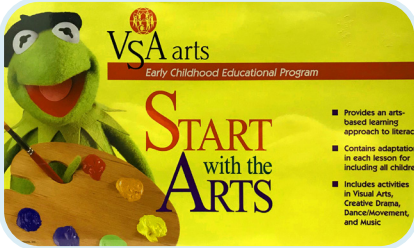

구분	내용
기관	도시예술파트너십(UAP, Urban Arts Partnership)

프로그램명	EASE(everyday arts for special education)
목적	- 특수교육을 위한 Every Day Arts는 다양한 학습 및 행동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며, EASE 코치는 교사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함.
프로그램 내용	<div><div><div><div>- 자폐증, 과잉행동장애 등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특수 교육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div><div>- EASE는 예술통합 전략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사회화, 학업 학습 및 예술 숙련도 분야에서 학생의 성취도를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음.</div><div>- 학교 내 정규수업 과정에 음악, 무용, 미술, 연극을 이용하여 장애학생의 소통 능력과 학습능력 개발을 도움으로써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게 촉진함.</div><div>- 프로그램은 기본교육과정과 관리자 교육과정, 부모교육과정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도 지원하고 있음.</div></div><div></div><div><div>(그림Ⅳ-7) EASE 수업 장면</div><div>출처 :https://www.urbanarts.org/</div></div></div></div>
웹사이트	https://www.urbanarts.org/

-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설계의 고도화를 기하고 일정한 시범운영을 토대로 교사지원 프로그램, 부모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또한, 특수교육 분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미국 : 예술로 시작(Start with the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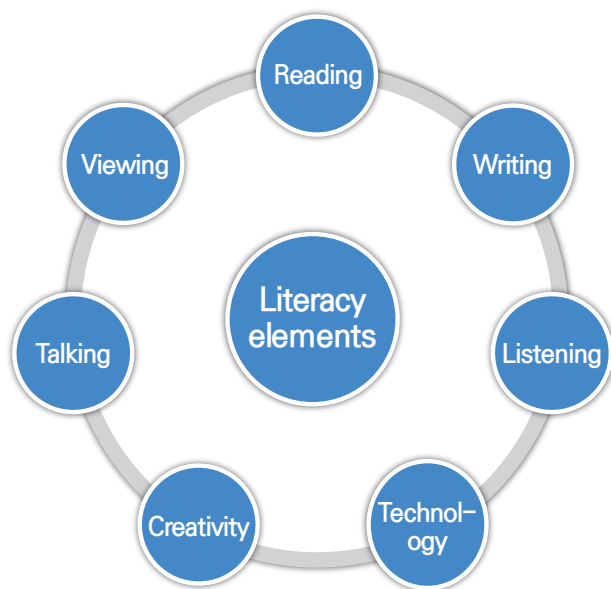
- 미국 장애인예술재단(VSA)은 1974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케네디공연센터를 본부로 하여 장애예술 관련한 국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예술로 시작(Start with the Arts)프로그램은 VSA에서 1991년에 개발하여 미국 전역의 유아 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이는 포용적 환경에서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유아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예술 주제를 탐색하고 예술의 본질을 활용하여, 어린 아이들이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의미를 만들고 표현하도록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임.

구분	내용
기관	미국 장애인예술재단(VSA, Very Special Arts)
프로그램명	예술로 시작(Start with the Arts)
목적	- 어린이를 위한 중요한 학습 전략으로 예술과 창의적 놀이를 사용하도록 장려 - 특수학습이 필요한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를 위한 발달단계 상 적절한 예술 경험의 활용을 장려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예술을 활용하는 주류 학습 상황에 통합되기 위한 전략과 활동을 유아 교육자들에게 제공
프로그램 기획의도	- 예술로 시작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택하여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테마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커리큘럼의 내용과 학습 프로세스를 연결함. - 주제 접근 방식은 언어, 예술, 사회연구, 창작, 연극, 음악, 과학, 수학 또는 이들의 조합활동을 통합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주제를 선정함. - 프로그램의 각 활동의 목표는 어린이들에게 예술과 삶의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사소통 및 문해력 개발을 촉진하고 자신과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장려하고자 함.
프로그램 내용	<div><div>① 나에 대한 모든 것 - 자아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 개인적인 관심, 필요, 감정을 가진 독특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필요성을 강조 -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과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강조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데 초점</div><div>② 덩고 차갑고 젖은 느낌 - 날씨는 매일 아이들의 복장 및 일일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날씨의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고 계절적 변화에 주목</div><div>③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방법 - 이 프로그램은 교통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차량의 목적과 이동 방식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문화예술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운송 수단을 설명할 수 있음.</div><div>④ 내 주변의 세계 - 아이들이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자라고 발달하고 움직이고 사는지 배우는 생태학에 중점을 둠. - 이러한 경험은 어린이가 식물과 동물의 특성을 관찰하고 설명하고 사람과 자연과 관련된 상호 의존성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div></div> <div><div></div><div></div><div><div>(그림Ⅳ-8) 예술로 시작 프로그램</div><div>출처 : https://www.kennedy-center.org/</div></div></div>
웹사이트	https://www.kennedy-center.org/

-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보고서 7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개별성, 해체된 표현요소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프로그램(만남의 리듬), 비언어적 요소, 놀이를 중심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이름 없는 놀이 속으로)과 유사한 원리를 사용하고 있음.

■ 호주 : Latch-On 프로그램

- 호주의 대표 프로그램인 Latch-On 프로그램은 정부가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퀸즈대학교 내 특수교육학과와 공동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아일랜드까지 파트너십이 확장됨.
- Latch-On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는 말하기와 듣기, 보기, 읽기, 쓰기, 기술 사용 및 창의력 등임.



(그림Ⅳ-9) Latch-On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출처 : Latch-on 홈페이지

- Latch-On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들의 문해력과 관련한 신기술의 적용 및 보급을 통해서 자신감, 자립생활, 고용의 기회 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구분	내용
기관	퀸즈대학교
프로그램명	Latch-On 프로그램
목적	- 발달장애인들의 문해력과 관련한 신기술의 적용 및 보급을 통해 자신감, 자립생활, 고용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함.

구분	내용
기획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tch-On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적장애인들도 다른 학습자들과 같이 뚜렷한 특성, 행동 및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개발됨. - Latch-On은 중재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기에 문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목함. 따라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됨. - Latch-On의 핵심은 Latch-On 프로그램 표준에 대한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춘 인증된 등록 교사제도임.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tch-On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4개 모듈의 문해력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을 가르칠 자격을 갖춘 교사가 2년에 걸쳐 매주 두 번의 수업을 진행하며, 각 모듈은 13-15주 수업, 주당 최소 1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화와 듣기(Talking and listening) : 이를 통해 문해력을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며, 언어의 사용이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움. ② 보기(Viewing) : 사진보기, 그림이나 미술작품, TV 프로그램을 통해 보는 것로부터 대화에서 읽기 능력까지 도움. ③ 읽기(Reading) : 글자로 된 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이를 대답하는 것을 포함함. ④ 쓰기(Writing) : 글을 요점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뉴스나 신문기사, 시, 설명문을 포함함. ⑤ 기술(Technology) : 학생이 집이나 도서관 직장 등에서도 매일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⑥ 창의력(Creativity) : 드라마나 포스터 만들기, 사진에세이 작성 등과 같은 창의성 활동 ⑦ 상황연출(Sequencing): 학생이 배워야 할 매너와 사용하는 어휘 등을 직접 상황에 연출하여 적용하는 방법
웹사이트	<p>https://www.latch-on.net/</p> <p>출처 :https://www.latch-on.net/</p>



(그림Ⅳ-10) Latch-On 프로그램 수업 현장

-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학교나 기관 등 제도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보편 프로그램으로서 정책 단위에서의 구상이 요구됨.
-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설계의 고도화를 기하고 일정한 시범운영을 토대로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일본 : 스윙(Swing)³³⁾

- 일본 교토에 위치한 스윙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 비영리법인 단체로 2006년에 설립함. 스윙은 예술단체가 아니라 「장애인종합지원법, 2013」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임.
- 스윙의 활동은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일상을 예술적 기획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의 일상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등 활동을 예술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드러내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특징은 스윙의 운영철학에 기반 하는데 즉, 장애인 개개인을 존재하는 자신으로 표현하고 장애인이 편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됨.

구분	내용
기관	스윙(Swing)
목적	- 스윙은 잡하지 않을 정도로만 약간 위험하게 무언가를 흔들며 변화를 모색하는 의미로, 장애인의 일상을 예술적 기획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의 일상을 오픈하는 등의 활동을 공간 중심으로 하며, 장애인을 사회와 연결함.
프로그램 내용	<p>〈대표 활동 소개〉</p> <p>① Oyss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션 Cocco의 '쓰레기 제로大作전'에서 영감을 받아 2008년 10월부터 시작한 활동으로 "아름다운 교토를 더 아름답게"를 슬로건으로, 겨울이나 여름에도 교토 가모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파란색 옷을 입고 동네 청소를 하는 프로젝트 <p>② 당신의 목적지를 알려 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토의 교통이 복잡한데 스윙 멤버들이 교통 관련 지식을 총동원하여 주로 외국인에게 길 안내를 함. 한 달에 1회, 2시간~2시간30분 정도 진행함.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일부 발달장애인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 스윙은 이것을 장애가 아닌 독특한 능력으로 해석하여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음.
웹사이트	홈페이지 : http://www.swing-npo.com/ 블로그 : http://garden.swing-npo.com/



(그림Ⅳ-11)
'Oyss 프로젝트' 활동

출처 : <http://garden.swing-npo.com>



(그림Ⅳ-12)
'당신의 목적지를 알려 드립니다' 활동

출처 : <http://garden.swing-npo.com>

-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본 보고서 7장에서 제시하는 관계성, 일상성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프로그램(릴레이 나들이)과 같은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음.

■ 일본 : 야마나미 공방

- 야마나미 공방은 1986년에 '산맥 공동 작업소'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산맥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변화함. 야마나미 공방은 예술 관련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임.³⁴⁾

구분	내용
기관	야마나미 공방
목적	- 야마나미 공방은 장애인이 여러 표현활동을 통해서 마음이 넉넉하게 성장하는 것,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간을 운영함.
프로그램 의도	- 야마나미 공방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개별 속도와 의욕에 맞게 산책, 드라이브, 운동, 창작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공방 운영자는 이들에게 맞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프로그램 내용	<p>- 프로그램 의도와 맥락에 맞는 야마나미 공방의 5가지 그룹 활동</p> <p>① 아뜰리에 : 코로봇쿠루 점토와 회화를 중심으로 각자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하는 일을 살린 다양한 창작 활동 및 조리실습이나 외출행사 진행</p> <p>② 스튜디오 : 코튼 자수와 회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과자 만들기 요리 실습 진행</p> <p>③ 프렌덤 : 기계 아키라 훈련을 중심으로 체력 만들기 창작활동을 통한 제품 제작</p> <p>④ 모락모락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창작 활동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 작업 진행</p> <p>⑤ 타이어 : 차를 타고 지역을 떠나 폐지 회수나 페트병 뚜껑 회수 및 점토와 회화 작업, 과자 만들기 작업 등 진행</p> <p>- 그룹 활동은 최소한의 형식을 갖춘 프로그램이며, 야마나미 공방의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내용보다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의 표현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을 중요하게 여김.</p>
웹사이트	http://a-yamanami.jp



(그림Ⅳ-13) 야마나미 공방의 모습

출처 : <http://a-yamanami.jp>

34) 앞의 원고에서 발췌

33) 2018 수원시평생학습관 웹진[와] 166호_일본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사례 '장소를 만드는 사람들' 연재원고 발췌

-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 역시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본 보고서 7장에서 제시하는 관계성, 일상성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프로그램(릴레이 나들이)과 같은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음.
-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 혹은 생활 속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일본 : 아틀리에 코나스³⁵⁾

- 아틀리에 코나스는 장애인의 어머니들이 모여 만든 지적 장애인 생활보호 시설로서 1993년에 설립되었음.
-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공간에서 공동활동을 하는 장애인 그룹 홈과 비슷한 곳이며, 이후 2005년 오랜 된 가옥을 개조하여 아틀리에를 만들었음.
- 아틀리에 코나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며, 장애인의 창작 작품을 애써 칭찬하지 않음. 칭찬을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룹으로 그리고자 하는 가치관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 따라서 아틀리에 코나스는 창작 작품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있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정과 관계맺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구분	내용
기관	아틀리에 코나스
목적	-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창작활동을 가르치기보다 그 사람마다의 속도와 특징을 존중하고,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관계 맺기
프로그램 의도	- 장애인의 미래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시간을 고려하여 스쿨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프로그램 내용	- 공방에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운영자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코나스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을 위한 'Art-Labox' 스쿨을 운영함.
프로그램 내용	<div> 〈Art-Labox〉 - 자립형 개발을 위한 2년 과정으로 자립 및 사회성(음식, 의복 및 쉼터, 사회적 의사소통/ 매너)을 개발하기 위한 생활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사(그림 및 회화, 3D 모델링, 사진, 음악, 댄스)와 함께하는 예술 프로그램 제공 - 이를 통해 자신의 결정, 생각, 동료와의 관계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음. - 2년차에는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며, 첫해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동료들과의 협업으로 준비함. </div>

35) 앞의 원고에서 발췌

프로그램
내용



(그림Ⅳ-14) 코나스 공방 모습과 아트라박스 스쿨

출처 : <http://corners-net.com>

웹사이트 <http://corners-net.com>



- 이러한 유형은 단일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제도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재로서 자리하고 일상을 함께 살아가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정책으로 설계하기보다는 민간문화공간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사례 : '춤추는 예술가'

- 2019년에 진행된 서울형 장애아동-청소년 예술교육사업은 경계를 넘어 다양한 감각과 마주하고, 다름을 포용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예술교육으로 장애와 비(非)장애인이 상호 소통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프로젝트임.
- 흥댄스컴퍼니가 진행한 '춤추는 예술가' 프로그램은 '감각통합 무용예술교육'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을 몸으로 표현하게 하는 프로그램임.

구분	내용
기관	흥댄스컴퍼니
프로그램명	2019 서울형 장애아동-청소년 예술교육사업 '춤추는 예술가'
목적	- 춤은 언어 없이도 신체의 움직임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로서, 춤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상호소통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함.
기간	2019년 8월 10일(토) - 11월 3일(일)/ 1회 3시간, 총 12차시
대상	발달장애 아동(8-14세) 10명
프로그램 기획의도	- 본 프로그램은 '감각통합 무용예술교육'으로서, '감각통합'은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뛰고, 중심을 잡는 등 감각에 의해 감지된 정보를 조직화하는 것임. - 발달장애 아동이 보이는 다양한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알려진 중추신경계의 기능 부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함.

프로그램 내용	차시	주제	내용
	1	신체	자기소개/ 신체인지
	2		신체인지 및 공간이동/ 눈-손 협응, 촉각/ 동작모방 및 기억
	3		공간 탐색하기/ 공간지각, 전정-고유수용감각, 촉각/ 상호작용과 표현
	4		다른 사람의 움직임 관찰 및 모방/ 공간지각, 상호작용, 전정-고유수용감각 등
	5	공간	도구를 이용한 이동 동작 배우기, 공간지각, 모방, 화전운동, 대근 운동 등
	6		이동경로에 따른 상황표현하기/ 외부자극에 알맞은 힘으로 반응하기 등
	7		이동경로에 따른 무용스텝배우기/ 시각방향성, 족부 고유수용감각 등
	8	힘	힘으로 상황 표현하기/ 촉각, 고유수용감각, 표현 인지, 힘
	9		감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자극 주고받기/ 표현인지, 힘의 세기
	10	표현	자기 표현 움직임/ 통합움직임 1
	11		자기 표현 움직임/ 통합움직임 2
	12		최종 리허설

(그림Ⅳ-15) ‘춤추는 예술가’ 활동

출처 : 「2019 서울형 장애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사업 아카이빙북」, 서울문화재단, 2019, 27쪽

웹사이트	https://www.sfac.or.kr/
------	---



-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신체 움직임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에서 그 효과성을 보이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이 10차시 내외의 프로그램으로 설계되는 공모형 구조로서 비(非)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설계된다는 데 문제점이 있음.
-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기적인 과정과 예술가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표현과 소통능력을 높여간다는 것을 본다면 장기적인 설계가 가능한 제도도입이 요구됨.

■ 국내 사례 : 연극놀이 워크숍 ‘말하는 몸으로 연극하기’

- 플랜Q는 ‘정상성’이라는 규범에서 벗어나고 배제되는 이성한(Queer) 존재들의 삶을 응시하고 함께 걷고자 하는 공연예술 프로젝트임.
- 발달장애인 대상 릴렉스드 연극공연 개발사업은 발달장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는 바람과 목표로 연극 공연을 개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구와 조사, 연극놀이 워크숍 등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 중장기 프로젝트임.
- 2019년에 진행된 연극놀이 워크숍 ‘말하는 몸으로 연극하기’ 프로그램은 워크숍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 과정부터 준비과정, 실행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내용		
기관	플랜Q, 극단 북새통		
프로그램명	발달장애인 대상 릴렉스드 연극공연 개발사업 연극놀이 워크숍 ‘말하는 몸으로 연극하기’		
목적	-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릴렉스드 연극 공연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와 조사, 연극놀이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 중장기 프로젝트		
기간	연극놀이워크숍 2019년 6월 4일(화) ~ 7월 23일(화)/ 총 6차시		
대상	피플퍼스트센터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기획의도	- 본 사업은 발달장애를 제대로 알고 싶다는 바람과 목표로 ‘왜’ 발달장애라는 키워드로 연극을 만들고 싶은지, 그 이유를 언어화하기 위한 3개년 프로젝트로 설계됨.		
프로그램 기획의도	- 사업 1년차인 2019년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와 조사, 발달장애인 인터뷰, 발달장애인 기관 탐방, 연극놀이워크숍, 전문가 특강 등으로 구성함. - 연극놀이워크숍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예술경험을 나누며, 발달장애인들에게 예술경험이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함. - 참여 예술가에게는 발달장애인을 만나 다양한 예술적 자극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함. - 연극놀이워크숍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연구과정,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준비과정, 프로그램 실행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프로그램 내용	구분	주제	내용
	연구 과정	국내외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 연구	- 발달장애아동 무용수업 진행하는 무용가 인터뷰 - 아주 특별한 예술마을의 <느릿느릿 엉금엉금 거북이>공연관람 및 토론, 인터뷰 -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Shakespeare & Autism> 수업에 대한 리서치 등
		발달장애인의 감각을 몸으로 경험하기	- 책과 영상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감각을 몸으로 경험하기 - 연극놀이 자조모임의 방향 논의/ 워크숍 시 고려사항
	준비 과정	실행을 위한 사전논의 및 준비	- 참여자 및 협력기관과의 사전 논의 - 자조모임 공간 대여 및 준비
		구체적인 활동 연구 및 가이드라인 제작	- 현대무용의 요소와 발달장애인이 만날 수 있는 주제를 탐색하여 찾기 - 자조모임을 위한 실행 가이드라인 제작


구분	주제	내용														
프로그램 내용	<p>실행 과정</p> <p>말하는 몸으로 연극하기</p>	<p>- 피플퍼스트센터의 성인 발달장애인과 연극놀이 워크숍으로 발달장애인의 몸과 목소리로 균형과 불균형, 안과 밖, 반복, 리듬, 속도 등 다양한 예술의 요소를 〈만약~라면〉이라는 연극적 환경 안에서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p> <p>- 수업내용</p> <table> <tr> <th>차시</th> <th>주제</th> </tr> <tr> <td>1</td> <td>놀이와 상상</td> </tr> <tr> <td>2</td> <td>나와 너, 관계 놀이</td> </tr> <tr> <td>3</td> <td>소리와 리듬</td> </tr> <tr> <td>4</td> <td>일상의 재료로 움직이기</td> </tr> <tr> <td>5</td> <td>이야기와 연극</td> </tr> <tr> <td>6</td> <td>말하는 몸으로 연극하기</td> </tr> </table>	차시	주제	1	놀이와 상상	2	나와 너, 관계 놀이	3	소리와 리듬	4	일상의 재료로 움직이기	5	이야기와 연극	6	말하는 몸으로 연극하기
		차시	주제													
1	놀이와 상상															
2	나와 너, 관계 놀이															
3	소리와 리듬															
4	일상의 재료로 움직이기															
5	이야기와 연극															
6	말하는 몸으로 연극하기															
<div>   </div> <p>(그림Ⅳ-16) ‘말하는 몸으로 연극하기’ 활동</p> <p>출처 : 「발달장애인 대상 릴렉스드 연극 공연(Relaxed Performance) 개발 2019년 사업 - 발달장애를 만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124~126쪽</p>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PlanQinSeoul/															

-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쉽지 않은 공모형 사업 구조에서 비교적 다양한 활동으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연극놀이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사전 연구과정과 준비과정 및 실행과정을 둬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보편적 특성과 개별성을 읽는 시선을 기획하는 방식은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국내 사례 : ‘도시놀이본부’

- 창작그룹 비기자의 ‘도시놀이본부’ 프로그램은 수원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은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데, 이 상태를 ‘문제’로 전제하지 않고, 비(非)언어적인 소통과 표현으로 해석하여, ‘무언가를 해보자’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상황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여 설계한 프로그램임. 따라서 “도시놀이본부” 프로그램은 주로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³⁶⁾

36) 창작그룹 비기자 티스토리에서 발췌(<https://bigija.tistory.com/124>)

구분	내용																							
기관	창작그룹 비기자																							
프로그램명	수원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사업> '도시놀이본부'																							
목적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발달장애인과 다양한 비(非)언어적인 놀이를 함으로써 보이지 않던 놀이의 요소를 발견하고 상호 소통해보는 실험																							
기간	2019년 5월 14일(화) - 6월 21(금)/ 총 10차시																							
대상	자혜학교(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학생 3~6학년/ 차시별 12명																							
프로그램 기획의도	<div>-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 청소년은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데, 이러한 상태를 문제로 전제하지 않고 비(非)언어적인 소통과 표현의 기회로 해석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상황을 만드는 것”에 집중함.</div> <div>- 따라서 촘촘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활동으로 구성하여,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였음.</div> <div>- “도시놀이본부”는 다양한 놀이방식을 통해 보이지 않던 놀이의 요소를 발견해보는 실험으로 설계함.</div>																							
프로그램 내용	<table><tr><th>차시</th><th>주제</th><th>차시</th><th>주제</th></tr><tr><td>1</td><td>탐색과 놀이</td><td>6</td><td rowspan="2">맞추거나 피하는 놀이</td></tr><tr><td>2</td><td rowspan="2">쌓거나 무너뜨리는 놀이</td><td>7</td></tr><tr><td>3</td><td>8</td><td rowspan="2">협력하는 놀이</td></tr><tr><td>4</td><td rowspan="2">던지고 받는 놀이</td><td>9</td></tr><tr><td>5</td><td>10</td><td>기억하는 놀이</td></tr></table>	차시	주제	차시	주제	1	탐색과 놀이	6	맞추거나 피하는 놀이	2	쌓거나 무너뜨리는 놀이	7	3	8	협력하는 놀이	4	던지고 받는 놀이	9	5	10	기억하는 놀이			
	차시	주제	차시	주제																				
	1	탐색과 놀이	6	맞추거나 피하는 놀이																				
	2	쌓거나 무너뜨리는 놀이	7																					
	3		8	협력하는 놀이																				
4	던지고 받는 놀이	9																						
5		10	기억하는 놀이																					
<div>(그림Ⅳ-17) ‘도시놀이본부’ 활동</div> <div>출처 : 창작그룹 비기자 티스토리</div>																								
웹사이트	https://bigija.tistory.com/124																							

-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은 소통의 방식과 표현의 과정을 해체하거나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본 보고서 7장에서 제시한 비(非)언어적 요소, 놀이를

중심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이름 없는 놀이 속으로)과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기존방식의 해체와 새로운 표현의 확장은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비(非)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지형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음.

V.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환경과 현실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의 설계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분석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욕구 분석
4. 보호자와 매개자 공통 질문 분석
5.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의 시사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환경과 현실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의 설계

1) 조사 목적 및 개요

■ 조사 목적

- 국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관점, 접근 방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정립

■ 조사 개요

-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공공기관 대상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의 설문 문항은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활동 정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및 인구통계학 일반사항으로 구성하고 필수 항목과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을 구분하여 설계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이 비교적 자주 찾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수 조사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일반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관련 문화예술단체, 협동조합 등을 포함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는 대상자 확보가 어려워 눈덩이 표집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수집하였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협동조합 등의 프로그램 담당자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설문 의뢰를 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V-1> 조사 개요

구분	실태조사	육구조사
목적	국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와 육구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정립	
제목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육구조사
대상	-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문화예술단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300명	- 발달장애인 보호자/ 설문이 가능한 발달장애인 250명
기간	2020.11.17.(목)~11.29(일)/ 총 13일	2020.11.20.(목)~11.29(일)/ 총 10일
설문 구성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기관 기입식 설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설문 방법	-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배포 - 설문응답기관에 기념품 증정	- 전국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배포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추적 배포 - 설문응답자에 기념품 증정
설문 분석 방법	-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 응답 충실성 및 Z점수 상 이상 값으로 확인되는 응답은 제외	-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 응답 충실성 및 Z점수 상 이상 값으로 확인되는 응답은 제외

2) 조사 내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매개자³⁷⁾) 내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와 가족의 육구, 세부 프로그램 유형별 실태 등을 포함하여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활동 정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 내용, 실천평가 등으로 구성함.

37) 본 연구 2장 2절에서 기술하였듯이 매개자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강사(예술가)는 물론,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을 의미함. 본 조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관련 문화예술단체, 협동조합 등에서 일하는 실무자, 활동가, 예술강사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매개자”라고 표현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응답한 시설유형, 응답자 직위 등을 포함함.

<표 V-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주요 내용

구분	설문 지표		문항수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활동 정도	기관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수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13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실태		1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람 활동 실태		6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행정분류 실태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긍정적인 요인		1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1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목표	문화예술 활동 목표(기대수준)	1
	내용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2
		프로그램의 제도적 지원 체계	1
		프로그램의 성과	9
	실천 평가	프로그램 참여와 출석률 평가	1
		활동내용 구성 평가	1
		장애 수준에 맞는 강사운영	1
		앞으로 지속적인 참여 의사	1
		전반적인 만족도	1
	일반사항	인구통계학 일반사항	
총 문항수			88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보호자 및 일부 당사자 육구조사 내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육구조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일상생활과 어려움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의 경험과 지속 정도를 파악하였음.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람 경험 및 직접 참여 경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파악하였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 학력 등을 파악함.

<표 V-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욕구조사 내용

구분	설문 지표		문항수
문화예술교육의 인식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위한 일상생활과 어려움 정도		5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
	문화예술교육 경험 이후 지속적인 참여 정도		1
	문화예술교육 활동내용 구성		1
	장애 수준에 맞는 강사운영 능력		1
	참여의 적극성, 출석률 정도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동 장소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관람을 경험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7
	직접 참여 중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및 발표 경험		1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요인		1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운 점		10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목표	문화예술교육의 달성 기대 수준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정책제언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2
		프로그램의 제도적 지원 체계	1
		프로그램의 성과	9
일반사항	인구통계학 일반사항		11
총 문항수			76

3) 조사대상 응답 결과 및 신뢰도

■ 조사대상 응답 결과

- 조사대상 및 분석 대상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이용 일반사회(노인)복지관, 장애인단체와 협회, 문화예술단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총 284개의 설문이 수거되었음. 이 중 적절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273개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욕구조사를 위하여 기관 유형별로 목적 표집으로 선정한 매개자를 통하여 보호자 및 설문응답이 가능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함. 보호자의 경우 401개의 설문지에 응답하여 많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발달장애인이 반드시 있는 가족이나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은 243개임.

-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면 조사의 경우, 초기 50개 표본 조사를 준비하였으나 COVID-19로 인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지 못함. 발달장애인 특성상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조사인데,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조사 진행이 매우 어렵기 때문임.

<표 V-4> 조사 대상 응답 결과

구분	조사 대상	전체 응답수	유효 응답수	유효 응답률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실태 조사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문화예술단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300명	284	273	91.0%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욕구 조사	발달장애인 보호자/ 설문이 가능한 발달장애인 250명	401	243	97.2%

■ 신뢰도

- 본 설문조사에서는 내적일관성에 기초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신뢰도의 측정이 가능한 영역은 문화예술교육의 참여정도,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요인,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운 점,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로 4개 영역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활동 정도의 경우 참여의 적극성과 출석률 유지, 지속적인 참여 의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총 5개의 문항이며, 응답자의 신뢰도는 0.94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이 발달장애인에게 자기표현 및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와 협동심 증진 등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질문은 총 11개 문항이며, 신뢰도는 0.96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속적인 성장 및 레벨업 기회 부족 등으로 총 10개 문항이며, 신뢰도는 0.919로 다소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와 경우 무엇인가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 다른 사람의 언어나 감정을 이해하는 문화적 능력 향상 등으로 총 9개 문항이며, 신뢰도는 0.957로 다소 높게 나타남.

<표 V-5> 주요 변수의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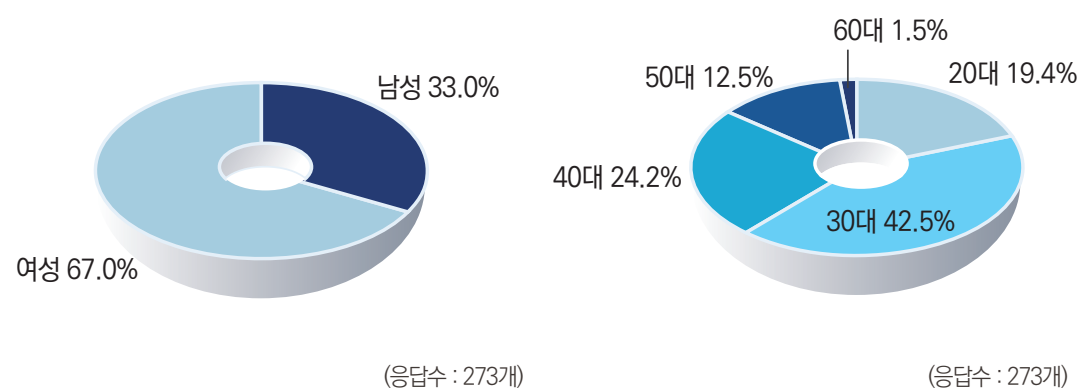
구분	문항 수	신뢰도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정도	5	0.948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요인	11	0.960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운 점	10	0.919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9	0.957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 성별 및 연령 분포

- 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이용 일반사회(노인)복지관, 장애인단체와 협회, 문화예술단체, 협동조합의 매개자를 대상으로 한 유효 응답자 총 273명 중 '여성'이 67.0%, '남성'이 33.0%로 나타나 여성의 비율이 높음.
-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24.2%, '20대'가 19.4% 순으로 나타남. 평균 연령은 37.80세(표준편차 8.91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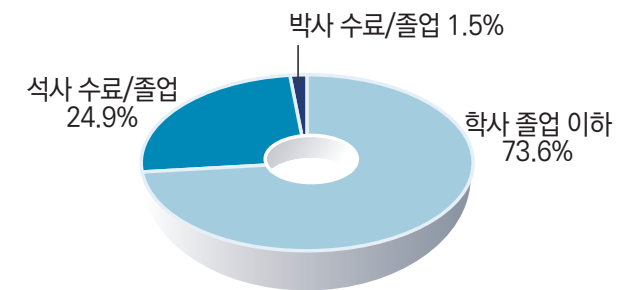


(그림 V-1)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현황

■ 응답자 학력 분포

- 응답자의 학력의 경우, '학사 졸업 이하'가 7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석사 수

료 및 졸업'이 24.9%, '박사 수료 및 졸업'이 1.5% 순으로 나타남. 적어도 네 명 중 한명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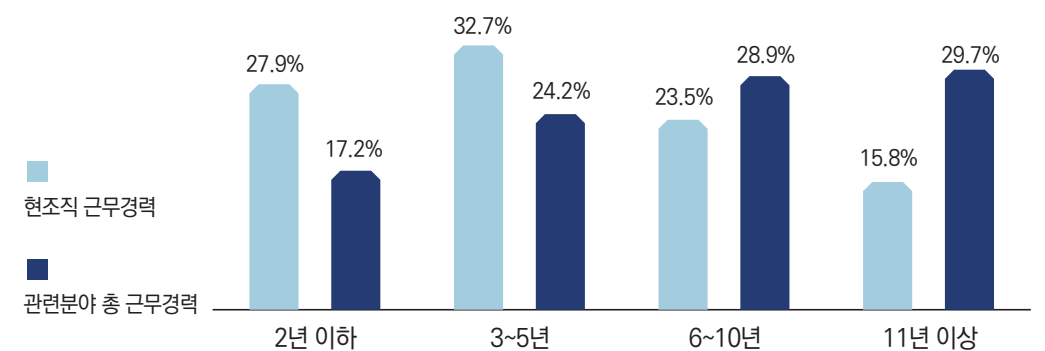


(응답수 : 273개)

(그림 V-2) 응답자의 학력 현황

■ 응답자의 경력 현황

- 응답자의 현 조직 근무 경력의 경우, '3~5년'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년 이하'가 27.9%, '6~10년'이 23.5%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5.84년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특성 중 총 관련 조직 근무 경험의 경우, '11년 이상'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10년'이 28.9%, '3~5년'이 24.2% 순으로 나타남. 평균은 7.94년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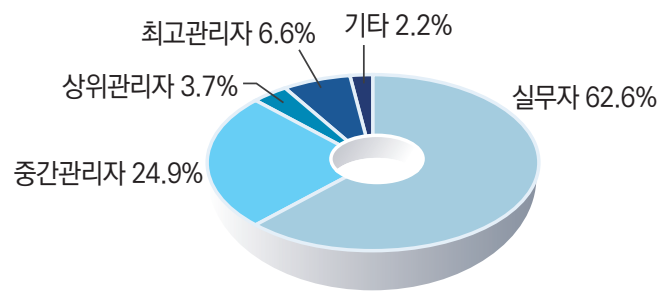


(응답수 : 현조직 272개, 무응답 1개 / 총 근무경력 273개)

(그림 V-3) 응답자의 현조직, 총 근무경력 현황

■ 응답자의 직위 현황

- 응답자의 특성 중 매개자 직위의 경우, '실무자'가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관리자'가 24.9%, '최고관리자'가 6.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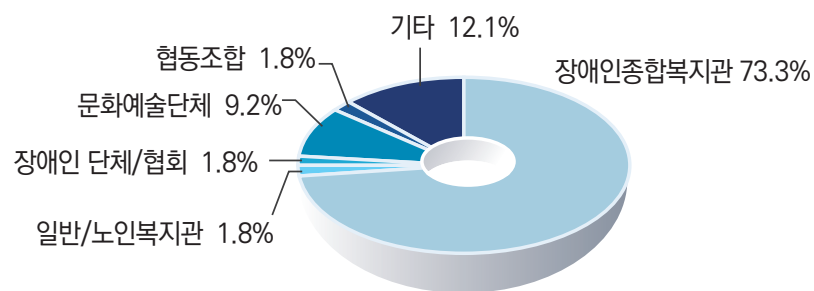


(그림 V-4) 응답자 직위

(응답수 : 273개)

■ 응답자의 근무기관 유형

- 응답자의 특성 중 근무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73.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문화예술단체'가 9.2%로 나타남. '장애인 단체/협회'는 1.8%로 나타나 낮은 비율임.
- '기타'(12.1%)영역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병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 동아리 등으로 나타남.



(그림 V-5) 응답자의 근무기관 유형

(응답수 : 273개)

■ 응답자 근무기관 소재지

- 응답자의 근무기관 소재지의 경우, '경기도'가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가 18.7%, '부산광역시'가 11.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인구 분포에 비해 과대 대표되어 있으나, 대체로 3% 내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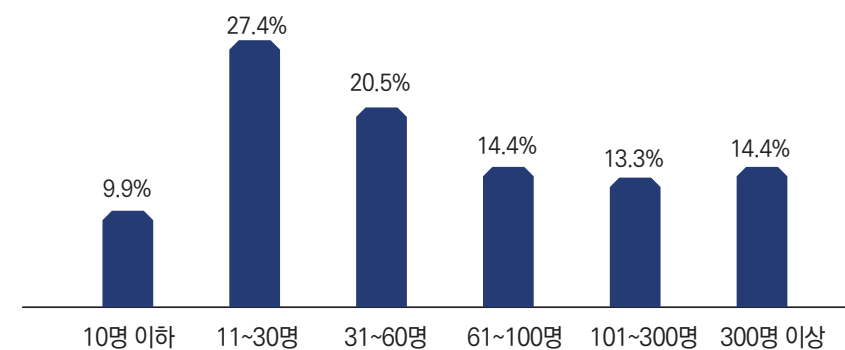
〈표 V-6〉 근무기관 소재지

연번	지역	응답자		총인구 백분율	연번	지역	응답자		총인구 백분율
		응답수(N)	백분율				응답수(N)	백분율	
1	서울특별시	51	18.7%	18.7%	10	강원도	6	2.2%	3.0%
2	부산광역시	32	11.7%	6.5%	11	충청남도	6	2.2%	4.1%
3	인천광역시	12	4.4%	5.7%	12	충청북도	6	2.2%	3.1%
4	대구광역시	5	1.8%	4.7%	13	전라남도	15	5.5%	3.6%
5	광주광역시	2	0.7%	2.8%	14	전라북도	12	4.4%	3.5%
6	대전광역시	7	2.6%	2.8%	15	경상남도	14	5.1%	6.4%
7	울산광역시	4	1.5%	2.2%	16	경상북도	16	5.9%	5.1%
8	세종특별자치시	1	0.4%	0.7%	17	제주특별자치도	16	5.9%	1.3%
9	경기도	68	24.9%	25.9%	총 계		273	100.0%	

* 총인구 백분율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0.12 현재 기준

■ 발달장애인의 기관 이용 현황

- 기관이나 단체 및 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수는 '11명~30명'이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명~60명'이 20.5%, '61명~100명'과 '300명 이상'이 동일하게 14.4% 순으로 나타남. 참여자 수 평균은 144.1명으로 나타남.
- 이는 발달장애인 시설에서부터 발달장애인 관련 문화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조사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자 편차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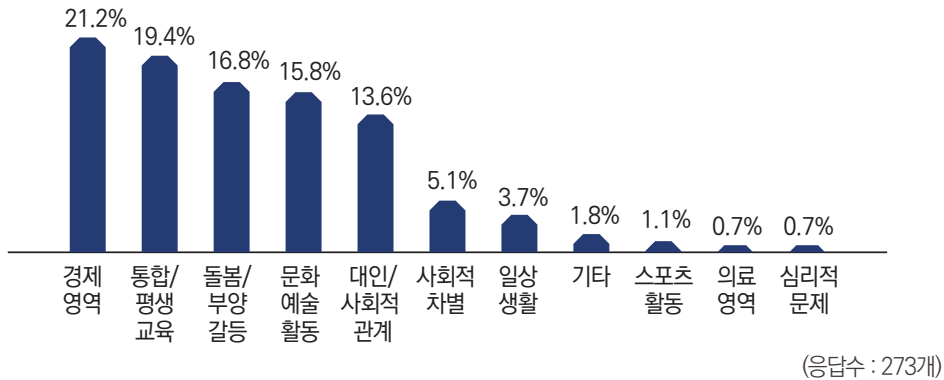
(응답수 : 263개/무응답 : 10개)

(그림 V-6) 발달장애인의 기관 이용 현황 (재적기준)

2) 여건 분석

■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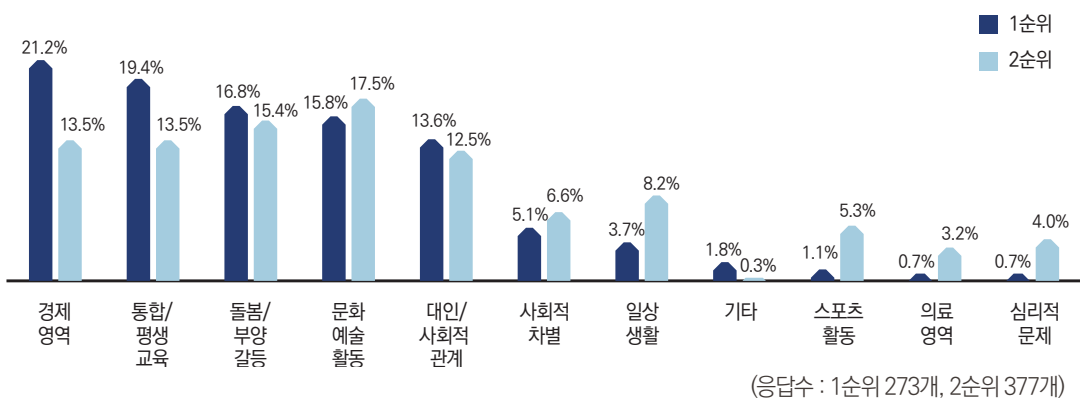
-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의 경우, ‘경제영역’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평생교육’이 19.4%, ‘돌봄/부양갈등’이 16.8%, ‘문화예술 활동’이 15.8%로 높게 나타남.



(그림 V-7)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

■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 2순위 비교

-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 2순위를 비교해보면, 1순위는 ‘경제영역’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문화예술 활동’이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림 V-8)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 2순위 비교

■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1순위 포함, 복수응답)

-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한 복수응답은 1인당 평균 2.381개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경제영역’과 ‘문화예술 활동’을 각각 응답자의 39.9%가 선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문화예술 활동’은 1순위 선택 때보다 더 높아졌는데, 이는 2순위에서의 선택이 많았음을 의미함. 다음으로 ‘돌봄 및 부양갈등’과 ‘통합, 평생 교육’이 각각 38.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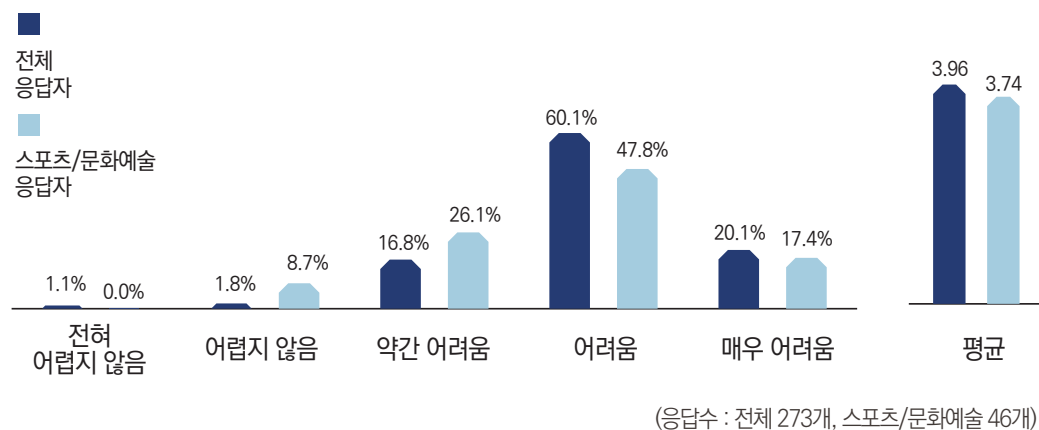
〈표 V-7〉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1순위 포함, 복수응답)

구분	응답수(N)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경제영역의 어려움	109	16.8%	39.9%
의료영역의 어려움	14	2.2%	5.1%
스포츠활동의 어려움	23	3.5%	8.4%
문화예술 활동의 어려움	109	16.8%	39.9%
통합, 평생교육의 어려움	104	16.0%	38.1%
심리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	17	2.6%	6.2%
돌봄 및 부양갈등 어려움	104	16.0%	38.1%
일상생활의 어려움	41	6.3%	15.0%
대인,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84	12.9%	30.8%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	39	6.0%	14.3%
기타	6	0.9%	2.2%
합계	650	100.0%	238.1%

*케이스백분율은 분석에 사용된 273명의 데이터 중 각각의 빈도가 차지하는 비율

■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에 대한 정도

- 응답자가 선택한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에 대한 정도에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60.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어려움’이 20.1%, ‘약간 어려움’이 16.8%로 나타남.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은 3.96점으로 나타남.
- 이 중 1순위에서 ‘스포츠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어렵다고 선택한 46명을 분석한 결과 ‘매우 어려움’은 17.4%로 조금 낮았고, ‘어려움’도 47.8%로 전체 응답자보다 조금 낮은 비율임. 반면에 ‘약간 어려움’은 26.1%로 더 높은 비율이었으며, ‘어렵지 않음’도 8.7%로 전체 응답자보다 조금 더 높음. 이들의 평균은 3.74점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보다는 어려움의 정도가 조금 더 낮음($t=2.007$,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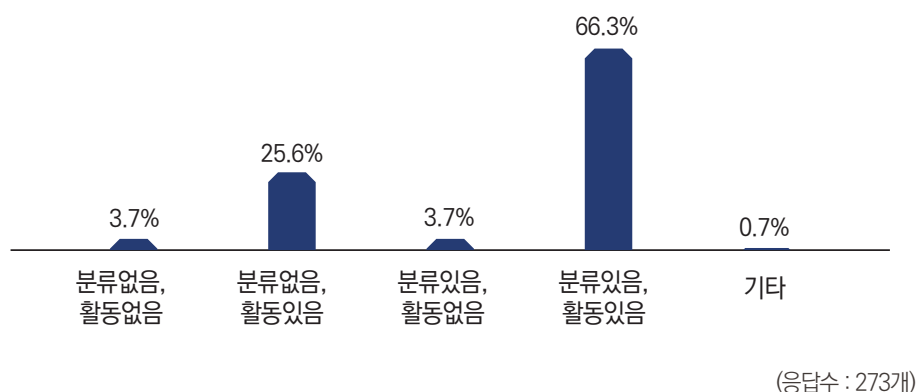
(그림 V-9) 매개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에 대한 정도

3) 문화예술교육 실태분석

(1) 매개자의 기관에서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 현황

■ 문화예술 영역 분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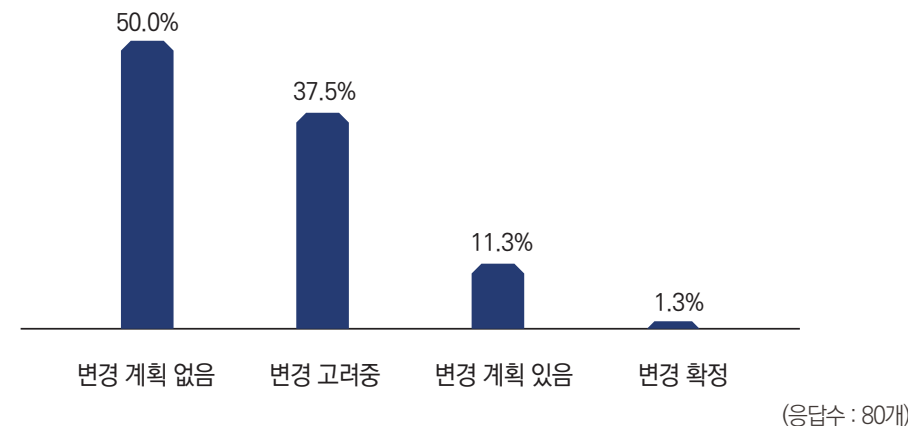
- 문화예술 영역을 사업 분류로서 구분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분류있음, 활동있음'이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분류없음, 활동있음'이라는 응답이 25.6%로 나타나 문화예술 사업을 명확하게 하는 곳이 91.9%로 나타남.
- 반면에 '분류없음, 활동없음'이라는 곳은 3.7%이었으며, 이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6곳, 협동조합 1곳 등이었음. 또한, '분류있음, 활동없음'이라는 곳은 장애인종합복지관 4곳, 문화예술단체 3곳, 협동조합 1곳 등이었음.



(그림 V-10) 문화예술 영역의 사업 분류 및 활동 여부

■ 앞으로 사업에서 문화예술을 별도로 분류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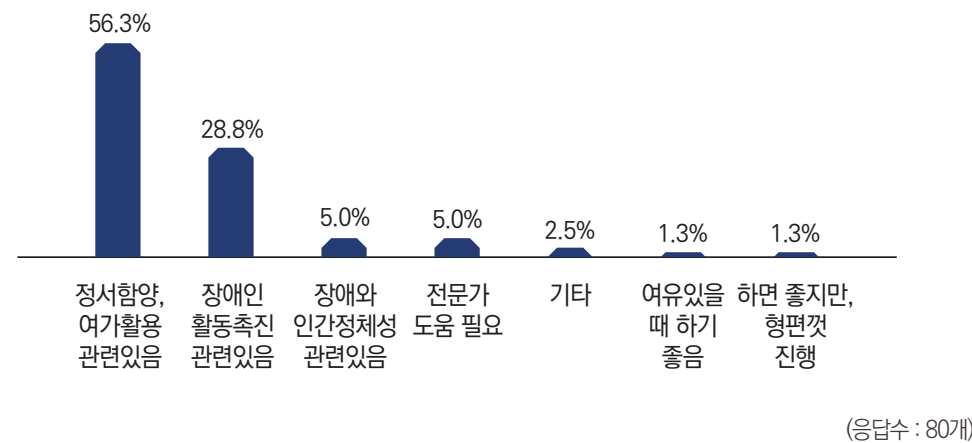
- 문화예술 영역을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80명에게만 문화예술을 사업에서 별도로 분류 할 의향을 묻은 결과, '변경 계획 없음'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변경 고려 중'이라는 응답이 37.5%로 나타났으며, '변경 계획 있음'의 경우는 11.3%, '변경 확정'의 경우는 1.3%이었음.



(그림 V-11) 앞으로 사업에서 문화예술을 별도로 분류할 의향

■ 문화예술 사업 분류 시 판단 기준

- 문화예술을 사업으로 분류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에 대해 '정서함양, 여가활용 관련 있음'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장애인 활동촉진 관련 있음'이라는 응답이 28.8%로 높게 나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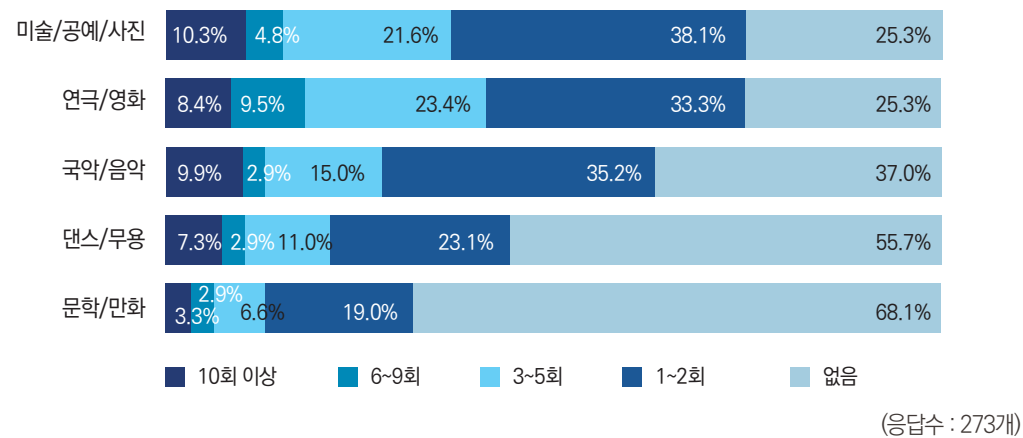


(그림 V-12) 문화예술 사업 분류 시 판단 기준

(2) 문화예술교육 활동 실태

■ 최근 2년간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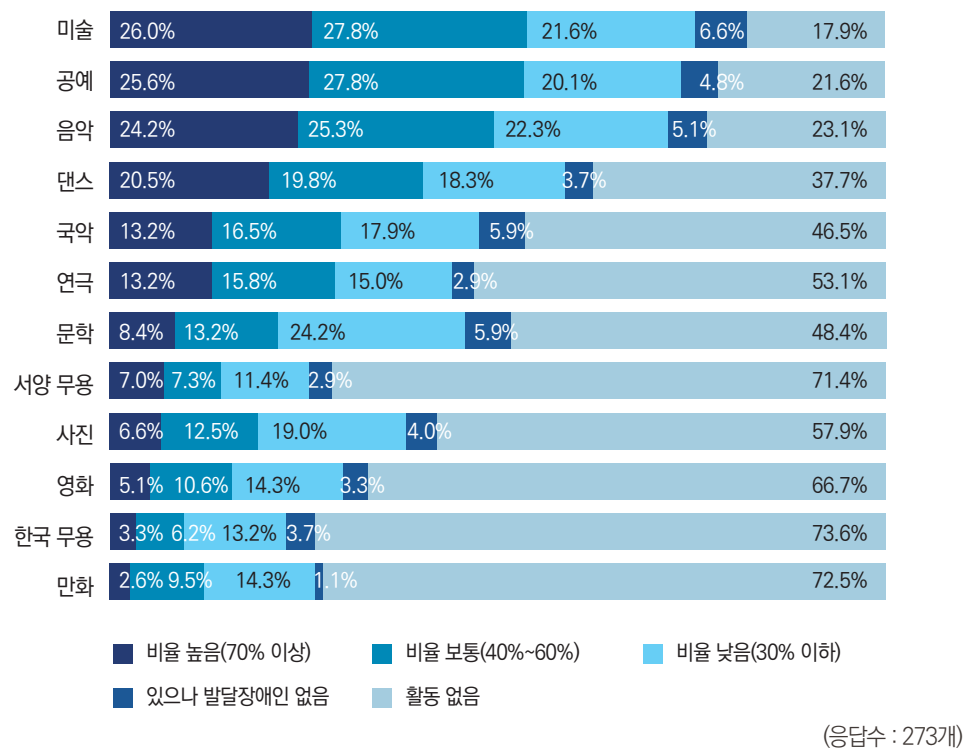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 중, '6회 이상'의 높은 참여의 분포를 보면, '연극/영화'가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미술/공예/사진'이 15.1%, '국악/음악' 12.8%, '댄스/무용' 10.2%, '문학/만화' 6.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V-13)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 현황

■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발달장애인의 참여 현황

-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화예술교육은 미술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그림 V-14)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발달장애인 참여 현황

- 미술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인은 '비율 높음'에 해당하는 참여 비율이 26.0%, '비율 보통'은 27.8%, '비율 낮음'은 21.6%로서,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75.5%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이어서 공예 프로그램에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비율이 73.5%, 음악 프로그램이 71.8%의 비율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262명이 1,528개를 응답하여, 1인당 평균 5.832개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통상 1개 기관에서 1명이 응답한 것이므로 1개소 당 평균 5.8개 영역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응답자 262명 중 '미술'이 78.6%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공예'도 76.7%, '음악' 74.8%, '댄스' 61.1%, '국악' 49.6%, '문학' 47.7% 순으로 나타남.

〈표 V-8〉 프로그램 중 발달장애인의 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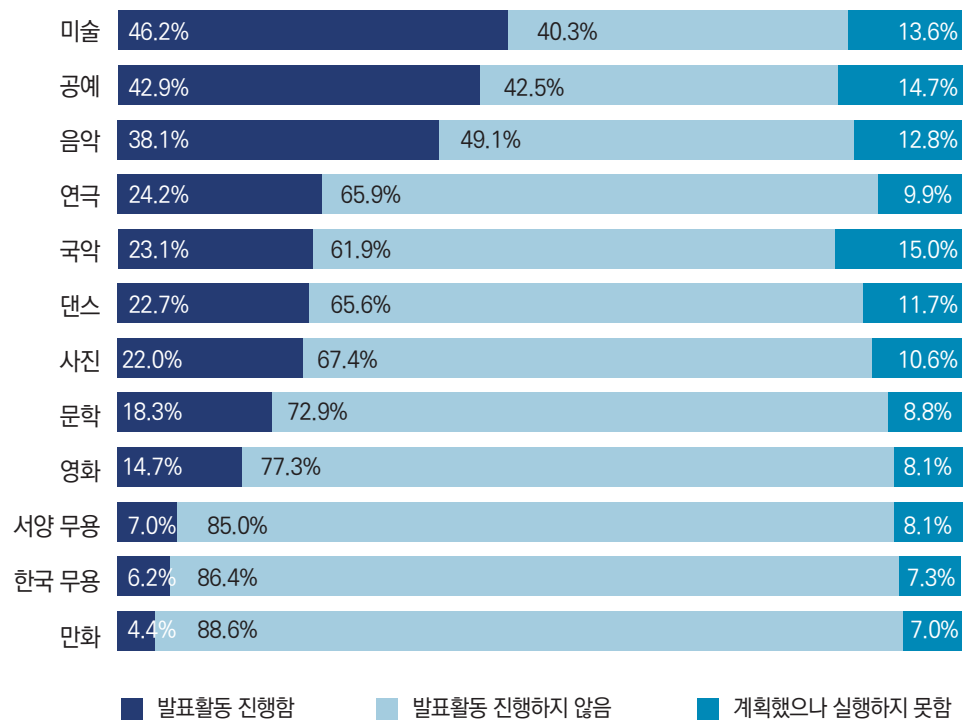
구분	응답수(N)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문학 프로그램 참여활동	125	8.2%	47.7%
만화 프로그램 참여활동	72	4.7%	27.5%
미술 프로그램 참여활동	206	13.5%	78.6%
공예 프로그램 참여활동	201	13.2%	76.7%
사진 프로그램 참여활동	104	6.8%	39.7%
국악 프로그램 참여활동	130	8.5%	49.6%
음악 프로그램 참여활동	196	12.8%	74.8%
연극 프로그램 참여활동	120	7.9%	45.8%
영화 프로그램 참여활동	82	5.4%	31.3%
댄스 프로그램 참여활동	160	10.5%	61.1%
서양 무용 프로그램 참여활동	70	4.6%	26.7%
한국 무용 프로그램 참여활동	62	4.1%	23.7%
합계	1,528	100.0%	583.2%

*케이스백분율은 분석에 사용된 262명(발달장애인 미참여 11건 제외)의 데이터 중 각각의 빈도가 차지하는 비율

■ 최근 2년간 전시, 공연, 출판 등 문화예술 관련 발표 활동

- 지난 2년간 문화예술 관련 발표 활동의 경우, '미술' 관련 발표 활동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공예'가 42.9%, '음악'이 38.1% 등으로 나타남.

- 반면 ‘발표 활동 진행되지 않음’에 ‘만화’ 관련 발표 활동이 88.6%, ‘한국무용’이 86.4%, ‘서양무용’이 85.0%로 나타나 가장 저조한 분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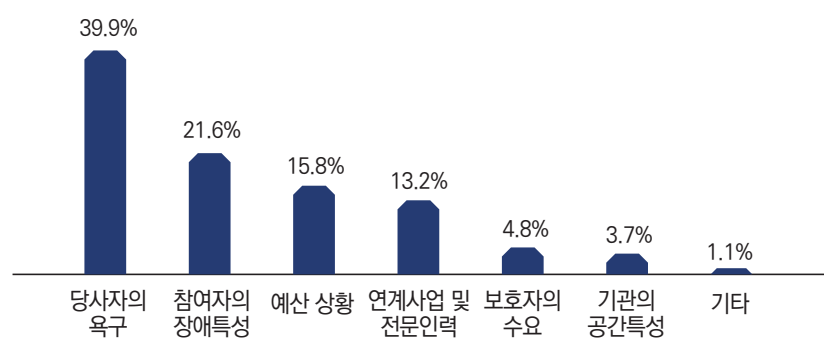


(응답수 : 273개)

(그림 V-15) 문화예술 관련 발표 활동 현황

■ 매개자의 발표 활동 계획 및 운영 시 현실적 고려 요소

- 발표 활동 시 고려하는 요소는 ‘당사자의 욕구’ 39.9%, ‘참여자의 장애특성’ 21.6%, ‘예산 상황’ 15.8%, ‘연계사업 및 전문인력’등 13.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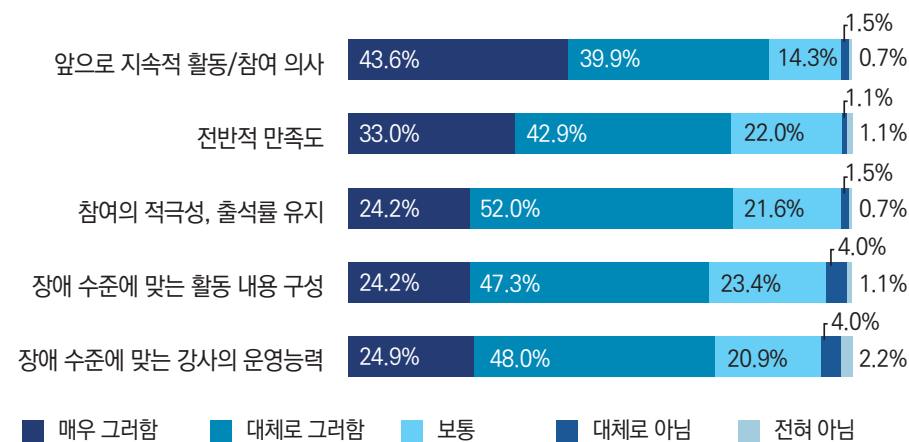


(응답수 : 273개)

(그림 V-16) 매개자의 발표 활동 계획 및 운영 시 현실적 고려 요소

■ 문화예술교육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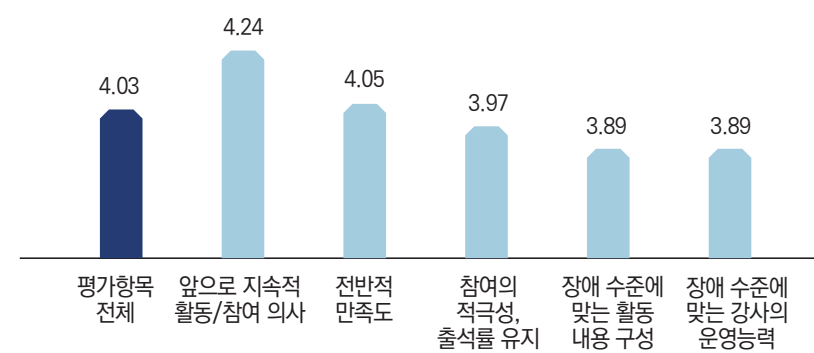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앞으로 지속적 활동/참여 의사’가 83.5%, ‘전반적 만족도’가 75.9%, ‘참여의 적극성, 출석률 유지’가 76.2%, ‘장애 수준에 맞는 활동내용 구성’이 71.5%, ‘장애 수준에 맞는 강사의 운영능력’이 72.9%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음.



(응답수 : 273개)

(그림 V-17) 문화예술교육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는 평균 4.03점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참여 의사’가 4.24점, ‘전반적인 만족도’가 4.05점, ‘참여의 적극성, 출석률 유지’가 3.97점 등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함.



(응답수 : 273개)

(그림 V-1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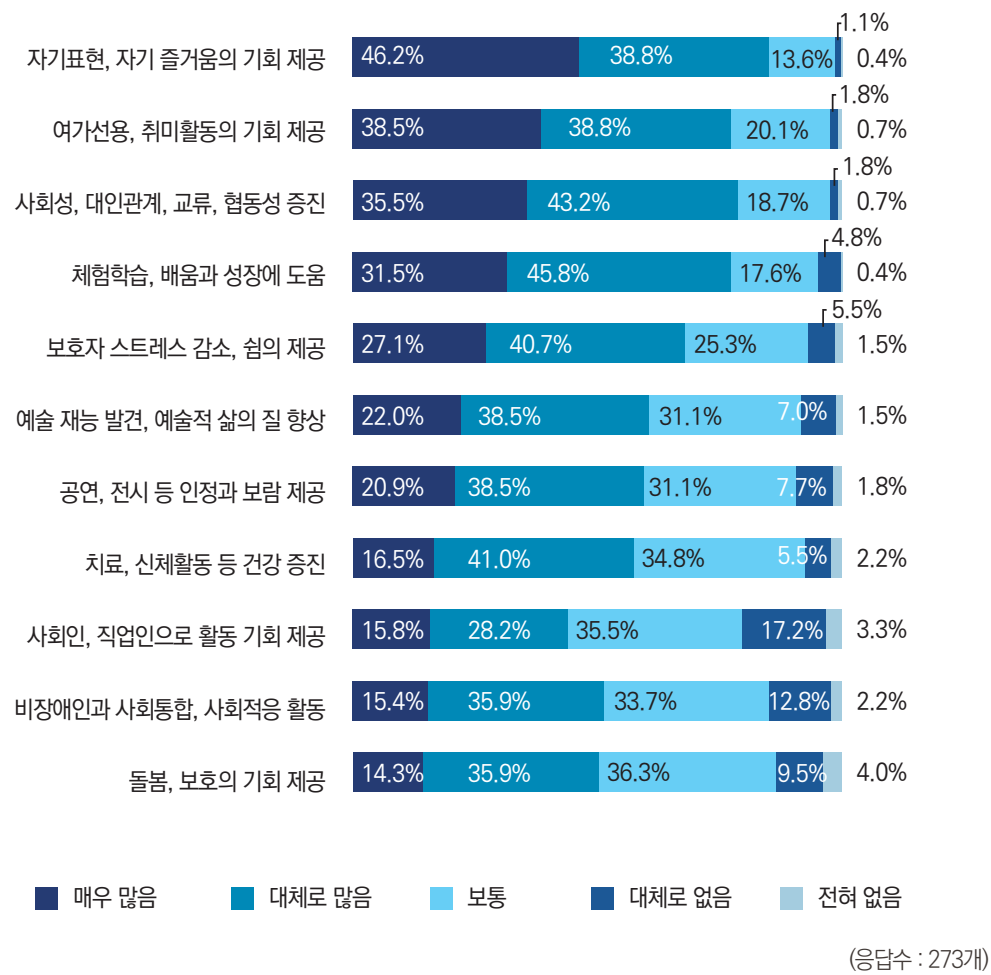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0.723 / 0.805 / 0.832 / 0.764 / 0.853 / 0.899

4) 문화예술교육의 영향과 운영방향

(1)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영향

■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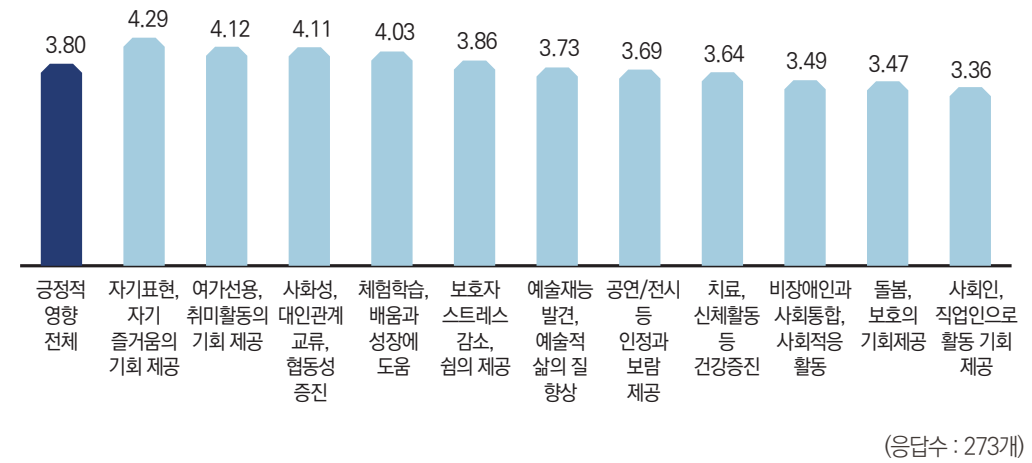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매우 많음’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이 46.2%임.
- 이어서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이 38.5%,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성 증진’이 35.5%,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31.5%, ‘보호자 스트레스 감소, 쉼의 제공’이 27.1%로 나타남.



(그림 V-19)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 문화예술교육이 발달장애인에게 미친 긍정적인 요인의 경우, 평균 3.80점으로 나타나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이 4.29점,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이 4.12점,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

동성 증진’이 4.11점으로 나타나 다른 영역보다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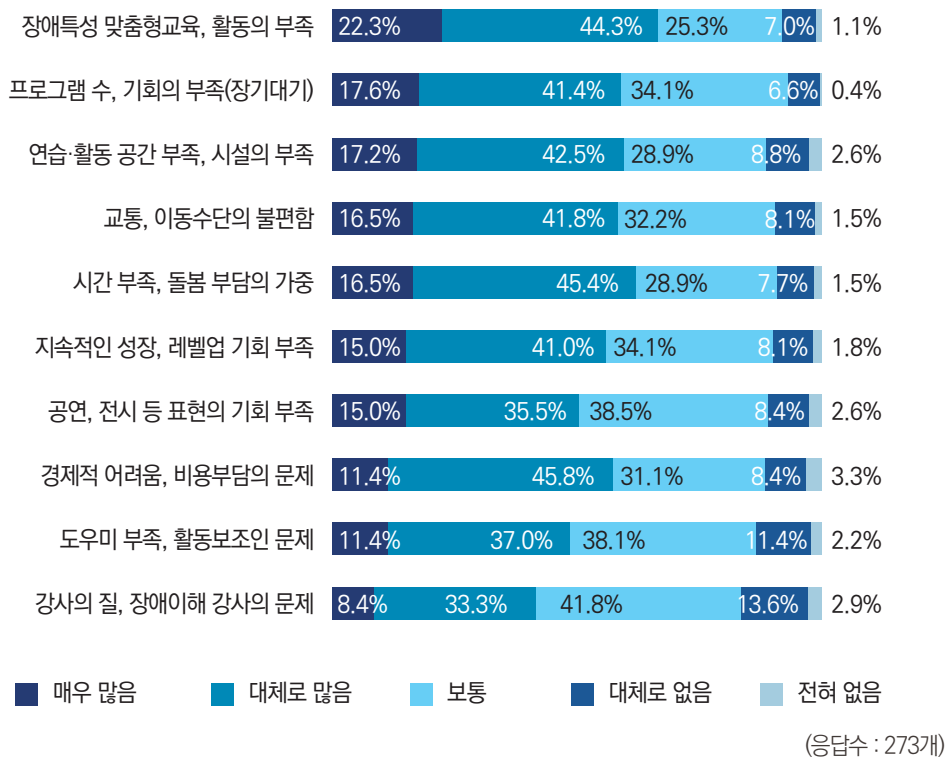
(그림 V-20)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평균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0.673 / 0.768 / 0.844 / 0.820 / 0.846 / 0.927 / 0.932 / 0.948 / 0.897 / 0.974 / 0.985 / 1.045

- 반면,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은 3.36점과 표준편차 1.045점으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남. 또한, ‘돌봄, 보호의 기회 제공’은 평균 3.47점, ‘비(非)장애인과 사회통합과 사회적응 활동’도 평균 3.4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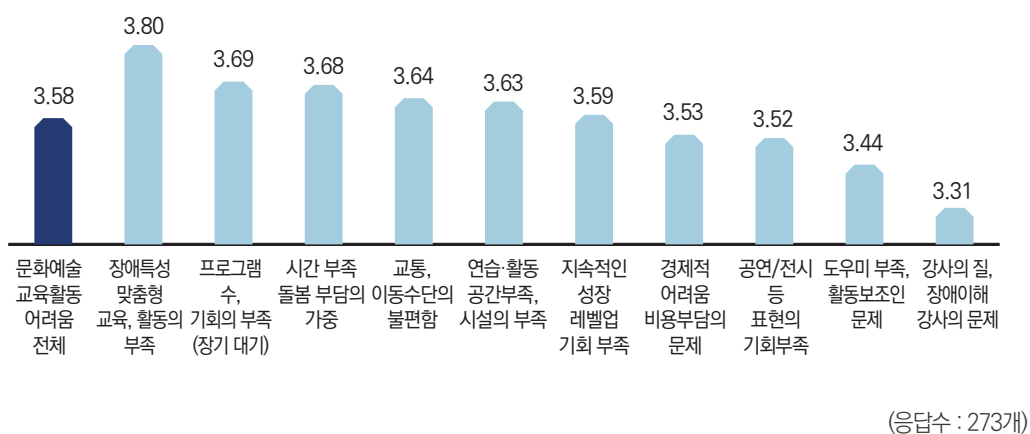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이거나 가족들의 어려운 점

- 문화예술교육 활동 관련 발달장애인이거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매우 많음’에 응답한 항목은 ‘장애특성 맞춤형 교육, 활동의 부족’이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어서 ‘프로그램 수, 기획의 부족(장기대기)’가 17.6%, ‘연습 · 활동 공간 부족, 시설의 부족’이 17.2%, ‘교통, 이동수단의 불편함’과 ‘시간 부족, 돌봄 부담의 가중’이 1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V-21)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이거나 가족들의 어려운 점

- 문화예술교육 활동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이거나 가족들의 어려운 점의 경우, 평균 3.58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장애특성 맞춤형 교육, 활동의 부족’이 3.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 수, 기획의 부족(장기대기)’이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 부족, 돌봄 부담의 가중’이 3.68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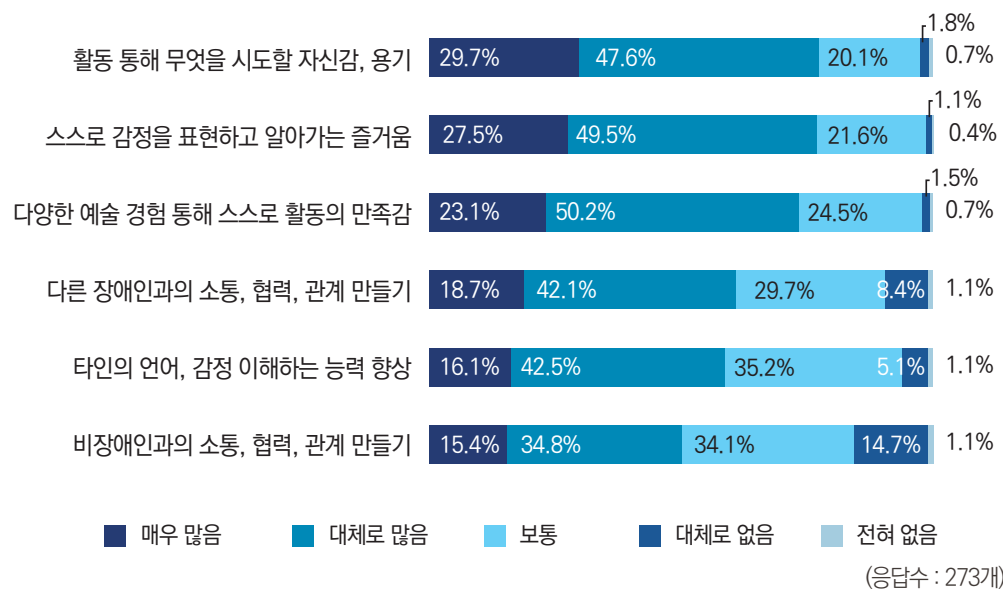
(그림 V-22)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이거나 가족들의 어려운 점 평균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0.627/0.903/0.849/0.890/0.902/0.954/0.903/0.919/0.936/0.914/0.912

(2)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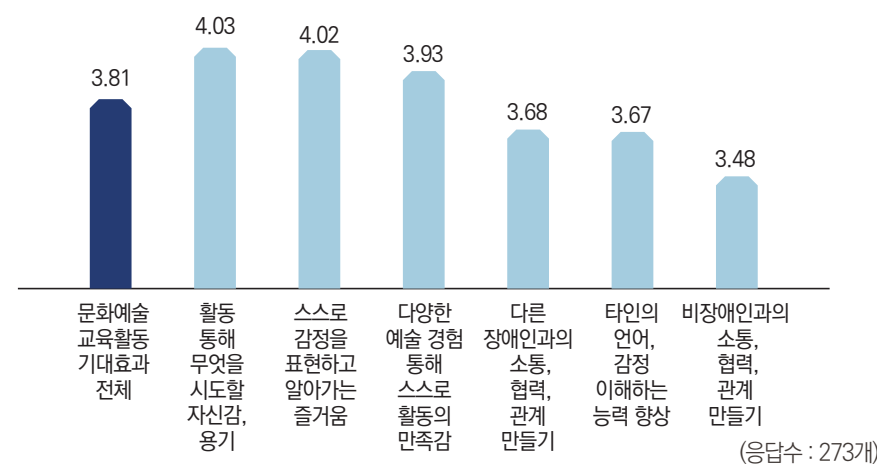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와 관련, ‘매우 많음’의 항목은 ‘활동 통해 무엇을 시도할 자신감, 용기’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어서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알아가는 즐거움’ 27.5%, ‘다양한 예술경험 통해 스스로 활동의 만족감’이 23.1%로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V-23)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한 기대효과와 관련, 평균 3.81점으로 나타나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활동을 통해 무엇인가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4.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4.02점, ‘다양한 예술 경험을 통해 스스로 활동의 만족감’이 3.93점 순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인 개인적인 변화와 긍정적 요인이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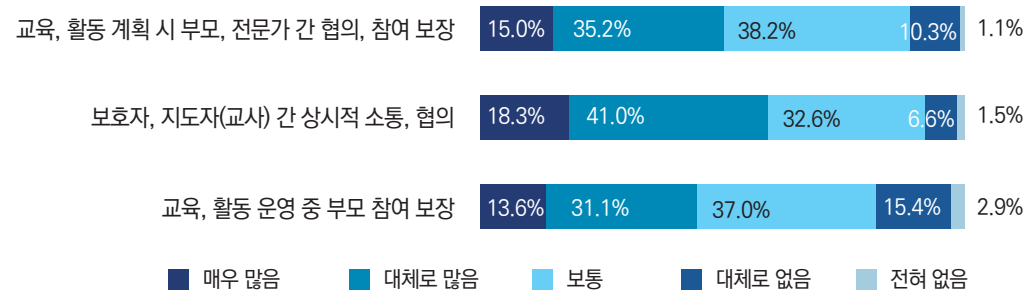


(그림 V-24)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평균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0.655 / 0.799 / 0.754 / 0.774 / 0.909 / 0.845 / 0.959

■ 응답자와 보호자의 관계성에 대한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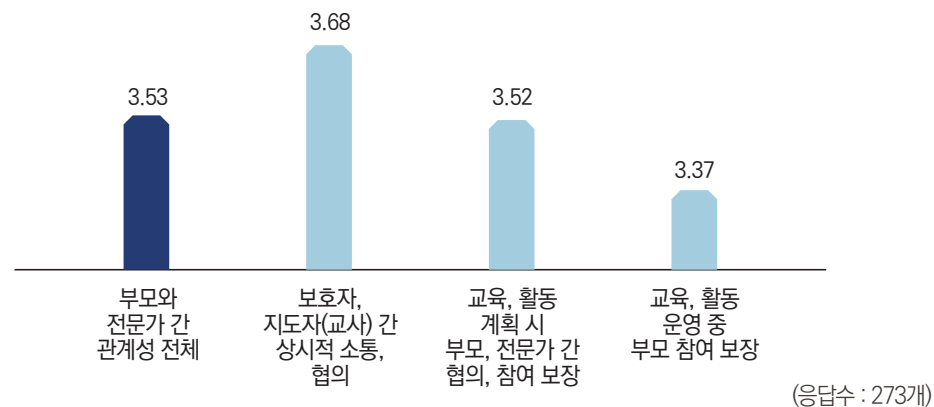
- 응답자와 보호자의 관계성에 대한 기대효과에서 ‘매우 많음’에 응답한 항목은 ‘보호자, 지도자(교사) 간 상시적 소통, 협의’가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육, 활동 계획 시 부모, 전문가 간 협의, 참여 보장’이 15.0%, ‘교육, 활동 운영 중 부모 참여 보장’이 13.6%로 나타남.



(응답수 : 273개)

(그림 V-25) 응답자와 보호자의 관계성에 대한 기대효과

- 응답자와 보호자 간의 관계성 전체는 평균 3.53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와 지도자(교사) 간의 상시적 소통과 협의’는 3.68점으로 나타나 평균치보다도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교육, 활동 계획 시 부모, 전문가 간 협의, 참여 보장’도 3.52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나타남. 그러나 ‘교육, 활동 운영 중 부모 참여 보장’은 3.37점으로 약간 긍정적이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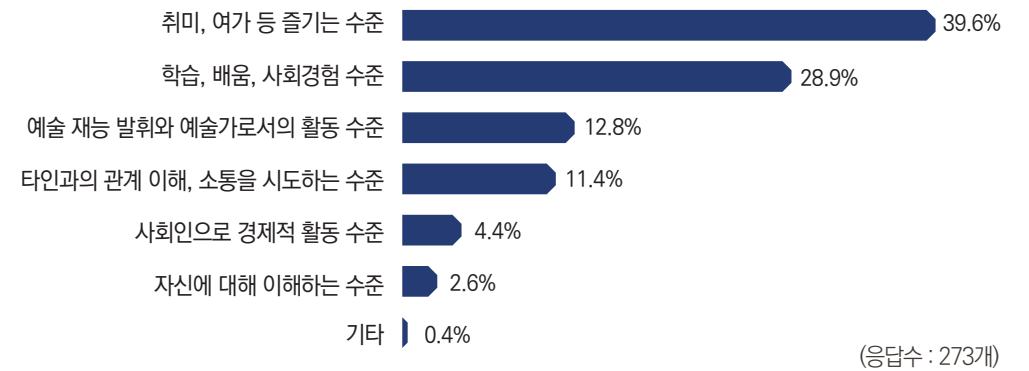
(응답수 : 273개)

(그림 V-26) 응답자와 보호자의 관계성에 대한 기대효과 평균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0.829 / 0.898 / 0.908 / 0.996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 수준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 수준에 대한 경우 ‘취미, 여가 등 즐기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학습, 배움, 사회경험 수준’이라는 응답이 28.9%로 나타남.
- 또한 ‘예술 재능 발휘와 예술가로서의 활동 수준’을 기대하는 경우도 12.8%로 나타났으며, ‘타인과의 관계 이해, 소통을 시도하는 수준’은 11.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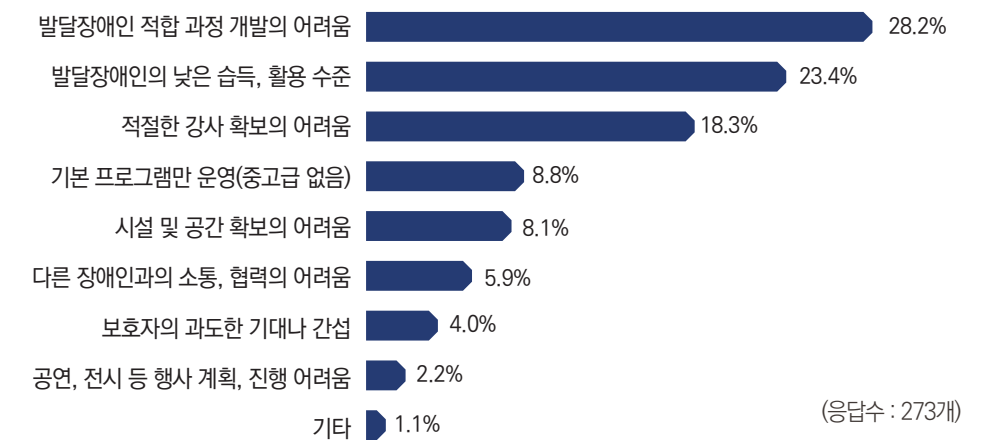


(응답수 : 273개)

(그림 V-27)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 수준

■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어려움

- 발달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활동이나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의 경우, ‘발달장애인 적합 과정 개발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발달장애인의 낮은 습득, 활용 수준’의 응답도 23.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적절한 강사 확보의 어려움’이 18.3%로 나타났으며, ‘기본 프로그램만 운영(중고급 없음)’만 하는 것도 8.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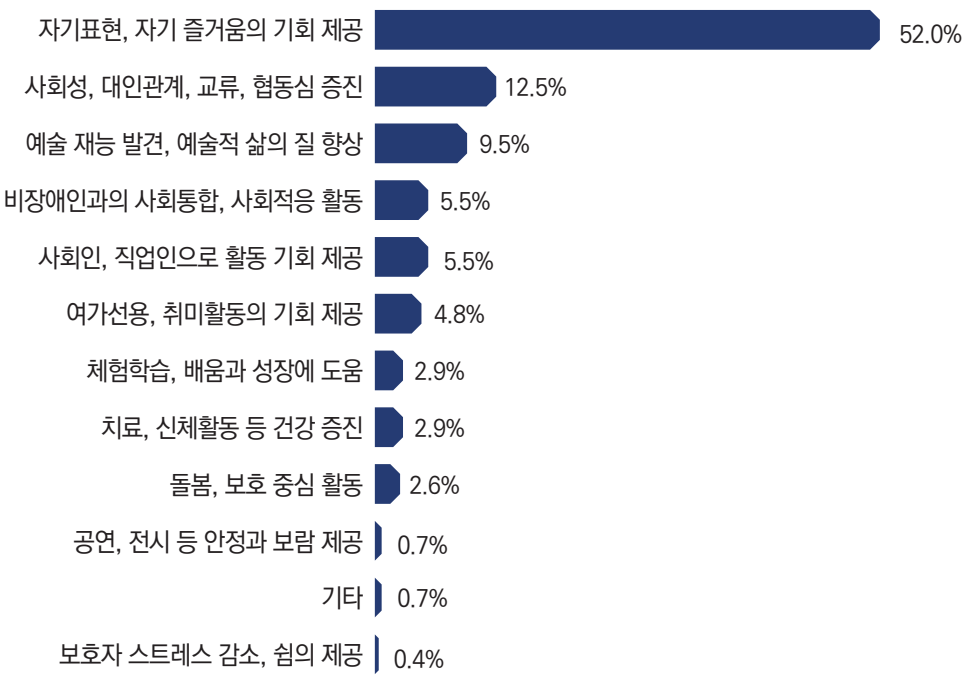
(응답수 : 273개)

(그림 V-28)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어려움

(3) 문화예술교육 추진 방향성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경우 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이 52.0%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심 증진’이 12.5%, ‘예술 재능 발견과 예술적 삶의 질 향상’은 9.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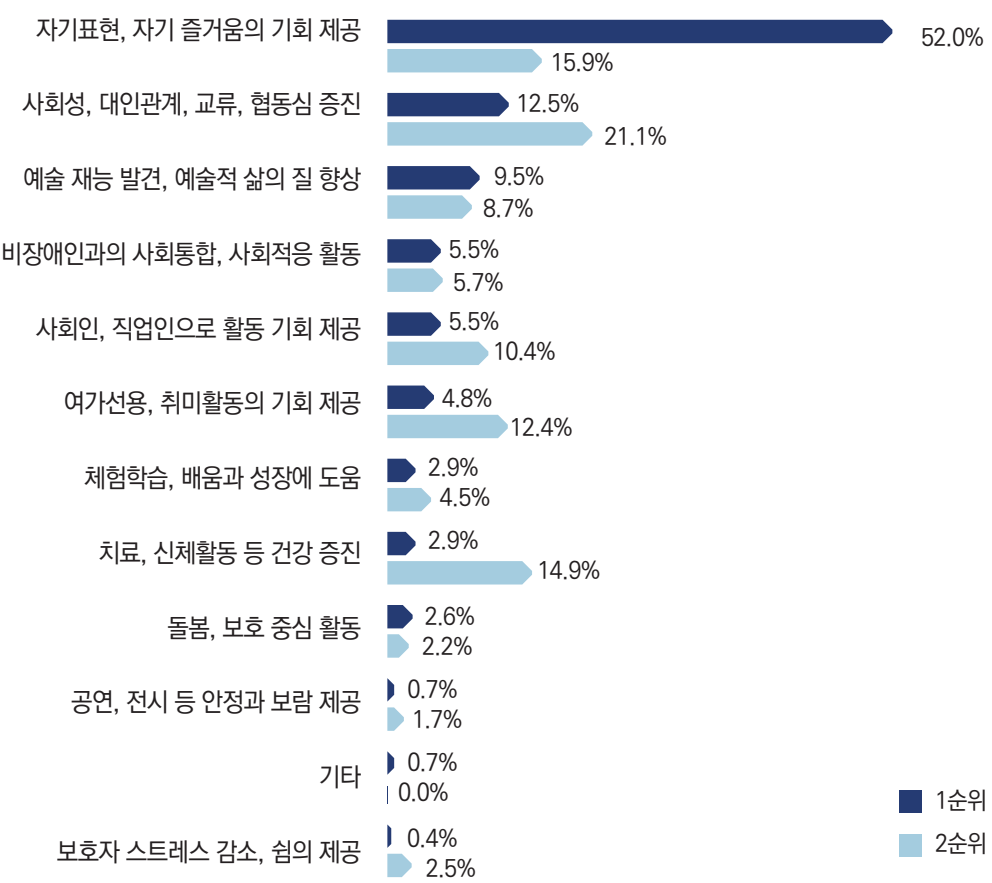


(응답수 : 273개)

(그림 V-29)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1순위 포함, 복수응답)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1, 2순위를 비교해보았을 때, 1순위로는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는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심 증진’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응답수 : 1순위 273개, 2순위 403개)

(그림 V-30)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추진 방향성 1, 2순위 비교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추진 방향성에 대한 복수응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1인당 평균 2.476개를 응답함.
- 이 중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을 선택한 비율이 75.5%로 나타나 대부분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심 증진’이 43.6%,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24.9%로 나타남.

〈표 V-9〉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1순위 포함,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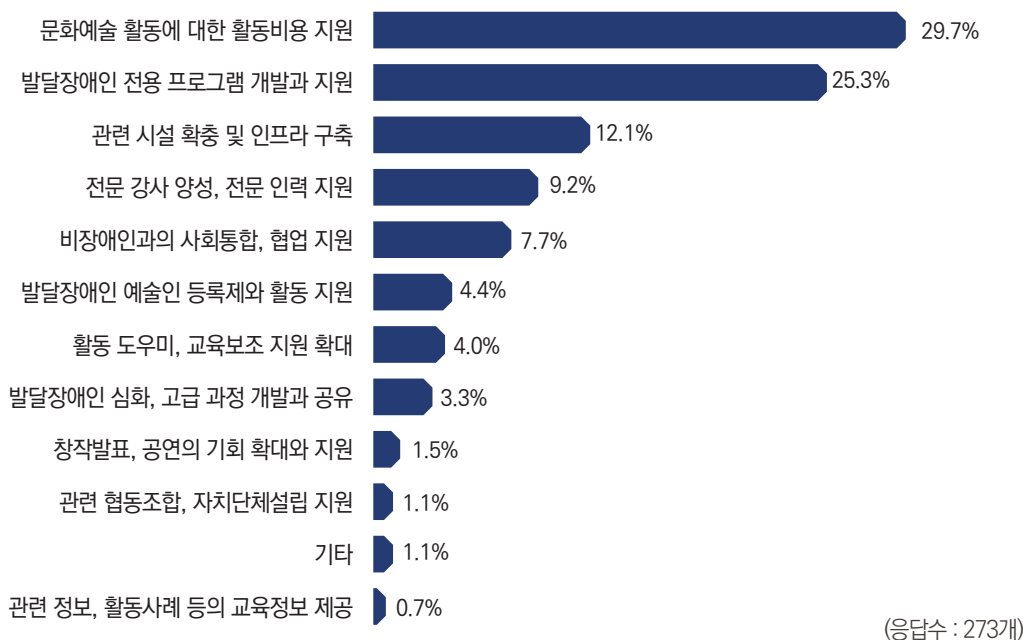
구분	응답수(N)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돌봄, 보호 중심 활동	16	2.4%	5.9%
치료, 신체활동 등 건강 증진	26	3.8%	9.5%
예술 재능 발견, 예술적 삶의 질 향상	61	9.0%	22.3%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	206	30.5%	75.5%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심 증진	119	17.6%	43.6%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	68	10.1%	24.9%

구분	응답수(N)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	38	5.6%	13.9%
비(非)장애인과의 사회통합, 사회적응 활동	57	8.4%	20.9%
공연, 전시 등 안정과 보람 제공	9	1.3%	3.3%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	63	9.3%	23.1%
보호자 스트레스 감소, 심의 제공	11	1.6%	4.0%
기타	2	0.3%	0.7%
합계	676	100.0%	247.6%

*케이스 백분율은 분석에 사용된 273명의 데이터 중 각각의 빈도가 차지하는 비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활동비용 지원'이 29.7%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발달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25.3%, '관련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은 12.1%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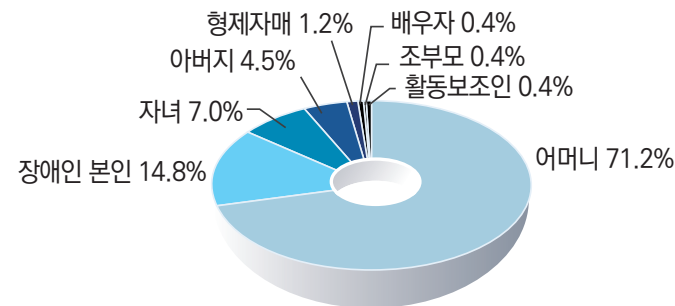
(그림 V-31)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욕구 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와 장애인과의 관계

- 유효 응답자 243명 중 응답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어머니'가 71.2%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본인'이 14.8%, '자녀'가 7.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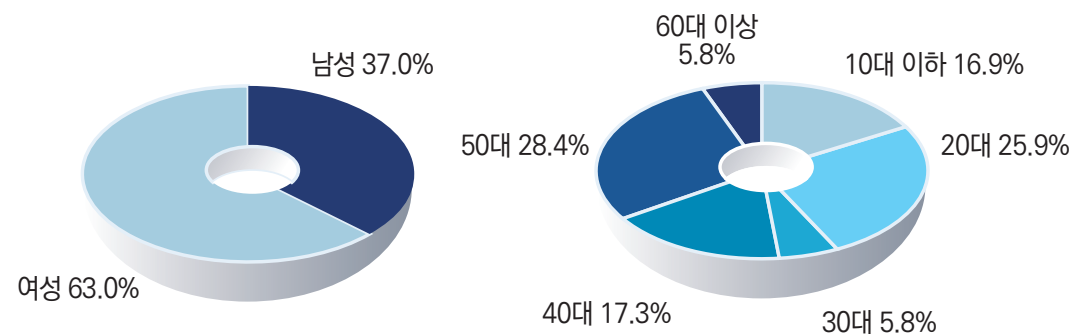


(응답수 : 243개)

(그림 V-32) 응답자와 장애인과의 관계

■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63.0%, '남성'이 37.0%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보호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25.9%, '40대'가 17.3% 순으로 나타남. 평균 연령은 37.48세, 표준편차는 16.227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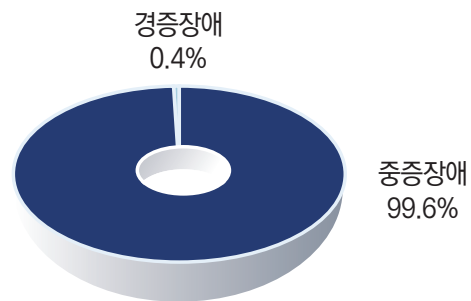
(응답수 : 243개)

(응답수 : 243개)

(그림 V-33)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현황

■ 응답자의 장애 수준

- 장애수준을 살펴보면, ‘중증장애’가 99.6%, ‘경증장애’가 0.4%로 ‘중증장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장애수준이 경증인 경우에는 일반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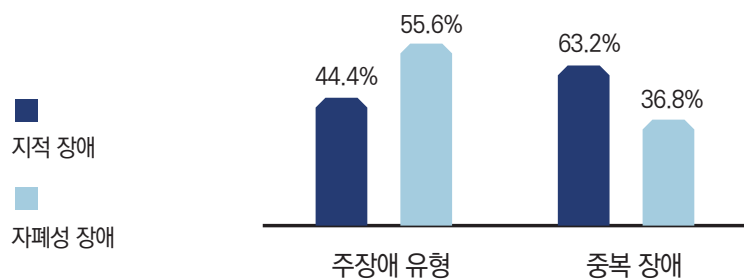


(응답수 : 243개)

(그림 V-34) 응답자의 장애 수준 현황

■ 응답자의 장애 유형

- 주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44.4%, ‘자폐성장애’가 55.6%로 자폐성장애가 지적장애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주 장애를 포함한 중복장애를 살펴보면, 243명이 311개를 응답하여 1인당 평균 1.28개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복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8명이며, 이 중 ‘지적장애’가 43명(63.2%)이며, ‘자폐성 장애’가 25명(36.8%)으로 나타남. 주 장애유형과 복수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는 151명, ‘자폐성 장애’는 160명으로 나타나 비슷한 비율임.



(응답수 : 243개)

(그림 V-35) 응답자의 장애 유형 현황

■ 응답자의 거주 지역

-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74.1%, ‘서울특별시’ 11.5%, ‘인천광역시’ 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응답자가 많음.
- 발달장애인 기관이나 시설 및 단체 등의 응답자 구성과 달리,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욕구조사의 응답자는 균형 있는 응답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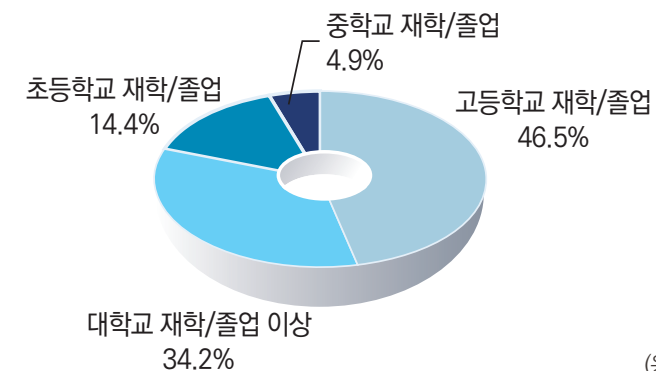
〈표 V-10〉 응답자의 거주지역 분포

연 번	지역	응답자		총인구 백분율	연 번	지역	응답자		총인구 백분율
		응답수(N)	백분율				응답수(N)	백분율	
1	서울특별시	28	11.5%	18.7%	10	강원도	2	0.8%	3.0%
2	부산광역시	0	0.0%	6.5%	11	충청남도	7	2.9%	4.1%
3	인천광역시	12	4.9%	5.7%	12	충청북도	1	0.4%	3.1%
4	대구광역시	2	0.8%	4.7%	13	전라남도	0	0.0%	3.6%
5	광주광역시	1	0.4%	2.8%	14	전라북도	3	1.2%	3.5%
6	대전광역시	1	0.4%	2.8%	15	경상남도	0	0.0%	6.4%
7	울산광역시	0	0.0%	2.2%	16	경상북도	2	0.8%	5.1%
8	세종특별자치시	0	0.0%	0.7%	17	제주특별자치도	4	1.6%	1.3%
9	경기도	180	74.1%	25.9%		총 계	2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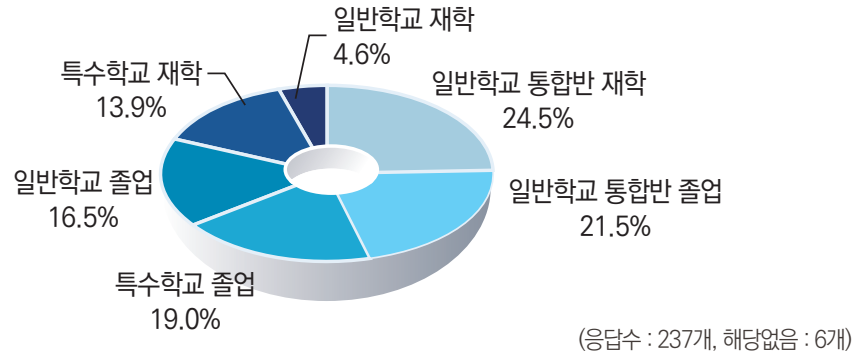
* 총인구 백분율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0.12 현재 기준

■ 응답자의 학력 및 교육기관

- 응답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재학/졸업 이상’이 34.2%, ‘초등학교 재학/졸업’이 14.4% 순으로 나타남.
- 재학 중인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일반학교 통합반 재학’이 24.5%, ‘일반학교 통합반 졸업’이 21.5%, ‘특수학교 졸업’이 19.0% 순으로 나타남. 중증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일반학교에서 재학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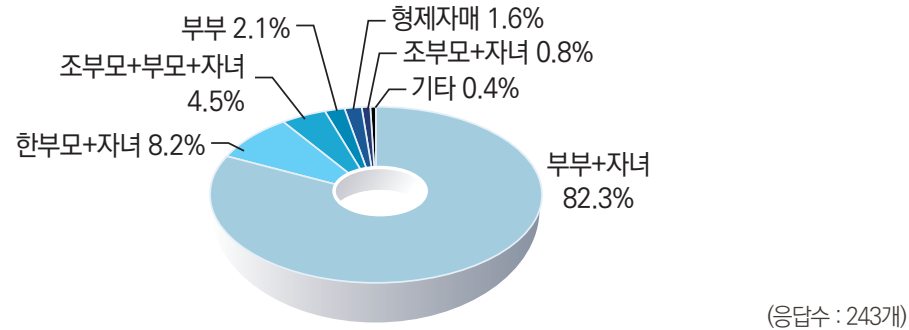
(응답수 : 243개)



(그림 V-36) 응답자의 학력 및 재학 교육기관 현황

■ 응답자의 가족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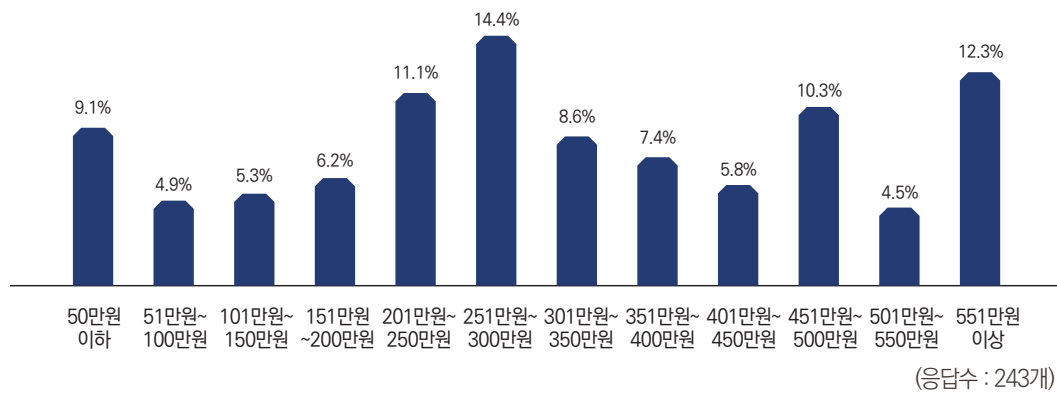
-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부부+자녀'가 82.3%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자녀'가 8.2%, '조부모+부모+자녀'가 4.5%, '부부'가 2.1% 순으로 나타남.



(그림 V-37) 응답자의 가족 구성 현황

■ 가구 월 평균 수입

- 가구 월 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251만원~300만원'이 14.4%, '551만 원 이상'이 12.3%, '201만원~250만원'이 11.1% 순으로 나타남. 중간 값을 이용한 월 평균 수입의 추정치를 보면, 평균이 312.04만원, 표준편차는 169.67만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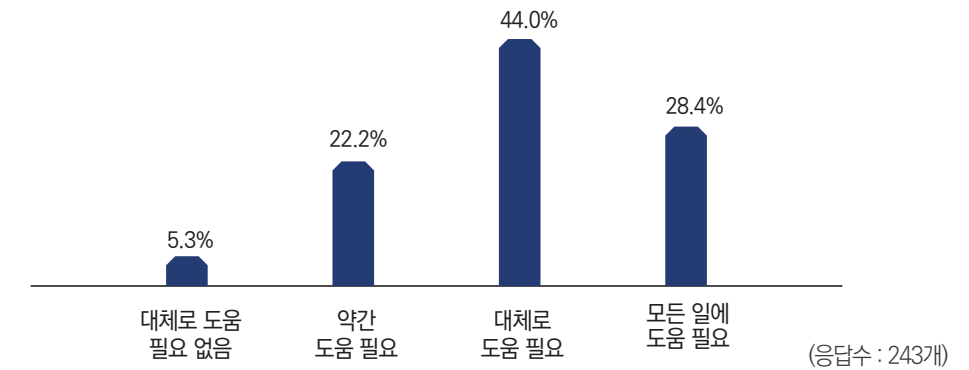
(그림 V-38) 응답자 가구 월 평균 수입 현황

2) 여건 분석

(1) 발달장애인에 대한 도움의 필요

■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도움 필요'가 44.0%, '모든 일에 도움 필요'가 28.4%, '약간 도움 필요'가 22.2%로 나타남. 중증 장애인의 비율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모든 일에 도움 필요'의 응답 비율은 28.4%로 다소 낮게 나타남.



(그림 V-39)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 (복수응답)

-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이들을 보면, 241명이 363개, 1인당 1.5개를 응답함. 이 중 '부모'가 87.1%, '활동 보조인'이 28.6%, '형제, 자매'가 17.0%로 나타남.

<표 V-11> 응답자의 일상생활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 (복수응답)

구분	응답수(N)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배우자	14	3.9%	5.8%
부모	210	57.9%	87.1%
자녀	6	1.7%	2.5%
형제, 자매	41	11.3%	17.0%
조부모	11	3.0%	4.6%
친척	1	0.3%	0.4%
친구 또는 이웃	2	0.6%	0.8%
활동 보조인	69	19.0%	28.6%
종교단체	1	0.3%	0.4%
자원봉사자	2	0.6%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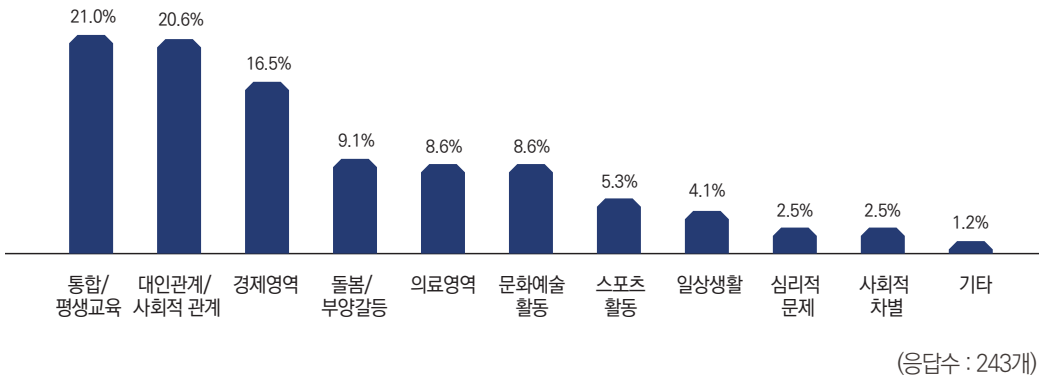
구분	응답수(N)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복지기관 사회복지사	6	1.7%	2.5%
합계	363	100.0%	150.6%

*케이스 백분율은 분석에 사용된 241명(무응답 2건 제외)의 데이터 중 각각의 빈도가 차지하는 비율

(2)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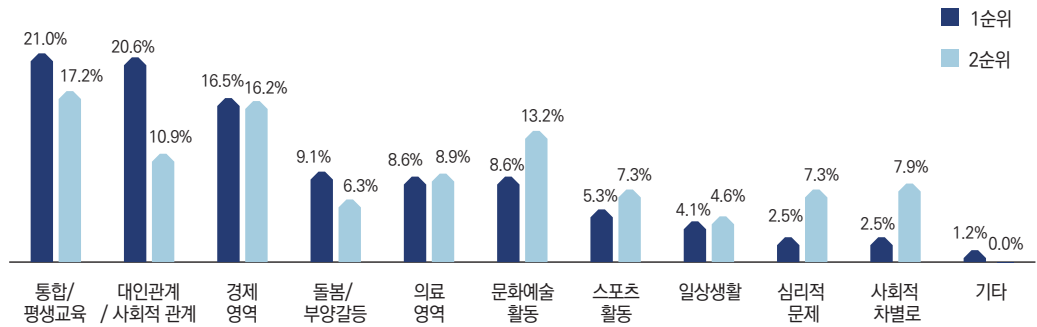
- 생활하는 데 어려운 문제 1순위를 살펴보면, 통합교육 기관의 부족 등을 포함하는 ‘통합/평생교육’이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사회적 관계’가 20.6%, ‘경제영역’이 16.5%, ‘돌봄/부양갈등’이 9.1% 순으로 나타남. ‘문화예술 활동’은 8.6%로, ‘스포츠 활동’은 5.3%로 나타남.



(그림 V-40)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

■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 2순위 비교

- 생활하는 데 어려운 문제에 대해 1, 2순위를 비교해보면, 1순위로는 ‘통합/평생교육’이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대인관계/사회적 관계’가 20.6%로 나타남.
- 2순위로 가장 많이 나타난 항목은 1순위와 마찬가지로 ‘통합/평생교육’이 17.2%로 나타났고, 이어서 ‘경제영역’이 16.2%로 나타났음.



(응답수 : 1순위 243개, 2순위 302개)

(그림 V-41)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 2순위 비교

■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1순위 포함, 복수응답)

- 어려운 문제에 대한 복수응답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평균 2.243개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통합/평생교육’이 1순위에 이어 가장 높은 42.4%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1순위에서 3위였던 ‘경제영역’이 36.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1순위 이외의 복수응답에서 선택을 많이 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잠재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임.
- 1순위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던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가 복수응답에서는 34.2%로 나타나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활동’의 경우 25.1%로 네 명 중 한 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활동’은 14.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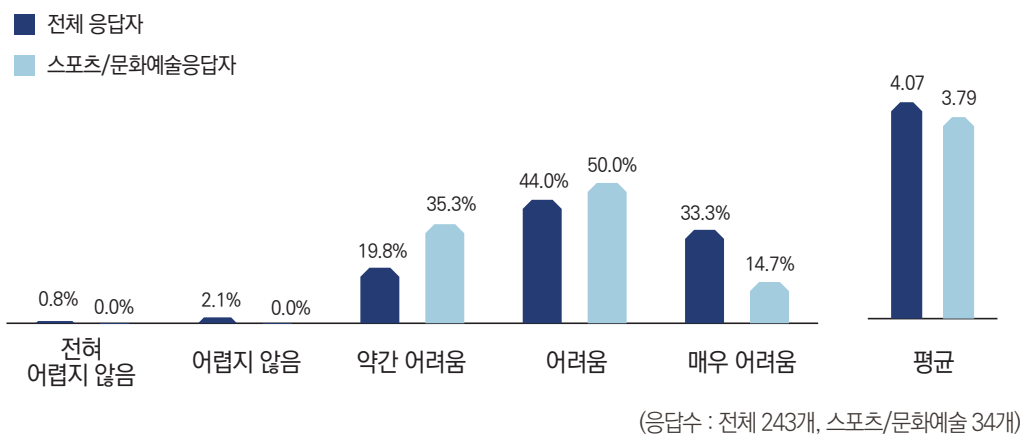
<표 V-12>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1순위 포함, 복수응답)

구분	응답수(N)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경제영역의 어려움	89	16.3%	36.6%
의료영역의 어려움	48	8.8%	19.8%
스포츠활동의 어려움	35	6.4%	14.4%
문화예술활동의 어려움	61	11.2%	25.1%
통합/평생교육의 어려움	103	18.9%	42.4%
심리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	28	5.1%	11.5%
돌봄 및 부양갈등 어려움	41	7.5%	16.9%
일상생활의 어려움	24	4.4%	9.9%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83	15.2%	34.2%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	30	5.5%	12.3%
기타	3	0.6%	1.2%
합계	545	100.0%	224.3%

*케이스백분율은 분석에 사용된 135명(2년간 참여 지속자)의 데이터 중 각각의 빈도가 차지하는 비율

■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에 대한 정도

- 응답자가 선택한 1순위 어려운 문제의 정도를 살펴보면, '어려움'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어려움'이 33.3%, '약간 어려움'이 19.8% 순으로 나타남. 이를 5점 만점의 평균으로 환산하면, 4.07점으로 나타남. 이는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스포츠와 문화예술활동을 어렵다고 선택한 34명을 분석한 결과 '약간 어려움'이 35.3%로 전체 응답자의 비율보다 다소 높았으며, '어려움'도 50.0%로 약간 더 높음. 반면에 '매우 어려움'은 14.7%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3.79점으로 나타남.
- 스포츠와 문화예술활동을 어렵다고 선택한 이들의 어려움 정도는 중간인 3점보다는 높아서 어려움을 느끼는 수준이었으나, 전체 응답자보다는 조금 낮은 어려움 수준임($t=2.110,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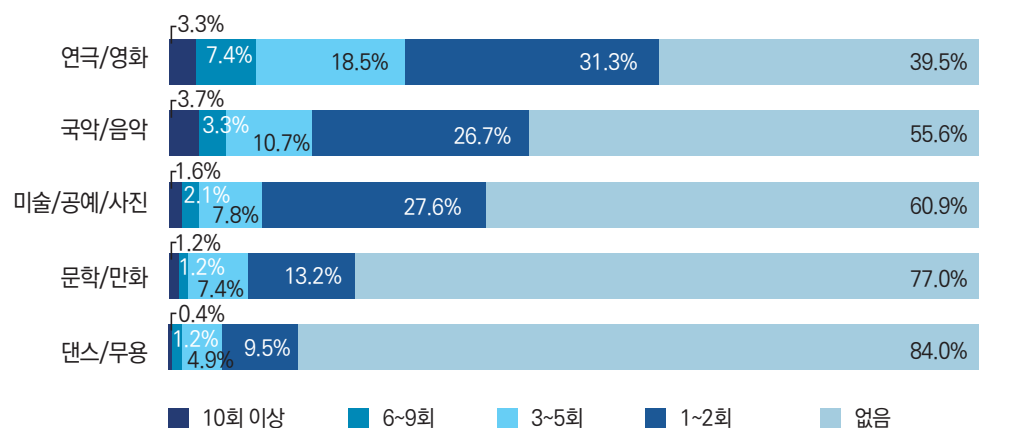
(그림 V-42)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움 1순위에 대한 정도

3) 문화예술교육 실태분석

(1) 문화예술교육 활동 실태

■ 최근 2년간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

- 최근 2년간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을 살펴보면, '연극/영화' 분야는 1회 이상 관람하였다는 비율이 60.5%이며, 10회 이상인 비율은 3.3%로 '국악/음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음.
- 반면, '댄스/무용'의 경우 관람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4.0%, '문학/만화'가 77.0%로 가장 높아 경험, 접근성이 낮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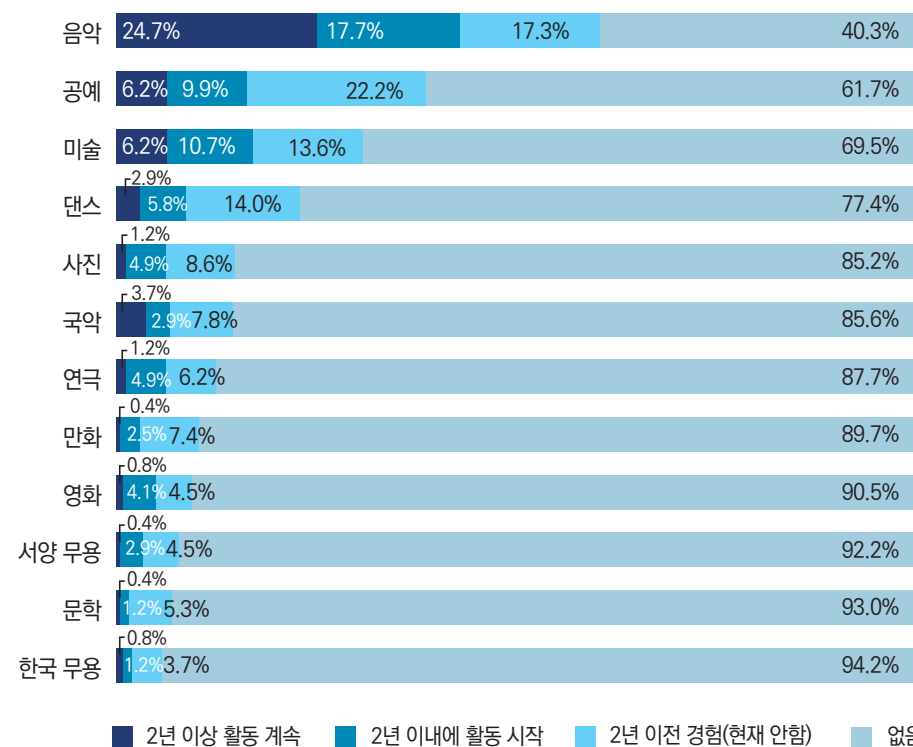


(응답수 : 243개)

(그림 V-43)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 현황

■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발달장애인의 참여 현황

-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활동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2년 이전 경험(현재 안함)'을 포함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59.7%, '2년 이상 활동 계속'과 '2년 이내에 활동 시작'의 응답도 42.4%로 나타나,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높은 활동 비율을 보임.



(응답수 : 243개)

(그림 V-44)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발달장애인 참여 현황

- 반면, ‘없음’으로 응답하여 활동한 적이 아예 없는 비율은 ‘한국 무용’이 94.2%, ‘문학’이 93.0%, ‘서양 무용’이 92.2%, ‘영화’가 90.5% 등으로 접근성이 가장 낮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2년 이내에 활동 시작’ 혹은 ‘2년 이상 활동 계속’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총 135명으로 전체 응답자 243명의 55.6%에 불과함. 두 명 중 한명 꼴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는 반면, 응답자 1인당 2.119개를 응답하여 통상 2개 영역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135명 중 ‘음악 프로그램 참여활동’이 76.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미술 프로그램 참여활동’이 30.4%, ‘공예교육 참여활동’이 28.9%로 다른 영역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반면에 문학교육, 한국 무용교육, 만화교육, 서양 무용교육 등은 전반적으로 비율이 크게 낮음.

<표 V-13>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응답수(N)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문학 프로그램 참여활동	4	1.4%	3.0%
만화 프로그램 참여활동	7	2.4%	5.2%
미술 프로그램 참여활동	41	14.3%	30.4%
공예 프로그램 참여활동	39	13.6%	28.9%
사진 프로그램 참여활동	15	5.2%	11.1%
국악 프로그램 참여활동	16	5.6%	11.9%
음악 프로그램 참여활동	103	36.0%	76.3%
연극 프로그램 참여활동	15	5.2%	11.1%
영화 프로그램 참여활동	12	4.2%	8.9%
댄스 프로그램 참여활동	21	7.3%	15.6%
서양 무용 프로그램 참여활동	8	2.8%	5.9%
한국 무용 프로그램 참여활동	5	1.7%	3.7%
합계	286	100.0%	211.9%

*케이스백분율은 분석에 사용된 135명(2년간 참여 지속자)의 데이터 중 각각의 빈도가 차지하는 비율

■ 현재 참여 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활동 장소

-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장소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참여를 지속하고 있는 135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의 경우, 164개의 응답수가 나와 1인당 평균 1.215개를 응답함.
- 이 중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단체’가 34.8%,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3.0%, ‘장애인 관련 소집단활동, 동아리’가 21.5%, ‘장애인 관련 협회, 협의회’가 12.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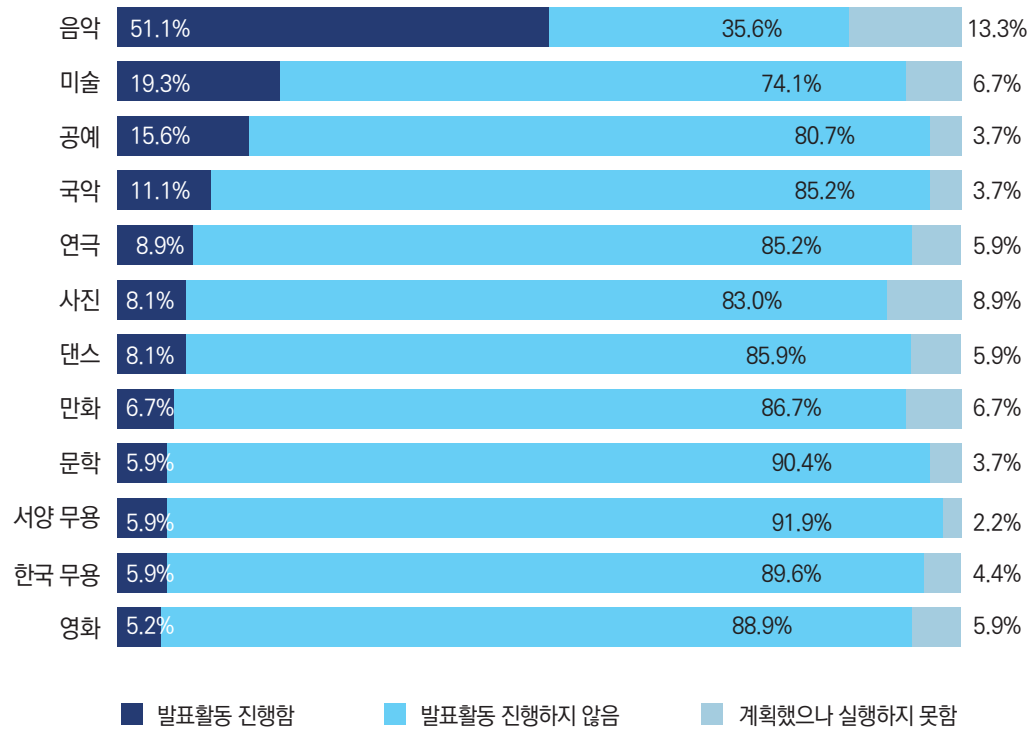
<표 V-14> 현재 참여 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활동 장소(복수응답)

구분	응답수(N)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단체	47	28.7%	34.8%
비(非)장애인 문화예술단체	3	1.8%	2.2%
장애인 관련 협회, 협의회	17	10.4%	12.6%
비(非)장애인 관련 협회, 협의회	2	1.2%	1.5%
장애인종합복지관	31	18.9%	23.0%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5	3.0%	3.7%
장애인 관련 협동조합	5	3.0%	3.7%
장애인 관련 소집단활동, 동아리	29	17.7%	21.5%
예술전문학원	11	6.7%	8.1%
기타	14	8.5%	10.4%
합계	164	100.0%	121.5%

*케이스백분율은 분석에 사용된 135명(2년간 참여 지속자)의 데이터 중 각각의 빈도가 차지하는 비율

■ 최근 2년간 문화예술 관련 발표 활동

- 최근 2년간 참여를 지속하고 있는 135명의 문화예술 관련 발표 활동을 살펴보면, 음악 관련 분야가 51.1%로 가장 많은 발표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미술’ 관련이 19.3%, ‘공예’ 관련이 15.6%, ‘국악’ 관련이 11.1%로 나타남. ‘미술’ 관련 발표 활동의 경우 ‘계획했으나 실행하지 못함’이 6.7%여서 ‘공예’, ‘국악’에 비해 COVID-19에 의한 영향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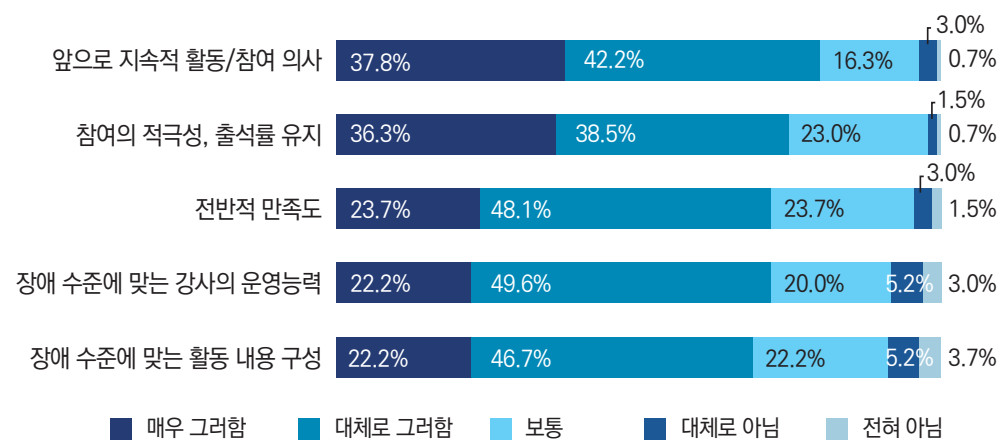


(그림 V-45) 문화예술 관련 발표 활동 현황

(응답수 : 135개)

■ 문화예술교육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문화예술교육 참여활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 ‘매우 그러함’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앞으로 지속적 활동/참여 의사’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참여의 적극성, 출석률 유지’는 3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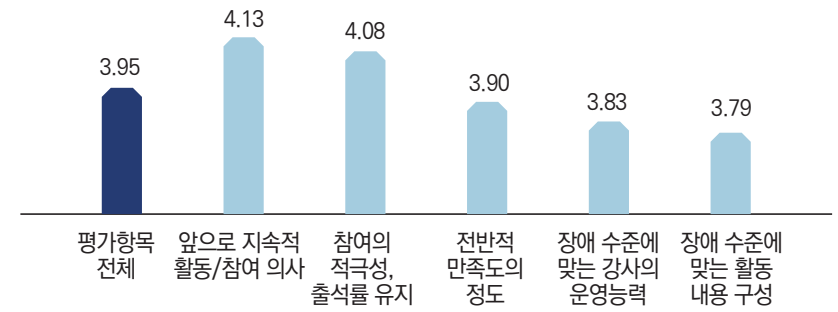


(그림 V-46) 문화예술교육의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응답수 : 135개)

- 최근 2년간 참여를 지속하고 있는 135명의 참여활동의 정도에 대한 5점 척도의 평

가는 평균 3.95점으로 나타나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수 : 135개)

(그림 V-47) 문화예술교육의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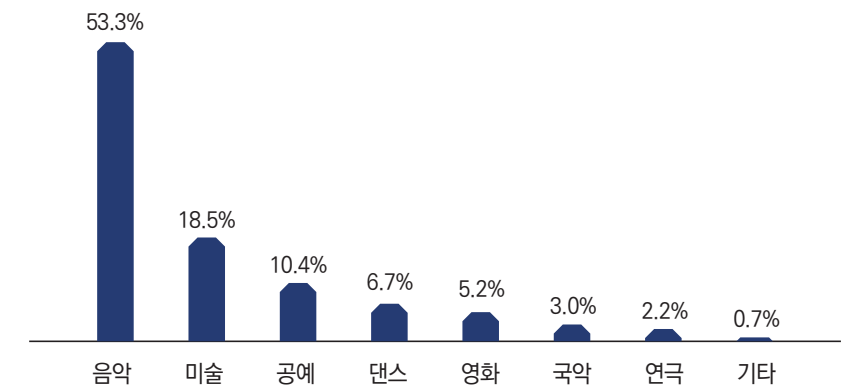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0.756 / 0.845 / 0.847 / 0.849 / 0.935 / 0.973

- 이 중 ‘앞으로 지속적 활동/참여 의사’는 평균 4.13점으로, ‘참여의 적극성, 출석률 유지’는 4.0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함.
- ‘장애 수준에 맞는 강사의 운영능력’은 3.83점, ‘장애 수준에 맞는 활동내용 구성’은 3.79점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다른 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음.

(2) 문화예술교육 욕구

■ 문화예술교육 중 가장 흥미 있는 활동

- 최근 2년간 참여를 지속하고 있는 135명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활동은 ‘음악’이 53.3%, ‘미술’이 18.5%, ‘공예’가 10.4%, ‘댄스’가 6.7% 순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순서와 비슷한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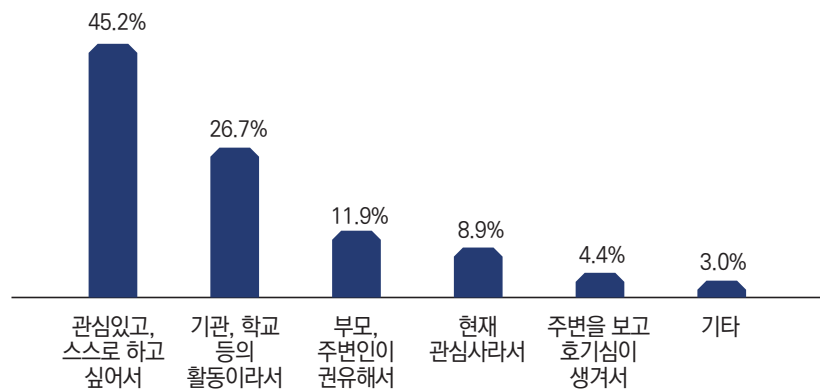


(응답수 : 135개)

(그림 V-48) 문화예술교육 중 가장 흥미 있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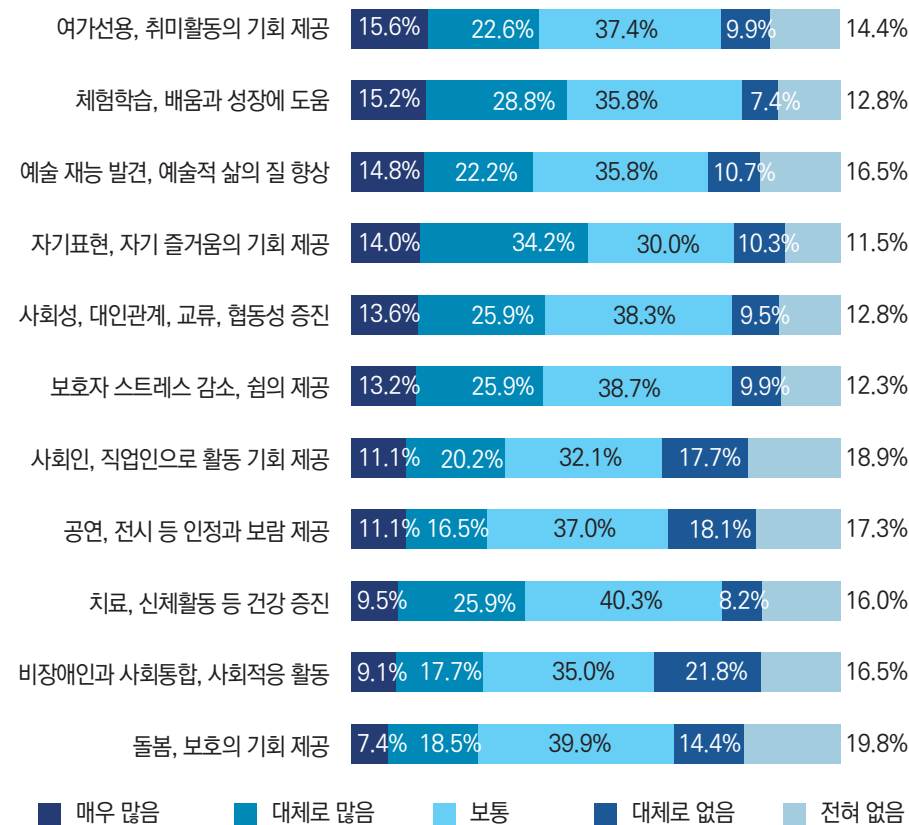
■ 흥미 있는 활동으로 선택한 이유

- 활동의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평소부터 ‘관심 있고, 스스로 하고 싶어서’가 45.2%, ‘기관, 학교 등의 활동이라서’가 26.7%, ‘부모, 주변인이 권유해서’가 11.9%, ‘현재 관심사라서’라는 응답이 8.9%로 나타남.



(응답수 : 13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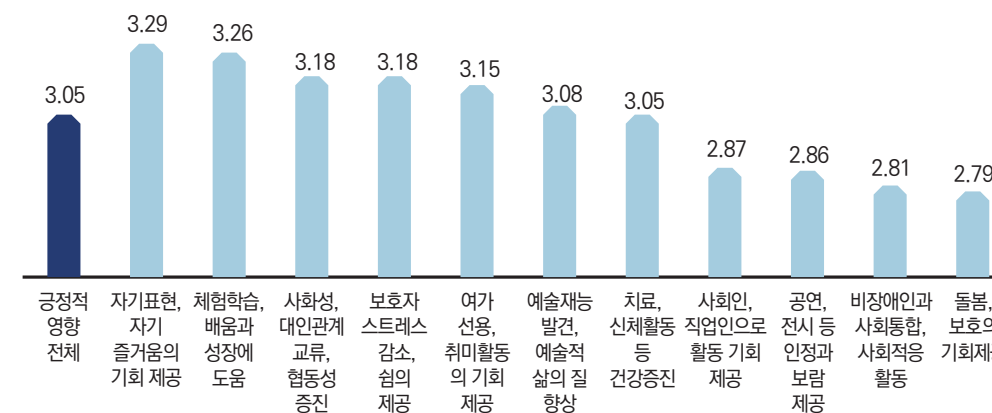
(그림 V-49) 흥미 있는 활동으로 선택한 이유



(응답수 : 243개)

(그림 V-50)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 발달장애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05점으로 나타나 중간 정도 수준으로 평가됨. 이 중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은 평균이 3.29점,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은 평균이 3.2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에 ‘돌봄, 보호의 기회 제공’은 평균 2.79점, ‘비(非)장애인과 사회통합 및 사회 적응 활동’, ‘공연, 전시 등의 인정과 보람 제공’,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도 3점미만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됨.



(응답수 : 243개)

(그림 V-51)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평균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1.051 / 1.178 / 1.191 / 1.175 / 1.163 / 1.229 / 1.257 / 1.169 / 1.253 / 1.212 / 1.177 / 1.174

4) 문화예술교육의 영향 및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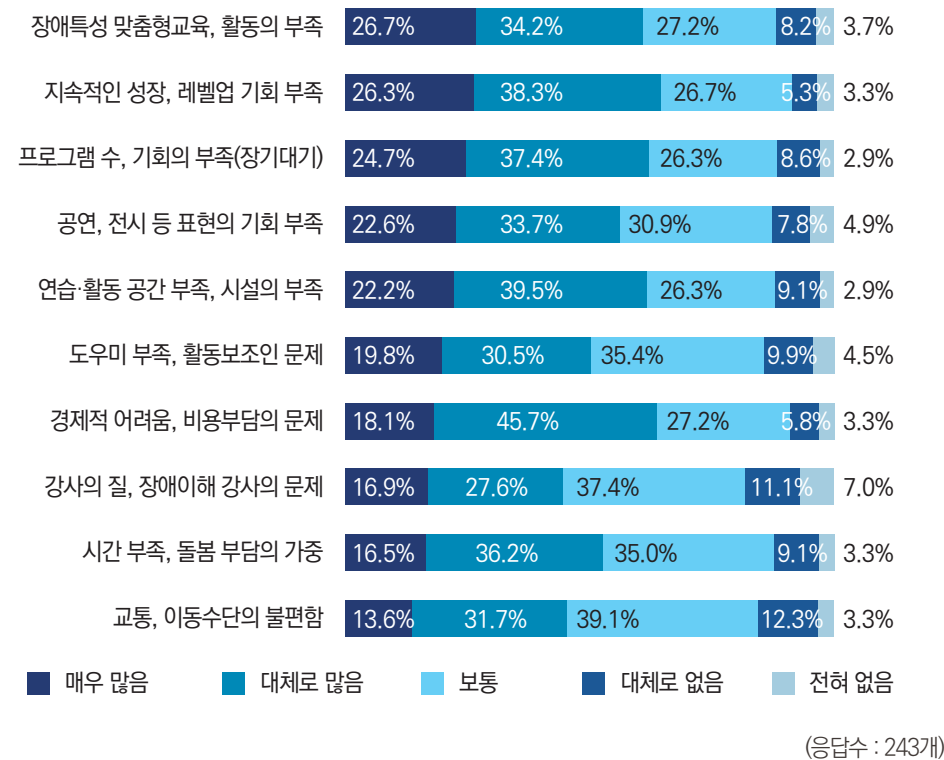
(1)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영향

■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많음’의 항목은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이 15.6%,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15.2%, ‘예술 재능 발견, 예술적 삶의 질 향상’이 14.8%,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이 14.0%로 나타남.
- 반면, ‘전혀 없음’이 가장 많이 나타난 긍정적 요인으로는 ‘돌봄, 보호의 기회 제공’이 19.8%,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이 18.9%, ‘공연, 전시 등 인정과 보람 제공’이 17.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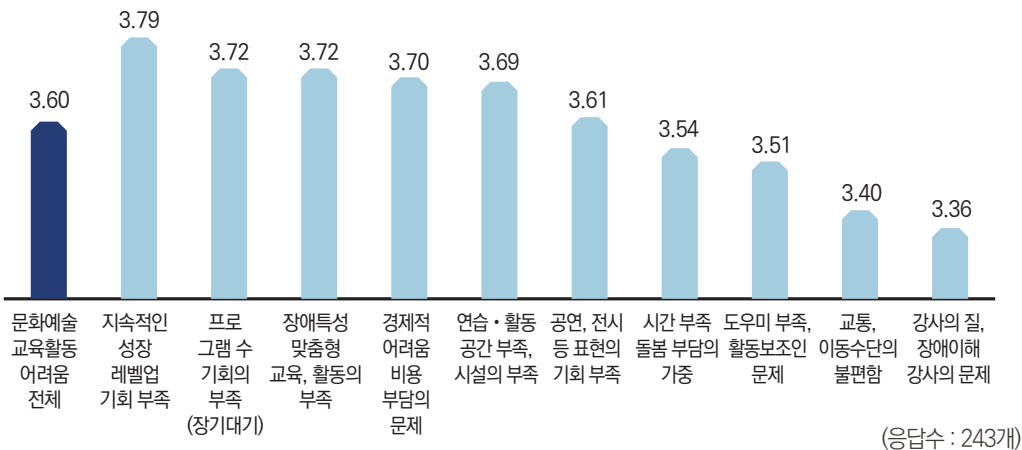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에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 보호자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 발달장애인의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장애특성 맞춤형 교육, 활동의 부족’의 ‘매우 많음’이 26.7%로 아주 높게 나타남. 이어서 ‘지속적인 성장, 레벨업 기회 부족’이 26.3%, ‘프로그램 수, 기회의 부족(장기대기)’ 24.7%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어려운 점에 대해 ‘전혀 없음’과 ‘대체로 없음’으로 ‘강사의 질, 장애이해 강사의 문제’가 18.1%, ‘교통, 이동수단의 불편함’이 15.6%, ‘도우미 부족, 활동보조인 문제’가 14.4%로 나타남.



(그림 V-52)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에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할 때에 불편한 점의 경우 5점 만점 기준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한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 어려움 전체’의 경우 3.60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53)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에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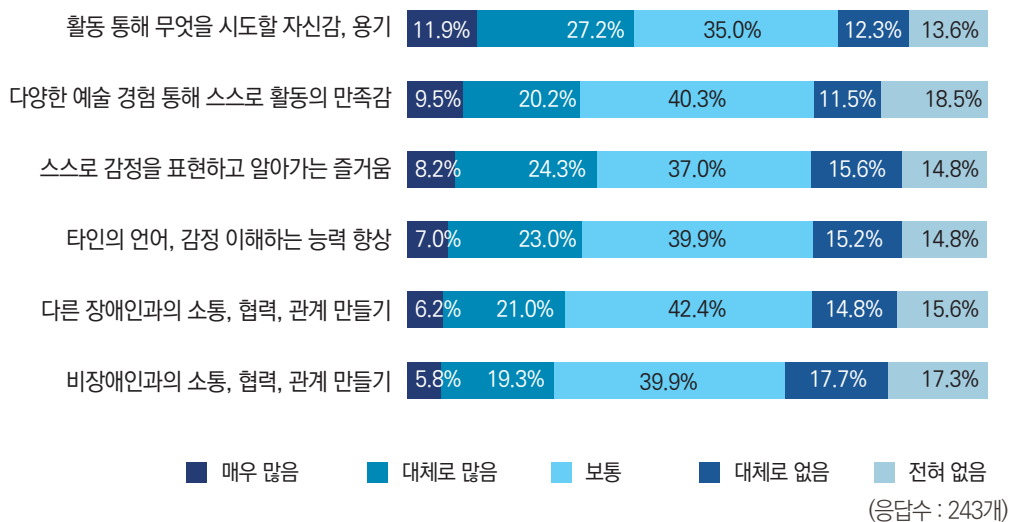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0.841 / 1.001 / 1.022 / 0.944 / 1.008 / 1.071 / 0.980 / 1.058 / 0.980 / 1.058 / 0.980 / 1.102

- ‘지속적인 성장, 레벨업 기회 부족’은 평균 3.79점으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수, 기회의 부족(장기대기)’ 평균 3.72점, ‘장애특성 맞춤형 교육, 활동의 부족’ 평균 3.72점, ‘경제적 어려움, 비용부담의 문제’ 평균 3.70점, ‘연습·활동 공간 부족, 시설의 부족’은 평균 3.69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음.

(2)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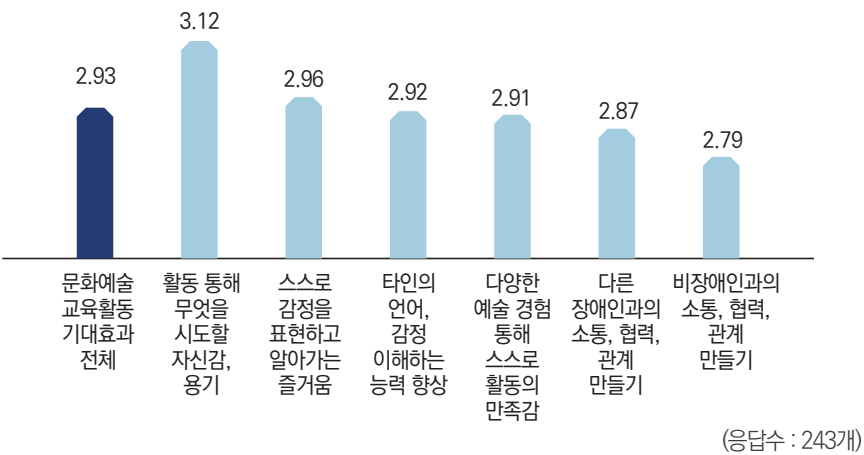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에서 ‘매우 많음’은 ‘활동 통해 무엇을 시도할 자신감, 용기’가 11.9%로 가장 높음. 이어서 ‘다양한 예술 경험 통해 스스로 활동의 만족감’이 9.5%,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8.2%로 나타남.



(그림 V-54)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되어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기대효과의 경우도 5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은 2.93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대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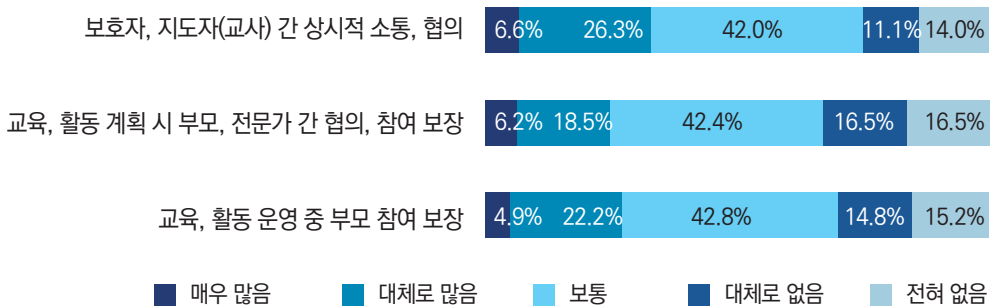
(그림 V-55)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평균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1.060 / 1.187 / 1.151 / 1.120 / 1.197 / 1.104 / 1.119

- 이 중 ‘활동을 통해 무엇을 시도할 자신감과 용기’가 평균 3.12점으로 나타나 중간인 3점 이상은 1개 영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 외 모든 영역은 3점 미만으로 ‘비(非)장애인과 소통, 협력, 관계 만들기’는 2.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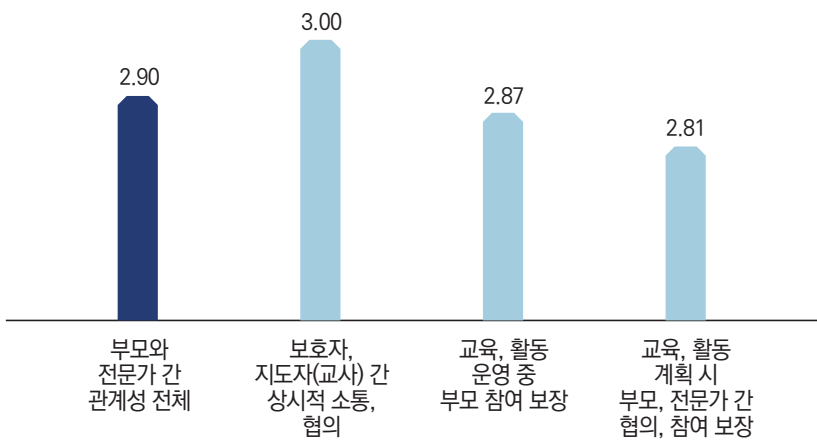
■ 응답자와 매개자의 관계성에 대한 기대효과

- 기대효과 중 응답자와 매개자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매우 많음’을 가장 많이 답변한 항목은 ‘보호자, 지도자(교사) 간 상시적 소통, 협의’가 6.6%이며, 이어서 ‘교육, 활동 계획 시 부모, 전문가 간 협의, 참여 보장’이 6.2%로 나타남.



(그림 V-56) 응답자와 매개자의 관계성에 대한 기대효과

- 응답자와 매개자 간 관계성 전체는 평균 2.90점으로 나타나 중간인 3점보다 다소 낮음. ‘보호자, 지도자(교사) 간의 상시적 소통과 협의’는 3.00점, ‘교육, 활동 운영 중 부모 참여 보장’은 2.87점, ‘교육, 활동 계획 시 부모, 전문가 간 협의, 참여 보장’이 2.81점으로 3점보다 낮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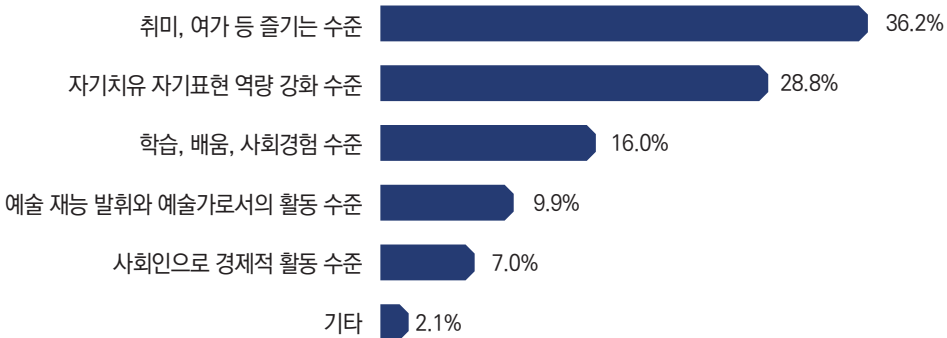


(그림 V-57) 응답자와 매개자의 관계성에 대한 기대효과 평균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1.040 / 1.097 / 1.079 / 1.107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 수준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수준의 경우 ‘취미, 여가 등을 즐기는 수준’이 36.2%, ‘자기 치유 자기표현 역량 강화 수준’으로 기대하는 비율은 28.8%로 나타남.
- ‘학습, 배움, 사회경험 수준’은 16.0%, ‘예술 재능 발휘와 예술가로서의 활동 수준’은 9.9%, ‘사회인으로 경제적 활동 수준’은 7.0%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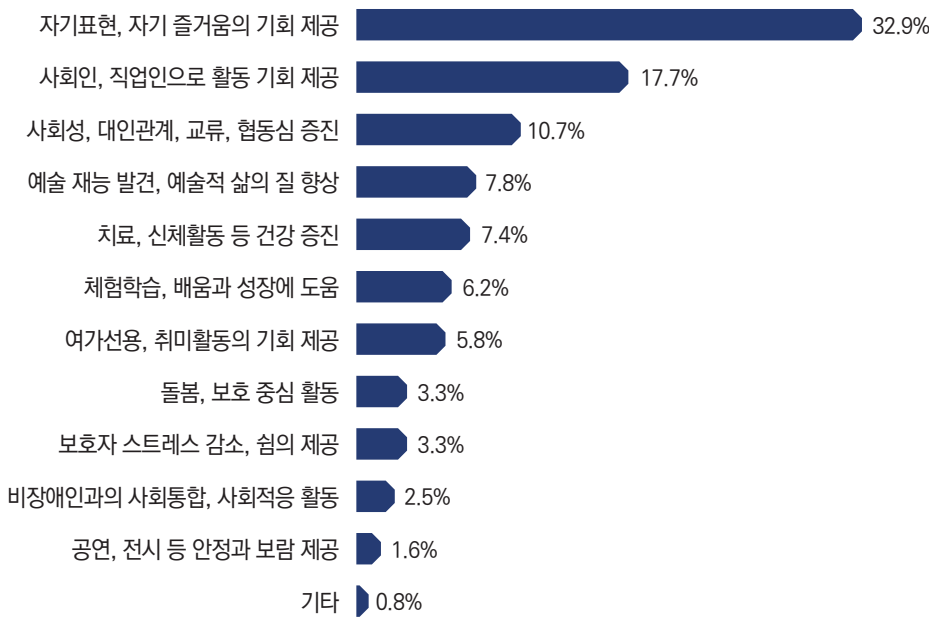


(그림 V-58)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 수준

(3) 문화예술교육 추진 방향성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 1순위의 경우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은 32.9%,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이 17.7%,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심 증진’이 10.7%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돌봄, 보호 중심 활동’은 3.3%에 불과하였으며, ‘공연, 전시 등 안정과 보람 제공’도 1.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응답수 : 243개)

(그림 V-59)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1순위 포함, 복수응답)

-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방향에 대한 복수응답의 경우, 1인당 평균 2.193개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이 50.6%,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심 증진’이 33.3%,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이 27.2% 순으로 1순위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남.

<표 V-15>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1순위 포함,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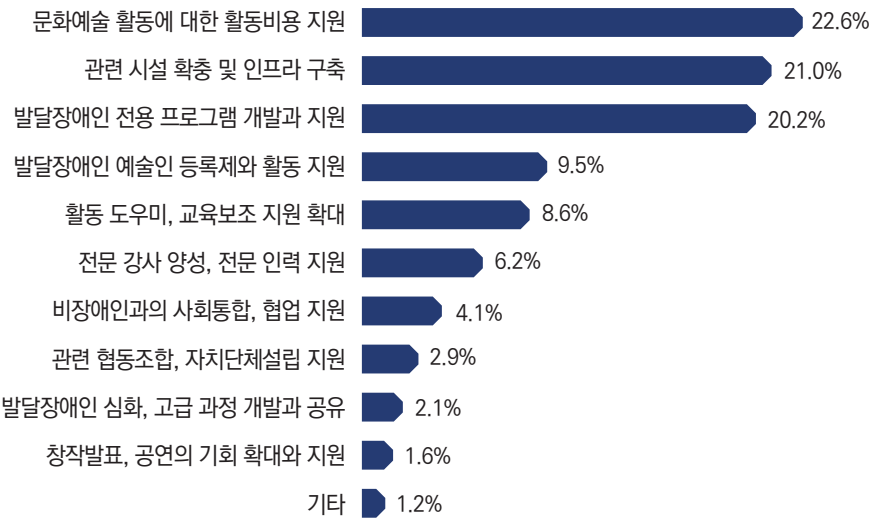
구분	응답수(N)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돌봄, 보호 중심 활동	18	3.4%	7.4%
치료, 신체활동 등 건강 증진	45	8.4%	18.5%

구분	응답수(N)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예술 재능 발견, 예술적 삶의 질 향상	45	8.4%	18.5%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	123	23.1%	50.6%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심 증진	81	15.2%	33.3%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	44	8.3%	18.1%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	66	12.4%	27.2%
비(非)장애인과 사회통합, 사회적응 활동	34	6.4%	14.0%
공연, 전시 등 안정과 보람 제공	21	3.9%	8.6%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	32	6.0%	13.2%
보호자 스트레스 감소, 쉼의 제공	22	4.1%	9.1%
기타	2	0.4%	0.8%
합계	533	100.0%	219.3%

*케이스백분율은 분석에 사용된 243명의 데이터 중 각각의 빈도가 차지하는 비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활동비용 지원’이 22.6%, ‘관련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이 21.0%, ‘발달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20.2%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수 : 24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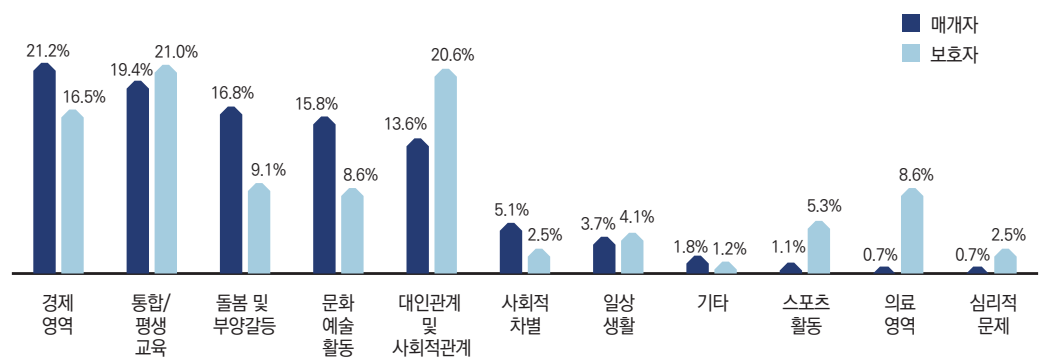
(그림 V-60)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

4. 보호자와 매개자 공통 질문 분석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어려운 문제 비교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운 문제 1순위

-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문제 중 ‘스포츠활동’의 경우 매개자는 1.1%로 매우 낮은 반면에 보호자의 경우 5.3%로 조금 더 높은 비율임. 반면에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보호자는 8.6%였으나 매개자는 15.8%로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함.
- 그 외 매개자는 ‘경제영역’, ‘돌봄 및 부양갈등’ 등에서 보호자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보호자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 ‘의료영역’을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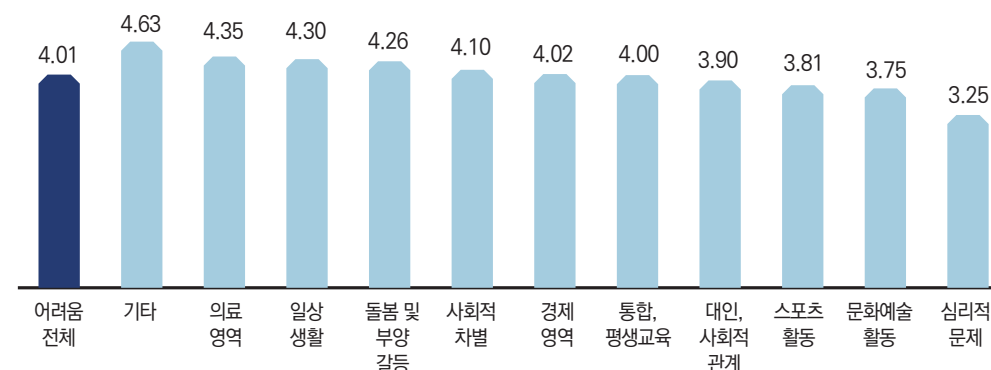


(응답수 : 보호자 243개, 매개자 273개)

(그림 V-61)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문제 1순위

■ 응답자 통합 어려움 정도에 대한 평균 비교

-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문제별 정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스포츠활동’은 3.81점, ‘문화예술 활동’은 3.75점으로 나타나 어려움 정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하여 어려운 정도는 낮은 수준임.



(응답수 : 보호자 243개, 매개자 27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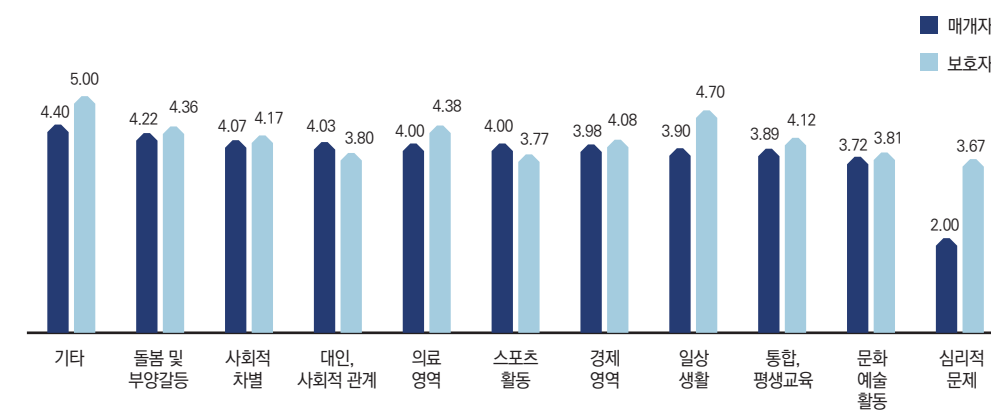
(그림 V-62) 응답자 통합 어려움 문제 정도의 평균 비교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0.732 / 0.714 / 0.518 / 0.733 / 0.563 / 0.641 / 0.763 / 0.850 / 0.834 / 0.777 / 1.581

- 특히, ‘통합, 평생교육’이 104명에 4.00점인 것을 고려하면, 통합, 평생교육의 한 축으로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응답자별 어려움 정도에 대한 평균 비교

-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문제별 정도를 응답자별로 비교함. ‘스포츠활동’의 경우 매개자는 4.00점이나 보호자는 3.77점으로 매개자가 조금 더 어려움이 높다고 평가함. 반면에 ‘문화예술 활동’에서는 보호자가 3.81점으로 매개자의 3.72점보다 더 어렵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응답수 : 보호자 243개, 매개자 273개)

(그림 V-63) 응답자별 어려움 문제의 정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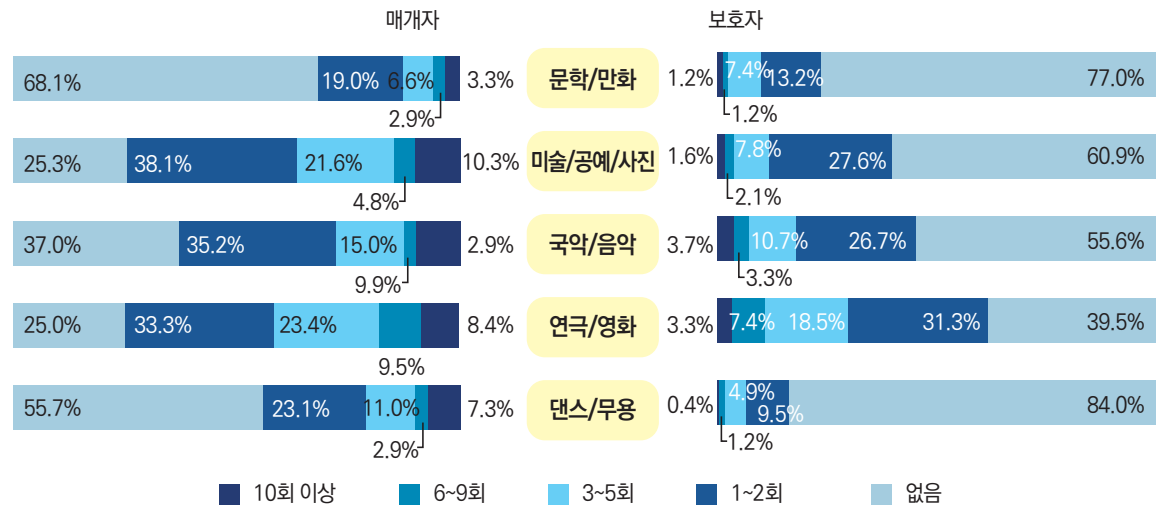
*매개자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0.737 / 0.548 / 0.513 / 0.616 / 0.645 / 0.000 / 1.000 / 0.737 / 0.737 / 0.738 / 0.751 / 0.854 / 1.414

*보호자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0.828 / 0.000 / 0.483 / 0.740 / 0.658 / 0.753 / 0.765 / 0.730 / 0.828 / 0.602 / 0.969 / 0.832 / 1.506

2) 문화예술교육의 관람 및 참여 비교

■ 문화예술교육 관람 경험 비교

- 지난 2년 동안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연극, 영화’의 관람 경험을 보면, 매개자와 보호자별로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없음’은 각각 25.3%와 39.5%, ‘1~2회’는 33.3%와 31.3%, 6회 이상은 17.9%와 10.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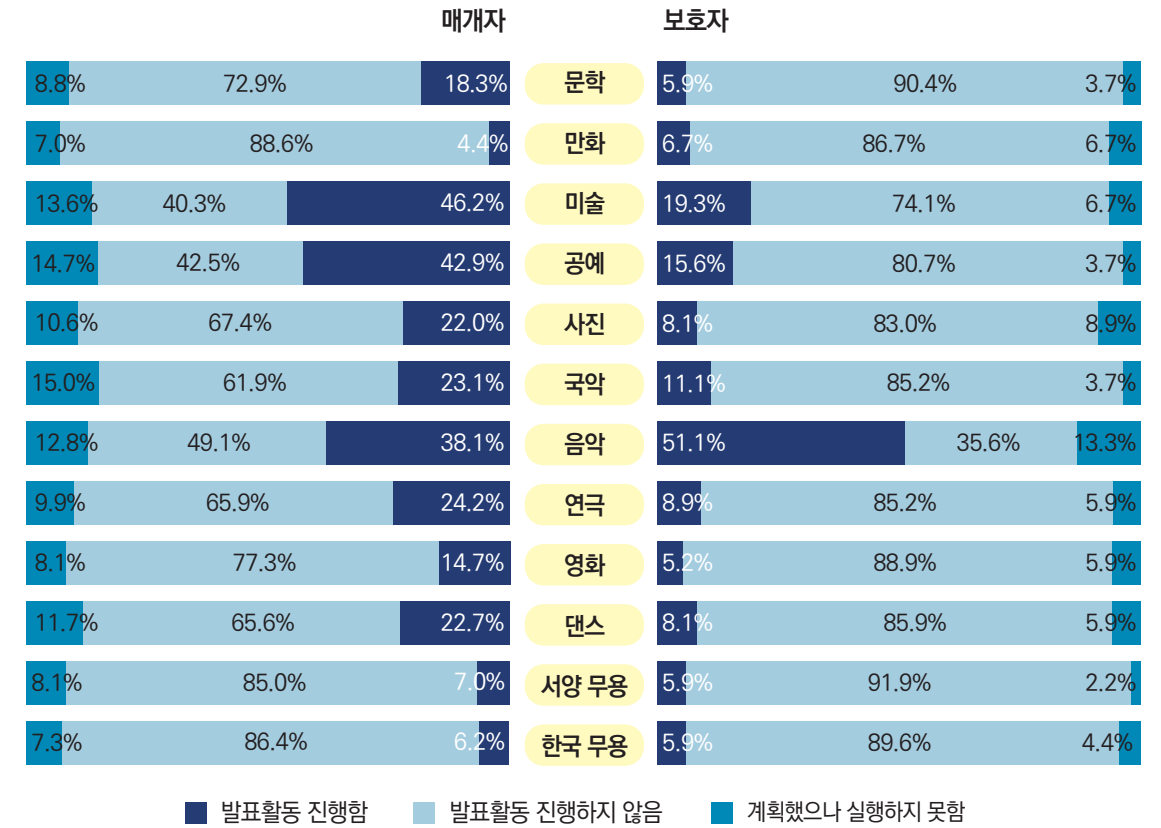


(응답수 : 보호자 243개, 매개자 273개)

(그림 V-64) 응답자별 문화예술교육 관람경험 비교

■ 문화예술교육 발표 활동 비교

- 문화예술교육 발표활동 진행에 대한 응답에서 매개자가 많이 답변한 항목으로는 ‘미술’ 46.2%, ‘공예’ 42.9%, ‘음악’ 38.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보호자가 많이 답변한 항목으로는 ‘음악’이 51.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어서 ‘미술’이 19.3%, ‘공예’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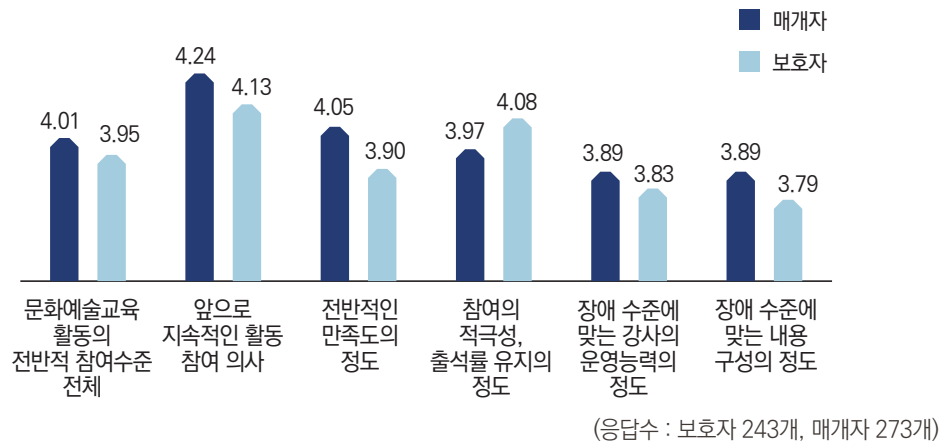


(응답수 : 보호자 135개/미참여 138, 매개자 273개)

(그림 V-65) 응답자별 문화예술교육 발표활동 비교

■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전반적인 만족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전반적 참여 수준 전체’의 경우 매개자는 4.01점인 반면에 보호자는 3.95점으로 매개자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참여로 평가함.
- ‘전반적인 만족도의 정도’의 경우 매개자는 4.05점인 반면에 보호자는 3.90점으로 매개자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참여로 평가함.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 참여 의사’에 대한 평가의 경우 매개자는 4.24점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면에 보호자는 4.13점으로 매개자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참여로 평가함.
- 이외에도 다른 영역에서도 매개자는 보호자보다 발달장애인의 참여수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보호자는 긍정적이기는 하였으나 매개자보다 낮게 평가함.



(그림 V-66) 응답자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만족도 평균

*매개자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0.723 / 0.805 / 0.832 / 0.764 / 0.853 / 0.899
*보호자 표준편차 왼쪽부터 차례로 1.053 / 1.130 / 1.188 / 1.102 / 1.141 / 1.133

3) 문화예술교육의 영향 및 정책방향

(1)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영향

■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긍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의 매개자와 보호자의 평가 수준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6〉 응답자별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요인

응답자	매개자		보호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돌봄, 보호의 기회 제공	3.47	0.985	2.79	1.174
치료, 신체활동 등 건강 증진	3.64	0.897	3.05	1.169
예술 재능 발견, 예술적 삶의 질 향상	3.73	0.932	3.08	1.257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	4.29	0.768	3.29	1.178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성 증진	4.11	0.820	3.18	1.175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	4.03	0.846	3.26	1.191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	3.36	1.045	2.87	1.253
비(非)장애인과 사회통합, 사회적응 활동	3.49	0.974	2.81	1.177
공연, 전시 등 인정과 보람 제공	3.69	0.948	2.86	1.212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	4.12	0.844	3.15	1.229
보호자 스트레스 감소, 심의 제공	3.86	0.927	3.18	1.163
문화예술교육 활동 긍정적 요인 전체	3.80	0.673	3.05	1.051

-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요인 전체의 경우 매개자는 3.80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반면에 보호자는 3.0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함.
-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의 경우 매개자는 4.29점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반면에 보호자는 3.29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하여 차이가 작지 않음.
-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성 증진’의 경우 매개자는 4.11점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반면에 보호자는 3.18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하여 매개자가 긍정적 요인을 더 큰 것으로 평가함.
-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의 경우 매개자는 4.12점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반면에 보호자는 3.15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외에도 ‘돌봄, 보호 기회의 제공’, ‘치료, 신체활동 등 건강 증진’, ‘예술 재능 발견, 예술적 삶의 질 향상’,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 등 모든 영역에서 매개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 보호자 중 문화예술교육 참여경험 여부별 긍정적 요인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문화예술교육 긍정적 요인을 참여활동 여부별로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참여활동을 하는 보호자의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 요인 전체’의 경우 참여성의 평가는 3.47점으로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불참자는 2.51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음. 특히, ‘예술 재능의 발견, 예술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는 참여성이 3.63점으로 긍정적인 반면에 불참자는 2.40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험에 따른 차이 여부로 볼 수 있음.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도 참여성의 긍정적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남.

〈표 V-17〉 보호자 중 현재 참여 여부에 따른 긍정적 요인 비교

응답자	매개자		보호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돌봄, 보호의 기회 제공	2.49	1.123	3.04	1.162
치료, 신체활동 등 건강 증진	2.59	1.119	3.41	1.081
예술 재능 발견, 예술적 삶의 질 향상	2.40	1.152	3.63	1.056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성 증진	2.57	1.154	3.67	0.946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	2.62	1.190	3.78	0.912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	2.31	1.098	3.32	1.189
비(非)장애인과 사회통합, 사회적응 활동	2.35	1.113	3.18	1.099

공연, 전시 등 인정과 보람 제공	2.31	1.099	3.30	1.120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	2.63	1.197	3.57	1.090
보호자 스트레스 감소, 심의 제공	2.69	1.181	3.57	0.989
문화예술교육 활동 긍정적 요인 전체	2.51	1.053	3.47	0.834

■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에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시 어렵거나 불편한 점의 경우 2개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외 전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음.
- ‘교통, 이동수단의 불편함’에 대하여 매개자는 3.64점으로 다소 그렇다고 평가하였으며, 보호자는 3.40점으로 매개자보다는 어려움을 낮게 평가함. ‘지속적인 성장, 레벨업 기회 부족’에 대하여 매개자는 3.59점이었으나 보호자의 경우 3.79점으로 평가하여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8〉 응답자별 문화예술교육 시 어렵거나 불편한 점

응답자	매개자		보호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어려움, 비용부담의 문제	3.53	0.919	3.70	0.944
교통, 이동수단의 불편함	3.64	0.902	3.40	0.980
연습·활동 공간 부족, 시설의 부족	3.63	0.954	3.69	1.008
프로그램 수, 기획의 부족(장기대기)	3.69	0.849	3.72	1.022
지속적인 성장, 레벨업 기회 부족	3.59	0.903	3.79	1.001
장애특성 맞춤형 교육, 활동의 부족	3.80	0.903	3.72	1.062
강사의 질, 장애이해 강사의 문제	3.31	0.912	3.36	1.102
공연, 전시 등 표현의 기회 부족	3.52	0.936	3.61	1.071
도우미 부족, 활동보조인 문제	3.44	0.914	3.51	1.058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어려움 전체	3.58	0.627	3.60	0.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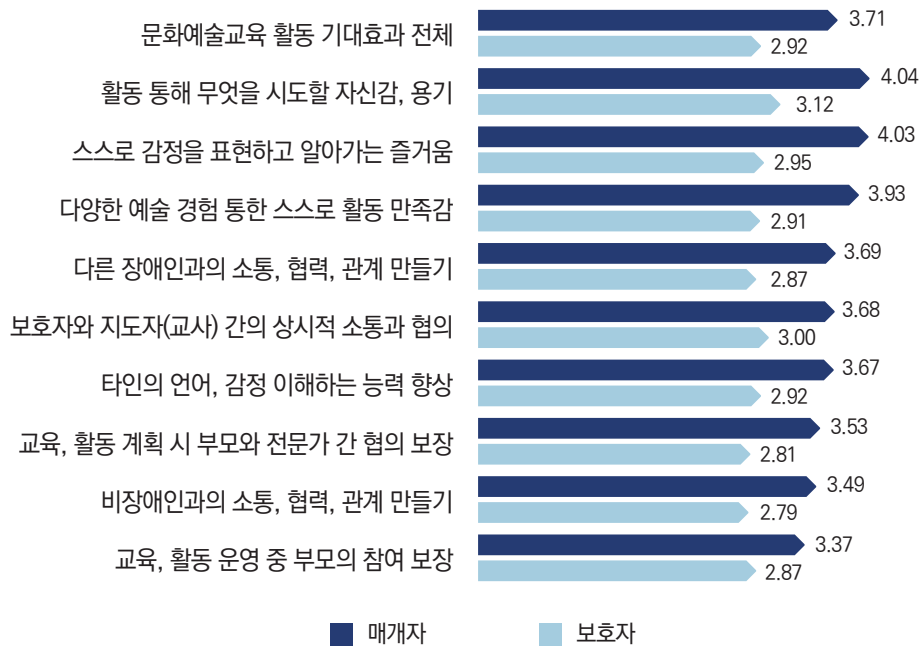
(2) 문화예술교육 기대효과 및 정책방향

■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에 경우 모든 영역에서 매개자와 보호자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의 경우 매개자는 3.71점으로 다소 긍정적으

로 평가한 반면에 보호자는 2.92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매개자보다 기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스스로 감정표현하고 알아가는 즐거움’의 경우 매개자는 4.03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보호자는 2.95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매개자의 기대효과가 매우 높았음.
- ‘다양한 예술 경험 통한 스스로 활동 만족감’의 경우 매개자는 3.93점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보호자는 2.91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매개자보다 기대효과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활동 통해 무엇을 시도할 자신감, 용기’의 경우 매개자는 4.04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보호자는 3.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여 매개자의 기대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장애인과의 소통, 협력, 관계 만들기’의 경우 매개자는 3.69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보호자는 2.87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매개자보다 기대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타인의 언어, 감정 이해하는 능력 향상’도 매개자가 더 높았으며, ‘비(非) 장애인과의 소통, 협력, 관계 만들기’를 비롯하여 ‘교육 활동 계획 시 부모와 전문가 간 협의 보장’, ‘교육 활동 중 부모의 참여 보장’, ‘보호자와 지도자(교사) 간의 상시적 소통과 협의’ 등에 있어서도 매개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응답수 : 보호자 243개, 매개자 27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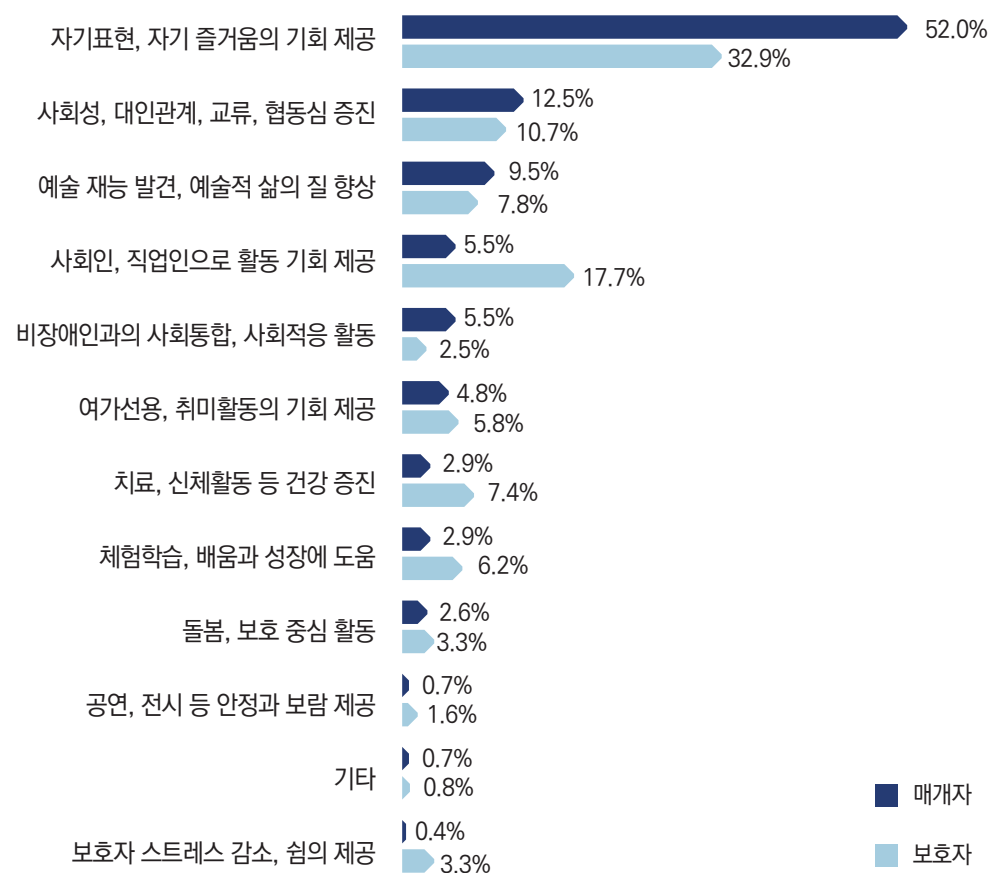
(그림 V-67) 응답자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매개자 표준편차 위부터 차례로 0.656 / 0.774 / 0.754 / 0.799 / 0.845 / 0.959 / 0.909 / 0.908 / 0.996 / 0.898

*보호자 표준편차 위부터 차례로 1.017 / 1.197 / 1.151 / 1.187 / 1.120 / 1.119 / 1.104 / 1.107 / 1.079 / 1.097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 1순위에 대해 매개자와 보호자 간의 응답 분포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의 경우 매개자는 52.0%나 선택하였으나, 보호자는 32.9%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임.
- 또한, ‘예술 재능 발견, 예술적 삶의 질 향상’도 매개자가 9.5%로 보호자의 7.8%보다 미세하게 높았음.
- 반면에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은 보호자가 17.7%로 나타났으나, 매개자는 5.5%에 불과하여 부모들의 정책반영 기대가 더 높게 나타남.
- ‘치료, 신체활동 등 건강 증진’의 경우 보호자는 7.4%인 반면에 매개자는 2.9%로 조금 더 낮았으며,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의 경우도 보호자가 6.2%로 매개자의 2.9%보다 조금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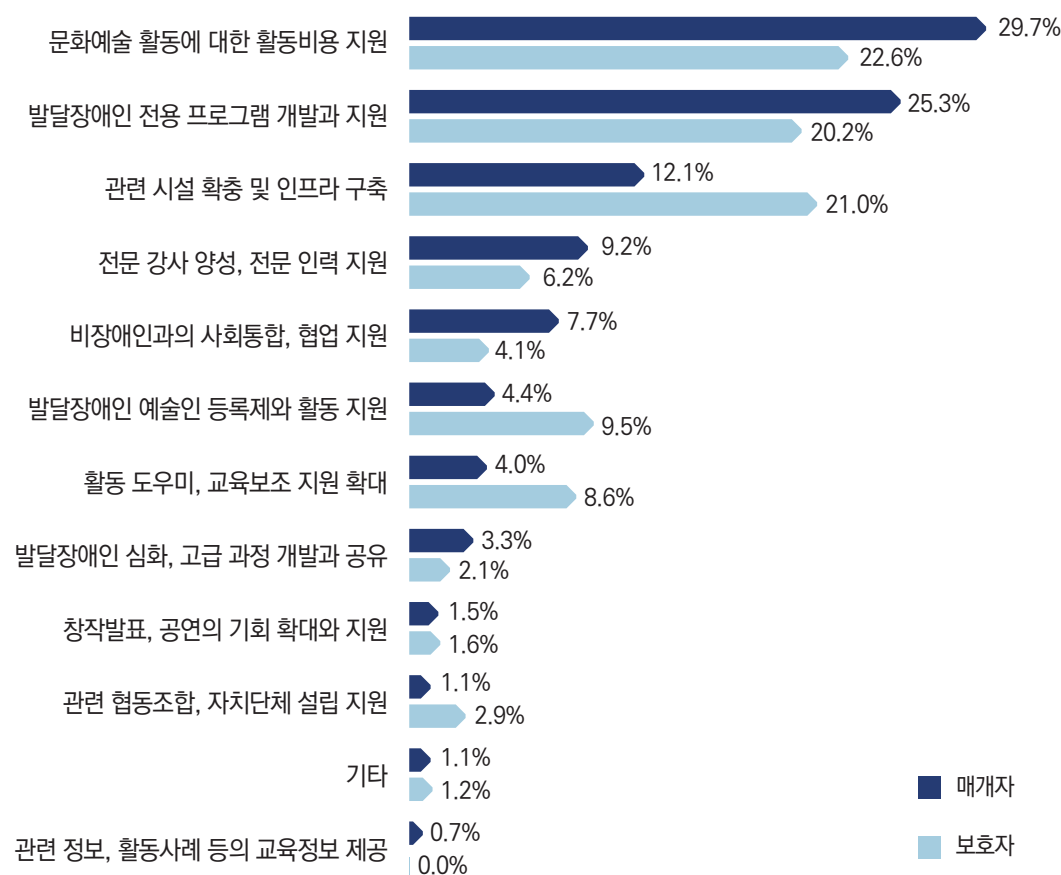


(응답수 : 보호자 243개, 매개자 273개)

(그림 V-68) 응답자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활동비용 지원’의 경우 매개자는 29.7%인 반면에 보호자는 22.6%로 약간 낮은 비율임. ‘발달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의 경우도 매개자가 25.3%였으나 보호자는 20.2%로 낮은 비율임.
- 반면에 ‘관련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호자는 21.0%나 되었으나 매개자는 12.1%로 낮게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 예술인 등록제와 활동 지원’에서도 보호자는 9.5%로 나타나 매개자의 4.4%보다 높게 나타남.



(응답수 : 보호자 243개, 매개자 273개)

(그림 V-69) 응답자별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³⁸⁾

■ 전반적인 만족도 상관관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수준 하위 변수 간 상관관계수는 모두 0.7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의 정도’의 경우 ‘장애 수준에 맞는 강사의 운영능력 정도’(r=0.836)와 ‘장애 수준에 맞는 활동내용 구성 정도’에 대한 평가(r=0.805)와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둘이 만족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장애 수준에 맞는 활동내용의 구성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장애 수준에 맞는 강사의 운영능력 정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r=0.851) 강사 운영능력과 장애 수준에 맞는 활동 구성 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함.
- 특히, 강사의 운영능력은 만족도와 활동내용 구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 수준에 맞는 강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V-19〉 전반적인 참여수준 상관관계

구분	참여의 적극성, 출석을 유지의 정도	장애 수준에 맞는 활동내용 구성의 정도	장애 수준에 맞는 강사의 운영능력 정도	전반적인 만족도의 정도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 참여 의사
참여의 적극성, 출석을 유지의 정도	1.000	.733***	.716***	.753***	.786***
장애 수준에 맞는 활동내용 구성 정도		1.000	.851***	.805***	.724***
장애 수준에 맞는 강사의 운영능력 정도			1.000	.836***	.717***
전반적인 만족도의 정도				1.000	.803***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 참여 의사					1.000

* p<0.05, ** p<0.01, *** p<0.001
통제변수 N=513 통제변수- 응답자(실태/육구조사)

38) 상관관계는 두 변수간의 상관성에 대한 수량화된 정보로 0.00~1.00 사이의 값을 갖는다. 1은 완벽한 관계로 직선적 관계이며, 0은 아무런 연관성을 알 수 없는 경우로 ∩, U, —, | 등과 같은 분포로 나타난 경우 등이 예이다. 상관관계는 +와 -의 방향을 갖는데, +는 두 변수의 값이 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는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관계의 크기는 절댓값 기준으로, 0.2 미만이면 거의 없다, 0.2~0.4 미만이면 약하지만 있다(있지만 약하다), 0.4~0.6 미만은 다소 높다, 0.6~0.8 미만은 높다, 0.8 이상은 아주 높다고 해석한다.

■ 긍정적 요인 상관관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긍정적 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제공’(이하 자기 즐거움)과 ‘사회성, 대인관계/교류, 협동성 증진’(이하 대인관계)이 0.83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대인관계의 긍정적 경험은 자기 즐거움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하 체험학습)의 경우 ‘대인관계’(r=0.816), ‘자기 즐거움’(r=0.795)과도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이하 여가선용)은 ‘체험학습’(r=0.770), ‘자기 즐거움’(r=0.766), ‘대인관계’(r=0.755)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로 볼 수 있음.
- 또한, ‘비(非)장애인과 사회통합·사회적응 활동’(이하 사회통합)의 경우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기회 제공’(이하 직업인 활동)과의 상관관계수가 0.752로 나타나 사회통합에 긍정적일수록 ‘직업인 활동’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공연·전시 등 인정과 보람 제공’(이하 인정과 보람)과의 상관관계수도 0.735로 나타나 ‘사회통합’이 긍정적일수록 ‘인정과 보람’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경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보호자의 스트레스 감소, 삶의 제공’(이하 보호자 삶)의 경우 ‘여가선용’(r=0.735), ‘체험학습’(r=0.731), ‘대인관계’(r=0.712)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선용’이나 ‘체험학습’, ‘대인관계’ 등 사회성 활동을 통해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표 V-20〉 긍정적 요인 상관관계

구분	돌봄, 보호의 기회 제공	치료, 신체 활동 등 건강 증진	예술재능 발견, 예술적 삶의 질 향상	자기 표현, 자기 즐거움 기회 제공	사회성, 대인관계/교류, 협동성 증진	체험 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	사회인, 직업인 활동 기회 제공	비(非)장애인과 사회 통합·적응 활동	공연·전시 등 인정과 보람 제공	여가 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	보호자 스트레스 감소, 삶의 제공
돌봄, 보호의 기회 제공	1.000	.679***	.474***	.494***	.500***	.540***	.535***	.519***	.536***	.517***	.660***
치료, 신체활동 등 건강 증진		1.000	.604***	.623***	.615***	.622***	.598***	.544***	.545***	.632***	.648***
예술재능 발견, 예술적 삶의 질 향상			1.000	.773***	.733***	.747***	.681***	.666***	.682***	.694***	.616***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제공				1.000	.830***	.795***	.581***	.572***	.657***	.766***	.679***
사회성, 대인관계/교류, 협동성 증진					1.000	.816***	.641***	.642***	.655***	.755***	.712***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						1.000	.678***	.660***	.693***	.770***	.731***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							1.000	.752***	.692***	.616***	.623***
비(非)장애인과 사회통합·적응활동								1.000	.735***	.617***	.616***
공연/전시 등 인정과 보람 제공									1.000	.713***	.633***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										1.000	.735***
보호자 스트레스 감소, 쉼의 제공											1.000

* p<0.05, ** p<0.01, *** p<0.001
통제변수 N=513 통제변수- 응답자 (실태/육구조사)

- ‘예술재능 발견, 예술적 삶의 질 향상’(이하 예술 재능)은 ‘자기 즐거움’(r=0.773), ‘대인관계’(r=0.733), ‘체험학습’(r=0.747)과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았으며, ‘예술 재능’은 ‘자기 즐거움’이 높을수록, ‘체험학습’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어려움 상관관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어려움 하위 변수 간 상관관계 중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활동 부족’(이하 맞춤형 부족)을 많이 느낄수록 ‘지속적인 성장과 레벨업 기회 부족’(이하 성장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r=0.758).
- 또한, ‘맞춤형 부족’을 많이 느낄수록 ‘강사의 질, 장애이해 강사의 문제’(이하 강사 문제)가 크다고 느꼈으며(r=0.647), ‘강사 문제’가 크다고 느낄수록 ‘공연/전시 등 표현 기회 부족’(이하 표현 부족)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r=0.689).

- ‘프로그램의 수, 기회 부족’(이하 프로그램 부족)을 많이 느낄수록 ‘성장 부족’을 많이 느끼고(r=0.677), ‘맞춤형 부족’도 많이 느끼며(r=0.603), ‘활동공간·시설의 부족’(이하 시설 부족)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r=0.661).

〈표 V-21〉 어려움 상관관계

구분	경제적 어려움 및 비용 부담	교통, 이동 수단 불편함	시간부족 돌봄 부담 가중	활동 공간·시설 부족	프로그램 수, 기회 부족	지속적 성장, 레벨업 기회부족	장애 특성 맞춤형 교육/활동 부족	강사의 질, 장애 이해 강사 문제	공연/전시 등 표현 기회 부족	도우미 부족, 활동 보조인 문제
경제적 어려움, 비용부담의 문제	1.000	.577***	.595***	.561***	.504***	.536***	.483***	.415***	.481***	.437***
교통, 이동수단의 불편함		1.000	.624***	.447***	.420***	.451***	.456***	.380***	.409***	.471***
시간 부족, 돌봄 부담의 가중			1.000	.529***	.510***	.490***	.503***	.373***	.437***	.483***
연습·활동 공간 부족, 시설의 부족				1.000	.661***	.642***	.582***	.441***	.568***	.492***
프로그램 수, 기회의부족 (장기대기)					1.000	.677***	.603***	.429***	.621***	.512***
지속적인 성장, 레벨업 기회 부족						1.000	.758***	.543***	.693***	.553***
장애특성 맞춤형 교육/활동의 부족							1.000	.647***	.689***	.582***
강사의 질, 장애 이해 강사의 문제								1.000	.613***	.578***
공연/전시 등 표현의 기회 부족									1.000	.623***
도우미 부족, 활동보조인 문제										1.000

* p<0.05, ** p<0.01, *** p<0.001
통제변수 N=513 통제변수- 응답자 (실태/육구조사)

- ‘시설의 부족’은 다시 ‘성장 부족’으로 이어지며($r=0.642$), ‘표현 부족과’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r=0.621$). ‘교통, 이동수단 불편함’(이하 이동 불편)이 커질수록 ‘시간 부족, 돌봄 부담 가중’(이하 돌봄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r=0.624$). ‘돌봄 부담’은 다시 ‘시설 부족’으로 이어지며($r=0.529$), ‘프로그램 부족’($r=0.510$)과도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대효과 상관관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와 하위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활동을 통해 무엇인가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다(이하 자신감 얻음)고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표현하고 스스로 감정을 알아가는 즐거움’(이하 감정 알기)도 커지는 경향성이 $r=0.839$ 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신감 얻음’은 ‘다양한 예술 경험의 기회를 통해 스스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하 활동 만족감)과의 상관계수가 0.809로 상당히 높아 ‘자신감 얻음’이 많아질수록 ‘활동 만족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감정 알기’가 높아질수록 ‘활동 만족감’도 높아지는 경향성이 상당함($r=0.814$). ‘다른 사람의 언어나 감정을 이해하는 문화적 이해 능력 향상’(이하 타인 이해 능력)이 커질수록 ‘활동 만족감’도 높아지는 경향도 $r=0.733$ 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 간 상관계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V-22〉 기대효과 상관관계

구분	다양한 예술경험 통해 스스로 활동 하는 만족감	스스로 감정을 표현 하고 알아 가는 즐거움	활동 통해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 용기	타인 언어, 감정을 이해 하는 문화적 이해 능력 향상	비(非)장애 인과와의 소통, 협력, 관계 만들기	다른 장 애인과 소통, 협력, 관계 만 들기	교육/활동 계획 시 부 모와 전문가 간 협의, 참여 보장	교육/ 활동 운영 중에도 부모의 참여 보장	보호자와 교사 간 상시적 소통과 협의
다양한 예술 경험통해 스 스로 활동하 는 만족감	1.000	.814***	.809***	.733***	.614***	.588***	.633***	.556***	.618***
스스로 감정 을 표현하고 알아가는 즐거움		1.000	.839***	.764***	.630***	.658***	.668***	.557***	.648***
활동 통해 시도할 수 있 는 자신감 용기			1.000	.792***	.645***	.640***	.647***	.552***	.644***

구분	다양한 예술경험 통해 스스로 활동 하는 만족감	스스로 감정을 표현 하고 알아 가는 즐거움	활동 통해 시도할 수 있는 자신감 용기	타인 언어, 감정을 이해 하는 문화적 이해 능력 향상	비(非)장애 인과와의 소통, 협력, 관계 만들기	다른 장 애인과 소통, 협력, 관계 만 들기	교육/활동 계획 시 부 모와 전문가 간 협의, 참여 보장	교육/ 활동 운영 중에도 부모의 참여 보장	보호자와 교사 간 상시적 소통과 협의
타인 언어, 감정을 이해 하는 문화적 이해 능력 향상				1.000	.754***	.716***	.687***	.606***	.623***
비(非)장애인 과의 소통, 협력, 관계 만들기					1.000	.740***	.682***	.616***	.609***
다른 장애인 과 소통, 협력, 관계 만들기						1.000	.685***	.613***	.606***
교육/활동 계 획 시 부모와 전문가 간 협 의, 참여 보장							1.000	.810***	.745***
교육/활동 운영 중에도 부모의 참여 보장								1.000	.787***
보호자와 지 도자(교사) 간 상시적 소통 과 협의									1.000

* $p<0.05$, ** $p<0.01$, *** $p<0.001$
통제변수 N=513 통제변수- 응답자(실태/육구조사)

- ‘교육/활동의 설계 혹은 계획 시 부모와 전문가 간의 협의, 참여를 보장’(이하 계획 시 참여 보장) 할수록 ‘운영 중에도 부모의 참여를 보장’(이하 운영 중 참여 보장) 하는 경향도 높음($r=0.810$). 즉, ‘계획 시 참여 보장’이 낮으면 ‘운영 중 참여 보장’도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계획 시 참여 보장’ 정도가 높아지며 ‘보호자와 지도자(교사)의 상시적 소통과 협의’(이하 보호자와 상시 소통)도 높아지는 경향성도 높아졌으며($r=0.745$), ‘운영 중 참여 보장’이 높아지면 ‘보호자와 상시 소통’도 높아지는 경향이 적지 않았음($r=0.787$).

- ‘타인 이해 능력’이 높아지는 경우 ‘자신감 얻음’도 높아지는 경향이 컸으며($r=0.792$), ‘비(非)장애인과와의 소통, 협력, 관계 만들기’(이하 비(非)장애인과 협력)

- 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고($r=0.754$), ‘다른 장애가 있는 이들과의 소통, 협력, 관계 만들기’(이하 장애인과 협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r=0.716$).
- ‘비(非)장애인과 협력’이 긍정적일수록 ‘장애인과 협력’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r=0.740$), ‘계획 시 참여 보장’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r=0.682$).

■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들은 ‘긍정적 요인’과 ‘기대효과’로 ‘긍정적인 요인’을 높게 평가할수록 ‘기대효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r=0.729$).
- ‘전반적인 참여수준’이 적극적일수록 ‘기대효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0.605$), ‘긍정적 요인’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r=0.599$). 반면에 ‘전반적인 참여수준’ 및 ‘긍정적 요인’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움’과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V-2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전반적 참여수준	긍정적 요인	어려움	기대효과
전반적 참여수준	1.000	.599***	.118**	.605***
긍정적 요인		1.000	.175**	.729***
어려움			1.000	.119**
기대효과				1.000

* $p<0.05$, ** $p<0.01$, *** $p<0.001$
통제변수 N=513 통제변수 응답자 (실태/욕구조사)

5.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욕구조사의 시사점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현실

■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이 가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존재

- 발달장애인의 경우 넷 중 셋은 도움이 필요하며, 대부분 부모와 배우자 등이 일상생활의 도우미가 됨. 이로 인해 ‘통합, 평생교육’, ‘대인관계 및 사회적관계’와 더불어 ‘문화예술활동’에 어려움을 드러냄(그림 V-61).

- 특히, 스포츠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보호자, 매개자 모두 세 명 중 두 명 정도가 어려운 수준 혹은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응답하여 이 부분의 욕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매개자들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제영역’과 ‘통합, 평생교육’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음. ‘문화예술활동’의 어려움은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 다른 욕구에 비하여 크게 우선시 된다고 보기 어려움(그림 V-61).
- 이는 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어려움이 경제, 대인관계, 교육 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임.
-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선제 조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나, 이는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주체와 사회가 관계 맺는 방식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 집중하는 새로운 접근은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에 기초한 전환적 관점을 말하며, 이러한 전환은 기존의 비(非)장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장애, 비(非)장애 간의 경계를 넘는 포용적 사회 혁신의 내용과 이어져 있음.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람

- 보호자가 응답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련 관람 경험의 경우 ‘연극, 영화’의 경험자는 60.5%나 되었으며 매개자도 74.7%로 가장 높았음(그림 V-64).
- ‘문학, 만화’ 관련 경험은 보호자 23.0%, 매개자는 31.9%로 응답한 반면, ‘국악, 음악’ 관련은 보호자가 44.4%, 매개자가 63.0%로 응답하여 차이가 큼. ‘댄스, 무용’ 등은 보호자 16.0%, 매개자 44.3%가 관람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자의 비율이 높았음. 그러나 ‘연극, 영화’ 등에 편중 현상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V-64).
- 문화예술 관련 관람이나 체험의 접근성이 비(非)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문화예술 체험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과 장점에 따른 관심사를 발굴하고 문화예술적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이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성 확대 지원책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 발달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응답한 보호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5.6%만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44.4%는 12개의 영역 중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직접 참여하는 활동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보호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건이나 주변의 시설 및 인프라 등에 따라 참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이들도 적지 않았음.

- 실제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가 절반 수준인 것은 앞으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가장 먼저 제안한 시사점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문화예술교육에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문화적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접근성의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참여는 음악교육 활동 51.1%, 미술교육 활동 19.3%, 공예교육 활동 15.6% 등으로 다른 영역보다 높았음. 그러나 문학, 만화, 사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의 경우 열 명 중 한 명 미만으로 나타나, 편중현상이 다소 높았음. 이는 활동 욕구도 음악, 미술, 공예, 댄스 등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그림V-65).
- 매개자의 경우 1개소 당 평균 5.83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교육, 댄스교육, 국악교육, 문학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응답함. 매개자들의 관점에서는 다수의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기자들이 많으며, 수요를 맞춘 공급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제한된 참여활동은 흥미나 관심도 제한된 영역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장애를 이해하는 강사의 확보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자기 사는 지역사회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장소

- 발달장애인 참여성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참여활동 장소로는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단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비중이 높았음. 또한, 장애인 관련 협동조합, 예술전문학원, 비(非)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등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참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곳에서 참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표V-14). 이는 앞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임.
- 다양한 단체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활동내용이나 관점 등에서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보호자의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정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평가

- 발달장애인 참여성의 경우 전반적인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 참여의지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장애 수준에 맞는 강사와 활동 프로그램 내용 구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그림V-66).
- 강사와 프로그램 내용은 평가의 긍정성뿐만 아니라 만족도와도 상관관계도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남. 매개자의 경우 전반적인 참여 만족도는 평균 4점을 넘을 정도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보호자의 평가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그림V-66).
- 중요한 것은 매개자들도 장애 수준에 맞는 활동내용의 구성, 장애 수준에 맞는 강사의 운영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높은 긍정평가에 이르지 못하는 함. 이는 프로그램의 강사나 내용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호자와 유사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그림V-66).
- 이는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실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역량 있는 강사양성의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운 점

- 보호자는 문화예술교육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이나 레벨업’이 안 된다는 문제, ‘프로그램의 수, 기획의 부족’, ‘장애특성 맞춤형 교육, 활동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비용부담의 문제’, ‘연습·활동공간의 부족, 시설 부족’, ‘공연, 전시 등 표현의 기회 부족’ 등의 문제들이 나타남. 특히, 이들 어려운 점의 점수는 긍정적인 요인의 점수보다 크게 높았음(표V-18).
- 매개자의 경우도 보호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였으며, ‘장애특성 맞춤형 교육, 활동의 부족’, ‘프로그램 수, 기획의 부족(장기대기)’, ‘시간 부족, 돌봄 부담의 가중’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보호자와는 첫 번째 요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견이 많았음(표V-18).
- 특히, 매개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과정 개발이 어렵고, 발달장애인의 낮은 습득과 활용 수준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중 하드웨어적 요소는 정책적 지원에서부터 개인의 경제적 문제나 공간이나 시설 부족으로 볼 수 있음. 중요한 것은 보호자나 매개자 모두 장애특성에 맞춤형 교육이나 활동의 부족 문제가 공통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문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소프트웨어적 요소는 보호자와 매개자 또는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간에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관점과 관련된 것으로 많은 논의와 소통이 필요한 요소임.

발달장애아동 대상 프로그램에서의 진행 상 어려웠던 점은 수업 안이 아닌, 수업 밖에서였다. 나의 생각에는 ‘춤추는 예술가’(2019 서울문화재단 장애아동·청소년예술교육)의 성과발표회는 배운 내용을 외워 그대로 발표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수업 중 경험했던 과정을 통해 스스로 결정해서 발표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함께한 예술강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강사들은 발표회를 발표회답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갑자기 무엇을 움직여야 하는지 생각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준비된(외워 수행하는 동작) 동작이 있어야 참여자들이 덜 당황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참여자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음악, 또는 리듬에 움직임을 스스로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 인간의 본능을 믿고 있었다. 또한 이 수업의 목표 중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향상시키고자 했던 자기표현력 관련 수업내용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춤추기 싫으면 추지 않을 권리 또한 그들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둘째, 함께 한 예술강사들은 완성된(연습된) 동작을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항상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명의 참여자 중 2명의 학생들이 발표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를 유추해보면 우리 아이는 무대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창피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다는 부모의 일방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수업 중 활발하게 움직였던 아이더라도 발표회 당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는 항상 그 반대의 경우를 기대한다. 수업 중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눈으로, 생각으로 경험하고 학습했기 때문에 당일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할 뿐이다. 발표회를 잘 수행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선택을 하든 스스로 선택한 과정들을 누구도 미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이자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자극하여 참여자 스스로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홍혜전 / 홍댄스컴퍼니 대표 (서면인터뷰 중 요약)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대효과 및 정책방향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효과

- 발달장애인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매개자나 보호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매개자가 보호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표V-16).
- 특히, 매개자의 경우,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과 ‘여가선용,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가진 본질이 비(非)장애인

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표V-16).

- 보호자의 경우도 ‘자기표현, 자기 즐거움의 기회 제공’과 ‘체험학습,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공통적인 시선과 함께 기대치를 엿볼 수 있음(표V-16).
- 매개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성을 전 영역에서 평균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본 반면, 보호자는 ‘돌봄, 보호의 기회 제공’, ‘사회인, 직업인으로 활동 기회 제공’, ‘비(非)장애인과 사회통합, 사회적응 활동’, ‘공연, 전시 등 인정과 보람 제공’에서는 평균 이하라고 응답함(표V-16).
- 이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시 어려움으로 지목된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지속적인 레벨업, 교육기회 등의 지적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접근성과 프로그램 기회 등 제도 개선문제와 관련이 있음.
- 발달장애인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을 보호자 응답에서 살펴보면, 실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한 반면에 참여 경험이 없는 보호자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으로 응답함.
- 따라서 보호자와의 충분한 소통의 필요성, 기대에 부응하는 발달장애인의 개별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 역시, 전반적으로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매개자와 보호자간의 차이를 드러냄. 매개자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높은 반면, 보호자의 경우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 이는 발달장애에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그림V-67).
- 그림에도 문화예술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해 매개자나 보호자 모두 ‘활동 통해 무엇을 시도할 자신감, 용기’(평균 3.00점/매개자 4.04점/보호자 3.12점)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스스로 감정 표현하고, 알아가는 즐거움’(평균 3.00점/매개자 4.03/보호자 2.95점)을 꼽음(그림V-67).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대효과에서 가장 낮은 기대치는 ‘교육, 활동 운영 중 부모의 참여 보장’으로 이는 매개자나 보호자 모두 가장 낮은 기대를 드러냄. 다시 말해서 매개자나 보호자 모두 원하지 않는 것이며, 심지어 보호자는 그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임(평균 3.00점/매개자 3.37점/보호자 2.87점)(그림V-67).
- 그러나 보호자와 매개자 간의 소통과 협력 없이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 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한 강사훈련체계 개발, 보호자의 심터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인건비 및 인력 지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으로는 ‘자기표현, 즐거움의 기회 제공’이 매개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남. 보호자의 경우 ‘사회인, 직업인으로서의 기회제공’이 17.7%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매개자의 경우 이 부분은 5.5%로 상당히 낮게 나타남(그림 V-68).
- 반면, 매개자는 ‘사회성, 대인관계, 교류, 협동심 증진’이 12.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보호자는 10.7%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 의견 차이가 있었음. 그 외에는 다양한 의견으로 나타남(그림 V-68).
- 이는 매개자와 보호자간의 이해의 일치와 불일치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 문화권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함.
- 또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을 돕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매개자와 보호자 모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활동비용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두 번째로 매개자는 ‘전문 강사 양성, 전문 인력 지원’을 꼽은 반면, 보호자는 ‘관련 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을 꼽았음. 또한, 세 번째로 매개자와 보호자 모두 ‘발달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꼽음(그림 V-69).
- 이는 결국, 활동비용, 시설, 전문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숙고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간에 시너지를 내고,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VI.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안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과 목표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과제와 추진방안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안

VI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과 목표

1) 비전 설정의 배경

- 2~5장에서 제기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이슈 및 관점, 국내외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그리고, 발달장애인 실태와 욕구조사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비전체계를 수립해야 함.
-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철학적 관점과 미래 가치가 가진 함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임.

〈표 VI-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관점

구분	내용
참여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일반적인 수업에 참여한다는 이미지나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물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참여자와 예술가 혹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전환 필요
유형	- 소리, 형태, 몸짓 등 감각요소들로 세상과 만나는 것에서 예술의 의미가 있으며, 예술성은 감각적 자유로움 및 존재방식과 연관되어 3가지 유형으로 구별됨. ① 인류 유산으로서의 '예술언어'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유형 ②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예술가와 발달장애인 간의 상호작용을 포용하는 유형 ③ 발달장애인의 관심에 따라 선택하고 활동하면서 개별성을 경험하는 유형
주체	- 발달장애인의 주체성은 이들과 관계 맺는 누군가와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서로주체성'이라 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과 '서로주체'가 되는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구성할 때 표현과 소통의 증진이 일어남.

주체	① 보호자 :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소통을 도움 ② 문화예술 매개자 ³⁹⁾ : 발달장애인의 표현을 이끌어내는 촉진자의 역할 ③ 동료 : 모방하고 따라하면서도 자신의 개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의존체의 역할 ④ 기획자 : 발달장애인과 예술가 간의 전략적 행위나 사회적 활동을 돕는 역할
환경	- 발달장애인이 감각적 요소를 통해 표현, 행위, 만남 등이 가능한 환경 인식 필요 - 환경으로서의 공간은 자신을 맥락화하는 장소성으로 체화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

- 발달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포용적 관점은 좁은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 기획의 확대 등과 연관되어 있음.
- 장애인정책에서 다루는 문화예술 영역은 엄밀히 말하면,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교육정책 방향과 일치점을 가짐.
-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나 국내 새로운 시도에서는 예술을 보다 광범위하고 역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정책에 있어 이러한 관점에 주목함.
- 다시 말해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포용적 관점은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대응이며,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문화권에 기초하여 전개되어야 함을 제기함.
-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위상 특히, 장문원의 역할 수행의 관점에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설계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표 VI-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설계

구분	내용
정책의 위상	-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장애인정책의 주무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본 연구의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포지셔닝이 필요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방안을 수립하며, 그 가운데 장문원의 역할을 설계함.
정책운영 주체	-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중장기 정책방안은 문화정책의 최종 심급을 정책의 주체로 설정함. - 정책의 시행기관으로서 장문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을 배치함.

39) 5장에서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단체, 협동조합, 예술강사 등을 매개자로 정의하였음. 넓은 의미에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를 매개자로 규정할 수 있으며, 엄격한 의미에서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촉진활동에 개입하는 인력을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라고 칭함.

구분	내용
정책범위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정책의 최종 대상으로 설정함. - 또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지원인력도 정책 대상에 포함함.
정책추진 체계	- 본 연구는 문화정책의 틀 안에서 추진체계를 구상함. - 다만 과업의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제기함.
정책운영 기간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2018-2022)과 장애인 종합계획(2018-2022)은 각각 2022년까지의 법정계획임. - 그러나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 경험 이 높지 않다는 의미에서 중기(3년) 계획으로 설정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개발 영역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개발되어야 할 영역은 가치체계, 정책, 제도, 시설, 인력, 사업, 국민확산 등의 영역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연구 전반에 대한 종합을 통해 각 영역 간의 우선순위 및 층위를 세분화하여 구성하나, 비전과 미션을 통해 전략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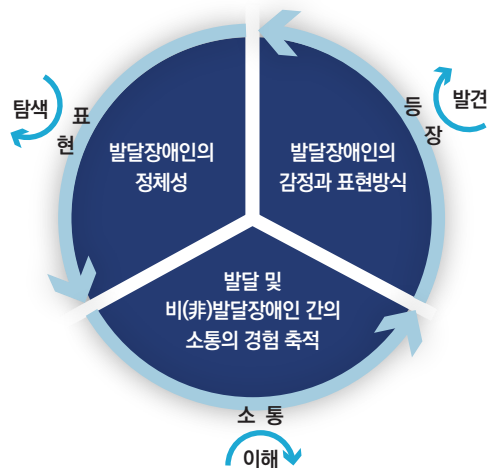
〈표 VI-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관련 개발 기능영역

구분	사업 개발 영역	중기정책
가치 체계	존재의 다양성으로서 발달장애인 인식	- 비전과 목표 설정을 통해 중기 방안 마련 - 사업운영 원리 : 발달장애인의 문화권과 자기결정권의 원리 존중
정책	일상 속 문화적 권리로서 문화예술교육 개발	- 영역 : 일상영역/ 학교영역/ 전문영역의 정책 필요
제도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장애인 정책에서 발달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보장	- 문화정책의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담론과 문화예술교육 설계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지원체계 ⁴⁰⁾ 속에 발달장애인의영역 구축 - 생활문화영역 속에 발달장애인의 영역 구축
시설	발달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시설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 생활문화시설 및 민간 문화공간과의 네트워크

40)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정책에서 '생애주기별'이라는 용어는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개념임. 개인의 욕구가 다양하게 확산될수록 그 다양성을 담은 정책적 그릇으로 '생애주기'는 매우 실용적인 기준임. 그러나 생애주기는 근대사회의 평균적 기준과 형식 속에서의 평균적 생애라는 점에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일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얻게 된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다시 시도되는 생애주기별 평균치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콘텐츠에 앞서, 발달장애인의 표현방식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이 '생애주기'적 접근에 앞서 '개별성'에 기초한 접근을 탐구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원리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원리는 발달장애인의 현재 상태와 우리사회의 인식 간의 차이에서 출발해야 함.
-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모의 절박한 기대와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발달장애인의 시선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시선을 사회적·정책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필요함.
- 때문에,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시켜야 할 대상으로서의 발달장애인이 아닌, 자기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탐색”은 문화권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리임. 비(非)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탐색”은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는 “표현”을 의미하며, “탐색”과 “표현”이 만나는 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시작됨.
-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 사이의 “표현”과 “탐색”은 비(非)발달장애인 관점에서 “발견”이기도 하고,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는 “등장”에 해당함. 이때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 “사이”라는 의미는 발달장애인과 예술가 혹은 기획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발견”과 “등장”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임.
- 이러한 “발견” 혹은 “등장”이 가능한 환경은 기존의 질서와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기획-매개-소통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비(非)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탐색”되고 “발견”된 발달장애인의 언어와 몸짓은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함. 따라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세 번째 원리는 그러한 과정과 과정의 결과를 의미하는 “소통”과 “이해”가 되어야 하며, 이는 다시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도 “소통”과 “이해”에 해당하는 활동임.
- 다시 말해서 표현-탐색, 등장-발견된 활동이 소통-이해를 통해 상호 간 신뢰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음.



(그림 VI-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운영원리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미션체계

- 이러한 인식을 기본으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발달장애인의 시선이 등장하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발달을 넘어 소통으로 마주보는 세계”를 미션으로 채택할 수 있음.
- 이러한 비전체계 속에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원리는 “표현-탐색, 등장-발견된 활동이 소통-이해를 통해 상호 간 신뢰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각 사업 영역에 작동해야 함.
- 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시설 확충, 질 좋은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영역이 비전과 미션에 수렴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목표를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증진, 토대 구축, 역량강화, 여건마련이라는 4대 정책목표로 사업을 배치함.

〈표 VI-4〉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4대 목표

정책목표	사업 배경	실천과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장기 대기를 해야 할 만큼 높은 수요 - 발달장애인 당사자 권리 활동의 확대는 더 많은 수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및 기관 발달장애인 매개 예술가 파견사업 확대 2. 유아/학령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 문화예술교육 지원확대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토대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非)발달장애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상호간 사회적 소통능력에 필요 - 학교와 일상에서 발달/비(非)발달 소통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기반 구축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유아/학령기 대상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예술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공론화가 요구됨. - 또한, 예술가, 기획자, 교사, 보호자, 기관 실무자, 행정가 등 교육 활동이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확보와 담론확장 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여건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필요 -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와 정책실행 체계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조성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확대 9. 전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 발달장애인 아틀리에 지정 운영 10. 발달장애인 문화권에 관한 법률적 구체 내용 마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미션체계 및 사업과제



(그림 VI-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비전미션체계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과제와 추진방안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과제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증진

- 첫 번째 정책목표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증진”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다양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재구성하는 것을 포함함.

- 그러나 기존의 방식과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관점과 철학이 전환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협력 기반으로서의 문체부 내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됨. 또한, 학교와 복지시설에서의 활동 전환을 위해 교육부, 복지부와와의 협력이 요구됨.
- 아울러, 예술강사에 대한 전환적 역할을 탐구하여 예술 기반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매개자 교육을 수반해야 함.

〈표 VI-5〉 정책목표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증진”의 실천과제

실천 과제	구분	내용											
1. 시설 및 기관 발달장애인 매개 예술가 파견사업 확대													
사업 취지	사업 취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복지관 등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예술가를 파견하여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지원											
	사업 목적	- 교육과정으로 설계된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개별성을 기초로 표현과 소통을 통해 매개자로서의 예술가가 사회와의 연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지원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활동이 아닌, 소수의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을 만듦. - 예술강사 파견과 같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파견사업과 유사하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구성											
	사업 방식	- 신청기관과 예술가를 사전 공모를 통해 매칭하여 배치 - 일정 기간과 시간을 상정하고 예술가에게는 인건비 지급 - 파견 예술가는 사전에 교육과정 이수 필수 - 현행 예술강사를 파견예술가의 역할로 전환하는 과정 필요											
실행 주체	실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현행 사업의 운영방식을 재구성하여 역할 수행											
	추진 프로세스	<table><tr><th>연차</th><th>추진 내용</th><th>비고</th></tr><tr><td>1년차</td><td>-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현행 사회 예술강사 파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 장애 기반 문화예술교육 예술가 교육방안 마련</td><td>- 제도 전환의 방법과 과정 설계</td></tr><tr><td>2년차</td><td>- 예술가 파견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한 확대방안 마련</td><td>- 전체 사업의 10% 수준에서 시범운영 - 파견 예술가 교육 실시</td></tr><tr><td>3년차</td><td>- 복지기관 및 시설 문화예술교육 매개 예술가 파견 사업 확대 및 평가방안 마련</td><td>- 활동 기반의 평가 체계 구축</td></tr></table>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현행 사회 예술강사 파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 장애 기반 문화예술교육 예술가 교육방안 마련	- 제도 전환의 방법과 과정 설계	2년차	- 예술가 파견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한 확대방안 마련	- 전체 사업의 10% 수준에서 시범운영 - 파견 예술가 교육 실시	3년차	- 복지기관 및 시설 문화예술교육 매개 예술가 파견 사업 확대 및 평가방안 마련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현행 사회 예술강사 파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 장애 기반 문화예술교육 예술가 교육방안 마련	- 제도 전환의 방법과 과정 설계											
2년차	- 예술가 파견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한 확대방안 마련	- 전체 사업의 10% 수준에서 시범운영 - 파견 예술가 교육 실시											
3년차	- 복지기관 및 시설 문화예술교육 매개 예술가 파견 사업 확대 및 평가방안 마련	- 활동 기반의 평가 체계 구축											
기대 효과	기대 효과	-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확장 - 개별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감정에 기초하여 활동 촉진											

실천 과제	구분	내용													
2. 유아/학령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취지	- 유아/학령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와의 소통 경험을 확대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성인 이전 단계에서 자기표현과 관계 경험의 기회를 확대													
	사업 내용	- 특수학교 혹은 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교사/보호자가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 일반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교사/보호자가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 방식	- 사업 초기 유아/학령기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1~2년 혹은 단계별 개발) - 시범사업을 통해 프로그램 고도화 및 체계적인 교사/보호자 교육방안 마련(1년) - 시범단계에서 교사 및 보호자 교육 방안이 완성되면, 유아/초등/중고등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													
	실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전반을 진행하고, 문제 부가 교육부와 협력 하에 여건 마련													
	추진 프로 세스	<table><tr><th>연차</th><th>추진 내용</th><th>비고</th></tr><tr><td>1년차</td><td>- 특수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매개자 양성 방안 마련</td><td>- 제도 전환의 방법과 과정 설계</td></tr><tr><td>2년차</td><td>- 특수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 교사 및 부모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 마련</td><td>- 5개 특수학교 시범운영 및 고도화</td></tr><tr><td>3년차</td><td>- 특수학교 시범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td><td>- 시범운영 특수학교 확대</td></tr></table>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특수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매개자 양성 방안 마련	- 제도 전환의 방법과 과정 설계	2년차	- 특수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 교사 및 부모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 마련	- 5개 특수학교 시범운영 및 고도화	3년차	- 특수학교 시범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시범운영 특수학교 확대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특수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매개자 양성 방안 마련	- 제도 전환의 방법과 과정 설계													
2년차	- 특수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 교사 및 부모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 마련	- 5개 특수학교 시범운영 및 고도화													
3년차	- 특수학교 시범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시범운영 특수학교 확대													
기대 효과	- 유아 및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제도 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확보														
3.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 문화예술교육 지원확대															
	사업 취지	-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의 다양성 확장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예술의 역할을 확장하고 이를 지원													
	사업 목적	- 다양한 환경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맥락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활동의 다양성 확보 -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닌 발달장애인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탐구와 실천을 모색하고 지원													

실천 과제	구분	내용		
	사업 내용	- 민간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실천을 통해 개별 발달장애인에 맞는 발달장애 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방식	- 시설, 동네, 골목, 온라인 공간 등 다양한 현장에서 수행되는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지원 - 연구 영역과 시범운영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 지원 - 사업 전반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연 구에 활용하고 이를 확산		
	실행 주체	- 장문원이 현행 사업의 운영방식을 재구성하여 역할 수행		
	추진 프로 세스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장문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사업을 개선하 고, 모니터링과 컨설팅 강화	- 지원 단체에 대한 사전 워크숍 실시
2년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방안을 기초로 타 장 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적용방안 강화	- 지원 단체에 대한 사전 워크숍 실시	
	3년차	-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전환적 활동 고도화	- 사업평가와 수요조사 를 통해 연차별 예산확 대 추진	
	기대 효과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실험을 확산하여 전문성 강화 - 개인과 현장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발달장애인 문화적 권리 보장 -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토대구축

- 두 번째 정책목표인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토대구축”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비(非)발달장애인과의 함께 사는 과정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이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임.
-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토대구축”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생활권에 비(非)발달장애인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환경에서 함께 경험하는 과정으로 설계해야 함.
- 이는 학교, 동네, 마을 영역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며, 전반적인 과정은 통합적이고,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 장애의 문제를 넘어, 삶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를 담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실천과제도 현재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재구성을 포함하며, 사업을 수행할 매개자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수반해야 함.

〈표 VI-6〉 정책목표2 “사회적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토대구축”의 실천과제

실천 과제	구분	내용											
4. 유아/학령기 대상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취지	- 유아/학령기 대상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의 통합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감각과 생각의 다양함과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회와의 소통 경험 에 대한 기회 확대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이 각자의 개별성을 드러내고, 서로 협력을 통해 공동의 활동을 수행 -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및 협력의 관계원리를 익힘으로써, 학령기의 건강 한 또래문화형성에 기여											
	사업 내용	- 일반 유아시설이나 학교에서 일정 기간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 수업 종료 후 교사의 후속 활동을 지원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 하여 일반 교과나 학급 관리에 반영할 수 있게 지원 -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폭력, 왕따가 없는 건강한 또래문화를 위한 부모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사업 방식	-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학령기 참여자 - 교사 - 학부모 등 참여주체 의 변화와 인식을 개선하는 방식 -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 가능성 타진 - 외국의 사례에는 통합 프로그램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분 야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 특수교육분야에서 진행한 미 국의 EASE, 예술로 시작, 호주의 Latch-On Program사례처럼 체계적인 설계를 시도											
	실행 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전반을 진행하고 문체부 가 교육부와 여건 마련											
	추진 프로 세스	<table><tr><th>연차</th><th>추진 내용</th><th>비고</th></tr><tr><td>1년차</td><td>- 발달/비(非)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의 개념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td><td>- 제도 전환의 방법과 과정 설계</td></tr><tr><td>2년차</td><td>-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td><td>- 전국 10개 학교 시범 운영 및 고도화</td></tr><tr><td>3년차</td><td>- 발달/비(非)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 램의 확대 방안 마련</td><td>- 시범운영 학교 확대 실시</td></tr></table>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발달/비(非)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의 개념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 제도 전환의 방법과 과정 설계	2년차	-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 전국 10개 학교 시범 운영 및 고도화	3년차	- 발달/비(非)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 램의 확대 방안 마련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발달/비(非)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의 개념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 제도 전환의 방법과 과정 설계											
2년차	-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 전국 10개 학교 시범 운영 및 고도화											
3년차	- 발달/비(非)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 램의 확대 방안 마련	- 시범운영 학교 확대 실시											
기대 효과	- 종합적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유아/학령기 참여자의 건강한 사 회적 소통 문화 확산에 기여 - 왕따나 학교폭력 등 혐오에 대한 감수성 증진을 통해 인간됨에 대한 인식 전환 - 제도 내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건강한 시선에 대한 환경 마련												

실천 과제	구분	내용											
5.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취지	- 일상의 공간 즉, 마을, 골목 등 일상의 문화공간을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관계망 안에서 발달장애인과 주민과의 관계 경험을 높임.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이 일상의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수행 - 프로그램의 한시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관계가 안전한 관계망으로 전 환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수행											
	사업 내용	- 문화의집 혹은 생활문화센터 및 민간 문화공간 등 일상의 문화공간에서 발 달/비(非)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으로 일상 기반 주민활동과의 결합을 통해 일상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방식	- 일상 속 문화공간 관련 중간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설의 실무자 및 매개자 교육 실시 - 프로그램이 활동으로 정착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상 활동으로 전 환될 수 있는 운영방식 개발 및 다년 지원 추진 - 일본의 사례에서 지역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 한 스윙(Swing), 야마나미 공방, 아틀리에 코나스 사례와 같은 일상 속 거점으로 작동하는 것을 기대											
	실행 주체	- 장문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매개조직을 구성 혹은 선정하여 실행 진행											
	추진 프로 세스	<table><tr><th>연차</th><th>추진 내용</th><th>비고</th></tr><tr><td>1년차</td><td>-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 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td><td>- 전국 10개 일상 문화공간 에 프로그램과 매개자 지 원(기획비) 추진</td></tr><tr><td>2년차</td><td>-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 예술교육 지원 확대 및 확대방안 마련</td><td>- 전국 20개 일상 문화공간 에 프로그램과 매개자 지 원(기획비) 추진</td></tr><tr><td>3년차</td><td>-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 예술교육 지원의 타 장애영역으로의 확대 모색</td><td>-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 확 대를 위한 예산 확보</td></tr></table>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 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 전국 10개 일상 문화공간 에 프로그램과 매개자 지 원(기획비) 추진	2년차	-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 예술교육 지원 확대 및 확대방안 마련	- 전국 20개 일상 문화공간 에 프로그램과 매개자 지 원(기획비) 추진	3년차	-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 예술교육 지원의 타 장애영역으로의 확대 모색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 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 전국 10개 일상 문화공간 에 프로그램과 매개자 지 원(기획비) 추진											
2년차	-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 예술교육 지원 확대 및 확대방안 마련	- 전국 20개 일상 문화공간 에 프로그램과 매개자 지 원(기획비) 추진											
3년차	-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非)발달 통합문화 예술교육 지원의 타 장애영역으로의 확대 모색	-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 확 대를 위한 예산 확보											
기대 효과	- 일상 속에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여 사회적 관계의 매개 역할 수행 -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찾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 세 번째 정책목표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

육에 대한 다양한 담론장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매개자, 보호자 등의 전환적 역할을 기대하며, 교육과 워크숍 등의 실천과제를 포괄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삶의 정체성이 포용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매개자, 보호자 등 관계자의 역량강화가 요구되며, 이들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을 확장해야 할 것임.
- 실제 정책목표1과 정책목표2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매개자를 비롯하여 보호자 및 관계자의 역량강화는 필수적임.
- 따라서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에 기초한 관점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세심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임.

〈표 VI-7〉 정책목표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의 실천과제

실천과제	구분	내용
6.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확보와 담론확장		
	사업 취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제고 필수 - 또한, 다양한 측면의 논의를 확장함으로써 건강한 공론화 과정을 수행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담론 구축과 현장 실천에 대한 비평의 활성화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건강한 논의 틀을 형성하여 문화예술계 및 시민적 논의과정으로서 공론장 운영
	사업 내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현장 모니터링과 비평 활성화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논의와 정보의 공유 활성화 - 사업의 성과공유 및 이슈 제기를 통한 시민 공론장 운영
	사업 방식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를 통한 실천적 내용 연구 및 다양한 이슈제기를 통한 의제 도출 - 컨설팅 및 사례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논의 방식 제공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매체 운영 -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시민 포럼 등의 운영과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
	실행 주체	- 장문원이 정기적으로 담론 구성과 확산을 위한 포럼, 웹진, 국제컨퍼런스 등을 진행

실천과제	구분	내용		
	추진 프로세스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각 사업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포럼 운영, 웹진 발간	- 전문가양성, 공론장, 매체 운영을 체계화
		2년차	- 각 사업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포럼 운영, 웹진 발간을 통해 의제 발굴	- 전문가양성, 공론장, 매체 운영으로 담론 확산
		3년차	- 각 사업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포럼 운영, 웹진 발간을 통해 의제 발굴	-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권에 대한 이니셔티브 구축
	기대 효과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 이슈 공론화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취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현장의 예술가 및 기획자의 언어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실천의 토대 공유 - 다양한 실천의 가능성을 열고, 우리사회의 맥락에 맞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활동 촉진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보호자의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역량 제고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촉진할 정보와 가치 공유		
사업 내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보호자 등 관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각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기관의 참여 촉진 -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설로 관점과 철학의 확산		
사업 방식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 전문단체에 용역을 통해 진행 - 과정에 대한 아카이빙 및 책자, 영상을 공개하여 관점과 방법의 확산 시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성 모색		
실행 주체	- 장문원이 정기적인 워크숍을 주최하거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아카데미 운영		
추진 프로세스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아카데미 시범 운영	- 매개자 대상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방안 체계화
	2년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아카데미 확대 운영	- 부모, 시설 종사자 대상 아카데미 확장과 지역 운영
	3년차	- 발달장애인 분 아니라, 장애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아카데미로 확대 운영	- 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인력 확보 과정으로 체계화
기대 효과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및 보호자 등 관계자의 역할 증대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확산과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 및 활동의 촉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여건마련

- 네 번째 정책목표인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여건마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과의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장애인 혹은 발달장애인의 문화 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은 전반적인 보편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지만, 실행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법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못함.
- 따라서 실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하고, 이를 추동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긴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정책목표로 작동해야 함.
- 이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하나의 정책 사업으로 자리 잡는 과정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장하고 질을 높여나가는 과정을 통해, 보다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함을 전제로 여건 마련의 실천과제를 상정함.

〈표VI-8〉 정책목표4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여건마련”의 실천과제

실천 과제	구분	내용					
8.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조성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확대							
	사업 취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 시스템 구축의 필요 - 장애인정책의 정책적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혁신적 포용사회의 가치를 높 이기 위해, 산발적인 활동의 효과성과 정책적 효율성 제고의 필요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 효과적인 추진체계와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초기단계인 발달장애인 문화예 술교육의 연구 및 교육, 운영관리의 효과적인 추진					
	사업 내용	- 장문원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추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센터는 프로그램 개발, 교육, 아카이브, 공유, 사업 관리, 네트워킹 기능 등을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적 운영 도모 - 사업의 범위를 발달장애인 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 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사업 방식	- 공간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센터의 필요성 공유					
	실행 주체	- 장문원 내 별도의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					
	추진 프로 세스	<table><tr><th>연차</th><th>추진 내용</th><th>비고</th></tr><tr><td>1년차</td><td>- 정책 수립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조성 방안 마련</td><td>- 장문원 조직을 확대개 편하여 부설조직으로 시범운영</td></tr></table>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정책 수립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조성 방안 마련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정책 수립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조성 방안 마련	- 장문원 조직을 확대개 편하여 부설조직으로 시범운영					

실천과제	구분	내용		
	추진 프로세스	연차	추진 내용	비고
		2년차	- 정책 수립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조성	전국적 연계체계 구축
		3년차	발달장애인 외 타 장애에 대한 사업으로 확장하여 R&D기반 구축	장애인의 문화권 확장을 위한 제반 여건구축 모색
	기대 효과	- 「새예술정책(2018-2022)」의 기초를 확산하는 전략으로서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적 성과 구축		
		-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실행기구로서의 역할 제고		

9. 전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 발달장애인 아틀리에 지정 운영

사업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해 전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 발달장애인 아틀리에 운영의 필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결함력 확장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하고 문화예술적 접근의 효과적인 추진 체계 구축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 아틀리에를 조성하여 다양한 실험과 지역적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 공간 조성비와 운영비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이자 허브로서의 역할 증대- 지역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아틀리에를 별도 공간 조성 및 민간 문화공간 지정 등 유연하게 추진- 재난시대에 맞는 시·공간적 여건을 갖추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고립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사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역 아틀리에 조성의 필요성 공유-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센터와의 연계 속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화권 보장을 위한 활동 체계화		
추진 주체	- 장문원이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지역 아틀리에 관리		
추진 프로세스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광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혹은 민간 단체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아틀리에 조성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지역에 시범운영 아틀리에 조성- 공간 조성 비용과 운영비 지원- 지자체 매칭을 통해 조성방안 마련

실천 과제	구분	내용		
		연차	추진 내용	비고
	추진 프로 세스	2년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아틀리에 시범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대 방안 마련	- 장문원의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센터가 컨설팅 지원 - 아틀리에 운영 평가를 통해 전국적 확대방안 마련
		3년차	- 전국 17개 광역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아틀리에 확대 조성 및 운영	- 일상 기반 민간 문화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광역 아틀리에와 일상의 문화공간과의 연계 및 관계망 확장
	기대 효과	- 「새예술정책2018-2022」의 기초를 확산하는 전략으로서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적 성과 구축 -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지역 거점이자 활동의 허브로서의 역할 제고		

10. 발달장애인 문화권에 관한 법률적 구체 내용 마련

사업 취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 - 법률상 선언적 존재로 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 - 장애인 -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권리 보장의 필요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 구축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하고 문화예술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사업 내용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장 활성화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 방식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법」의 제정이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개정 혹은 「문화다양성법」의 개정 등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장 활성화 - 사회적 공감을 확산하는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법제도 구축의 필요성 확산		
추진 주체	- 문체부가 법률적 구체내용에 대한 연구 및 제반 여건 마련하고 추진		
추진 프로 세스	연차	추진 내용	비고
	1년차	- 발달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 선언적 의미에서 실제적 권리 보장의 기반 마련 필요
	2년차	- 법 제정 공론화를 통해 법적 기반의 형태와 내용 확정	- 독자적인 법률 혹은 문화예술교육법이나 문화다양성법 내 개정 여부 확정 - 21대 국회 회기 내 (2020.5.30-2024.5.29) 내 제정

실천 과제	구분	내용		
		연차	추진 내용	비고
	추진 프로 세스	3년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제반 연구 추진	- 제도의 체계화
	기대 효과	- 「문화비전2030」이나 「새예술정책(2018-2022)」의 기초를 확산하는 전략으로서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적 성과 구축 - 발달장애인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포용적 사회로의 진전 도모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방안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의 전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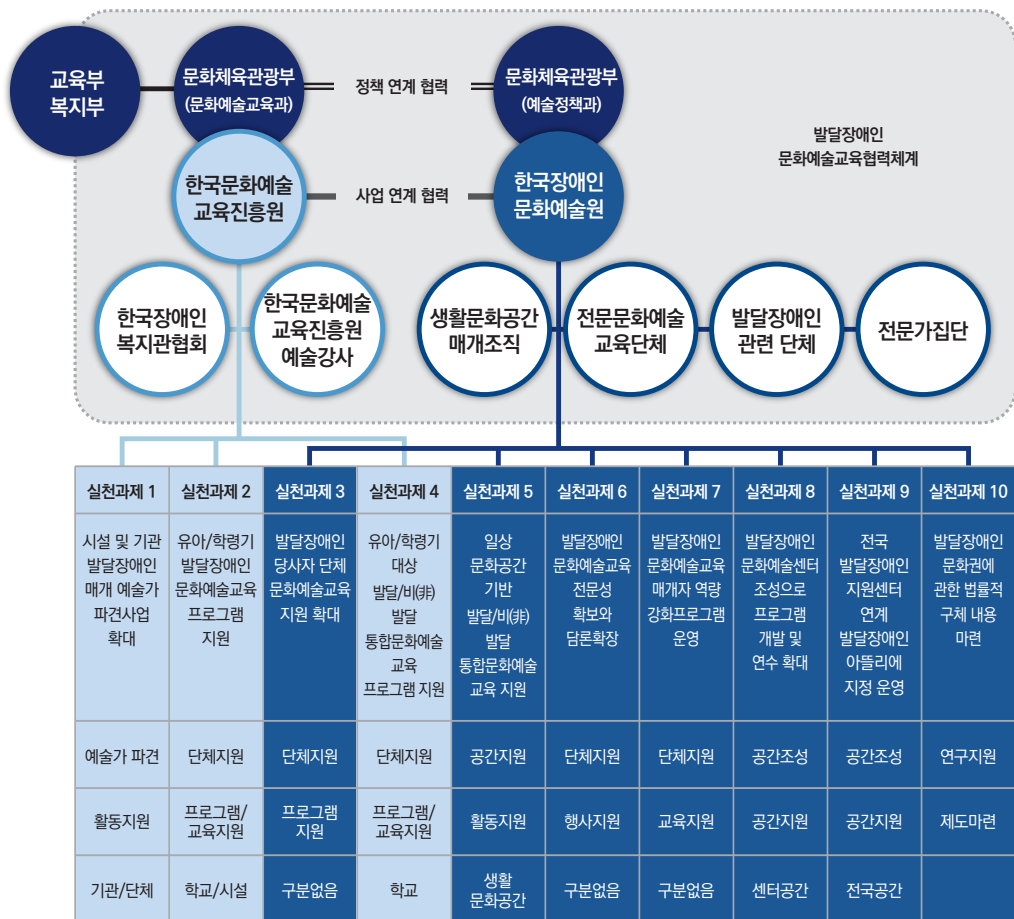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전제와 숙고가 요구됨. 우선, 발달장애인 당사자 혹은 보호자와의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정책에서 발달장애인은 부모들의 자조모임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스스로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데 높은 실천력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당사자성을 가진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이러한 당사자들과의 담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낮은 인식과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의 욕구 간에 충돌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
- 이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이슈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을 당사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에서 모아져야 하며, 정례적인 포럼 등을 통해 집단 학습과 방향 모색 과정을 설계해야 함.
- 두 번째 고려해야 할 문제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체계의 가동이 요구된다는 점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체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부가 관계된 영역일 뿐 아니라, 문체부 내에서도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장애인예술정책은 각각 분리되어 있음. 따라서 실행기관도 장문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분리되어 있어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런 의미에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독자적인 정책과 실행체계로 설계하는 것은 무리할 뿐 아니라, 역할 분담을 하거나 통합 혹은 사업을 특성화하는 방향으

로 전개되어야 함.

- 이는 정책방안이나 실행체계가 하나의 제안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 의식과 이를 토대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위한 선택 가능한 추진체계

-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다양한 협력 파트너와의 연 계와 결합을 통해 정책적 시너지를 확장해야 하는 사업임.
- 특히,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의 정책적 연계와 사업적 협력이 중요하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성과 일상 성을 장착해 나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함.
- 때문에 장문원은 이러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충원 및 재구성하고 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지역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장문원 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제도화하는 법령체계는 별도의 가칭 「장애인 문화예술지원법」의 제정이나 「문 화예술교육지원법」의 개정 혹은 「문화다양성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VI-4)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 로드맵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는 3년을 기준으로 구성하 며,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범사업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VI-9〉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 로드맵

사업목표	실천과제	비고	연차		
			1	2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기회증진	1. 시설 및 기관 발달장애인 매개 예술가 파견사업 확대	초기 3년 과정에서 예술강사지원 과 차별성을 가진 활동방식 강화	○	◎	●
	2. 유아/학령기 발달장애인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구개발과정과 시범사업을 통 해 사업모델 구축	○	○	◎
	3.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 문화 예술교육 지원확대	현 장문원의 사업 개편으로 이후 정립될 사업과 연계하여 유연하 게 재구성	●	●	●
사회적소통 을 위한문화 예술교육 토대구축	4. 유아/학령기 대상 발달/비 (非)발달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구개발과정과 시범사업을 통 해 사업모델 구축	○	○	◎
	5. 일상 문화공간 기반 발달/비 (非)발달 통합문화예술교육 지원	일상 기반 문화공간/예술가 작업 장 등을 활동공간으로 재구성	○	◎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6.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 문성 확보와 담론확장	사업 전후와 과정에서 많은 전문 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 구 성	●	●	●
	7.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매 개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관점 에 기초한 역량강화 과정 운영	○	●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여건마련	8.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조 성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확대	체계적 정책수행을 위한 허브로 서의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조성 및 운영	○	◎	●
	9. 전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 계 발달장애인 아틀리에 지정 운영	전국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계 발달장애인 아틀리에 지정 으로 전국적 연계	○	◎	●
	10. 발달장애인 문화권에 관한 법률적 구체 내용 마련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및 활 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

○ 시범사업 혹은 낮은 중요도 / ◎ 전개사업 혹은 중간 중요도 / ● 집중사업 혹은 높은 중요도

- 사업의 성과와 개선은 매년 모니터링과 평가연구를 통해 보강해 나가야 하며, 3년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장문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접근 관점, 현재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가진 추상성(본 보고서도 포함)을 극복하는 실천 과정,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사회 전환 방향 등에 맞추어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의 현실성을 중심으로 한 요구와의 충돌지점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공간-인력 연계, 발달장애인 보호자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비(非)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등 핵심사업의 안착에 노력해야 함.

3) 사업설계 과정의 주요 이슈

■ 주체성과 표현에 대한 확장된 담론 모색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발달장애인의 주체성과 표현을 확장하는 담론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비(非)발달장애인의 시선에 의해 읽혀져 왔던 발달장애인을 주체의 관점에서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시도이며, 우리사회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때문에 예술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언어를 찾아야 함.
- 이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에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정책설계, 심의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등의 전 과정에서 관철되어야 함.

〈표VI-10〉사업설계 과정 이슈1 - 주체성과 표현에 대한 담론 모색

과제	추진방안
발달장애인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非)발달장애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발달장애인의 주체성에 대한 탐구-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자조모임, 표현활동, 문화활동 등의 조사와 분석- 주체적 참여 및 표현이 문화예술 활동에서 의미화 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탐구
발달장애인의 표현에 대한 탐구와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가시적,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심층적 탐구와 사례 조사-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험 및 관찰을 통해 표현에 대한 확장된 관점이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시사점 분석- 발달장애인의 욕구, 감정, 입장 등이 중심이 되는 삶의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성 모색

■ 개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조성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적 환경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언어, 담론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모색이 필요함.
- 이러한 부분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이나 컨설팅 과정에서 비평적 관찰을 요하는 부분이며, 비평적 관찰자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설계나 분석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정책에 있어 특히 중요한 부분임.

〈표VI-11〉사업설계 과정 이슈2 - 개별성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

과제	추진방안
개별성에 대한 문화예술 관련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특성을 특수성 범주가 아닌 개개인의 다양한 성격, 성향, 특징, 개성 등 개별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화예술적 방향 탐구- 발달장애인의 참여 방식, 표현 특성, 관계 의미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층적으로 기록, 해석할 수 있는 시선 및 언어를 확장- 이를 통해 기술적 개입도를 낮추고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과 장소 확보- 시각(visual), 소리(sound), 문자(letter), 행위(performance) 언어 등 해체된 감각적, 직관적 표현요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문화예술적 방식 모색
개별성이 다양성으로 포용될 수 있는 방법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신체, 목소리, 삶 등이 다양성을 전제로 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의 발굴 및 개발 지향- 각자의 세밀한 표현언어와 방식을 실험해나가는 예술가들과의 협력 및 연구를 통해 교육적 설계를 넘어서는 예술적 프로젝트 기반의 실험 촉진- 발달장애인에게 편안함 또는 불편함을 주는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 프로그램 운영 규모 등에 대한 관점 정립

■ 매개자의 현장언어 및 역할구조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 본 연구에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관점과 방법 및 프로그램의 예시를 구성하였지만, 이는 개별 예술가 혹은 예술강사의 자기 영역에서 해석되어야 할 부분임.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정형화하여 구성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듯이 특히,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구성된 내용 자체가 실제 현장에서 다르게 구현되어야 할 상황이 많음.
- 따라서 관점과 원리를 공유하되 각 기획자나 예술강사가 현장에서 역할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으며, 정책 영역에서

- 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해석이 요구됨.
- 외국의 사례에서 맥락을 제거하고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현장을 관찰하고 이를 정책과 학문의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표 VI-12〉 사업설계 과정 이슈3 - 매개자의 역할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과제	추진방안
매개자 간 역할 구분을 통한 상호이해 및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기획자, 예술강사 외에도 부모, 활동지원사, 보조인력 등의 매개자 별로 발달장애인과의 일상적 관계 및 각자의 전문성에 대한 상호이해 기회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역할 설정 - 문화예술교육 활동 과정을 통해 매개자 간 상호적 학습 및 이해의 기회를 문화적 방식으로 마련
현장을 읽어내는 언어의 기록 및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이 개별적 속도와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현장을 장기적으로 기록하는 역할 배치 - 발달장애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방식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장기적으로 진행하여 기록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현장에서의 문화예술적 활동의 의미를 매개자가 성찰,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현장 담론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 기록을 통해 국내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담론을 위한 다양한 사례와 자료 수집 및 연구 - 개별성과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발달장애인의 특징을 반영하여 유형화된 프로그램의 확대 및 보급을 지양하고, 다양한 현장 사례의 가치와 의미를 지지하는 문화 형성. 이를 통해 현실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

VII.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방안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관점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예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방안

VII

1.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관점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운영 개요

-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프로그램 기획, 운영 경험이 있는 예술가 및 활동가의 참여로 장르적 특징을 넘어 감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비(非)장애인 중심의 일반적 표현 및 창작 행위를 넘어, 발달장애인의 표현을 바라보는 확장된 관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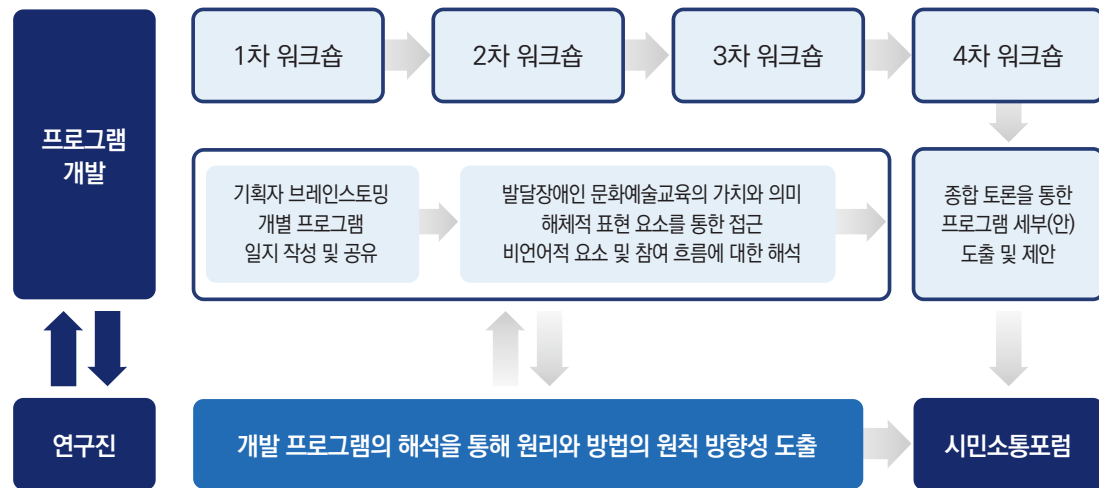
〈표Ⅶ-1〉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경험이 있는 예술가 및 활동가의 참여로 장르적 특징을 넘어 감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현장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마련
참여예술가	김인규, 김지영, 서찬석, 이재환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가별 기존 활동내용과 운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유 가능한 프로그램 일지 작성- 개별 일지 공유 및 기획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표현에 대한 다양한 관점 논의- 예술장르보다는 시각(visual), 소리(sound), 문자(letter), 행위(performance) 언어 등 감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접근

구분	내용		
워크숍 일정	1회	2020. 11. 26. (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2회	2020. 12. 5. (토)	프로그램 진행 현장에 대한 특성과 고려 요소
	3회	2020. 12. 24. (목)	프로그램의 가치와 의미, 사회적 역할
	4회	2021. 1. 5. (화)	세부 프로그램(안) 논의

■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과정

-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경험이 충분한 참여예술가의 기존 활동내용과 운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유 가능한 프로그램 일지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개별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을 진행함.
- 워크숍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표현에 대한 다양한 관점논의 및 방향성을 모색하고, 개별 일지 및 프로그램을 공유, 토론을 통해 재구성(rebuilding)함.
- 결과물에 대해 연구진이 프로그램 해석을 통해 원리와 방법의 원칙 및 방향성 도출과 프로그램 개발안에 대한 현장 공유를 진행함.



(그림Ⅶ-1)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

2)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관점

■ 사회와의 관계와 고유한 인간의 권리 간의 균형 필요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은 인간의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 다양한 문화적 경험 등이 우선시되기도는, 발달장애인의 일상관리 혹은 취약한 문화적 경험의 대안이나 해결책으로 모색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근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해소, 치유의 요소로만 문화예술교육이 배치될 경우,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이 효율성, 효과성 중심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발달장애인의 삶이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는 요소나 집합체로 전제될 경우 발달장애인의 존재나 삶 자체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할 수 있으며 변화, 발전, 해결이 필요한 상태로 인식될 수 있음.
- 이것은 장애에 대한 결핍, 손상, 한계 등과 관련한 제한된 관점을 재생산할 수 있음. 또한 예술이 갖는 다양한 질문 던지기(이를 테면, ‘장애는 결핍인가?’, ‘장애인의 삶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는 비(非)장애인의 삶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등)의 가능성도 축소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존재로서 발달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주로 어떤 기대와 요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둘째, 한 인간의 권리로서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문화예술적 경험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함.
- 사회와의 관계와 인간의 권리 측면에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한편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성을 키우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한편, 문화예술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됨.
- 이러한 시각의 차이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기획 단계에서 사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경우, 발달장애인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위한 활동,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도를 높이는 활동 등을 중심에 두게 됨. 이것은 자칫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했는지에 주목하게 만드는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삶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대상에 놓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 다른 한편, 문화예술교육 기획 단계에서 인간의 권리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의 촉진과 이를 응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개별성으로만 활동하게 됨. 이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활동으로 귀결되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복지제도의 문제, 비(非)발달장애인의 장애인식 등과 관련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와의 관계와 고유한 인간의 권리 간의 균형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상황과 문화예술교육의 근본적 의미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그 가치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음.

〈표Ⅶ-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설정의 배경

구분	사회와의 관계성 측면	인간의 권리 측면
논의점	발달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주로 어떤 기대와 요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인간으로서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문화예술적 경험이 권리로써 필요한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능개발을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함. -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울려 살아가야 함. -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야 함. - 과잉행동을 줄이거나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기술을 익혀야 함. - 적극적인 자기표현 방법을 익혀야 함. -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적 경험을 선택하거나 시도할 수 있어야 함. -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삶의 경험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기간 동안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예술적 경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 및 발언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함.
문화예술교육 기획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줄이는 활동 - 사회적 기술 및 사회성을 훈련으로 인해 줄어든 자유로운 개별 활동의 확대 및 활성화 - 수동적 학습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자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욕구와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 - 기능이나 쓸모를 목적화 하지 않는 문화예술적 활동 및 향유 기회 마련 - 공동체의 구성원 중 일부로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적 활동의 참여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만들어낼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획 필요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에서 기존의 훈련, 학습, 치료 목적의 프로그램 사이에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사회적 인식에 문화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과 내용을 보다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다시 말해서, 기존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구현되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단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행동이나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유발하게 됨.
-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발달장애인이 자유롭게 참여 및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나 요소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기관, 시설, 지역사회 등에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자기표현이 접목되어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이것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로 의미가 있음. 이는 이후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사회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영역임.



(그림Ⅶ-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만들어낼 사회 영역

■ 주체 표현에 대한 확장된 담론 모색

- 발달장애인의 주체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주체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비(非)장애인 중심적 사고로 주체성을 해석하는 것의 한계가 존재함.
- 특히, 발달장애인의 ‘적극성’ 혹은 ‘활발함’ 등을 ‘주체성’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관점은 발달장애인에게 능동적인 상태를 기대하는 것일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과 거리가 있음.
- 발달장애인의 생활은 활동지원사나 보호자 등 주변인의 개입도가 높고,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이 당사자의 의사표현을 대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인 당사자의 의사표현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보호자의 목소리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받아들이 수 있는 것인가는 주의해야 할 이슈임.

- 오히려 발달장애인의 주체성은 주변인에 의해 구성된다는 관점도 있음. 김인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제시함.

“발달장애인의 판단과 결정은 비(非)장애 영역과 마주하는 접점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주체성은 그것이 확장되거나 축소된다고 할 때, 단지 결정하는 행위에 있기보다는 결정 작용의 어떤 지점에 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 늘 비(非)장애 영역의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렇다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결정권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돌봄 혹은 배려 그리고 그 주체성 사이에는 늘 어떤 긴장 관계가 놓여 있다.”

출처 : 김인규, 「주체성의 자리」, 이음온라인, 이음광장, 재구성(2020.12.2.)

- 문화예술활동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과 관련하여 가시적이지 않은 영역에 대한 확장된 관점 및 담론이 필요함. 이에 대해 최선영은 다음과 같이 표현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함.

〈표Ⅶ-3〉 장애인의 보이지 않는 영역의 표현 구분

(1) 표현으로 들어가는 상태	(2) 표현되고 있는 상태	(3) 표현된 상태
누군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결과물을 하기까지 내면적, 정서적으로 동시/관심/의미/안정감 등을 찾고 있는 순간	누군가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게 무언가를 하는 행위 또는 과정	누군가에 의해 겉으로 드러난 결과 또는 결과물

출처 : 최선영 외, 『기대하지 않고 표현으로 만나기』, 창작그룹 비기자, 2018, 13쪽.

-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이 결과물 완성이나 기술습득이 아니라면, 장애인의 표현은 (1), (2), (3)의 영역을 골고루 살펴야 함. 보통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2), (3)의 영역이 주로 논의되며 (2)와 (3)은 겹쳐있기도 함.
- 그러나 (1)의 영역은 표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 혹은 교육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태와 동일시됨. 왜냐하면 (1)의 영역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누구든 쉽게 알 수 없으며, 그것이 얼마나 다양한 상황이나 정서, 개별 감정의 영향을 받는지 들여다보는 태도도 필요하기 때문임(최선영 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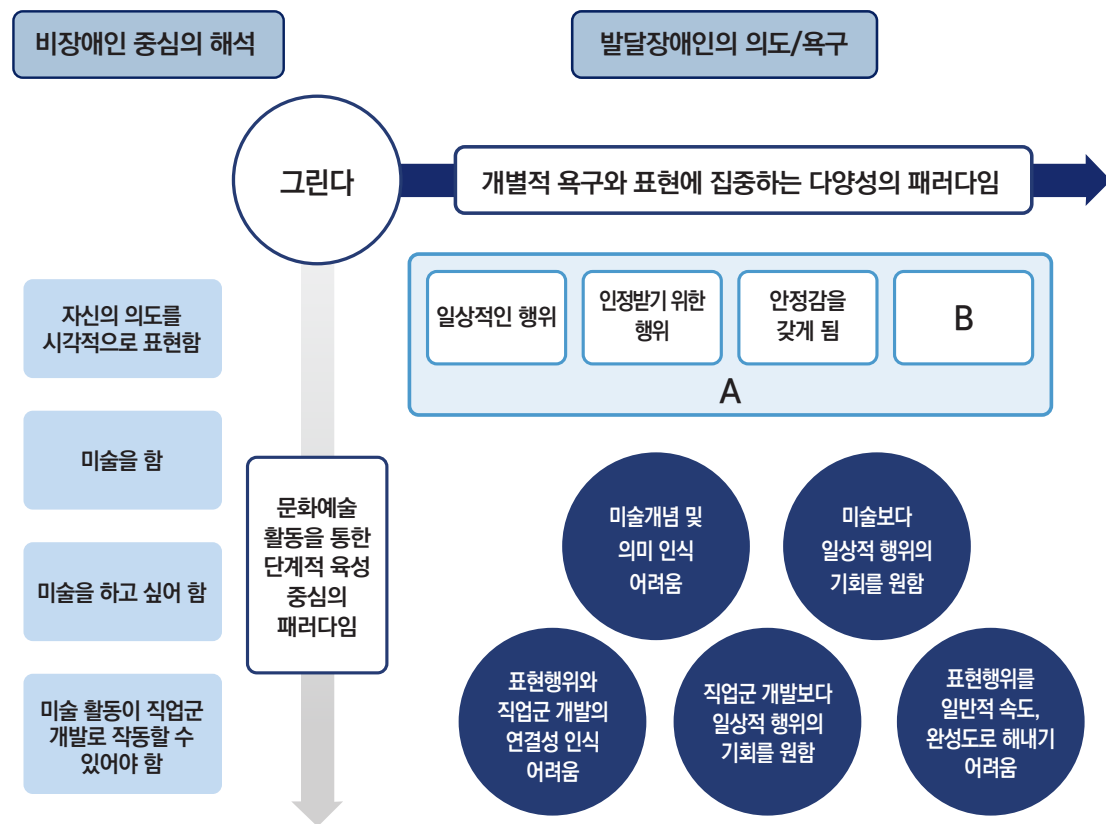
- 표현의 영역은 주체성, 주체적 표현과도 연결되는데, 최선영은 이러한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함.
- 첫째,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별개로,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격리, 보호되어 왔던 환경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가능하기 힘든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실제로는 가위나 칼로 종이를 자를 수 있는 사람도 이러한 도구를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하다보니 도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조차 하지 못함. 이렇듯, 장애인의 자발성, 주체성, 자기표현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사회적 환경이나 장치들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함.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회적 요인에 의해 표현활동, 예술행위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둘째, 사람의 표현은 넓은 범위의 표현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감각이나 속도, 생각은 물론 무정형이나 비정형의 표현활동도 표현의 방법으로 확장해야 함.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표현 행위는 무언가를 이루어 내거나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 셋째, (1)의 영역은 표현의 유무나 정도를 파악하는 해석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2)와 (3)의 영역만으로 표현의 유무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표현활동이 판단, 평가되기보다, 모호하고 불명확함에도 더욱 많은 해석과 확장의 가능성을 가진 (1)의 영역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함(최선영 외, 2018). 이와 관련한 사회적, 문화적 담론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주체성과 표현에 대한 기존 관점을 넘어서는 시도가 지속되어야 함.⁴¹⁾

■ 개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조성

- 장애유형 및 특성, 삶의 환경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개별성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임.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복지 패러다임 안에서 ‘특수성’ 중심으로 설계되고 진행되는 경향이 높음.
- 이에 따라 장애인의 개별성은 특수한 장애요소나 특성으로 전제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고유한 개인성, 개별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특별하게 다뤄야 하는 요소로 바라보는 관점임.
- 장애유형별 특성이 존재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과정에서는 특수한 상황이나 상태의 장애인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인식되어야 함.

41) 이와 관련하여 최선영은 (1)의 영역은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있으며 섞이기도 하고 구분이 모호하다고 주장함. (1)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2)나 (3)이 되기도 하며 어떤 순간에 (3)은 다음 표현을 위한 (1)이 되기도 함. 즉, (1)은 표현활동의 전제이자 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방법은 (2)와 (3)의 영역도 (1)의 범위로 인식하는 것임. 그럴 경우, 장애인 표현은 언제나 무언가가 발생되려는 상태 안에 있게 됨. 보이지 않는 영역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가능성으로 전제하는 것임(최선영 외, 2018).

- 따라서 다양한 개별성을 갖는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기본 인권에 기초한 문화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면 개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것은 사회에서 장애를 규정하고 차별해왔던 관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환경임.
- 특히,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을 기존 예술 개념으로 의미화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목적을 상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반면 비(非)발달장애인 중심의 사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표현행위를 기존의 개념으로 의미화 하여 직업 개발 등 현실적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게 됨.
- 하지만 이것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단계적 육성 중심의 패러다임이 전제된 것이며, 발달장애인의 입장이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관점임.
-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은 개별적 욕구와 표현에 집중하는 다양성의 패러다임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이것을 '그린다'라는 현상적 행위를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Ⅶ-3) '그린다'는 행위에 대한 비(非)장애인 중심의 해석과 발달장애인의 의도/욕구

- 위 그림에서 발달장애인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B영역의 맥락이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B영역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A영역이 다층적으로 모색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음.

■ 매개자의 현장언어 및 역할구조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

-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과 관련하여 매개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현장의 다양한 논의과정에서 그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매개자의 개별 활동 및 의지에 의해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들의 현장 경험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매개자에 의해 이미 축적된 현장언어를 바탕으로 풍성한 문화예술교육을 상상,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과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들이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전문가 수준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들의 상동행동이 왜 나오며, 스스로 자기 자극을 하고 있다.”는 이해라든지, “이 사람들은 시각화를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등을 알고 있고 잘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발달장애인의 주변에 많이 있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처 : 「발달장애인 대상 릴렉스드 연극 공연(Relaxed Performance) 개발 2019년 사업 - 발달장애를 만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147쪽 발췌

-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매개자는 좁은 의미에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예술 강사와 예술가를 이야기하며, 넓은 의미에서 기관과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 활동가 등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가족, 보호자, 활동지원사, 보조인력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각자의 활동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한 역할 설정을 함으로써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야 함.
- 반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훈련, 학습, 치료 목적의 프로그램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유사 프로그램 중에는 관점을 재정립하는 과정 역시 매개자들에게 요구되고 있음.

3)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관점

(1) 비(非)장애인 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목표 비교

■ 차별성

- 비(非)장애인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계적 구성, 스토리텔링 방식의 기획, 장르적 통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가 활동의 흐름 전반을 감각적으로 혹은, 인문학적으로 이해하거나 경험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기도 함.
-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단계적 활동이나 스토리텔링 방식의 내용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예술을 기존의 장르나 분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세분화하고 이 요소들을 상황과 참여자에 따라 재구성해볼 수 있음. 혹은, 몇 가지의 요소에 집중하거나 그것이 활성화되는 상황 자체를 프로그램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 유사성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비(非)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예술적 활동, 표현 활동, 문화 향유 등을 직접 경험하는 것 자체에 의미나 목적을 둘 수 있음.
- 이것은 문화예술의 비언어적 속성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가치를 폭넓게 경험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도 최소한의 예술적 표현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음.

■ 한계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비(非)발달장애인 중심의 관점에서는 다소 단순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적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울 수 있음.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자신에게 편안하거나 자연스러운 표현 도구를 선택, 실험하는 과정 자체가 프로그램의 목표가 될 경우, 그 발달장애인은 수 개월간 혹은, 그 이상 간단한 표현 재료들을 만지거나 사용해보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음.
- 이것은 이미 다양한 표현 도구를 사용해왔고, 그것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활동을 해온 비(非)장애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활동의 목표일 수 있음. 또한 이러한 목표 설정의 차이와 관련하여 이것을 보완할 담론적 언어나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중심의 개별화된 표현행위 자체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2)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과의 목표 비교

■ 차별성

-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안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장르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 및 향유하는 참여자, 프로그램 이용자로 위치되어 있음.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표도 얼마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활동(단순하거나 일상적인 행위로서의 활동 포함)을 선택하기 어려움.
- 이는 비(非)장애인 중심으로 개념화되어 있는 문화예술 활동들이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안에 내용적으로 배치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음.
- 이것은 문화 향유 차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는 차별성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개별성과 자기결정권, 표현의 기회 등을 중심에 두고 기획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제공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표현, 주체적 참여 범위의 확대 등으로 확장 모색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유사성

-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인간적 삶의 권리가 주요한 목표로 전제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한 점이 있음. 이것은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역시 일상과의 연계성이나 문화적 권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함.
- 실제, 다소 익숙하고 평범해 보이는 활동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시도되더라도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그러한 활동이 필요한 이유나 상황을 공감하는 시선이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일반적 시도를 넘어,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본질을 탐구하고 장애인 개별의 삶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차별성을 탐구해야 하는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임.

■ 한계

- 현재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서는 기존의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의 한계나 어려움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자체로 해결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음. 이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문화예술 활동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가치나 의미를 마련해나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함.

-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의 맥락에서는 충분히 하지 못했던 활동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단순한 대체 개념일 경우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이 협소화될 가능성이 있음.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대체한다는 것은 이제 실험단계에 들어선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가능성을 다층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실험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음.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끊임없이 동시대적 문화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 자체로 추구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현재 예술강사나 예술가 등이 기존의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대체 개념으로 손쉽게 간주되는 것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실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2.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형과 예시

1) 요소를 중심으로 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기획

(1) 내용적 측면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개별성”

- 개별성은 발달장애인의 속도, 성향, 특성, 관심사, 욕구 등이 최대한 반영하는 중요한 언어적 장치임.
- 일반적인 문화예술교육 형태와 달리 상황에 따라 1:1 프로그램도 적극 검토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작은 규모를 유지하여 개별성이 드러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함. 특히 이러한 형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성 자체가 프로그램의 중심축이 되거나 내용이 될 수 있음.
- 1:1 교육의 경우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성에 더욱 집중하여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함. 발달장애인이 어떤 소리에 관심을 가지는지, 어떤 상황에 불편을 느끼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 등을 세심하게 관찰한 후, 그 과정에서 발견된 요소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께 해볼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할 수 있음.
- 1:1 교육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관찰’의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임. 또한 한 명의 발달장애인 활동에 교육적, 예술적 의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만의 고유한 표현 속도가 주변의 기대나 불안감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최선영 외, 2018).

참고사례) 2019 꿈틔움 예술창작소 1:1 멘토링 지원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청년(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문가를 1:1로 매칭하는 사업임. 20명의 장애청년과 20명의 문화예술전문가가 멘티와 멘토가 되어 서로의 성장을 돕고 지원하는 관계맺음으로 진행되었음. 멘토의 20%는 장애예술인이 참여했음.
- 1:1 한 그룹 당 멘토링은 1회 2시간, 총 25회 진행됨.
- 2019년에만 진행되었으며 비영리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판’이 운영을 담당함.
- 결과자료집 원고를 통해 멘토와 멘티의 만남에 영향을 주는 일부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음.⁴²⁾

① 멘토의 예술관

“멘토가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창작자라는 존재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멘토링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② 멘티의 적극성

“멘토링이 자칫 멘토의 적극성, 전문성에 기대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보다 먼저 멘티의 태도 혹은 관심사가 멘토링 전반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멘티가 자신이 원래 하던 것만 하는 경우는 그것을 적극적 태도로 해석해야 할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멘티의 적극성을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파고드는 멘토의 또 다른 적극성이 요구되기도 했다.”

③ 1:1만남의 구조적 특성

“멘티가 멘토의 제안이나 행동에 많은 부분 의지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멘토들의 고민이 가중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개별 창작자들의 특성에 집중할 수 있는 1:1 멘토링의 장점과 달리 현실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으로 읽히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멘티가 다수 안에 묻어가기도 하고 여러 관계 안에서 자극을 받는 등의 기회가 필요해 보였다.”

■ 일상적 생활, 행동 특성과의 연계

- 발달장애인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행위, 행동 특성 등을 문화예술 활동으로 적극 의미화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개별성의 맥락과도 연결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적 행동이나 반복행위 등을 문제행동, 장애증상 등으로 분류, 판단하지 않는 문화적 시각을 확보해야 함.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자기표현의 일부로 이해, 해석될 수 있어야 함.

42) 「꿈틔움 예술창작소 1:1 멘토링지원사업 결과자료집 - 행복한 여정」, 서울특별시, 2019, 7~9쪽

참고사례) 김지영 X 최승완 작가⁴³⁾

- 길가를 다니며 줄자로 높이 측정을 하고 표지판을 그리는 최승완 작가와 이에 대한 궁금증을 따라 최승완 작가의 활동을 관찰, 기록한 김지영 작가의 사례



“승완씨, 몇 m예요?”, “5m 80cm.”

줄자를 다시 감아 옆 펜스로 옮겨간 승완 씨는 줄자를 다시 뽑아 들었다. 차르르 오르고 차르르락 떨어지기를 반복하다 간신히 펜스 끝에 걸쳐지고 줄자는 아래로 끌어 당겨진다.

“몇 m예요?”, “5m 90cm.”

차례대로 펜스의 높이를 재면서 내려왔다. 5m 80cm, 5m 90cm, 6m 10cm, 6m 아니 6m 4cm, 5m 70cm, 5m 90cm, 5m 80cm, 5m 90cm 아니 바닥까지 5m 94cm.

웃음이 났다. 불확실성에 낚시질하는 낚시꾼처럼 허공에 줄자를 쏘아 올리는 승완씨의 진지함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 무엇을 물어도 튕겨져 나오던 말이 “몇 m예요?”라는 한 문장으로 대답이 열리다니 웃음이 났다.

43) 출처 : 김지영, 최승완, 「높이로 보는 세상」, 이음온라인, 이음광장 (2020.01.09.) / 김지영, 최승완, 「같은 표지판인데 매번 다른」, 이음온라인, 이음광장 (2020.02.08.)

잠시였지만 차례대로 펜스 높이를 재면서 내려올 땐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동료 같은 율동감마저 느꼈다. 그렇게 흥제동을 돌아다녔다. 둘 다 처음 온 동네였기에 발길 가는 대로 가다 주차장이 보이면 어김없이 승완씨는 멈춰 서서 줄자를 꺼내 들고 높이를 잴다. 나는 “몇 m예요?”라고 묻고 승완 씨는 당연하게 “2m 3cm”, “2m”, “2m 1cm”라고 대답을 했다. 주차장은 대체로 2m ~ 2m 3cm 높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로등 높이를 재보기도 하고 100년 된 나무 높이를 재보기도 했다. 가로등은 4m 1cm, 401cm, 100년 된 나무는 5m, 500cm. 승완씨의 줄자는 형태가 아니라 높이로 세상을 보았다. 제각각인 듯 보이는 건물들이 높이로 보니 규칙적인 풍경으로 보였다. 승완씨와 버스정류장까지 같이 걸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2시 30분에 만날까요?”, “네.”

다음 주에는 어디로 걸어가 볼까? 마음이 들떴다.

출처 : 김지영, 최승완, 「높이로 보는 세상」, 이음온라인, 이음광장 (2020.01.09.)

■ 해체된 표현요소

-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강사 등 매개자는 발달장애인이 어떤 예술 장르에 흥미를 보이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필 수도 있으나 어떤 ‘감각’에 관심을 갖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함.
- 예술을 미술, 음악, 문학, 무용, 연극 등 장르 중심으로 구분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이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감각’으로 재분류해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미술, 음악,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과, 시각(visual), 소리(sound), 문자(letter), 행위(performance) 언어 등의 표현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음.
- 이렇게 접근할 경우, 예술은 그 자체로 인식되지 않음과 동시에 여러 ‘감각’들로 재발견될 수 있음. 그리고 그 ‘감각’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발달장애인의 표현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음(최선영 외, 2018).

■ 비언어적, 직관적 요소

- 대화나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직관적 요소에 관심을 갖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언어적인 활동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논리성, 단계성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 대신 즉흥적이고 느슨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험할 수 있음.
- 특히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언어로 의미화하기 어렵거나 그럴 필요

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비언어적 순간이나 표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활동을 모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무엇을 해내는 것 이전에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2) 방법적 측면

■ 방법에 대한 접근방식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을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함. 시간에 대한 개념, 단계적인 흐름 등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 자체, 공간 등을 더욱 직관적으로 느끼기도 함.
- 이에 따라 시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개념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함.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이 요소들의 배치, 반복, 구성, 연결, 교차 등을 통해 방법적으로 모색될 수 있으며 오직 프로그램화 되는 것만으로 모색되지 않아야 함.
- 본 연구의 틀 자체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되어있지만, 시간을 프로그램들로 쪼개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한다는 일반적인 논리의 한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 생활하는 기관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해체하거나 그 외의 시간까지 활동을 연결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당사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방법적으로도 구체화할 수 있음.

“발달장애인들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공간을 산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단선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공간처럼 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아까 이 시간이 직선적으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 속에 있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활동을 할 때 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시간상으로 일직선상의 배열이다. 반드시 시간 순서로 이동을 한다. 시간순서와 관계없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적 형태, 그것이 나는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시공간개념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작업환경도 그런 시공간개념을 갖는 작업 과정이 중요하다.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기획하는 것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그게 배리어프리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공간은 비장애인에게도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 사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다. 얽혀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인규 / 예술가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중)

■ 놀이

- 놀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과정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한 공간에서 시도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개별성을 놀이의 요소이자 참여 역할로 구성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참여자는 그 행동 자체가 역할이 되도록 할 수 있음. 계속 OO을 그리는 사람, 주변 사람을 사진으로 찍는 사람, 결과물을 분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결과물에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등 발달장애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특성을 수업의 상황적 요소로 기획할 수 있음. 놀이의 규칙이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있는 그대로 활동 안에 등장할 수 있음. 또한 누군가의 참여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범위를 줄일 수 있음.
- 발달장애인이 표현 행위 자체를 예술적 활동으로 인식하기보다 놀이적 요소로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극대화하거나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악기라는 사물에 대한 이해, 연주방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무언가를 활용해서 소리를 내보는 놀이, 다른 사람과 그 소리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함께 내보는 놀이 등으로 의미화하여 진행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참여범위를 조금씩 확장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관계 형성

- 보통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예술강사, 보조자, 실무자 등도 이들과 여러 관계를 만들게 됨. 이러한 관계 구성은 현실적으로 장애유형이나 특성보다 활동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함.
- 따라서 서로 친하거나 경계하거나 돕거나 충돌하는 등의 관계성을 반영한 진행방식도 적극 검토될 수 있음. 특히 타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거나 궁금함을 갖는 발달장애인이 있을 경우, 이들의 특성이 활동의 요소이자 촉매제가 되도록 할 수 있음. 반대로 타인이 불편해할 정도로 관심을 갖는 참여자의 경우, 이러한 행동을 문제요소로 전제하기보다 다양한 관계 중 일부로 인식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非)발달장애인과 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상호자극, 소통,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함. 비(非)발달장애인 중심의 관계맺기 방식을 가르치기보다는 다양한 자기표현, 소통의 방식이 프로그램 안에서 문화적 요소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참고사례) 비영리예술단체 ‘문화도시 고양시를 생각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프로그램 〈도화지 밖 미술여행〉

- 인터뷰 게임 : 학생들이 모두 기자가 되어 자신이 인터뷰하고 싶은 대상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질문을 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친구나 선생님을 지목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학생들은 기자처럼 변신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붙일 자신만의 방송국 로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은 꼭 로고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그림이면 충분했다. 인터뷰 장면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러한 역할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다. 카메라를 다루기 힘든 학생은 “레디, 액션!”을 외치거나 슬레이트를 치는 역할을 하는 등 모두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양화하였다. 실제 방송국처럼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터뷰 장면을 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였다.
- 밥상 놀이 :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종이에 그린 후 자신이 밥상을 차려주고 싶은 친구를 선택해 그 친구에게 종이 음식들을 활용해 밥상을 차려주었다. 학생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가벼운 알루미늄 밥상에 종이 음식을 올려놓고 친구에게 그 밥상을 가져다주었다. 상징적으로 과자를 준비하여 친구에게 진짜 음식 대신 과자를 한 개 씩 먹여주었다. 학생들은 친구의 밥상을 받기 위해 손을 번쩍 들거나 자신의 이름을 외쳤다.



- 빨래집게 놀이 : 빨래집게 수 백 개를 바닥에 널어놓고 수업참여자가 그 주변으로 둥그렇게 앉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한 명 씩 돌아가며 빨래집게를 꽂아주었다. 서로의 몸에 집게가 어느 정도 꽂히면 자연스럽게 집게를 더 많이 몸에 꽂아보며 놀이를 했다. 집게를 여러 개 연결하여 조형물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려 그 위에 집게를 연결해 새로운 작업도 시도해 보았다.

출처 : 주윤정, 「장애문화예술교육연구 : 정형과 비정형의 교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 유연성

-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쉽게 예측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정해진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다양성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행위나 상황을 허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참여자가 활

동에 대해 감각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한 규칙이나 원칙 안에서 개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유연한 관점이 필요함.

- 또한 미리 계획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참여자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반응적으로 수정, 보완, 실험하며 이어가는 것 역시 유연한 진행방식으로 볼 수 있음.

“장애예술교육이 개별성과 유연성을 모색한다는 것은, 개별적 장애 특성에 따라 교육적 처세를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개별성을 참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열린 관점과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장애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노후가 있는 경력자만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낯설 정도로 구체적인 개별성을 염두에 두고 존중하려는 유연한 사람들이 앞으로 장애예술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2019 서울문화재단 장애아동·청소년 예술교육사업 아카이빙북」, 서울문화재단, 2019, 78쪽.

■ 속도

- 참여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참여 속도가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개별적 속도를 적극 존중하는 방법론도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非)발달장애인 중심의 문화예술교육보다 더욱 넓은 스펙트럼의 속도를 포괄해야 함. 혹은 매우 느린 속도와 매우 빠른 속도 간의 차이가 훨씬 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차이가 문제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시간 안배, 공간구성, 활동의 기획 등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모두가 동일한 활동을 하지 않는 문화예술교육 기획도 검토될 수 있음.

■ 반복과 패턴, 모방과 재조합

-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장애 증상이 아닌 표현의 일부이자 방법으로 적극 초대하는 방법이 가능함.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기존의 이미지, 소리 등을 모방 및 재조합 하는 등의 활동이 여기에 속함.
-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상적 행동이 갖는 고유한 표현 방식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의 흐름, 특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음.
- 반복적 표현에 적절한 매체를 탐색해보는 활동, 반복이 만들어내는 패턴을 찾아보는 활동, 모방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활동, 기존의 데이터나 자원 등을 재조합하는 활동 등을 프로그램에서 시도할 수 있음.

■ 가상의 설정

- 간단하지만 허구적 요소가 있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발달장애인이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보는 활동을 시도할 수 있음.
- 가상의 상황은 그 상황에 놓이는 비장애인 등을 포함한 참여자 전원에게도 동등하게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음. 발달장애인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상의 설정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
- 이것은 예술적 상상력 안에서 가능한 시도이기도 함. 또한 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의 입장이나 관점을 재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진우와 이번에 여행했을 때 끊임없이 옆에서 전화로 체크를 해왔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이었고, 내가 다른 세계로 쑥 들어간 느낌이었다. 진우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진우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때로는 낯설고 어려우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 때 나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못 도와줘’ 라고 했다. 그러면 진우는 눈빛을 싹 바뀌어서 자기가 상황에 몰입했다. 상황에 따른 자기의 판단과 흥미에 의해서 여행을 하는 과정이 내가 살아왔던 시공간에서 다른 시공간으로 이끌려가는 것 같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관계가 뒤집힐 때 우리는 오히려 예술적인 새로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놀라운 체험이었다.

대천해수욕장이 우리의 목표지였으나 결국은 대천해수욕장을 못 갔다. 상행을 타야 했는데 그 시간에 오는 게 하행이어서 일단 하행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상행을 타야 하는 게 진우의 계산법이었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것이 나에 의해 조종되어왔다. 조종되지 않고 진행될 때 성취감이 훨씬 큰 것 같다.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매개자들이 뭔가를 제작하거나, 기획해야 한다는 이 위치를 박차고 나가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진우를 혼자 내보내려면 팔찌 채워야 하고, 핸드폰 충전을 해야 하고, 안전장치를 해야지만 내보낼 수 있는데 입장을 바꿔서 따라가다 보니까 위험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주체성은 피워내는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었다. 막상 해보면 해볼 만하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끊임없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재미있지 않나. 그걸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공포의 지점으로 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 뒤집어 놓고 보면 공포의 지점이 아니라 즐거운 지점이 될 수 있는 그 지점에서의 공유, 대화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럼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김인규 / 예술가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중)

■ 기록과 관찰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및 활동 안에서 발달장애인의 행동과 자기표현을 세밀하게 관찰, 기록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이와 같은 활동의 구체적 의미가 포착될 수 있음.
- 또한 기록자로서의 매개자의 역할과 관점도 가시화되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틈사이로 활동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자 하셨나요?”

“틈사이로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예술활동 프로그램이다. 틈사이로 활동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서기가 있었다. 그날그날을 기록하는 역할이다. 무슨 연구나 기록물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가 아니라 그날의 소소한 사건 사고, 분위기와 느낌을 적는 것이다.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혹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썼다. 우리가 작업한 내용, 각 창작자들의 컨디션과 그들 간의 관계에도 주목했다. 순전히 내 생각이 담긴 글을 적은 날도 있다. 나는 쓰는 것이 좋았다. 나에게 틈사이로는 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나는 쓰면서 그날의 일들을 되새기고 그러면서 나의 생각도 정리했다.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고혜실 / 틈사이로 창작공방 보조강사, 장애 창작자의 가족 구성원 (서면인터뷰 중)

(3) 환경적 측면

■ 운영규모

- 발달장애인은 독자성, 개별성이 중요하므로 1:1 방식을 포함한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 운영 모델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책적으로 적은 참여자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공식화될 필요가 있음.
- 부득이하게 다수가 참여해야 할 경우에는 강사나 보조자 등을 다수 배치하여 매개자 간의 협력구조가 안정화될 수 있게 해야 함.
- 발달장애인은 새로운 장소에서 어떤 활동을 누군가와 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익숙해지는 데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차시보다는 여유롭고 긴 호흡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공간

- 공간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원활한 조건으로서 보다는 발달장애인이 안정감을 가

질 수 있는 환경으로서 고려되어야 함. 그럴 경우 발달장애인이 공간을 인식하거나 감각하는 요소를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음.

- 발달장애인이 쉬거나 편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지, 불편하게 만드는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활동에 방해로 줄 정도의 특정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발달장애인이 앉는 의자에서 불안정한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등 감각적으로 공간을 재인식해보는 기회가 필요함.
- 발달장애인이 활동 중간에 개별적 시간을 갖거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음.

■ 재료, 도구

- 보통 비장애인의 예술적 표현도구가 발달장애인에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표현이 제한될 수 있고 동시에 비장애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또한 발달장애인이 자기표현의 도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야 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에 있어서는 결과물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이에 따라 재료와 도구가 고려될 수 있어야 함.
- 재료나 도구는 예술적 표현을 위한 필요요소라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의 자기표현을 위한 선택요소라는 관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어떤 재료나 도구가 예술적 활동에 적당할 지라는 관점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표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지의 관점이 필요함.

표현의 범위를 확장하는 재료 및 도구의 방향성

- 1. 결과물보다는 생각하거나 시도해보는 과정 자체가 표현이 될 수 있는 도구
- 2.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거나 못하는 장애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탐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
- 3. 타인과 함께 활용할 때 의미나 즐거움이 더욱 커지는 관계적 도구
- 4. 보통 하나의 감각으로만 인식되었던 표현의 영역을 다른 감각으로도 확장해서 상상하거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출처 : 최선영 외, 『기대하지 않고 표현으로 만나기』, 창작그룹 비기자, 2018, 44쪽

2) 현장 시범운영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안)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요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안)을 제시함. 단, 프로그램(안)은 활동을 구성하는 방향성과 방법을 예시로서 제시하는 목적이 크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 현장의 상황과 발달장애인의 개별성에 따라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관계성, 일상성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프로그램 : 릴레이 나들이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릴레이 나들이	
기획의도	- 발달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집중하거나 지속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활동의 흐름을 구성함. - 예술적 표현보다는 즉흥적 반응과 대화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건들에 집중하며 개별적 행위가 어떻게 지속 또는 변화되는지 살핌.	
인원	3-5명	
매개자 구성	진행자(예술가/기획자/강사) 1-2명, 보조인력 2-3명, 관찰기록자 1명	
진행 방식	- 1회 2-3시간 총 15-20회 - 이동하거나 일상적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감안하여 4-5시간 운영 가능	
구성 및 내용	내용적 측면	- 개별성, 일상적 생활, 행동 특성과의 연계성 : 교육 참여자인 발달장애인이 평소에 자주 가는 곳, 익숙하게 생각하는 장소, 가고 싶어 하는 곳 등을 한 군데씩 나들이하듯 함께 가봄. -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문화생활과 관련된 공간 외에도 어떤 골목, 개인의 방 등을 함께 가보고 특별한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공간의 분위기를 느껴봄.
	방법적 측면	- 관계성 : 참여자 간 서로의 동행을 인식해보는 과정에 집중함. 발달장애인이 지인을 자신의 공간에 초대하거나 함께 머무는 자체를 경험하고 감정을 느끼는 시간을 갖음. 서로의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봄. - 가상의 설정 : 누군가의 '비밀의 장소'에 가보자고 제안하는 등 나들이의 의미를 여러 상황으로 설정하여 제시하고 그 상황에 함께 감정이입을 해봄.

구분	내용	
	환경적 측면	<div>- 참여 규모는 친구들끼리 편하게 나들이를 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교육 참여자와 매개자의 인원을 거의 1:1로 맞춤.</div> <div>- 작은 공간에 여러 명이 방문할 수도 있으므로 소모임 정도의 규모를 유지함.</div>
유의사항	<div>- 매우 일상적인 활동이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매개자 스스로 편안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함</div> <div>-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에게 매회 다른 장소에서 얼마나 다른 것을 느끼고 발견했는지 표현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개별적 경험의 장소를 함께 방문하고 상호 교감하는 자체에 집중해봄.</div>	
프로그램 여건	<div>- 발달장애인이 인지하고 있는 문화공간이나 특히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나 발달장애인이 사는 집근처, 자주 가는 기관, 단체 사무실 주변의 환경과 이웃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장소를 선택함.</div> <div>- 예산은 사전기획비, 인건비, 진행비, 사후 프로그램연구비, 자문비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div>	
기대효과	<div>-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탐색하고 일상과의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분절적인 경험이 아닌 삶의 경험과의 연결을 모색할 수 있음.</div> <div>-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참여자가 이후에 만나는 새로운 일상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관계 맺는 시도를 모색하기를 기대함.</div>	

■ 개별성, 해체된 표현요소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프로그램 : 만남의 리듬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만남의 리듬
기획의도	발달장애인 개인이 매개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표현의 방법을 발견, 시도해봄.
인원	1명
매개자 구성	진행자(예술가/기획자/강사) 1명, 관찰기록자 1명
진행 방식	<div>- 1회 2-3시간 총 25-30회</div> <div>- 1:1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부 활동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에 비해 장시간 진행 가능</div>

구분	내용	
구성 및 내용	내용적 측면	<div>- 해체된 표현요소 : 발달장애인이 예술로 의미화되기 전 어떤 표현요소에 집중하는지 여러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음.</div> <div>-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과 경험이 매개자와의 만남마다 축적될 수 있어야 하며 매개자도 발달장애인의 관심요소나 반응요소를 섬세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함.</div> <div>- 발달장애인의 개별성과 그것과 관련된 표현의 방식이 활동의 흐름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리는지 집중하며 유연한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음.</div>
	방법적 측면	<div>- 반복과 패턴 : 발달장애인이 시각적, 청각적 요소 등을 활용해 특정 행위를 반복하거나 반복을 통한 패턴을 찾고자 할 경우, 반복의 범위를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해봄. 혹은 패턴화된 표현이 갖는 특징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극대화할 수 있는 표현도구를 매개자와 함께 사용해봄.</div> <div>- 속도 : 발달장애인 개인과의 활동에서는 개인의 속도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음. 예를 들어 2시간 내내 어떤 소리를 들어보거나 몇 회의 만남 동안 한 장의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음.</div>
	환경적 측면	<div>- 재료, 도구 : 발달장애인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표현요소나 방법을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재료나 도구를 선택할 수 있음. 이때 전문적인 예술도구가 아닌 일상 속 물건, 도구도 적극 검토될 수 있음.</div> <div>-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부드러운 실을 어딘가에 감는 행위에 집중한다면 ‘부드러움’이 가장 두드러진 실이나 끈을 표현도구로 선택해볼 수 있음. 혹은 여러 촉감의 실이나 끈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음.</div>
유의사항	<div>- 너무 자세한 계획을 하지 않고 만남 자체가 만들어내는 흐름, 리듬을 내용으로 구성해나가는 것이 가능함. 매회 만남마다 예술 행위로 의미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div> <div>- 발달장애인과 매개자가 만남에 집중하며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관찰기록자가 매회 동행하기보다는 매개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만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음.</div>	
프로그램 여건	<div>- 발달장애인이 친숙한 공간이거나 1:1 프로그램의 특성상 예술가의 공간을 선택함.</div> <div>- 예산은 사전기획비, 인건비, 진행비, 사후 프로그램연구비, 자문비 등으로 구성함.</div>	
기대효과	<div>- 비(非)발달장애인의 관점에서 설계된 프로그램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관심과 취향을 중심으로 활동을 모색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개별성이 녹여진 표현방식을 발견함.</div> <div>-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매개자와의 신뢰와 소통의 원활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정체성을 지지하고 자기 변화의 방식을 탐색함.</div>	

■ 비언어적 요소, 놀이를 중심으로 설계한 프로그램 : 이름 없는 놀이 속으로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이름 없는 놀이 속으로	
기획의도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감각하는 경험에 집중하며 직관적이고 독자적인 표현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인원	5-7명	
매개자 구성	진행자(예술가/기획자/강사) 1-2명, 보조인력 2-3명, 관찰기록자 1명	
진행 방식	1회 2-3시간 총 25-30회	
구성 및 내용	내용적 측면	- 비언어적, 직관적 요소 : 발달장애인이 직관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을 구성해봄. - 예를 들어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활동을 긴 시간동안 집중해서 해볼 경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무너지는 재료들을 선택하여 무너지는 소리가 극대화되는 장소에서 활동을 시도할 수 있음.
	방법적 측면	- 놀이 : 비언어적, 직관적 요소가 극대화된 활동은 다소 무질서하고 혼잡한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행자의 기준이 명확히 필요하며 그 기준을 자연스럽게 가시화할 수 있는 요소로 놀이가 등장할 수 있음. - 놀이의 규칙이나 방법이 활동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게 구성할 수 있음.
	환경적 측면	- 환경 : 발달장애인이 직관적 요소를 충분히 감각하고 놀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넓고 여유로운 공간, 휴식이 가능한 공간 등이 필요함. 실컷 몸을 움직여보고 재료를 어질러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유의사항	- 발달장애인이 무언가를 표현해내야 하는 입장이 되기보다는 스스로 감각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봄으로써 천천히 표현의 의지를 가질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활동이나 행위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진행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필요함.	
프로그램 여건	- 발달장애인이 친숙한 공간으로 넓은 장소를 선택함. - 예산은 사전기획비, 인건비, 진행비, 사후 프로그램연구비, 자문비 등으로 구성함. - 프로그램의 성격 상 사전 기획된 내용이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기대효과	- 비언어적이며 무정형 혹은 비정형의 활동이 주는 상상력을 표현하고, 놀이 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혹은 참여자 간의 규칙과 방법을 만드는 경험을 함. - 발달장애인 스스로 외부와 규칙을 만드는 경험을 통해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
------	--

■ 삶의 장소,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설계한 프로그램 : 핑-퐁 스튜디오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핑-퐁 스튜디오	
기획의도	-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이 하나의 공간에서 핑퐁하듯 상호적으로 경험하는 사건과 관계를 축적함. 문화적 환경, 예술적 요소, 표현적 방법은 활동의 주제가 되기보다 참여자 간 상호적 만남의 매개체가 됨. - 장애인과 비(非)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 가능함.	
인원	5-7명(장애, 비장애 통합)	
매개자 구성	진행자(예술가/기획자/강사) 1-2명, 보조인력 2-3명, 관찰기록자 1-2명	
진행 방식	1회 3시간 총 25-30회 (60회 이상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권장)	
구성 및 내용	내용적 측면	- 개별성, 일상적 생활, 행동 특성과의 연계성 : 장애인과 비(非)장애인이 각자의 관심사, 욕구, 표현언어 등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의 지속 자체가 활동의 중심이 됨. 무엇을 할 지를 미리 계획하기보다 각자의 안정된 자리, 공간을 확보하고 함께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냄. - 평소의 취미활동을 각자의 공간 또는 공동의 공간에서 하기도 함.
	방법적 측면	- 관계, 속도 : 관계성이 생기면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을 의논하여 정함. 관계성이 생기기 위한 넉넉한 시간을 함께 보냄. 여기에는 각자의 속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놀이 : 어떤 날은 단순하거나 익숙한 놀이를 함께 해볼 수 있음. 혹은 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연극적 놀이나 역할 놀이처럼 진행해볼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누가 차를 마시면 그다음에 누가 음악을 재생하고 그다음에 누가 종이를 가져오는 등 놀이적 규칙을 바탕으로 관계성을 만들어나갈 수도 있음.
구성 및 내용	환경적 측면	- 환경 : 창작이나 표현활동에 적합한 환경이라기보다는 대화하거나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데 자연스럽게 편안한 환경이 필요함. 친구들과 만나는 아지트 공간, 모여서 놀기 좋은 공간 등의 상상이 필요함.

구분	내용	
구성 및 내용	환경적 측면	- 재료, 도구 : 관계를 바탕으로 안정감이 형성되었을 때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표현 도구를 접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따라 기본적인 드로잉 도구, 간단한 소리 도구, 필기도구 등이 상시적으로 비치될 필요가 있고 추후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료를 준비할 수 있음. 재료나 도구도 미리 세세하고 전문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유연한 기획이 필요함.
유의사항	- 참여자 간 공간과 시간의 공유 자체가 문화예술적 의미이자 활동의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관찰기록자가 진행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기록의 방향성을 논의한 후 진행함. -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본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운영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프로그램 여건	- 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곳으로 궁리와 모색이 가능한 유연한 장소를 선택함. - 예산은 사전기획비, 인건비, 진행비, 사후 프로그램연구비, 자문비 등으로 구성함.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과 비(非)발달장애인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다양한 감각과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다.	

참고문헌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 연구

참고문헌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미셸 푸코(M. Foucault), 『광기의 역사』, 나남출판, 2003

박신의, 장웅조, 이민하, 「사회적 배제의 인식과 극복으로서의 ‘포용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이론적 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소, 2020

조현성,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주영하, 박미진, 「국내외 발달장애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0

---, 「2020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안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2020

---, 「2020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안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20

---,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0

류승완 외, 「2019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연계 ‘작은연구’-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목표 1.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박근화, 한정임,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박신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기초연구」, 경희대학교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19

최선영, 「2019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지원 및 FA 역량 개발방안 연구」, 서울문화재단, 2019

최혜자, 「경기형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연구」, 경기문화재단, 2019

---, 「꿈틔움 예술창작소 1:1 멘토링지원사업 결과자료집 - 행복한 여정」, 서울특별시, 2019

---, 「발달장애인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9

---, 「발달장애인 대상 릴렉스드 연극 공연(Relaxed Performance) 개발 2019년 사업 - 발달장애를 만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 , 「2019 서울문화재단 장애아동·청소년 예술교육사업 아카이빙북」, 서울문화재단, 2019
- 권재윤, 이소미, 오윤선,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 한국여성체육학회, 2018
- 김수진, 「해외 포용도시 정책 동향과 사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8
- 서원선,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 법제 비교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 주윤정, 「2018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8
- 주윤정, 「2018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 최도인,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조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초조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 최선영 외, 『기대하지 않고 표현으로 만나기』, 창작그룹 비기자, 2018
- 최혜자,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2018
-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문화체육관광부, 2018
- , 「새예술정책(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2018
- ,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8
-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관계부처 합동, 2018
-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치료 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 김성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문정호, 「포용도시 등장배경과 의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7
- 김삼섭 외, 『양육길라잡이- 발달장애 양육지식정보』, 국립특수교육원, 2016
- 전병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주윤정, 「장애문화예술교육연구 : 정형과 비정형의 교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 전병태, 「장애인 예술 장르별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 「2014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 방귀희,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13
- 윤민석,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13
- 한승준,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 경 개선사업 결과자료집-문화다양성 포럼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의 현주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 김효정,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김홍규, 「장애인 문화예술실태 및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주윤정,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 최재성, 「2011 전국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욕구조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1
- 전병태,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 「해외동향분석-장애인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오세곤,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애니씨어터 프로그램 개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
- 백령, 「장애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2007
- 전병태,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 정갑영, 「장애인 문화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2007
- 백령,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2005
- 프렌치 & 레이븐, 「The Bases of Social Power」, 1959
- 박치완, 「사회적 정상성의 희화 또는 극복-〈세 얼간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제45집, 2012
- 최선영, 「2020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특성화지원사업 〈발달장애 보호자를 위한 문화예술워크숍 ‘갈치살롱’〉 연구모임」 회고록, 비기자 티스토리
- , 2020 충북문화재단 장애예술 매개 온라인 포럼 “매개자의 자기질문 : 어디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나” 녹취록, 내부자료
- 김상민,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적 접근으로서의 포용도시 : World Bank와 OECD의 사례」
- , 「국제 여성정책 트렌드 : UN을 중심으로 본 글로벌 정책 담론」, 한국여성단체연합 글로벌 젠더정책 브리프, 2018
- 제임스 콘로이, 「미국의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거주」, 2015 장애인정책 국제포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내부자료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도시예술파트너십 <https://www.urbanarts.org/ease>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서울대학교 병원 홈페이지 <http://www.snuh.org/>

서울특별시 어린이 병원 홈페이지 <https://childhosp.seoul.go.kr/>

스윙 블로그 <http://garden.swing-npo.com>

스윙 홈페이지 <http://www.swing-npo.com/>

아틀리에 코나스 홈페이지 <http://corners-net.com>

야마나미 공방 홈페이지 <http://a-yamanami.jp>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broso.or.kr/cmm/main/ViewLoginPage.do>

- 창작그룹 비기자 티스토리 <https://bigija.tistory.com/124>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c.ca/eng/index.html>
 케네디센터 홈페이지 <https://www.kennedy-center.org>
 플랜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lanQinSeoul/>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arte.or.kr/>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ieum.or.kr/main/view>
 현대아산병원 홈페이지 <http://www.amc.seoul.kr/asan/main.do>
 호주 레치온 홈페이지 <https://www.latch-on.net/what-is-latch-on/>
 호주 연방 입법 등록부 홈페이지 <https://www.legislation.gov.au/Home>